

한국의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Basic research on how to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in Seowon)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for Korean Seowon

정책연구 2023.07

한국의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Basic research on how to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in Seowon)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for Korean Seowon

# 제 출 문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귀하

본 보고서를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 수행기관 : (주)비경
- 책임연구원 : 방미영(서경대학교 교수)
- 참여연구원
  - 연구원 : 이건웅(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연구원 : 태지호(안동대학교 교수)
  - 연구원 : 이재민(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원 : 방진원(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연구소 연구원)
  - 연구원 : 조장연(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단장)
  - 연구원 : 안우리(스토리하우스 대표)

##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6
1. 연구 범위 .....	6
2. 연구 및 설문 방법 .....	8
제2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13
제1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	13
1. 세계유산.....	13
2.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	17
3. 서원과 구곡문화 .....	19
제2절 한국의 9개 서원 .....	21
1. 영주 소수서원 .....	21
2. 함양 남계서원 .....	23
3. 경주 옥산서원 .....	25
4. 안동 도산서원.....	27
5. 장성 필암서원.....	29
6. 달성 도동서원.....	31
7. 안동 병산서원.....	33
8. 정읍 무성서원 .....	35
9. 논산 돈암서원 .....	37
제3절 서원 행정구역과 문화관광자원 .....	39
1. 소수서원과 영주시 .....	40
2. 남계서원과 함양군 .....	42
3. 옥산서원과 경주시 .....	44
4. 도산서원과 안동시 .....	46
5. 필암서원과 장성군 .....	48
6. 도동서원과 달성군 .....	50
7. 병산서원과 안동시 .....	52
8. 무성서원과 정읍시 .....	54
9. 돈암서원과 논산시 .....	56



제3장 지역공동체와 경제활동 활성화 .....	59
제1절 문화관광과 경제활동 .....	59
1. 영주 소수서원 .....	61
2. 함양 남계서원 .....	65
3. 경주 옥산서원 .....	72
4. 안동 도산서원 .....	76
5. 장성 필암서원 .....	80
6. 달성 도동서원 .....	83
7. 안동 병산서원 .....	86
8. 정읍 무성서원 .....	88
9. 논산 돈암서원 .....	99
10. 해외 지역공동체 성공 사례 .....	102
제2절 서원의 교육 활동과 콘텐츠 확산 .....	106
1. 세계유산축전 .....	108
2. 서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	115
3. 서원스태이 .....	117
4. 문화역사마을가꾸기 .....	120
5. 국내 성공 사례: 월봉서원 .....	122
4장 서원과 지역공동체 .....	125
제1절 지역+마을+공동체의 개념 .....	125
1. 공동체의 정의 .....	125
2. 지역공동체 .....	127
3. 마을공동체 .....	129
제2절 지역공동체의 유형과 활용 .....	132
1.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유형 .....	133
2.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	135
제3절 서원과 지역공동체 사례 .....	138
1. 옥산서원 세심마을 .....	138
2. 도산서원과 군자마을과 예끼마을 .....	141
3. 도동서원과 대구 달성군 .....	145
4. 무성서원과 원촌마을 .....	148
5. 기타 서원 지역 지역공동체 사례 .....	153
5장 심층인터뷰(FGI) 연구설계 및 결과분석 .....	155
제1절 면접방식 설계 및 방법 .....	155

1. 연구 방식 선정 .....	155
2. 연구 장소 및 대상자 선정 .....	156
3. 인터뷰 질문지 설계 .....	158
제2절 서원의 보존 측면에서의 분석 .....	161
1.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	161
2. 서원 관계자의 의견 .....	162
3.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	164
4. 서원 해설사의 의견 .....	165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	167
제3절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의견 분석 .....	168
1.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	168
2. 서원 관계자의 의견 .....	170
3.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	172
4. 서원 해설사의 의견 .....	173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	175
제4절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 분석 .....	176
1.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	176
2. 서원 관계자의 의견 .....	178
3.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	180
4. 서원 해설사의 의견 .....	181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	183
 제6장 설문조사 연구설계 및 결과분석 .....	 185
제1절 연구 설계 .....	185
1. 분석 방법 .....	185
2. 자료와 분석 .....	187
3. 연구 모형 .....	188
4. 해석 방법 .....	189
제2절 기초 통계량 .....	191
1. 응답자별 기초 특성 .....	191
2. 서원별 기초 특성 .....	192
제3절 서원 전체 특성 분석 .....	193
1. 응답자 특성 .....	193
2. 성별 특성 .....	195
3. 연령별 특성 .....	196
4. 학력별 특성 .....	197

5. 거주기간별 특성 .....	198
6.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 특성 .....	199
7. 서원별 활성화 시급 과제 인식 특성 .....	200
제4절 응답자 전체 특성 분석 .....	201
1. 성별 특성 .....	201
2. 연령별 특성 .....	202
3. 학력별 특성 .....	203
4. 거주기간별 특성 .....	204
5.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 특성 .....	205
6. 서원별 활성화 시급 과제 인식 특성 .....	206
제5절 서원별 분석 결과 .....	207
1. 차원별 항목의 정의 .....	207
2. 소수서원 분석 결과 .....	208
3. 남계서원 분석 결과 .....	211
4. 옥산서원 분석 결과 .....	214
5. 도산서원 분석 결과 .....	217
6. 필암서원 분석 결과 .....	220
7. 도동서원 분석 결과 .....	223
8. 병산서원 분석 결과 .....	226
9. 무성서원 분석 결과 .....	229
10. 돈암서원 분석 결과 .....	232
제6절 소결 .....	235
1. 영주 소수서원 .....	235
2. 함양 남계서원 .....	236
3. 경주 옥산서원 .....	237
4. 안동 도산서원 .....	238
5. 장성 필암서원 .....	239
6. 달성 도동서원 .....	240
7. 안동 병산서원 .....	241
8. 정읍 무성서원 .....	242
9. 논산 돈암서원 .....	243
제7장 결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45
제1절 서원 지역공동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245
1. 서원 지역공동체의 문제점과 한계 .....	245
2. 서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	248

3. 지역공동체에서 지역문화공동체로 전환.....	254
제2절 지역공동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제언 .....	258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258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259
3. 서원의 활성화 전략.....	261
제3절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원 조성 .....	263
1. 지역공동체 자원 활성화 방안.....	263
2. 자원 조달.....	266
3. 기대효과.....	268
참고문헌 .....	270
부록 .....	273
부록 1: FGI 설문조사 요약 .....	274
부록 2: FGI 설문조사 .....	289
부록 3: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	292

## 표 번호

<표 1-1> 역사문화자원 정의	001
<표 1-2> 유네스코 선정 서원 9곳	006
<표 1-3> 서원별 FGI 및 설문 대상자 구성 및 비중	008
<표 2-1> 9개 서원의 주소	039
<표 2-2> 안동시의 유형별 문화유산	047
<표 3-1> 소수서원 선비마을 체험촌 조성 추진 경과	061
<표 3-2> 2022~2023 인문학강좌 및 문화체험	068
<표 3-3> 남계서원 인문학강좌와 문화체험 내용	069
<표 3-4> 병산서원 세부 추진계획	087
<표 3-5> 학술대회 주요 내용	088
<표 3-6> 무성서원 1차 둘레길	095
<표 3-7> 무성서원 둘레길 주요 문화재	96~97
<표 3-8> 주민자치 프로그램교실 운영(2023)	099
<표 3-9> 서원 활용 교육 및 콘텐츠	106~107
<표 3-10> 2021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운영 및 공모	108
<표 3-11> 문화유산축전 개요	109~111
<표 3-12> 서원 관련 문화유산축전	112~113
<표 3-13> 주요 서원 주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115~116
<표 3-14>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지정	120
<표 3-15> 월봉서원 운영 내용	122
<표 4-1> 지역공동체의 정의	127
<표 4-2> 마을공동체의 성격과 사업에 따른 분류	131
<표 4-3> 마을공동체 유형과 내용	133
<표 4-4>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교	135
<표 4-5> 경주 옥산 세심마을 현황	139
<표 4-6> 경주 옥산 세심마을 현황	140
<표 4-7> 안동 군자마을 정비사업	141
<표 4-8> 도동서원 협동조합 프리마켓 사례	145~146
<표 4-9> 무성서원과 원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48~149
<표 4-10> 칠보면 원촌마을 정비사업	151
<표 4-11> 서원 인근 마을 기업 분포	153~154
<표 5-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56
<표 5-2> 9개 서원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	157
<표 7-1> 한국 서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	248

<표 7-2> 서원과 지역공동체 연계 사업 .....	250
<표 7-3> 한국 서원의 기본 편의 시설 .....	250
<표 7-4> 한국 서원의 주차장 현황 .....	251
<표 7-5> 인력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개발 비용 .....	258
<표 7-6> 문화자원화 개발 예산 .....	260
<표 7-7> 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예산 .....	260

## 그림 번호

<그림 1-1> 한국의 서원 9곳의 위치.....	007
<그림 1-2> FGI 실시 이전 연구모형.....	011
<그림 1-3> FGI 실시 이후 연구모형.....	011
<그림 2-1> 세계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분류.....	014
<그림 2-2> 세계유산, 한국의 9개 서원.....	017
<그림 2-3> 소수서원 배치도와 풍경.....	022
<그림 2-4> 남계서원 배치도와 풍경.....	024
<그림 2-5> 옥산서원 배치도와 풍경.....	026
<그림 2-6> 도산서원 배치도와 풍경.....	028
<그림 2-7> 필암서원 배치도와 풍경.....	030
<그림 2-8> 도동서원 배치도와 풍경.....	032
<그림 2-9> 병산서원 배치도와 풍경.....	034
<그림 2-10> 무성서원 배치도와 풍경.....	036
<그림 2-11> 돈암서원 배치도와 풍경.....	038
<그림 2-12> 돈암바위.....	038
<그림 2-13> 영주시와 순흥면.....	042
<그림 2-14> 함양군와 수동면.....	044
<그림 2-15> 경주시와 안강읍.....	046
<그림 2-16> 안동시와 도산면.....	048
<그림 2-17> 장성군 황룡면.....	050
<그림 2-18> 달성군 구지면 지도.....	052
<그림 2-19> 안동시 풍천면 지도.....	054
<그림 2-20> 정읍시 칠보면 지도.....	056
<그림 2-21> 논산시 연산면 지도.....	058
<그림 3-1> 서원과 관련있는 주요 관광행사.....	060
<그림 3-2> 소수서원.....	063
<그림 3-3>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도.....	064
<그림 3-4> 선비문화탐방로.....	066
<그림 3-5> 개평한옥마을 지도와 전경.....	070~071
<그림 3-6> 옥산서원과 세심마을.....	074
<그림 3-7> 옥산서원과 세심마을 둘레길.....	075
<그림 3-8> 퇴계 귀향길 700리.....	076
<그림 3-9>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079
<그림 3-10> 필암서원 포스터.....	080

<그림 3-11> 필암서원 인근 카페, 슈퍼마켓 등.....	082
<그림 3-12>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도동유교역사지구 개발 조감도.....	084
<그림 3-13> 병산서원 스테이 포스터.....	086
<그림 3-14>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모형도.....	090
<그림 3-15> 태산선비문화권 한나절 코스.....	092
<그림 3-16> <칠광도> 문화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094
<그림 3-17> 무성서원 둘레길.....	095
<그림 3-18> 돈암서원 전경.....	100
<그림 3-19> 리버풀의 엘도니안 지도와 도시풍경.....	103
<그림 3-20> 도쿄 세타가야구 지도와 도시풍경.....	104
<그림 3-21> 문화유산축전 포스터 및 전경.....	114
<그림 3-22> 경유형 서원스테이와 한옥스테이의 지속관리 체계.....	118
<그림 3-23> 체류형 서원스테이와 한옥스테이의 지속관리 체계.....	118
<그림 3-24>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 전략.....	121
<그림 3-25> 월봉서원 서원 운영 체계 시스템.....	123
<그림 4-1> 예끼마을 인근 문화관광 자원.....	142
<그림 4-2> 도산서원 코스.....	143
<그림 4-3> 예끼마을 전경.....	143
<그림 4-4> 도동폴리마켓.....	146
<그림 4-5> 도동서원 인근 지역공동체 운영 상점들.....	147
<그림 4-6> 원촌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도.....	150
<그림 4-7> 원촌마을 주민과 협의 및 문제 발생 처리 프로세스 .....	150
<그림 4-8> 원촌마을과 두부협동조합 .....	152
<그림 4-9> 서원 인근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	154
<그림 6-1> 연구모형.....	188
<그림 6-2> 4-사분면 상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자원 재분배.....	190
<그림 6-3> 소수서원 응답자별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시각화.....	209
<그림 6-4>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10
<그림 6-5> 남계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212
<그림 6-6>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13
<그림 6-7> 옥산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215
<그림 6-8>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16
<그림 6-9> 도산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218
<그림 6-10>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19
<그림 6-11> 필암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221
<그림 6-12>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22
<그림 6-13> 도동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224



<그림 6-14>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25
<그림 6-15> 병산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227
<그림 6-16>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28
<그림 6-17> 무성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	230
<그림 6-18>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31
<그림 6-19> 돈암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233
<그림 6-20>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234
<그림 7-1> 지역공동체의 한계와 활성화 .....	247
<그림 7-2> 9개 서원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효과.....	249
<그림 7-3> 서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253
<그림 7-4> 지역문화공동체의 범위.....	254
<그림 7-5> 지역문화공동체의 발전 과정.....	255
<그림 7-6> 서원 활성화 방안 .....	263
<그림 7-7> 지역공동체 재원 활성화 .....	264
<그림 7-8> 서원의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전략.....	266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까지 총 9곳으로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2019년 6월 3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국의 9개 서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은 세계의 각 정부와 문화유산 전문가들을 통하여 설립된 국제적 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기구로 유네스코(UNESCO)와 이코모스(ICOMOS)를 들 수 있으며, 1931년 「아테네 헌장」을 시작으로 「베니스 헌장」, 「플로렌스헌장」, 「워싱턴 헌장」, 2000년 이후 「발레타 원칙」 등이 있다. 아래는 주요 기관의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 역사문화자원 정의

단체 · 기관	개념 정의
이코모스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니스 헌장에서 정의</li> <li>•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 역사적 기념물</li> </ul>
유네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통하여 정의</li> <li>•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향후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 할 자산</li> </ul>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에서 정의</li> <li>• 문화재의 외연을 둘러싼 민족자산이며,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무형의 자산’으로 보호·관리되거나 계승·발전시켜야 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li> </ul>

1) ICOMOS는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라는 국제기구의 정식 명칭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으로, ‘이코모스’라고 읽는다. 한국에서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라고도 부른다(이코모스 한국위원회, <https://www.icomos-korea.or.kr/>)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통하여 유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향후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 할 자산’으로 정의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은 유산의 개념을 ‘문화유산’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외연을 둘러싼 민족자산이며,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무형의 자산으로서 보호·관리되거나 계승·발전시켜야 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문화자원은 문화적 자산의 가장 큰 범주로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일컫는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기초가 되었던 성리학 교육을 증진하는 교육기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증거다. 서원에서 향촌 지식인들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유형적 구조물들을 창조한다. 성리학 경전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서원은 향촌사회의 선현들을 제향하고, 제향인물을 통해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향촌 지식인들은 이 유산을 기초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활동들을 통해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데 기여한다.<sup>3)</sup>

서원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문화단체, 민간에서 서원을 소재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는 퇴계 이황과 관기 두향의 사랑 이야기를 뮤지컬로 승화한 <퇴계연가-매향>으로 콘텐츠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경상북도는 유교문화권의 9개 자치단체(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와 안동문화방송(주)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세계유교문화재단을 통해 공동으로 문화사업을 진행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활용한 선비문화 진흥을 정책적으로 시행한다. 전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한옥마을의 역사와 공공디자인에 스토리텔링 하여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만들기를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11월 15일 30여 가족 100여 명이 5주 걸쳐 참여하는 과정이다.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선비문화를 관광자원화 한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한옥마을과 선비문화의 역사성에서 근거하기 위함이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건립되는 충청유교문화원과 안동시 성곡동에 조성된 유교랜드는 유교를 관광문화의 차별화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한다. 문화재청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명을 통해 전통문화의 정체성과 서원의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경제적 활성화의 핵심은 관광에 있다. 문화유산을 관광의 매개 수단으로 하여 지역 및 국가의 경제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은 문화유산에 내재한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정신적 풍요로움을 고양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공급자인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공개 및 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장료 등의 직접적 수입과 음식, 숙박, 쇼핑을 통한 간접적 수입 확대를 주민과 지역, 그리고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 재정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2)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7, 15쪽.

3)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문화유산의 수요자인 관광객은 기분전환이나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환경과 접촉함으로써 풍부하고 고품질의 경험과 교양을 축적한다. 문화유산관광이란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며 또한 방문객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문화와 관광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고 상충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개 발전하여 왔다.<sup>4)</sup>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트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sup>5)</sup>

- ① 상호 협력하라(Collaborate)
- ② 지역사회와 관광에 적합한 자원을 발굴하라(Find the Fit)
- ③ 유적지와 프로그램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라(Make Sites/Programs Come Alive)
- ④ 관광상품의 질과 문화재의 진정성에 중점을 두어라(Focus on Quality and Authenticity)
- ⑤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여라(Preserve and Protect)

---

4)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7, 56쪽.

5)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7, 57쪽.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지역공동체다. 지역공동체는 행정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군 이하 또는 군에서 읍을 제외한 면 단위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파악한다. 아니면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인구 20,000명 이상의 집단취락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농촌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에 따라 그 의미는 다원화·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사전적 의미로 농촌을 정의하는 것은 그 명료함에 한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최근 ‘농촌’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으로 정의한다. 또한, 지역 개발은 읍면 단위 이상에서 소규모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대상을 범위로 구분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와 동일시하면서도 개념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공동체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community’란 ‘common’ 또는 ‘communal’과 ‘unity’의 합성어로 공동, 공동체제, 공동소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community’는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주민참여 조직 또는 결사체의 개념에 있어서 ‘지역사회(local society, neighborhood)’와 ‘공동체(communitiy)’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마을(Village)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즉, 교리, 동리, 방리, 방촌, 이락, 이항, 촌, 촌락, 촌리, 향보 등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벌, 마을, 고을 등의 순수 우리말과 한자로 표기된 읍락, 촌락, 부락, 취락 등이 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sup>6)</sup>

학문적 용어인 취락의 경우, 취(聚)의 어의는 “회(會)”(한 곳에 모인다는 뜻)와 “렴(斂)”(축적하거나 수렴한다는 뜻)에 있고, 락(落)의 어의 역시 “모여 살고 있는 곳”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이 군집하여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특정 장소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마을의 개념은 인가를 구성단위로 보고 인가가 집합된 촌내로 한정시키는 협의의 마을과 인가를 주축으로 하여 주변에 배치되고 있는 부속건물, 경지, 도로, 수로, 공지, 울타리 등 정주 공간 전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마을이 있다.

전통적인 정주 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은 농민들의 자족적 생활권인 동시에 독자적이고 통일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촌마을은 공동체적인 속성과 관련된 동족 관계나 근린관계로 얽힌 가족을 단위로 구성되어져 왔다. 공간 형태적으로는 많은 수의 촌락이 집촌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폐쇄성과 고립성을 내재하고 있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지역의 특성에 적합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한 농촌마을로 성장했고, 그 안에서 공동체 형성되었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26항 현행 전략목표(5Cs)<sup>7)</sup> 중 다섯 번째에서 ‘공동체 역할 증대’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26항 현행 전략목표(5Cs라고도 함)는 다음과 같다.<sup>8)</sup>

- ① 세계유산 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 강화
- ②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 보장
- ③ 당사국의 효과적인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 촉진
- ④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세계, 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참여와 지지 향상
- ⑤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Communities)의 역할 증대”

세계유산위원회의 전략목표(신뢰, 보존, 역량증대,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중 하나 이상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각 서원 별 인근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 개발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했다.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3년 주요 정책(사업) 방향

- 비 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증진
- 목 표: 지속가능한 연속유산(9개 서원)의 통합관리 및 활용
- 과 제: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 및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전략목표 이행

7) 「세계유산협약이행을위한운영지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2018, 26~27쪽.

8) The current Strategic Objectives (also referred to as “the 5 Cs”) are the following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 연구 범위

2023년 전국의 서원은 서울·경기 28곳, 충청권 48곳, 전라권 127곳, 경상권 289곳, 강원권 9곳, 제주에는 없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서원은 더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서원 501곳은 대부분은 경상권과 전라권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501곳의 서원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인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 총 9곳으로 한정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곳의 ‘한국의 서원’은 서원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단위의 마을 권역을 지역공동체로 중심으로 문헌 방식과 일반설문 방식, 심층 설문 방식을 병행한다. 서원이 속한 행정마을 단위로 서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역공동체 활용 방안과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표 1-2〉 유네스코 선정 서원 9곳<sup>9)</sup>

이름	건립연도	인물	소재지
영주 소수서원	1543년	안 향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함양 남계서원	1552년	정여창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경주 옥산서원	1572년	이언적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동 도산서원	1574년	이 황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장성 필암서원	1590년	김인후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달성 도동서원	1605년	김광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안동 병산서원	1613년	류성룡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정읍 무성서원	1615년	최치원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논산 돈암서원	1634년	김장생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9)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공동체는 오랜 역사와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 박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개념이 있어 이를 규정하고,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를 구분하거나 혹은 병행해서 활용한다. 지역공동체는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권역을 구분해 분석한다. 마을에 전승되는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측면을 분석한다. 마을공동체는 문화예술 분야 등 특정 영역의 인적자원과 신앙, 음식, 풍습 등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림 1-1〉 한국의 서원 9곳의 위치



## 2. 연구 및 설문 방법

### 1) 서원 보존 및 지원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관련 법률 중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만 분리 검토한다.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성균관 향교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및 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용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FGI를 실시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두 지원보다는 ‘보존과 보호를 위한 개인의 제한’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고찰은 제외한다.

### 2)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원 인근지역 주민인식 조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 참여 여부 및 의향, 효과성 등의 내용 포함한다.

○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설문 실시

– 심층인터뷰는 서원 인근 지역민, 서원관계자, 해당 지자체 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각 2명씩 인터뷰를 진행한다.

〈표 1-3〉 서원별 FGI 및 설문 대상자 구성 및 비중

NO	대상	FGI(명)	설문(명)	비중(%)
1	서원 인근 지역민	2	20	33.3
2	서원관계자	2	20	33.3
3	해당 지자체 공무원	2	4	6.7
4	문화관광해설사	2	12	20.0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2	4	6.7
총계		10	60	100

○ 설문 실시

–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3) FGI 설문 문항 구성

#### (1) 심층 인터뷰 설문 문항 1차 설계

서원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서원의 보존,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 서원보존 측면

질문-1: 서원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질문-2: 서원이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3: 현재 서원을 운영하는 단체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서원운영 측면

질문-4: 서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질문-5: 서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6: 서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7: 서원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서원관리 측면

질문-8: 서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고려하고 있나요?

질문-9: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10: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원의 보존과 문화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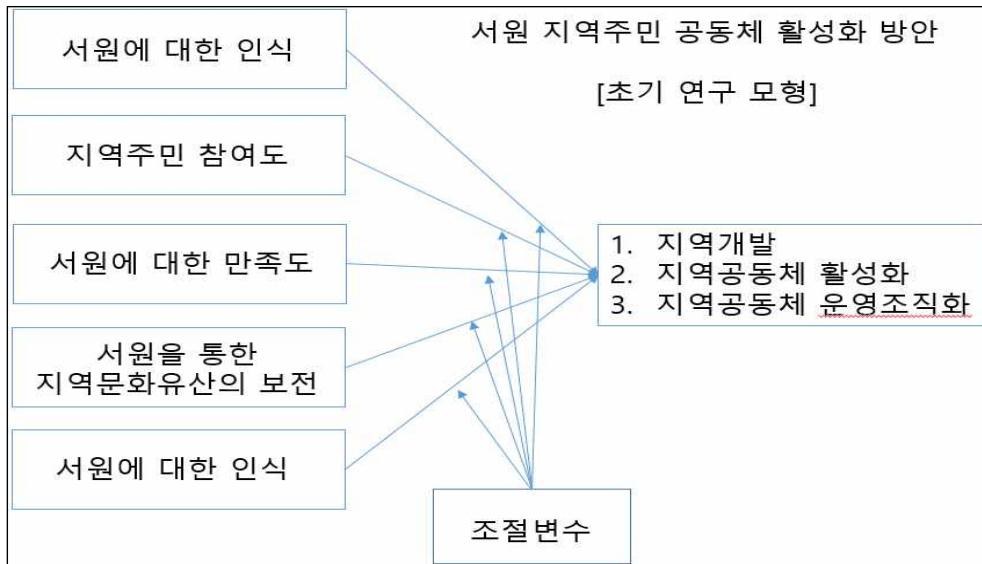
#### (2) 심층 인터뷰 설문 문항 2차 설계

1차 설계에서 미진하였던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을 적용하였으며, 큰 분류로는 서원 보존 (Preservation) 방안, 서원 관리 및 운영(Management & Operation) 방안, 서원지역공동체 활성화(Vitalization) 방안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2차 설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세부적인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FGI 응답에 대한 분석은 [부록-1]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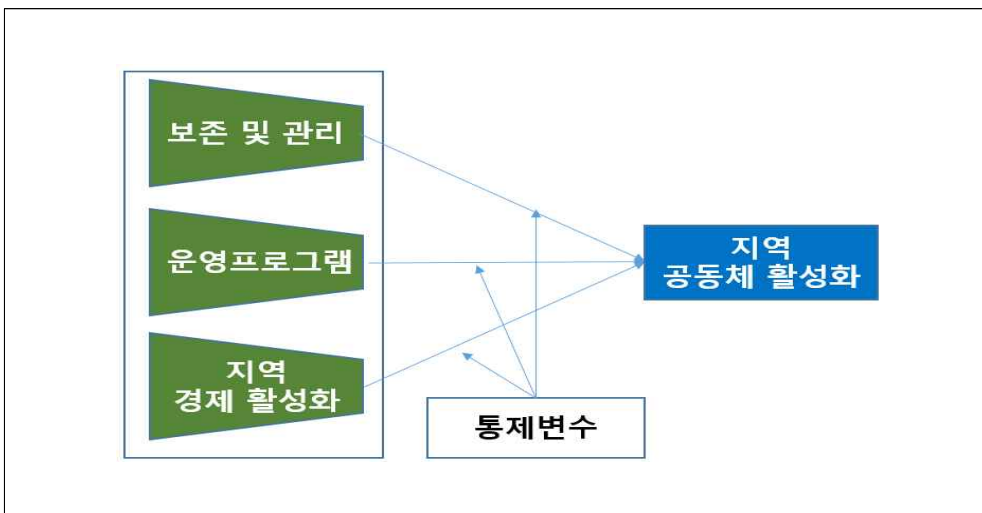
- [질문-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9개 서원) 중 한국의 서원은 다른 서원과 어떠한 다른 강점 혹은 차별점이 있는가요? 긍정적인 측면을 자랑해 주세요?
- [질문-2] 귀하의 서원은 지역에 큰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지방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 [질문-3] 귀하의 서원이 마을(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지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에 실제로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지요?
- [질문-4] 귀하의 서원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외부인, 외국인 등 다양한 관광객에게 바라는 점은 있는지요?
- [질문-5] 귀하의 서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해 무엇을 배우며,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요인은 무엇입니까?
- [질문-6] 귀하의 서원이 지역의 문화(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질문-7] 현재 귀하의 서원을 운영하는 단체(지역공동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는?
- [질문-8] 귀하의 서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질문-9] 귀하의 서원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률, 정책, 재정 지원 등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자체와 중앙 정부 등 각 주체 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10] 귀하의 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또,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질문-11] 귀하의 서원 발전은 지역민과의 공존과 상생,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과 서원 간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좋은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소풍이나 백일장, 기타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는지요?
- [질문-12]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귀하의 서원 보존과 문화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나요?
- [질문-13] 본 조사는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협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귀하의 서원이라는 좋은 유형의 콘텐츠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4) 연구모형 개발

〈그림 1-2〉 FGI 실시 이전 연구모형



〈그림 1-3〉 FGI 실시 이후 연구모형





## 제1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 1.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의 역사는 195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이집트는 매년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댐공사를 진행했고, 수장될 지역에 남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한다. 1959년 이집트와 수단 정부의 공식적 요청에 의해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 기금 마련을 통해 해당 유산을 고지대로 옮기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성공했다. 50개국의 참여로 모금된 금액은 미화 8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기금을 통해 아부 심벨 사원을 비롯한 누비아 유적은 해체되어 고지대로 옮겨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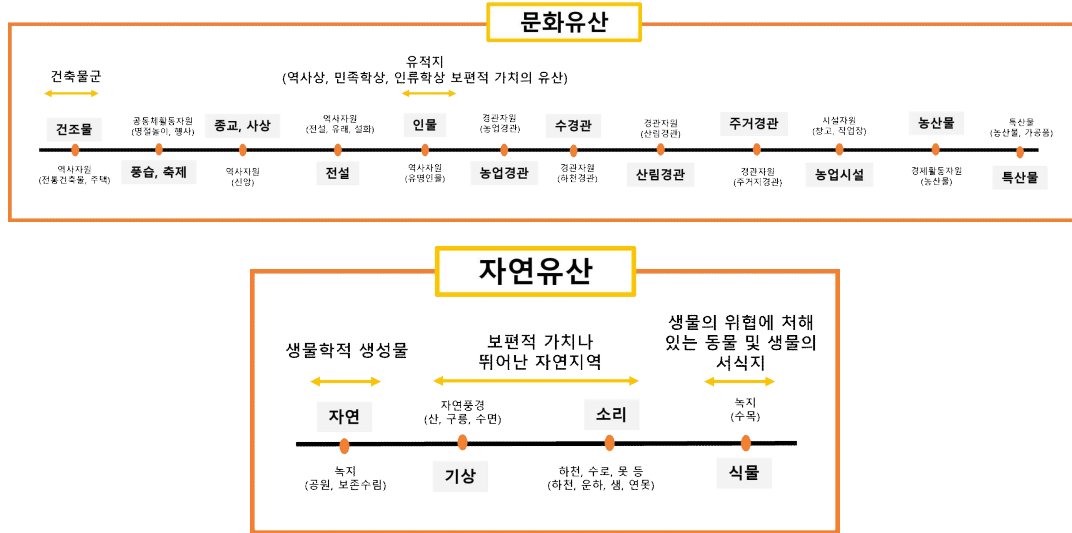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성공적 경험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진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 등 모두 3가지 유형의 부동산 유산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다만,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등 움직일 수 있는 동산, 문화재나 음악, 민속, 공예, 놀이 등 무형 문화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10)</sup>

이 협약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특이한 성격은 인류역사상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케 하는 실천적 강제성을 띠고 있다. 즉, 전문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의 위험이 예견되거나 파괴가 신속히 진전될 경우 이를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회원국에게 구체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뉘고, 그리고 세계기록유산과 인류문화유산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1988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다. 1995년 1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이 등재되었고, 이어 수원화성, 창덕궁이 제21차 회의(1997년 12월 1일~6일, 나폴리)에서 등재되었다.

10) 김지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사업의 현황: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제2권 1호, 무형유산학회, 2017, 156~157쪽.

〈그림 2-1〉 세계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분류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재되었다. 2000년 12월(제24차 회의, 호주 케언스)에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 등재되었고, 2009년 6월(제33차 회의)에는 조선 왕릉 40기, 2010년 8월(제34차 회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는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2014년 6월(제38차 회의, 카타르 도하)에는 남한산성, 2015년 7월(제39차 회의, 독일 본)에는 백제 역사유적지구, 2018년 6월(제42차 회의, 바레인 마나마)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통도사·부석사·봉정사·법주사·마곡사·선암사·대흥사), 2019년 7월(제43차 회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는 소수서원(경북 영주)·도산서원(경북 안동)·병산서원(경북 안동)·옥산서원(경북 경주)·도동서원(대구 달성)·남계서원(경남 함양)·필암서원(전남 장성)·무성서원(전북 정읍)·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9곳의 한국의 서원이 등재됐다.

그리고 2023년 9월 17일(제45차 회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가야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 경남 함안 말미산 고분군 ▷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이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총 14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2007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제31차 회의에서는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21년에는 중국 푸저우 및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4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2023년 현재 모두 16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2건)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가치가 출중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유산기금 및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 창출,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공동체 및 국가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자신들이 보유한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원 상태로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유산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와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유적지는 “사람의 소산 또는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 미학, 민족학 또는 인류학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을 뜻한다.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별하여 목록에 올리는 국제적인 제도로 『세계유산협약』이라는 국제적인 약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개정되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등재되고 관리되는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협약』 정의하는 유산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문화재’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류의 창의적 표현, 행위, 공간의 총체로서 대표적 가치를 지니는 공동체적·공적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세계유산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원’임을 강조한다. 단순히 인류에게 가치와 의미를 지닌 차원을 넘어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 인식하므로,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다.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건은 2008년 이코모스에서 제정한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sup>11)</sup>에 적시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해석과 설명의 목표가 무엇인가
- 특정 문화와 유산의 맥락에 맞는 기술적 수단이자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원칙이 무엇인가
- 유산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석과 설명을 해나가는 데에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적 사항 등
-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정의(해석과 설명)

이러한 규정은 문화유산 유적의 이해를 돕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든 범위의 잠재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발간물이나 전자 형태의 발간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강연, 현장이나 직접 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현장 아닌 장소에의 설치물, 교육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1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2, 10~17쪽.

그리고 진행 중인 연구, 훈련, 해석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문화유산 유적에 해석적인 정보, 물리적 접근, 해석적인 인프라 등을 통하여 해석적 내용에 대하여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패널, 박물관 형태의 디스플레이, 정형화된 도보 관람, 강연, 가이드 관람,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문화유산 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의 기본 원칙

- 원칙 1: 접근과 이해(access and understanding)
- 원칙 2: 정보의 출처(Information Sources)
- 원칙 3: 맥락과 셋팅(Context and Setting)
- 원칙 4: 진정성(Authenticity)
- 원칙 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원칙 6: 포용성(Inclusiveness)
- 원칙 7: 연구, 훈련, 평가(Research, Training, and Evaluation)

## 2.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로 한국의 서원이 그러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모두 9곳의 연속유산으로 선정되었다.

-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
-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藍溪書院, 1552년 건립)
-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
-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
-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 건립)
-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
-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
-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

〈그림 2-2〉 세계유산, 한국의 9개 서원<sup>12)</sup>



12)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조선시대의 9개 서원은 한국 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고, 조선시대 때 풍미한 저명한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이다.<sup>13)</sup> 한국의 9개 서원은 가장 완비된 형태로 지금까지 400여 년 전승되어 온 제향의례, 서원이 자리 잡은 위치와 배치 공간의 탁월하다. 유산 보존의 온전함, 각 서원이 행하는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 역할, 다양한 도서와 책판, 고문서의 소장 전수, 서원 건물의 성격과 이해를 위한 안내 역할을 하는 현판과 기문 등은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존속하게 한 기반이 된다.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한 유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까지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러한 서원 유산은 교육을 기초로 형성된 성리학에 기반한 한국 사회 문화전통의 특출한 증거이자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인 서원의 한국적 특성을 나타낸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이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산의 영구적인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기준”을 정의한다.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기초가 되었던 성리학 교육을 증진한 교육기관의 탁월한 증거다. 서원에서 향촌 지식인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유형적 구조물들을 창조한다. 그들은 성리학 경전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에서 서원 건축의 정형화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문화전통을 나타낸다. 9개로 구성된 이 유산은 한국 서원의 특성과 발전을 보여주며, 서원이 건축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는지 각각의 과정을 통해 보여준다.

서원의 문화는 조선시대 풍미했고, 지성과 인문의 상징이다.<sup>14)</sup>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한국 지성문화의 요람이다. 한국의 서원은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자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다. 한국 서원의 공간 구성은 다른 나라의 서원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으로 제향 공간인 사우와 강학 공간인 강당, 교류와 회합의 공간인 누정(樓亭) 등의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구성된다. 한국의 서원은 ‘한국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다.

1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2, 27~30쪽.

14)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2, 37~40쪽.

### 3. 서원과 구곡문화

구곡의 ‘곡(曲)’은 지리학적으로는 습곡작용에 의해서 변화되는 지형을 말하며, 지세의 아름다거나 특이한 경치를 가진 장소를 ‘곡’으로 설정했다. 이 중 구곡이 있는 곳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인 선경을 의미하며, 선경은 도교에서 말하는 선계로서 신선이 거처하는 현실적인 이상향의 공간으로 생각했다. 즉 선비가 학문을 탐구하는 최고의 지역을 말한다.<sup>15)</sup>

구곡문화는 중국 푸젠성의 무이산을 흐르는 무이천에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가 아홉 굽이를 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주희는 이 아홉 굽이를 ‘무이구곡(武夷九曲)’이라 칭했다.<sup>16)</sup> 무이구곡은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 1곡~9곡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곡 승진동(升真洞)은 많은 민간건축이 응집해 있고, 자연경관도 뛰어나다. 1곡에는 지지암, 만정, 팽조묘, 회진묘, 회진정 등이 있다.

2곡 옥녀봉(玉女峰)은 무이구곡의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예나 지금이나 그 아름다움이 변함이 없는 곳이다.

3곡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은 소장봉과 사학선이지만, 서원정지(書院亭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4곡을 대표하는 경관은 금계동(金鷄洞)과 어차원이다.

5곡에는 운군도원, 류운서옥, 청진도원, 차사, 문공서원, 문방 등 인문경관이 많다.

6곡을 대표하는 경관은 선장봉과 천유관인데, 관광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인근에 관광마을이 잘 조성되어 있다.

7곡은 산양봉, 삼층봉, 상봉과 같은 자연경관과 금계사라는 인문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8곡을 대표한 자연경관은 고루암이고, 의환거는 유명했으나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9곡의 자연경관은 평천, 말월암, 기운봉, 강돈계, 도원주, 연봉, 백운동, 한암, 운암, 하비주, 선암이 있고, 인문경관은 성춘, 성춘교, 견라서원이 있다.<sup>17)</sup>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무이구곡을 본받아 사수 정원이 빼어난 곳에 구곡원림을 정하고, 이를 정원 삼아 구곡가를 창작하곤 했다. 구곡도를 그려 완성하면서 성리학의 이념을 현실에 발전시키고 구곡비평(九曲批評)을 전개하는 등 구곡문화로 발전시켰다.<sup>18)</sup>

15)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景觀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6) 「울주 대곡천 일원 명승 지정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3, 13쪽.

17) 팽홍서, 「한·중 구곡(九曲) 원림(園林)의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9, 81쪽.

18) 김문기, 「도산구곡(陶山九曲) 원림(園林)과 도산구곡시(陶山九曲詩)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 43(1), 2008, 41쪽.

주희의 무이구곡은 사대부들이 거주공간을 조성하는 데 모델이 되었다. 서원이 출세와 직결되는 공간에서 벗어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풍수지리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이유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회재 이언적이 운영한 옥산서원 근처에 있는 옥산구곡(玉山九曲), 퇴계 이황(1501~1570)은 도산구곡(陶山九曲), 율곡 이이(1536~1584)는 황해도 해주에 고산구곡(孤山九曲), 한강 정구(1543~1620)는 무흘구곡(武屹九曲), 우암 송시열(1607~1689)은 충북 괴산에 화양구곡(華陽九曲), 곡운 김수증(1624~1701)은 강원도 화천에 곡운구곡(谷雲九曲) 등을 조성하고 경영했다.<sup>19)</sup>

우리나라에 무이구곡과 견줄 수 있는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옥산서원이 대표적이다. 조선 명종 때의 학자 이언적이 벼슬을 내놓고 내려와서 기거하던 곳이다. 옥산구곡은 이언적을 향사하는 옥산서원 앞을 흐르는 자계천(紫溪川, 紫玉山) 즉 옥산천(玉山川)에 따라 설정된 구곡이다. 옥산구곡의 주된 사상적 배경은 성리학이다. 역사적 배경은 15세기(1491)부터 시작되며, 후학들이 회재 이언적의 학문을 공부하며, 주자학에만 몰입했다. 중국의 무이구곡은 불교와 도교 등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고 융합했으나 옥산서원은 주자학만을 추종한 점이 다르다.<sup>20)</sup>

---

19) 팽흥서, 「한·중 구곡(九曲) 원림(園林)의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9, 33쪽.

20) 팽흥서, 위의 논문, 2019, 171~173쪽.

## 제2절 한국의 9개 서원

### 1. 영주 소수서원<sup>21)</sup>

- 위치 :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내죽리 152-8)
- 면적 : 89,975m<sup>2</sup> (문화재 지정 구역 18,657m<sup>2</sup> , 문화재보호구역 71,318m<sup>2</sup> )
- 주요 건물: 강학당, 문성공묘, 일신재, 직방재, 지락재, 학구재, 전사청, 장서각, 경림정, 고직사 사료관, 영정각, 취한대
  
- 연혁
  - 1542(중종 37) 풍기 군수 주세붕이 숙수사 터에 안향 선생 사묘 건립
  - 1543(중종 38) 백운동서원 건립
  - 1550(명종 5)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 사액
  - 1962년 사적 제55호 지정
  
- 지정문화재
  - 사적 : 소수서원 (제55호)
  - 보물 : 숙수사지 당간지주(제59호), 문성공묘(제1402호), 강학당(제14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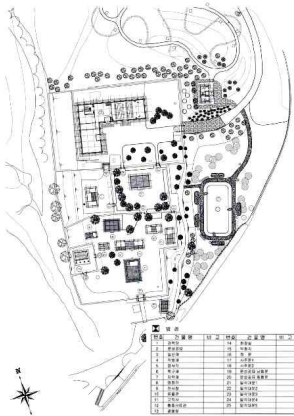
소수서원(紹修書院)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으로서 한국 서원의 강학, 제향과 관련된 규정을 최초로 제시해 이후 건립되는 서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소수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 강학, 제향, 회합과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 기본 모델로 평가받는다.

영주 소수서원은 풍기 군수였던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선생이 고려말 유현인 안향(安珦) 선생의 연고지에 조선 중종 37년(1542)에 사묘를 세워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다음 해에는 학사를 건립하여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하였다. 처음 이름은 백운동서원이었고 이후 소수서원으로 개명된다. 명종 5년(1550) 퇴계 이황 선생이 풍기 군수로 재임하면서 나라에 건의, 소수서원이란 사액을 받게 되어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공인된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 퇴계 선생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4천여 명의 유생들이 배출했다. 이곳에 주향 회헌 안향(1243~1306) 선생은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 등을 거치면서 문교 진흥에 진력한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21) 소수서원 홈페이지: <https://www.yeongju.go.kr/>

〈그림 2-3〉 소수서원 배치도와 풍경





## 2. 함양 남계서원<sup>22)</sup>

○ 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 면적: 41,218m<sup>2</sup>

○ 연혁

- 11552년 정여창(鄭汝昌) 추모하기 위해 건립
- 1566년 남계(藍溪)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 서원
-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
- 1603년 나촌으로 옮겨 복원
- 1612년 본래의 장소인 현재의 위치에 중건

○ 지정문화재

- 2009년 사적 제499호로 지정
-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

수동면 원평리 소재로 조선 명종 7년(1552)년에 개암 강익(姜翼)이 문헌공 정여창(鄭汝昌)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하고 남계서원이라 칭한다. 서원으로서의 백운동서원(소수서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액된 서원으로 명종 21년(1566)에 사액서원이 된다. 숙종 3년(1677)에 문헌공 정온(鄭蘊)을 배향하고 숙종 15년(1689)에 강익을 배향한다. 별사에 뇌계 유희인(兪好仁)과 송난 정홍서(鄭弘緒)를 배향하였다가 고종 5년(1868)에 별사를 훼손했다. 2019년 7월 6일 제 43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함양 남계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최종 등재되었다.

남계서원의 제향자인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은 함양 출신으로 본관은 하동, 자는 백옥(伯鬲), 호는 일두·수옹(一蠹·睡翁)이다. 그는 성종 연간 함양군수로 부임해온 김종직에게 수학한 뒤 1498년(연산군 4) 안음현감 시절 무오사화로 유배형에 처해진다. 정여창 선생 사후 1610년(광해군 2) 김굉필·조광조·이언적·이황과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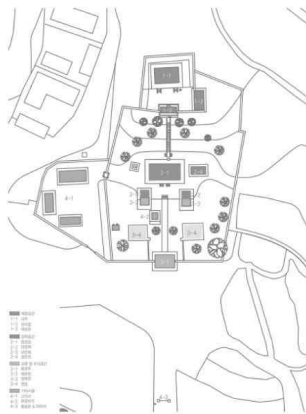
남계서원은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민의 유학 교육을 위해 조선 명종 7년(1552)에 지었다. 정여창의 고향인 함양군 지곡면 개평은 영호남의 경계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영호남의 문화교류와 왕래가 잦아 문향의 풍속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함양의 유림은 백운동서원의 건립에 자극받아 강익, 박승임, 노관, 정복현, 임희무 등의 주도로 남계서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

22) 함양문화관광: <https://www.hygn.go.kr/>

그리고 마침내 1566년(명종 21) ‘남계(藍溪)’로 사액을 받았다. 이후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졌을 때 남계서원이 존치되었는데 그 이유는 함양 출신이라는 지역적 연고와 문묘 배향자로서 정여창이 가지는 상징성이 때문이었다.<sup>23)</sup> 남계서원은 정유재란(1579)으로 불타 없어지고, 선조 36년(1603)에 나촌에 옮겨 지었다가, 광해군 4년(1612)에 옛터인 지금의 위치에 다시 지었다.

〈그림 2-4〉 남계서원 배치도와 풍경



23)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남계서원 소장」, 대동한문학 제75호, 대동한문학회, 2023, 7~8쪽.

### 3. 경주 옥산서원<sup>24)</sup>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 면적: 95,681m<sup>2</sup>

○ 연혁

- 1574년 '옥산(玉山)'이라고 사액
-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
- 1970년 김부식(金富軾) 원저 『삼국사기』 완본 9책(보물, 1970년 지정)과 국내 최고의 활자본인 『정덕계유사마방목』 1책(보물, 1970년 지정), 『해동명적』 2책(보물, 1970년 지정)이 보물로 지정되었고, 이언적 수필 고본(古本)은 1975년 보물로 지정.

○ 지정문화재

- 1967년 3월 8일 사적 제154호에 지정
- 2010년 8월 1일 양동마을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 2019년 7월 10일 '한국의 서원'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재차 등재

옥산서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서원이다. 문묘 종사와 종묘 배향을 동시에 이루고 영남학파의 정신적 지주로 추대된 이언적을 주향하는 서원으로서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 남인의 정신적 본산이다. 1967년 사적 제154호로 지정되었다.

옥산서원은 1573년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과 회재의 문인 권덕린(權德麟)에 의해 건립되었다. 두 서원은 경주 부윤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건립되고 중수되므로 건축계획이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영귀루의 구조를 따라 무변루를 만들고 무변루는 영귀루의 형식을 변형하여 확장한 것이다.

병산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중복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2010년 7월 31일 양동마을의 일부로 먼저 등재되었다. 이언적의 고택인 무침당과 그의 가문인 여강 이씨의 본진이 양동마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성으로 인해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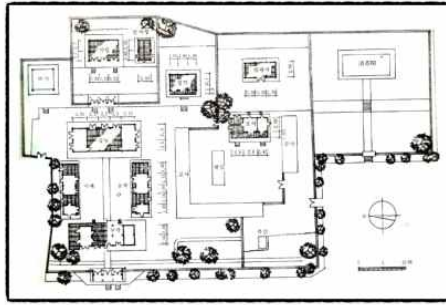
옥산서원의 무변루는 외삼문이 없는 단독의 형태로 되어 있다. 외삼문과 루가 중층으로 있는 남계서원의 풍영루(風詠樓)가 누마루 형식으로 변경된 것은 『풍영루중수기』에 의하면 19세기 중엽이다.

옥산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경주지역 유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유생들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유림의 공부를 위한 도서관적 역할 및 유생교육을 위한 교

24)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gyeongju.go.kr/>

재·문집 등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며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경주지역 서원은 옥산서원을 효시로 하여 이후 건립된 경주지역 서원의 전형이 되며 경주지역 서원 전반적인 위치와 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5〉 옥산서원 배치도와 풍경



#### 4. 안동 도산서원<sup>25)</sup>

- 위치: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 1969년 본 서원을 중심으로 임야 및 전답 19필 324,945㎡
- 사적 170호로 지정되었고, 197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보수·증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유학 사상의 정신적 고향으로 성역화
- 1977년 도산서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관리운영조례를 제정 공포
  
- 연혁
  - 1557년(명종 12) 승려 법련(法蓮)에게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건립함
  - 1570년(선조 3) 퇴계 선생 70세를 일기로 역책
  - 1969년 도산서원 일대를 사적 170호로 지정, 문화체육부 복원·정리사업 시행
  - 2019년 세계유산 등록(「한국의 서원」 전국 9개소)
  - 2020년 도산서당(보물 제2105호), 농운정사(보물 제2106호) 문화재 지정
  
- 지정문화재
  -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보물 제210호)
  -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보물 제211호)
  - 강세황필 도산서원도(보물 제522호)
  -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이황이 사망한 지 4년 후인 1574년에 설립했다. 영남학파와 한국 유학을 대표하는 이황을 모신만큼 영남학파의 선구자인 이언적을 모신 경주 옥산서원과 함께 한국의 양대 서원으로 꼽힌다.

퇴계 이황 선생은 연산군 7년(1501) 현재의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서 출생하여 선조 3년(1570)에 돌아가셨다. 34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단양군수, 풍기군수, 공조판서, 예조판서, 우찬성, 대제학을 지냈으며 사후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70여 회나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연구, 인격 도야, 후진양성에 힘써 나라 교육 및 사상의 큰 줄기를 이루었고 만대의 정신적 표(表)가 되었다. 퇴계 선생은 명종 16년(1561)에 도산서당을 세웠고 사후 4년만인 선조 7년(1574)에 문인과 유림이 서원을 세웠으며, 선조 임금은 한석봉 친필인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현판을 사액하였다.

1970년에 정부에서는 서원을 보수정화하여 성역화하였고,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퇴계 선생의 주요 저서로는 계몽전의, 성학십도, 도산십이곡, 주자서절요, 심경후론, 예

---

25) 도산서원 홈페이지: <https://www.andong.go.kr/>

안향약, 자성록 등이 있다.

〈그림 2-6〉 도산서원 배치도와 풍경



## 5. 장성 필암서원

○ 위치: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번지

○ 면적: 52,666.8m<sup>2</sup>

○ 연혁

- 1590년(선조 23) 그의 문인 변성온(卞成溫)·기효간(奇孝諫)·변이중(邊以中) 등 호남 선비들이 장성읍 기산리(岐山里)에 창건
-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
- 1624년(인조 2) 호남 사람들의 노력으로 기산리 서쪽 증산동(甞山洞)으로 자리를 옮겨 복설
- 1662년(현종 3) 현종의 어필로 필암서원(筆巖書院)이라 선포

○ 지정문화재

- 1975년 4월 23일 사적 제242호에 지정
-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 1568년(선조 1) 새긴 『백련초해』 13판과 『유묵』 4판, 그리고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판》 3판으로 1568년(선조 1)
- 1770년(영조 46)에 새긴 것과 1610년(광해군 2년)에 새긴 『초서천자문』 18판과 『해자무이구곡』 18판

필암서원(筆巖書院)은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필암서원은 성균관(成均館) 문묘에 모셔진 18명의 선현 중 장성사람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을 주향하고 그의 사위 고암(鼓巖) 양자징(梁子徵)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대개의 서원이 산 속 깊은 곳에 은둔하여 수학하기에 좋은 곳에 건립된 것과는 달리 필암서원은 평야 지대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자리잡고 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사적 제242호로 지정했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70)를 배향한 서원으로 1590년(선조 23)에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奇孝諫, 1530~1593), 변성온(卞成溫, 1540~1614), 변이중(邊以中, 1546~1611) 등의 발의로 장성읍 기산리에 창건했다.

필암서원은 평지에 세운 서원이다. 남북 자오선을 축으로 삼고 그 축선 위에 주요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전형적인 유교 건물이다. 또한, 앞쪽에 강학 공간, 그리고 뒤에 제례공간을 두는 전학후묘의 전형적인 서원 건물의 배치 형태를 띠고 있다. 외삼문을 대신한 확연루(廓然樓)를

지나면 청절당(淸節堂)이라는 이름의 강당이 자리 잡고 있다. 강당의 좌우로 유생들의 기숙 장소인 동재 진덕재(東齋, 眞德齋)와 서재 숭의재(西齋, 崇義齋)가 있다. 이러한 강학 공간의 보조 건물로 책판을 보관하는 장판각과 도서를 보관하는 장서각, 그리고 인종가 하사한 어제묵죽도(御製墨竹圖)와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경장각이 세워져 있다.

2000년부터 시행 중인 필암서원 및 주변 정비 사업에 따라 서원의 전면 150m 좌우 320m의 토지를 새로 확보하여 공원영역과 주차시설을 갖추었고, 최근에는 유물전시관 증축공사가 완공되어 새롭게 개관했다. 또한, 유물전시관 배후에 연면적 2,000여 평방미터(600평)의 대지에 1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관인 숭의관과 진덕원을 건립했다.

〈그림 2-7〉 필암서원 배치도와 풍경





## 6. 달성 도동서원<sup>26)</sup>

- 위치: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 면적: 26,766m<sup>2</sup>
  
- 연혁
  - 1568년 창건
  - 1573년 사액을 사사받음
  - 1605년 김굉필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
  
- 지정문화재
  - 2007년 사적 제488호로 지정
  -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

대구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했다. 달성 도동서원은 조선 오현의 한 사람인 한훤당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1568년(선조 1) 지방 유림들의 공의로 현풍현 비슬산 기슭에 세우고 쌍계서원이라 불렀다. 1605년(선조 38)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사우를 중건하고 당시의 동명이 보로동이였으므로 보로동서원이라 불렀다.

그 후 2년 뒤인 1607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자의 도가 동래하였다는 의미로 도동서원으로 개명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 도동서원은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서원을 일상에 지친 지역민이 쉬어가고 풍류를 즐기는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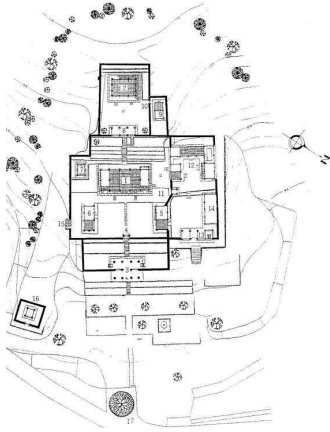
도동서원은 1568년(선조 원년) 지역의 유림에서 현 달성군 유가면 쌍계1리 초곡천 쪽산기슭에 건립하였다. 이곳의 지명을 따라 처음에는 쌍계서원(雙溪書院)이라고 불렀다. 선조는 1573년(선조 6년) 사액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도동서원을 복설한 인물은 한훤당의 외증손 한강(寒岡) 정구(鄭逵)였다. 그는 1605년(선조 38년) 영남지역 사림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 선생의 묘소가 있는 현 위치에서 서원을 건립했다. 1607년(선조 40년) 선조는 도동서원의 사액을 내렸고, 지역명도 원호(院號)를 따라 도동동으로 개칭되었다.

도동서원의 강당(講堂), 사당(祠堂), 장원(塲垣)은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어있다. 도동서원 전면에 있는 은행나무는 서원의 사액을 기념하여 식수한 고목으로 대구광역시 보호림 11-5로

26) 디지털달성문화대전: <http://dalseong.grandculture.net/>

보호되고 있다. 도동서원은 한원당 김굉필 선생을 제향하고 그분의 높은 덕망과 학문을 추앙하여 건립한 서원이다.

〈그림 2-8〉 도동서원 배치도와 풍경



## 7. 안동 병산서원<sup>27)</sup>

○ 위치: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 면적: 22,620m<sup>2</sup>

○ 연혁

- 1531년(공민 10)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리를 피하여 경상도 북주(지금 안동)로 피난시 유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여 사패지와 서책을 하사.
- 1575년(선조 8) 풍악서당을 현재의 병산서원 지역에 이건하고 병산서당이라 칭함.
-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에도 미훼철
- 1978년 3월 31일 사적 제260호 지정
- 2019년 7월 6일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한국의 9개 서원 연속 유산)

○ 지정문화재

- 1978년 3월 31일 사적 제260호에 지정
- 문화재청은 2010년 6월 안동 병산서원을 포함한 하회마을 일대와 양동마을 일대를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으로 지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여, 2010년 7월 3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고려 시대부터 사림의 교육기관이었던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豐岳書堂)을 1572년(선조 5)에 서애 류성룡이 안동으로 옮겨오면서부터 병산서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병산서원의 전신은 풍악서당이다. 풍악서당은 1563년에 창건되어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다고 전해진다. 최초 풍악서당은 노방에 자리해 있어 환경이 혼잡 산만하였다. 이에 서애 류성룡이 장수(藏修) 장소로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함으로써, 1605년 풍산 사람들의 주관하에 경치가 뛰어나고 사람 왕래가 없는 병산으로 옮겨 중건되었다. 1607년 서애가 타계하고, 1614년 병산서원으로 개칭했다.

병산에서 중건된 풍악서당은 최초 교육기능만 가진 서당이었으나, 차츰 교화와 공론의 기능도 겸한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서당을 병산으로 옮긴 2년 후 류성룡이 별세하자 문인들이 3년간의 서원 건립을 논의한 끝에 1610년, 존덕사를 완공하고 서원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서애 류성룡을 봉안 향사하고, 그의 셋째 아들 류진을 종향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보수가 행해졌으며 강당은 1921년에 사당은 1937년 각각 다시 지어졌다. 매년 3월 중정과 9월 중정에 향사례를 지내고 있다.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7) 병산서원 홈페이지: <http://www.byeongsan.net/>

서에 선생의 문집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 1,000여 종 3,000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병산서원의 정문 이름은 복례문(復禮門)이다. 이 문은 최초 만대루의 동쪽에 있었는데, 1921년 강당 중수 때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만대루의 동쪽에 있었던 최초 정문은 동서사택론의 측면에서 자좌오향(坎坐離向)의 배치인 서원에 적합한 방위다.

〈그림 2-9〉 병산서원 배치도와 풍경



## 8. 정읍 무성서원<sup>28)</sup>

○ 위치: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

○ 면적: 8,015m<sup>2</sup>

○ 연혁

- 1696년 고려시대에 고운 최치원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
- 1483년에 정극인이 세운 향학당이 있던 지금 자리로 옮겨 중건
- 1844년에 중수되었다.
-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소 중 한 곳
- 1906년 2월 13일 최익현·임병찬 등이 의병진을 창설한 곳

○ 지정문화재

- 1966년 사적 제166호로 지정
-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무성서원은 신라 말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태산 태수(泰山)로 부임하여 8년동안 선정을 베풀고 많은 치적을 남기고 이임하여 떠나자 주민들이 생사당을 세우고 태산사(泰山祠)라고 한테서 유래되었다.

이후 1544년(중종 39) 태인현감으로 부임한 신잠(申潛) 선생이 6년에 걸쳐 선정을 베풀다가 강원도 간성 군수로 전임되어 떠나자 주민들이 역시 생사당을 세워 배향하다가 고운 선생의 태산사와 합하였다.

그 후 1615년(광해군 7) 고을 유림들이 서원을 세웠는데, 1696년(숙종 22) 무성서원(武城書院)이라 사액을 받았으며 불우헌(不憂軒) 정극인, 눌암 송세림, 목재, 정언충, 성재 김약목, 명천 김관 선생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숙종 22년(1696)에 무성(武城)이라는 사액을 받아 이 두 사당을 병합하여 무성서원이라 했으며, 삼현을 더 모시다가 뒤에 두 분을 더 모시니 칠현을 더 배향했다.

앞에는 개울물이 흐르며 뒤에는 성황산을 등지고 자리한 무성서원은 1868년 정부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아니한 전국 47개 서원 중 전북도 내 유일의 서원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6년 면암 최익현(崔益鉉)과 문헌 임병찬(林炳瓚) 선생이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호남 의병을 창 의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

28) 정읍관광: <https://www.jeongeup.go.kr/>

〈그림 2-10〉 무성서원 배치도와 풍경



## 9. 논산 돈암서원

○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임리)

○ 면적: 5,548m<sup>2</sup>

○ 연혁

- 1634년(조선 인조 12) 지방 유림의 공의로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건립
- 1659년(효종 10) 및 1660년 (현종 1)에 두 번의 사액
- 1658년(효종 9)에 김집(金集), 1688년(조선 숙종 14)에 송준길(宋浚吉), 1695년(조선 숙종 21) 송시열(宋時烈)을 각각 추배
- 1871년(대한제국 고종 8년)의 전국적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보존된 유서 깊은 전국의 47개 서원 중 하나이며,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
- 1881년(고종 18년) 현재의 위치로 이진

○ 지정문화재

- 1993년 사적 제383호로 지정
-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 보물 제1569호
- 돈암서원유경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5호
- 돈암서원 원정비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66호
- 양성당제영 :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1호, 대전역사박물관 소장
- 돈암서원 책판 :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제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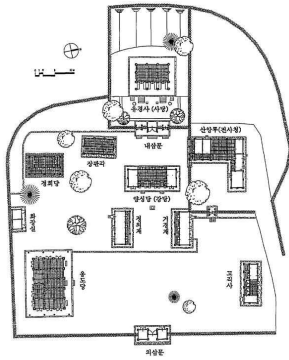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사계 김장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1993년 10월 18일 사적 제383호에 지정되었다.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돈암서원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다. 1634년(인조 12)에 사계 김장생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창건되었다. 1659년(효종 10)에 ‘돈암(遯巖)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서원이 처음 입지한 숲말 산기슭의 큰 바위를 ‘遯巖’이라 불렀는데, 이 바위 이름이 사액서원의 이름이 되었다. 돈암서원이 있는 임리는 김장생의 묘역이 있는 고정리와 이웃해 있다.

돈암서원은 김장생이 생전에 강학하던 양성당을 중심으로 건립했다. 김장생 선생이 세상을 떠난 다음해에 창건을 발의하여 그 다음해에 준공하였다. 돈암서원이 빠른 시간에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김장생의 부친이 세우고 강학을 하였으며, 김장생과 김집으로 계승된 정희당과 김



장생이 강학했던 양성당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회당과 양성당의 기능은 서원 건립 후에는 서원에 편입되었고, 서원 내의 잡역은 고운사에 의존하였다.

〈그림 2-11〉 돈암서원 배치도와 풍경



〈그림 2-12〉 돈암바위





### 제3절 서원 행정구역과 문화관광자원

21세기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자원으로써 서원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유교문화의 거점인 서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점유한 서원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원의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가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을 살려 관광·교육·산업·상품·콘텐츠 분야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재생산, 도덕성·공공성 기반의 확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 복원의 방향으로 서원의 가치와 기능을 재창출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서원의 여러 난제로는 시설 정비와 환경조성, 편의시설 및 전문인력 부족, 예산확보, 홍보, 현대화 및 상시 개방 문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개별 서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연구기관, 유림과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서원 활용의 당면 과제는 교육시설, 숙박시설, 카페, 식당 등 같은 편의시설이 서원 건축과 조화를 이루며 신축되어야 하며, 제향의 필요한 인력은 유림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교육과 체험 등의 활용에 적합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원의 특징을 살려 특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2-1〉 9개 서원의 주소

이름	소재지	
영주 소수서원	도로명 주소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함양 남계서원	도로명 주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경주 옥산서원	도로명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동 도산서원	도로명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장성 필암서원	도로명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4-28
달성 도동서원	도로명 주소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안동 병산서원	도로명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정읍 무성서원	도로명 주소	전북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논산 돈암서원	도로명 주소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출처: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

## 1. 소수서원과 영주시

### 1) 개관

영주시의 세대수는 51,228개이고, 전체 인구는 101,521명이다. 남성은 50,654명 여성은 50,867명이다.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약 10만 1,521명으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으며, 인구가 줄어드는 패탄을 볼 때 2024년에는 1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시는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해발 약 200m로 남북이 길고 동서로는 협소하며,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주봉인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과 죽령을 경계로 하여 도솔봉(1,315m)으로 이어진 소백산 산록 고원부지에 형성되어 있다.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남쪽으로는 안동시와 예천군, 북쪽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소백·태백권 교통의 중심 도시이다. 영주시 남부에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흐르고 있다.

1980년 영주군 영주읍이 영주시로 승격되어, 남은 영주군 지역이 영풍군(榮豊郡)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 영주시와 영풍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른다. 즉, 영천군, 풍기군, 순흥군(1895)이 영주군이 되고(1914년), 영주시와 영풍군(1980년)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영주시(1995년)로 통합된 것이다. 경북 북부 지역처럼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토박이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 2) 순흥면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면으로 면소재지는 읍내리이다. 조선시대 순흥부의 중심지였다. 옛부터 양반 계층이 많이 살았으며 소수서원, 순흥향교가 있다. 민속촌 개념으로 영주선비촌이 조성되어 있다. 선비촌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영주 시내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목적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순흥 안씨의 본관인 순흥이 바로 이곳 순흥면이다.

순흥면은 18개 리가 있고 36개의 마을이 있다. 순흥면의 면적은 54.39km<sup>2</sup>이고 전체 인구는 1,953명이며, 남성은 978명, 여성은 975명이다. 그리고 세대수는 1,118세대이지만 세대당 인구수는 1.75명으로 2명이 안 된다.

백두대간이 태백산에서 서남으로 뻗어 가서 소백산이 된다. 소백산 산줄기가 동남쪽의 순흥읍치로 뻗어가서 순흥읍의 주산인 비봉산이 되었다. 비봉산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영귀봉 아래에 소수서원이 입지하고 있다. 소백산에서 죽계가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영귀봉 앞을 돌아 남서쪽으로 흘러간다.

〈그림 2-13〉 영주시와 순흥면



출처: 영주시

## 2. 남계서원과 함양군

### 1) 개관

함양군의 면적은 725.07km<sup>2</sup>이지만, 경상남도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대표적인 인구 소멸지역이다. 2019년 2월 인구수 4만 명대가 무너졌고, 2023년 현재, 세대수는 20,840명이고 35,549명이며, 남성은 7,602명, 여성은 8,134명이다. 수동면 총인구는 1,430명, 남성은 710명, 여성은 720명이다. 남계서원이 있는 원평리의 총인구는 213명, 남성은 107명, 여성은 106명인 작은 마을이다. 함양군에는 10개 면이 있는데 하양면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할 정도로 인구 쏠림 현상이 큰 곳이기도 하다. 2022년 12월 8,849명이었던 함양군 20~40대 인구는 2023년 2월, 8,692명으로 157명이 꾸준히 감소해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sup>29)</sup>

함양군은 지역소멸과 청년 유입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중 하나가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다. 함양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군유지인 함양읍 백연리 일원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공유주거시설을 조성하며 시설은 지상 4층 건물로 15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유숙소, 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유공간, 오픈카페 등으로 조성한다.<sup>30)</sup>

### 2) 수동면

수동면의 총면적은 4,907ha이며 자연마을 9개가 있다. 동쪽으로는 산청군 생초면 및 거창군 남상면과 접한다. 서쪽으로는 남강을 경계로 지곡면을 마주한다. 남쪽으로는 유림면, 북쪽으로는 안위면과 접한다. 북쪽 산지에서 발원한 내백천과 남쪽 산지에서 발원한 죽산천이 우명천과 합류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면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종단하며 흐르는 남강에 합류한다. 1914년 도북면(道北面)·사근면(沙斤面)·모간면(毛看面) 등에 소속된 20개 동이 도북리(道北里)·하교리(下橋里) 등 8개 리로 구성된 수동면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남계마을은 남계서원이 설립되면 생긴 마을이다. 남계마을에는 77명이 살고 있고 38세대만이 살고 있다. 16세기에 강개암 선생이 이 마을에 일두 정여창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후학들을 양성하고자 남계서원을 세운 뒤 서원을 보살필 하인들이 기거할 집이 서원 주위에 들어서면서 마을 형성의 시초가 되었다. 원래 마을의 이름은 남계서원이라 했는데, 그 후 남원 양씨 하동 정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차차 형성되었으며, 남계서원의 명칭에 따라 남계라 불린다. 현재 남계, 세바위, 동안 등 세 개의 마을을 합해 상원마을이라고도 한다. 또한, 마을에는 탁영 김일손을 봉안한 청계서원이 세워져 있는 마을로 군내 6개 서원 중 두 개의 서원이 있는

29) 함양군청(<https://www.hygn.go.kr/>)

30)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선정…국비 등 20억 확보”, 쿠키뉴스, 2023.06.15.

마을이다. 쇠바우, 구시바우, 맞바우라는 바위가 있고 성주골, 빈수터골, 소매골, 고리안 등의 골짜기와 참새미라는 우물이 있다.<sup>31)</sup>

〈그림 2-14〉 함양군와 수동면



출처: 함양군

31) 함양군청(<https://www.hyggn.go.kr/>)

### 3. 옥산서원과 경주시

#### 1) 개관

경상북도에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로 신라문화권을 대표하는 도시다.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영천시 및 청도군, 남쪽으로 울산광역시, 북쪽으로 포항시와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 중 면적이 3번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5번째로 넓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약 천 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다.

2023년 기준, 경주시의 총인구는 248,335명이고, 남성은 124,334명, 여성은 124,001명이다. 옥산서원이 있는 안강읍의 총인구는 23,312명이고, 남성은 11,533명, 여성은 11,779명이다.<sup>32)</sup> 경주시의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할 때는 1980년으로 289,234명이었다. 약 40년이 지났으나 인구는 4만여 명이 줄었을 뿐 변화는 없다.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고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석굴암과 불국사(1995),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주(2010), 한국의 서원(2019)이 있다.

#### 2) 세심마을

세심마을은 옥산1리의 작은 마을로 총인구는 134명이고, 남성은 61명, 여성이 73명이다. 옥산(玉山)은 신라 때부터 옥산이라고 불렸고, 화재 이연적 선생이 입적하면서 옥산이라고 개명했다. 세심마을은 주변 경관이 뛰어나 주변의 산과 경치 좋은 곳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를 사산오대(四山五臺)라고 부른다. 사산은 말 그대로 4개의 산인데, 동쪽의 화개산, 서쪽의 나옥산, 남쪽의 무학산, 북쪽의 도덕산이라고 한다. 오대는 옥계천 주변의 5곳의 수려한 경관으로 세심대, 관어대, 탁영대, 징심대, 영귀대를 말한다.<sup>33)</sup>

세심마을에서 행하는 문화행사는 제사와 지신뉘기를 하는 마을동제는 음력 1월 15일 진행하고, 옥산서원에서 화재 선생 추모제는 분기별로 향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향사 중 가장 큰 제는 중추대제로 음력 8월 15일에 행한다.

안강읍에서 세심마을이 유명해지면서 세심권역이라는 말도 생겼다. 세심마을이 옥산 1리에 국한된다면, ‘세심권역’은 경주시 안강읍 옥산1리~4리, 하곡리, 두류 1리 등 6개 리, 680여 가구, 1천 600명이 넘는 주민을 하나로 묶는 넓은 의미의 마을이다. 세심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2016년 4,688명이었고, 2019년 11,473명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기간에 잠시 위축되었다가 다시 15,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32) 경주시: <https://www.gyeongju.go.kr/>

33) 세심마을: [http://sesim.go2vil.org/sub1/sub1\\_02.php](http://sesim.go2vil.org/sub1/sub1_02.php)

세심권역의 주축이 되는 농어촌인성학교에서는 전통문화의 기본인 효(孝)를 중심으로 계절별 농촌체험, 문화유적체험, 예술체험, 먹거리체험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농어촌체험지도사를 비롯해 실천예절지도사, 다도, 교원자격증 등 인성교육에 걸맞는 자격증을 갖춘 각 분야의 체험 전문가들이 체험을 이끈다. 4계절 농장에서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수확체험을 하고 향토음식 체험장에서는 약과, 꽃절편, 무지개 떡케이크만들기 등 먹거리체험을 한다.<sup>34)</sup>

〈그림 2-15〉 경주시와 안강읍



출처: 경주시

34) “자연서 여유 찾고 유적서 인성 함양…힐링 쉼터 ‘밭돌움’”, 2018.08.08.

#### 4. 도산서원과 안동시

##### 1) 개관

안동시의 세대수는 78,260개이고, 총인구는 156,025명이다. 남성은 77,217명 여성은 78,217명이다.<sup>35)</sup> 도산서원이 있는 도산면의 인구수는 1,460명이고 남성은 768명 여성은 692명이다. 도산면은 18개의 리가 있고, 마을 수는 58개, 세대수는 902세대이며, 면적은 101.96km<sup>2</sup>이다. 안동시는 문화유산의 도시로 <표 2-2>와 같이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표 2-2> 안동시의 유형별 문화유산

구분	계	건조물	전적류	비석	탑	불상	식물	기타
계	339	196	22	12	20	17	12	60
국가유산	107	55	14	0	4	4	9	21
경상북도지정문화유산	232	141	8	12	16	13	3	39

도산면은 원래 예안군(禮安郡)에 딸린 의인현(宜仁縣)의 동쪽으로 의동면(宜東面)이라고 불렀다. 의동면은 가사, 송오, 고리, 광석, 백운, 향곡, 단사, 분천, 원촌, 천곡, 이곡, 의인, 염촌, 상토, 하토, 계남리 등 1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군면통폐합 때에 의서면(宜西面)의 상온, 하온, 사곡, 고산, 운곡, 안을, 북평, 연곡리 등의 8개 리와 읍내면(邑內面)의 교촌동 일부와 봉화군 하남면의 여을머리, 태자산리 등 2개 리를 병합하였다.

이때 도산(陶山)의 이름을 따서 도산면으로 개칭하여 가송(佳松), 단천(丹川), 분천(汾川), 온혜(溫惠), 운곡(雲谷), 원천(遠川), 의촌(宜村), 의일, 태자(太子), 토계(土溪)의 10개 동으로 개편 관할하였다. 도산면의 지명유래가 되는 ‘도산’은 예안 고을의 9곡(曲) 가운데 제4곡과 제5곡 사이에 위치하는 산으로 현재 도산서원(陶山書院)이 자리잡은 부근의 지명인데, 이곳은 예전에 웅기 굽는 가마가 있었다고 해서 퇴계 선생이 도산(陶山)으로 명명하고 이곳에 도산서당을 열어 제자를 가르치면서 유명해졌다.

35) 통계청 <https://kosis.kr/>



## 2) 토계리

도산서원이 있는 토계(兔溪)리는 1914년 일제강점기에 예안군 의동면에서 안동군 도산면에 편입되었다. 당시 양평, 상계, 하계, 계남, 섬촌 일부와 의서면의 온해동 일부를 병합하여 토계동(리)라 하여 안동군 도산면에 편입된 것이다. 1976년 안동댐으로 인하여 수몰지구가 되었으며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원래 냇물의 이름은 토계였으나 명종 원년에 퇴계 이황 선생이 이 냇가 동암에 양진암을 짓고, 냇물의 이름을 퇴계로 고친 후 선생의 아호로 삼았다. 후에 토(兔)자를 음(音)이 같은 토(土)자로 고쳐 마을 이름을 토계(土溪)로 불렀다고 한다. 현재 토계리는 2개 반으로 나누어지며 50가구가 살고 있다. 도산파출소에서 왕모산성 가는 길로 접어들어 개울을 따라 2.6km쯤 들어가면 상계마을이다. 상계마을은 퇴계천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 상계, 웃토계 혹은 웃토끼라 하며, 그곳에는 퇴계 종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 2-16〉 안동시와 도산면



출처: 안동시

## 5. 필암서원과 장성군

### 1) 개관

2023년 기준, 장성군은 1읍과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대수는 23,397개, 인구는 43,761명, 면적은 518.40km<sup>2</sup>이다. 필암서원이 있는 황룡면에는 2,221개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인구는 3,905명(65세 이상 인구는 1,207명), 면적은 44.7km<sup>2</sup>이며, 남성은 2,002명, 여성은 1,903명이다. 황룡군은 소멸위험지수 0.18로 소멸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다.

장성군은 일찍부터 수준 높은 문화를 창출했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아 훌륭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산수 좋은 천연적 환경과 어울려 찾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땅을 이룩해 놓았다. 특히, 장성군은 호남의 옹도인 광주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땅이 풍요로워 전 원생활의 적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성군은 1995년 후반부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가까운 대도시 광주와 호남고속도로의 유리성을 고려하여 상업농에 걸맞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적정 작목선택과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농민교육(작목별 농민순회교육, 해외선진농업연수, 국내 선진농장 견학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은 2018년 800만 명을 넘어선 뒤 2019년 890만 명, 2020년 850만 명, 2021년 970만 명을 기록했고, 2022년 1천만 명 시대를 열었다.

장성군에는 6개의 서원이 있는데, 필암서원만이 사액을 받았고 모암서원, 봉암서원, 추산서원, 학림서원, 고산서원은 일반 서원이다. 장성군은 2023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필암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전체 사업은 13개이고 1,7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약 7억 원이다.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은 월 30시간 근무하고 월 27만 원을 지급받는다.

황룡면에는 24개 리, 40개의 마을이 있다. 황룡면에는 월평(月坪), 와룡(臥龍), 옥정(玉井), 황룡(黃龍), 신호(莘湖), 장산(長山), 필암(筆岩), 맥호(麥湖), 아곡(阿谷), 금호(金狐), 관동(冠東), 와우(臥牛), 통안(通安)리가 있고, 필암서원은 필암리에 소재하고 있다. 황룡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서일면·서이면·남삼면을 통합하여 황룡면이라 하고 13개 리 42개 마을을 관할하게 되었다. 면사무소는 내장산에 있다가 1923년경 현 위치로 옮겼다. 황룡면에는 필암서원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자원이 있다. 실존 인물로 부활한 홍길동을 기리기 위한 홍길동로가 있고 홍길동테마파크가 있다. 이외에도 장태로 조충을 이긴 동학 농민군 승전 기념공원이 있고, 청백리로 유명한 아곡 박수량 선생의 백비, 조선 제일의 황룡리라 불리는 요월정과 원림, 찾는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옥정약수,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황룡 재래시장 등이 있다.<sup>36)</sup>

36) 장성군 <https://www.jangseong.go.kr/>

황룡면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44%, 2차 산업 28%, 3차 산업 28%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체 수는 724개 종사자 수는 3,122명이다. 제조업이 194개 사, 1,589명(약 50%)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농업(임업 등 포함) 22개 사 66명, 작물재배업 8개 사 28명 순이다.

## 2) 필암리

필암리(筆岩里)는 중동·선촌·필암·구석·중산 5개 마을로 이루어졌다. 옛날 서일면 지역으로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에 중등라·필암리가 기록되어 있고 1912년의 기록도 동일한데, 1914년 기록에 구석이 나온다. 필암과 선촌은 한 마을이었는데 1976년 분리했으나 지금도 한 마을로 부르고 있다. 1672년 필암서원이 들어서기 전에 오씨와 최씨가 살았다고 하며 6·25 후에도 필암 38호·선촌 15호였는데 지금은 필암 26호·선촌 36호이다. 6·25 때 13명이 죽었으나 가옥피해는 없었으며, 여순반란사건 때 구석태에 지서가 설치되었다가 6·25 직후에는 3년간 필암서원에 설치된 적이 있다.

〈그림 2-17〉 장성군 황룡면



출처: 장성군

## 6. 도동서원과 달성군

### 1) 개관

대구시의 인구는 2,417,055명이고, 1,070,87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1,499.52km<sup>2</sup>이다. 대구는 7구와 2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군위군을 흡수하면서 광역시 중에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시 중앙에는 팔공산이 있고, 남쪽으로 대덕산과 비슬산이 도시를 감싸고 있고, 도심에는 심천이 흐른다. 그리고 금호강은 동편과 서편으로 흐르고 낙동강과 남쪽으로 합류한다.

도동서원이 소재한 군은 달성군이다. 달성군의 면적은 428.36km<sup>2</sup>이고, 인구는 268,788명, 113,1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율은 137,011, 여성은 131,777명이다. 달성군은 6읍과 3면이 있으며 2023년 예산은 8,800억 원이다. 달성군에는 국가산업단지로 ‘달성대성하이스코’가 있다. 대구직할시가 다시 광역시로 승격되어 달성군의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의 3개 읍(과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의 6면이 대구와 달성으로 갈라진 지 84년 만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지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최남단에 있는 면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경계에 있다. 달성군 9개 면의 하나로 신라 때 밀양부(密陽府)의 구지산부곡(仇知山部曲)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구지산전면(求智山田面)을 개칭하였다. 대구에서 진주 간의 지방도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구지면 창리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쪽으로 뻗어있다. 1991년 7월 31일, 대니산(409m) 산정에 KBS 중계탑이 준공되면서 산마루까지 길이 열려 경관이 아주 좋다. 등산코스과 유원지로서 도동서원, 화산서원, 제일강정과 함께 각광을 받고 있으며, 목단, 유산, 응암, 내리 등에 걸친 82만 평의 달성2차산업단지의 착공은 이 지역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자랑이기도 하다. 동쪽은 현풍, 유가면 쪽으로는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등 3개 면에 서쪽은 고령군 우곡면, 북쪽은 현풍면과 고령군 개진면에 닿고 있다.

### 2) 도동리

1414년 지씨(池氏)와 고씨(高氏)가 처음 마을을 형성하였다. 1607년 도동서원(道東書院: 문경공 김굉필 선생을 향사하는 곳)이 세워짐에 따라 보로동(甫老洞)의 원래 이름을 따라 도동(道洞)이라 하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사동(寺洞), 송림동(松林洞), 담동(潭洞)을 병합하여 도동(道東)이라 하여 달성군 구지면에 편입되었다. 1988년 5월 3일에 달성군(達城郡) 리(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134호에 의거하여 동(洞)이 리(里)가 되었다. 도동(道洞)은 1607년 도동서원이 세워지면서 도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림 2-18〉 달성군 구지면 지도



출처: 달성군

## 7. 병산서원과 안동시

### 1) 개관

안동시 인구 구성은 78,260 세대수에, 총인구는 156,025명이다. 남성은 77,217명 여성은 78,217명이다.<sup>37)</sup> 병산서원이 있는 풍천면의 총인구수는 7,164명이고 남성은 3,666명 여성은 3,498명이다. 풍천면은 30개의 리와 83개의 마을이 있다. 세대수는 4,206세대이고, 면적은 93.85km<sup>2</sup>이다. 같은 안동시에 있는 도산면보다 면적은 다소 작지만, 인구와 세대수는 약 5배 정도 많다.

풍천면은 1995년 1월 1일 사군 통합과 함께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안동시 풍천면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풍천면이라는 지명은 풍남면, 풍서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풍성할 풍(豐) 자에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내 천(川) 자를 조합하여 ‘풍천’이라 부른다.

행정구역은 갈전(葛田), 도양(道陽), 구담(九潭), 광덕(廣德), 기산(箕山), 신성(申城), 구호(九湖), 금계(錦溪), 어담(漁潭), 인금(仁今), 병산(屏山), 하회(河回), 가곡리(佳谷里) 등 13개 법정리와 24개 행정리, 135개 반, 8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풍천면의 북서쪽으로는 안동시 풍산읍과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과 경계를 이루고 면의 남쪽으로는 의성군 신평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역특산물로는 참외와 수박·메론 등이 안동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은 유교적인 전통성이 강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재의 보고라 불릴 만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회리, 가곡리, 갈전리, 구담리, 광덕리, 인금리 등에는 한 성씨들이 집단적으로 모듬살이를 영위하고 있는 동성마을이 산재되어 있어 문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생활문화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이 잘 정리된 곳이기도 하다.

### 2) 병산리

풍천면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마을로 풍산현에 속하였으나 고종 32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안동군 풍남면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풍산현의 상리와 하리의 일부, 풍서면의 가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병산리라 하였다. 그 후 1934년 지방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풍천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병산리의 규모는 47가구에 107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자연마을은 원병산, 정자골, 효부골 등 3개이다. 지명은 병산서원 앞에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병산에서 따온 것이다. 원병산에는 삭식골, 도녕잇골, 샘골, 서원마, 섬계가 있다. 이 중 서원마을(병산서원이 자리잡은 곳)은 원병산의 다른 표현이다. 정자골에는 정자곡(亭子谷)이 있

37) 통계청 <https://kosis.kr/>

고, 효부골에는 효부곡(孝婦谷)이 있다.

〈그림 2-19〉 안동시 풍천면 지도



출처: 안동시

## 8. 무성서원과 정읍시

### 1) 개관

2023년 8월 1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정읍시 총인구는 지난달보다는 16명 감소한 104,220명으로 남성 51,878명(49.8%) 여성 52,342명(50.2%) 총 세대수 54,793세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는 92,208명으로 정읍시 평균 연령은 50.5세(전국 160위, 전라북도 5위)이다.

정읍시 9경 중 무성서원과 상춘공원은 4경에 속하며, 유일한 세계유산이다. 칠보면에는 칠보수력발전소역사관,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칠보수력발전소, 칠보산, 수청저수지가 대표적인 정읍시 칠보면의 관광지였다. 이중 칠보면에는 무성서원과 상춘공원이 대표적인 관광지다. 그리고 대표적인 생태관광은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있다.<sup>38)</sup>

### 2)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칠보면(七寶面)의 총가구 수는 1,317로 인구는 2,896명이고, 면적은 49.60㎢이다. 칠보면에는 백암리, 축현리, 와우리, 시산리, 반곡리, 수청리가 있고 무성서원은 무성리에 속해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성황산 아래 자리한 원촌마을은 규모는 작지만, 고적 유물이 많은 아름다운 마을이다. 칠보면은 1914년 칠보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원촌마을의 유래는 ‘서원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원촌’이 되었다. 서쪽에 성황산이 있고, 남서쪽에는 화룡산이 있다. 사피재는 서쪽에 있으며 백암리 신흥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고, 서죽평은 북쪽에 있는 들이며, 서쪽에는 은석으로 가는 돌도랑이 모퉁이가 있으며, 성황산 상봉에는 서낭당 터가 있다.

또한, 마을 앞에는 수령이 300년 이상 된 버드나무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신체를 단련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소규모 공원인 체련공원이 있다. 소공원에는 영성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바로 안쪽으로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학자인 정극인의 동상과 선비문화사료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태산선비문화사료관 앞면에는 칠광·십현도(七狂·十賢圖) 조형물과 함께 칠광·십현이 있다. 동상 옆에는 ‘상춘곡 시비’와 ‘태산선비사료관’이 세워져 있다.<sup>39)</sup>

원촌마을 뒤로 형성된 성황산으로 오르면 송정을 비롯하여 시산사와 송산사, 한정과 춘우당 김영상 선생을 배향한 필양사를 둘러볼 수 있으며,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武城書院)이 있다.

지리적으로 정읍의 동북부에 위치하여 웅동, 산내, 산외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삼국시

38) 정읍관광(<https://www.jeongeup.go.kr/>)

39) “전북 정읍.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2019.12.06., <https://live112.tistory.com/5228>



대부터 읍의 치소, 유상곡수 등 태산선비문화의 중심지로 남도 풍류의 원류로 평가되던 지역이다. 퇴계의 향약을 90년이나 앞선 고현향약, 고운 최치원의 풍월을 읊었다는 호남 제일의 정자 피향정, 최치원과 신잠 선생 등 7현을 배향하는 무성서원, 무성리 삼층석탑, 석불입상 등이 있다. 최초의 가사 작품 상춘곡과 불현 정극인 등 이 모두가 칠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의 대표적인 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연 생태적인 문화를 잘 접목시켜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문화마을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림 2-20〉 정읍시 칠보면 지도



출처: 정읍시

## 9. 돈암서원과 논산시

### 1) 개관

논산시의 세대수는 57,898개이고, 인구는 110,732명이다. 남성은 58,364명, 여성은 58,488명이다. 논산시의 외국인인 약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 중의 한 곳이다. 논산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연산, 은진, 노성, 석성 등 4현이 위치하였고, 1912년 4현을 4군으로 변경하였다가 1914년 4군을 병합하여 논산군을 설치하였고, 19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었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시 중의 하나다. 충청남도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계룡시, 동북방향으로 대전광역시, 동남방향으로 금산군, 서쪽으로 부여군, 서남쪽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남쪽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북쪽으로 공주시에 접해 있다.

역사적으로는 강경읍의 수운과 상업 번영이 유명한 곳으로 개성 상인과 더불어 강경 상인도 매우 유명했다. 현대에 유명한 특산물인 딸기는 1967년부터로 역사가 짧은 편이며, 논산훈련소가 지명도가 높다.

### 2) 연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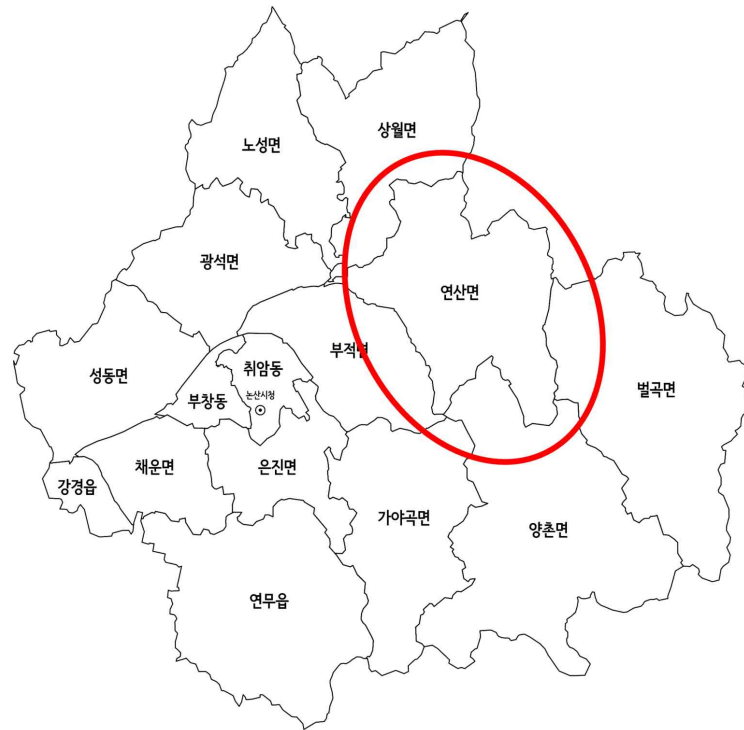
돈암서원이 있는 연산면의 면적은 55.00km<sup>2</sup>이고, 자연마을은 116개가 있다. 연산면의 인구수는 6,162명이고 세대수는 3,365세대이고, 남성은 3,038명, 여성은 2,874명이다. 연산면은 본래 연산군의 소재지로서 현내면이라 하여 황령, 신곡, 남촌, 북촌, 신암의 5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 개편 당시 백석면 14개 리, 부적면의 14개 리, 내적면의 12개 리, 노성군 하도면의 숙진동을 병합하여 연산면이라 하였다.

이후 논산군에 편입되어 19개 리를 관할하여 오다가 1983년에 양촌면 신양리를 통합하여 20개 리를 행정구역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리하여 연산면은 법정리 20개 리에 41개 리의 행정리가 있고, 164개 반이 있으며 111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산면은 논산시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부는 벌곡면과 양촌면 남부는 부적면 서부는 상월면 북부는 계룡시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전형적인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계룡산지로부터 발원하는 금강지류는 연산을 거쳐 남쪽으로 흘러 논산천에서 합류하여 논산 곡창지대의 젖줄이 되고 있다.

‘돈암’의 돈은 원래 ‘둔(遯)’자로 세상을 피해 숨어 산다는 은둔 혹은 둔세를 뜻한다. ‘돈암’은 김장생이 젊어서는 과거에 응하지 않고,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실제 나아간 적은 많지 않았다. 특히 자파 세력인 서인이 집권한 인조반정 이후에는 국왕의 부름에도 사양하고, 고향인 이곳에서 은둔하여 학문과 후진양성에만 침잠하면서 산림으로 살아간 삶을 상징하는

상징적 기호 경관이 ‘둔암(遯巖)’이다

〈그림 2-21〉 논산시 연산면 지도



출처: 논산시



## 제1절 문화관광과 경제활동

세계유산 활용의 근간은 보존이다.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활용을 생각할 수 없다. 세계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은 활용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전제해야 한다.

지나친 상업주의적 활용이나 세계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활용은 지역이나 국가의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 가치를 훼손한다. 세계유산의 성격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존 형태와 상태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문화재 활용이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의 전통문화가 자원으로써 활용할 때 그 지역의 정체성은 살아날 수 있고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이 관광 유인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로 나뉜다. 자연적 요소에는 마을경관, 수자원, 수목, 기후, 환경 등을 들 수 있고, 문화적 요소에는 역사, 건축, 축제, 이벤트, 음식, 제사 등 유무형의 인위적 요소를 말한다.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의 산업화와 직결된다.

콘텐츠산업은 문화를 상품으로 생산·판매 또는 소비하는 현대의 산업형태다. 2000년 이후 문화기술과 함께 ICT로 대표되는 디지털 정보처리 기술의 응용 발전은 문화재 활용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역사물과 판타지에 대한 대중의 수요는 문화유산의 산업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영상콘텐츠화, 문화유산의 테마파크화, 문화유산의 웹콘텐츠화, 문화유산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결합 등은 문화재 활용의 예다. 구체적으로 소수서원의 영비촌을 조성하여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고스란히 체험해볼 수 있는 테마파크형 문화유적 단지가 2004년 9월 22일 문을 열었다. 선비촌은 전시, 숙박, 휴게, 교육,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선비촌의 핵심을 이루는 12채의 고택은 영주시 관내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던 집과 초가집 본래의 모습을 되살려 지었다. 이곳은 가족 관광객 중심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한, 고택에 따라 윷놀이, 제기차기, 장작패기, 지게지기, 새끼줄꼬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축전’과 ‘문화재야행 18선’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문화재를 품고 있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특색있는 야간문화를 만들어 무형 문화 재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의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문화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1〉 서원과 관련있는 주요 관광행사



## 1. 영주 소수서원

### 1) 소수서원 선비마을 체험촌

영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 이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수서원이 있고, 문화유산 9개 서원 중 가장 관람객이 많고 도산서원과 더불어 입장료를 받는 서원 중의 하나다. 또한, 영주에는 부석사 외에 특별한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관광객 수가 타 경북지역에 비해 못 미쳤다. 이에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영주지역의 각종 유교문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영주지역 유교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선비마을 선비촌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나아가 영주의 선비문화를 고양하고 주변의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영주가 예부터 선비마을의 중심지였다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유교적 선비문화 시설의 집중 조성이 필요했다. 이에 소수서원을 정비하여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영주지역 내 선비가 거주하던 고택·종택을 재현하여 한 곳에 모아 선비촌을 조성했다. 또한, 유교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해 역사문화 체험의 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숙박과 교육 등이 가능했다.

〈표 3-1〉 소수서원 선비마을 체험촌 조성 추진 경과

연도	추진경과
1997년	선비촌 1단계 공사
1999년 12월	소수서원 사료관 건축공사
2000년 12월	소수서원 사료관 증축공사
2003년 6월	선비촌 2단계 공사
2004년 4월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2004년 9월	선비촌, 소수서원 사료관(시립박물관), 소수박물관 개관
2008년 6월	유교전문박물관 등록(제1종 전문 박물관)
2021 1월~2023 12월	상설전시실 전시 개편(30억 원), 내부 노후 시설 개보수

선비촌과 역사문화 체험장은 소수서원에서 느낀 옛 선비의 정취를 한옥 숙박과 유교문화 학습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소수서원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설로서 강학당(교실), 일신재와 직방재(집무실), 학구재와 지락재(학습실), 장서각(도

서관)이 있으며, 당시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사료관과 충효교육관 등이 있다. 또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현에 대해 제향하고 선현이 이룬 뜻을 본받고자 하는 시설로서 사당, 영정각, 전사청(제기창고), 성생단(제물검사대) 등이 있다. 소수서원의 관광자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목조고옥: 강학당, 문성공묘, 일신재, 직방재, 지락재, 학구재, 전사청, 장서각, 경림정, 고직사
- 목조신옥: 유물관, 영정각, 취한대, 안내실, 광풍정
- 현대식 건물: 충효교육관, 특산물판매장, 매표소, 화장실, 관광안내소

소수서원은 문화재 활용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일하게 서원의 원래 기능인 강학과 제향 기능을 전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다. 강학은 소수서원의 정신을 계승한 동양대학교에서 제향은 지역 유림들로 구성된 소수서원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소수서원 학맥 계승을 위한 사마선비과정(생원반)을 운영(총16주과정, 매주 토요일)하여 지역 유림(20명)에게 유가 경전 위주로 강독하고, 진사반은 생원반 이수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15명을 시문 위주 강독을 소수서원 강학당에서 전통복장을 착용하여 서원 강학기능을 재현하고 있다. 생원반과 진사반 수업을 통해 실제로 소수서원 생원 또는 진사 학위증을 수여하여 조선시대 서원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교수, 일반시민, 대학생, 외국인 등 참여 대상별로서 원선비인성 프로그램으로 선비 리더·시민 선비·미래 선비·글로벌 선비의 4개과정, 선비촌고택체험 1박 2일, 선비에절 및 인성교육, 소수서원의 강학 기능 및 선비의 멋과 풍류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 2) 영주 선비문화축제

경북 영주시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2023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열었다.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영주시 소수서원·선비촌·서천 둔치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소수서원 일대에는 ‘선비 시그널 촌’을 마련해 마당극 ‘텐동어미’와 거리 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어린이 장원급제, 발자국 런웨이 등 어린이들이 즐길만한 이벤트와 가족 참여형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서천둔치 일원에서 열리는 ‘검백 신바람 퍼레이드-선비의 산책’은 선비정신과 한국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해 각양각색의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총 2.1km 구간에서 거리퍼레이드를 벌였다. 퍼레이드에는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10개 경연팀과 취타대, 대형 선비 퍼펫(인형), 풍물패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sup>40)</sup>

40) “영주 선비문화축제 5일 개막”, 조선일보, 2023.05.04. (<https://www.chosun.com/>)



### 3) 소수서원 둘레길

2019년 전국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시 강조되었던 사항으로 서원 주변의 ‘경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람 동선 개발이었다. 그 목표를 중심으로 약 2년여 간 문화재청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둘레길은 소수서원 매표소에서 시작해 당간지주~취한대~광풍대~소수박물관~죽계교~영귀봉 경계~소훈대를 잇는 노선으로 총거리 약 1.3km이다.

최대한 기존 경관과 조화로운 노선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 소수서원 외곽 노선을 활용하고, 영귀봉 경계 부분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 서원 주위를 일주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 일반 성인에게는 조금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을 겸할 수 있는 코스 구성으로 아이를 동반한 부모 등 가족 단위 여행객이 쉽게 걸을 수 있고, 문화관광 해설과 함께 하면서 걷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소수서원 둘레길의 동선을 소수박물관과 선비촌 방면으로 연결해 소수서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 제공으로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증대하는 효과가 되었다.<sup>41)</sup>

#### 〈그림 3-2〉 소수서원



소수서원 인근 매표소,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등

41) 영주시, 세계유산 소수서원 ‘명품 둘레길’ 선보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 2022.01.04.

#### 4)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단체 방문객 중심의 체험 및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다. 숙박시설, 식당, 교육장 등으로 각 시설이 구분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옛 선비들이 일상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시설은 한옥체험관(청백재 3실, 화이재 3실, 담교재 3실, 성인재 2실, 주이재 15실, 충관 2실, 효관 2실, 예관 2실), 예절교육관, 전통음식체험관, 쉼터(누각, 연못, 정자) 등이 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예절특강, 논어, 사자호학, 배례법, 생활예절, 다례, 다식체험, 혼례, 제례, 명상, 고정, 선비예술, 택견, 전통놀이(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굴리기 등), 천연염색, 한지공예, 도예, 떡메치기, 짚공예, 풍물놀이, 문화유적답사 등이 있다.

영주시는 한국 문화전통적 가치를 관광 요소로 재구성하여 한국을 대표하고 선도할 수 있는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한국문화 세계화·산업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조성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단산면 병산리 일원에 조성했으며, 사업면적은 960,974㎡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1,56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그림 3-3〉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도



## 2. 함양 남계서원

### 1) 함양선비문화탐방로

함양군에는 함양선비문화탐방로가 있으나 남계서원과 약 15km나 떨어져 연계성이 떨어진다. 주변의 인문경관과 연계는 중요하고, 함양선비문화탐방로를 찾은 관광객이 남계서원까지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 특히, 함양에 분포한 마을들은 모두 남강천이 굳이 흐르는 방향에 응집해 있기 때문에 남강천 수변경로가 매우 중요하다. 남계서원과 함양선비탐방로가 15km나 떨어져 있으나 남강천에 따라 위치한다는 공통분모는 있다.

함양선비문화탐방로는 제1코스와 제2코스로 나뉘고 총 길이는 10.2km로 걸어서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농월정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는데, 농월정은 ‘달을 희롱하는’, ‘달을 마음 먹은 대로 다루는 누정’이라는 의미다. 화강암을 따라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보름달이 뜬 밤, 계곡물에 비친 달과 선비들이 술잔을 나누던 곳이다. 함양선비문화탐방로 제1코스는 ‘정자탐방로’라고도 부르고, 함양선비문화탐방로 제2코스는 ‘선비탐방로’라고 부른다. ‘선비탐방로’의 상세한 코스는 다음과 같다.

#### ○ 함양선비문화탐방로 제1코스(약 6.1km, 약 2시간)

선비문화관→영귀정→다곡교→동호정→호성마을→람천동→황암사→농월정

#### ○ 함양선비문화탐방로 제2코스(약 4.1km, 약 1시간 30분)

농월정→월림마을→구로정→점풍정→오리숲→광풍루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현재 무성서원의 고직사에 무성서원관리사무소가 있고, 여기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상주하며 관광객을 안내하는 형태다. 칠보테마유원지에 종합안내소가 있지만, 무성서원 일대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 다행히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종합안내센터를 정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 and 관광 향유권 보장을 목적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조성 중이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를 동반한다.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2015년에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추진 후 전북은 전국 대비 37%의 높은 비율로 공모에 선정되었다.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2021년에도 20개 중 군산(2), 익산(2), 순창(2) 등 6개가 선정되었다. 기존의 주차장과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필수 이용시설의 개선과 연령, 장애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및 표지판을 설치했다.

## 2) 남계서원 한옥스테이

남계서원에는 한옥스테이를 할 수 있는데, 약 200m 떨어져 있는 남계-일로당 한옥스테이에서도 가능하다. 남계-일로당한옥스테이는 함양군 수동면 효리마을에 있는 일로당 양관 선생의 종택이다. 일로당 종택은 2010년 복원사업을 시작해 2011년 완공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추억 쌓기 여행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일로당은 매화관·난초관·국화관·대나무관 총 8개의 한옥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 선비문화탐방로



### ○ 함양선비문화탐방로

남계서원에서 계평한옥마을은 약 3.5km, 상림공원은 8.4km, 대봉산휴양밸리 9.8km, 화림동계곡은 15km

함양에는 대봉캠핑랜드, 농월정오토캠핑장과 함양용추오토캠핑카가 있다. 함양에는 서원과 사찰이 많은데, 대표적인 청계서원(거리 1.2km), 송호서원(12km), 화산서원(3.5km)이 있다.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유교 선현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매년 제향 봉행 전 전통제례 행사를 개최하여 잊혀져가는 제례문화를 복원하고 있다. 남계서원은 2019년 7

월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제향행사의 격을 높이고, 전통제례문화를 복원해 함양군을 넘어 경남을 대표하는 제례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sup>42)</sup> 이외에도 함양에는 사찰도 많은데, 용추사, 영원사, 영각사, 보림사, 벽송사, 안국사, 서암석불, 금대암 등이 있다.

2022년 10월에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상림공원~개평한옥마을~남계서원 투어버스 운영하는 코스로 10월 한달간 토·일요일 상림관광안내소 앞에서 출발하는 투어버스는 40명 내외 선착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오후 1시와 3시30분, 6시 3회차에 걸쳐 운영되며, 왕복 2시간 가량 소요된다. 1~2차 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관광객들에게 함양군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3차는 남계서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개최에 따른 방문객의 자유 관광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한다. 10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10월이 가장 함양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기간이기 때문이고, 2022년 10월에는 천령문화제, 남계서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등이 있어 관광에 집중했다.<sup>43)</sup>

### 3)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 인근(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84-1번지 일원)에 전체면적 1,400㎡, 지상 2층 규모 교육체험관을 건립한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도비와 함양군 군비 7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교육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군의회회는 졸속 진행과 남계서원의 보호 등을 문제를 제기 중이다. 임채숙(국민의힘·함양 가) 군의원은 “남계서원 주변에 함양군이 매입해 놓은 5,000평(1만 6,500㎡) 규모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와 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해 매입할 부지를 통틀어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당장 체험관부터 짓는 건 안 맞다고 본다. 어떻게 체험관을 지어야 대대손손 후회하지 않고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지 계획을 잘 짜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 배치는 의회와 꼭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석(국민의힘·함양 다) 의원은 “군 의원들이 요구하는 건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놓고 예산에 맞춰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언젠가 완성된 작품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청사진도 그려지지 않았는데 교육체험관부터 먼저 짓는다고 한다. 의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남계서원이 주가 되어야지 체험관이나 다른 부수 시설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up>44)</sup>

문화재청, 경상남도, 함양군은 공동으로 “빛의 노래, 서원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022년 9월

42) “세계문화유산 함양 남계서원, 전통제례행사 개최”, 서울경제TV, 2022.03.10.

<https://www.sentv.co.kr/news/view/613729>

43) “함양군, 상림공원~개평한옥마을~남계서원 투어버스 운영”, 미디어팜, 2022.10.01.

<http://www.mediafarm.kr/news/articleView.html?idxno=5787>

44) “함양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추진 난항”, 경남도민일보, 2023.03.26.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미디어아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sup>45)</sup>이며, 수원화성, 고창 고인돌,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전국의 산재해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개 서원 중에는 유일하게 남계서원만 참여했다.

서원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웅장하고 몰입감 높은 미디어파사드와 레이저쇼 등을 연출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개최되는 ‘2022 함양 남계서원 미디어아트 쇼!’는 ‘빛의 노래, 서원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남계서원과 첨단 미디어·디지털·IT 기술을 접목한 야간 콘텐츠다.

사단법인 남계서원(이사장 이창구)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함양군이 후원하며 사단법인 남계서원이 주관하는 함양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인 ‘남계서원 인문학강좌 및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남계서원은 인문학강좌와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최근 인문학 강좌와 문화체험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2022~2023 인문학강좌 및 문화체험<sup>46)</sup>

구분	인문학강좌				문화체험		
2022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기간	
	역사강좌	6개월(24회)			다례체험	6개월(24회)	
	농어강좌				국악체험		
	시낭독강좌				문자도체험		
	북아트강좌				둘레길산책		
	유적지해설						
2023	프로그램	장소	횟수	인원	프로그램	횟수	형식
	논어성독	남계서원	10강	20	다례체험	60일	체험
	명심보감	함양예술회관	4강	100	문자도체험	60일	체험
	시낭독강좌	남계서원	10강	20	둘레길체험	60일	힐링
	역사강좌	남계서원	7강	20	마당극 공연	5회	공연

45) 2021년에는 7곳(공주, 부여, 익산, 안동, 수원 화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22년에는 8곳(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고창 고인돌유적, 양산 통도사, 함양 남계서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23년에는 8곳(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고창 고인돌유적, 양산 통도사, 함양 말아산고분군, 강릉 대도호부관아)에서 진행했다(문화재청 2023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https://culturalheritage-mediaart.com/#map6>).

46) 남계서원 재구성

〈표 3-3〉 남계서원 인문강좌와 문화체험 내용<sup>47)</sup>

구분	프로그램	내용
인문학강좌	역사강좌	함양의 역사와 함양을 빛낸 인물의 이야기를 인문학으로 풀어낸다.
	논어강좌	논어에 나오는 군자의 마음을 담은 네 글자씩을 모아 저자가 강론한다.
	시낭송강좌	함양을 빛낸 인물들의 시를 모아서 낭송하며 그 선비정신을 이해한다.
	북아트강좌	일두 정여창 선생과 역사적 인물들, 문화재 등을 북아트로 강론한다.
	유적지해설	매 회차마다 12시 30분 함양상림 관광안내소에서 관광버스로 출발 1시에 남계서원 도착 후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문화체험	다례체험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남계서원에 오면 다례와 전통예절을 체험한다.
	국악체험	대금과 해금, 가야금, 색소폰, 기타를 배워보고 우리의 전통악기 등을 만져보고 배워볼 수 있다.
	문자도체험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 우애 있고, 국가와 민족 및 친구를 사랑하는 효제충심도 체험
	둘레길산책	남계서원 소나무숲의 논길을 산책하면서 군자의 마음을 길러내는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계서원 원장이자 사단법인 남계서원 이사장인 이창구 원장은 “남계서원의 당면 과제는 서원을 찾는 참배객과 관광객들의 안내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관이나 연수시설의 건립이 시급하고, 템플스테이처럼 서원스테이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서원의 참모습을 이해하고 선비 체험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모습을 재현하는 남계서원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서원의 참모습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예부터 내려오는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선비 고장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 4) 개평한옥문화체험휴양마을

개평이라는 지명은 두 개울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마을이 위치해 길개(介)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일두고택, 풍천노씨 대종가, 노참판댁고가, 하동정씨 고가, 오담고택 등이 있으며, 100

47) 남계서원 재구성

년이 넘은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옥이 60여 채가 있다.

개평한옥마을은 선비의 고향이었던 만큼 문화재로 지정된 고택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배경으로 KBS 대하드라마 <토지>와 MBC 드라마 <다모> 등의 촬영지로 활용됐고, 얼마 전 히트한 tvN의 <미스터션샤인>에서는 김태리의 집안 배경으로 이 개평한옥마을이 촬영되기도 했다.

개평한옥마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일두고택으로 일두 정여창이 살았던 터에 후손들이 다시 지은 집이다. 대지 3,000평, 11개 동의 건물로 18세기에 개축된 사랑채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건물이 16~17세기에 건축됐다. 1984년에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가 됐다. 이러한 개평한옥마을에 또 하나의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솔송주 문화관이다. 경남무형문화재 박홍선 명인이 솔송주를 시연하는 곳이다.<sup>48)</sup>

경남 함양군 함양연꽃의집 치유농업팀에서 2023년 10월 28일 함양군 지곡면 한옥마을인 개평마을에서 진행한 ‘사회적농업 & 개평할매와 함께하는 어울림 장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경남·울산·제주 거점기관인 다운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했고, 농업회사법인 ‘호미랑’에서 진행했다. 함양연꽃의집은 4월 사회적치유농장 호미랑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함양연꽃의집 치유농업팀 ‘농벤저스’는 지곡농장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수확한 유기농 고구마와 함양연꽃의집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수제 레몬청을 판매하고, 함양연꽃의집 치유농업 활동을 지역주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소개했다.<sup>49)</sup>

〈그림 3-5〉 개평한옥마을 지도와 전경



48)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29519979?OutUrl=naver>

49) 폴리뉴스 Polinews(<https://www.polinews.co.kr>)





### 3. 경주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경상도 동남부 지역 사림의 근거지로서, 경주지역 사림의 주도로 건립된 서원이며 성리학을 교육하고 사회적 확산을 주도했던 조선의 교육기관으로 무형적인 가치 또한 매우 탁월한 세계유산이다. 문화유산으로는 옥산서원, 전통한옥 독락당, 정혜사지 13층 석탑 등이 있으며, 국가지정 보물만 2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출 체험마을 대표는 “일반 관광객은 볼거리와 놀거리 체험을 위주로 체험을 하고, 가족 단위나 어린이 체험자들은 고구마캐기, 떡메치기 등의 체험거리와 예절배우기, 고추장 및 김장 담그기 등의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다”면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체험객들을 맞이 위해 시설환경 정비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 옥산서원 교육관 건립과 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1) 독락당과 세심대

서원은 내적으로 학문을 수양하고 외적으로 산수를 즐기는 곳이라 무회구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의 무회구곡에 가까운 곳은 옥산원이다. 옥산서원 앞으로는 사철 마르지 않는다는 자계천이 흐르는데, 작은 폭포 용추 위로 걸린 외나무다리가 서원으로 드는 제 길이로 용추 위 백여 명도 앉을 만한 너른 바위가 세심대(洗心臺)다. 세심대는 넓고 평평한 바위엔 화재 이언적이 이름을 짓고, 퇴계 이황이 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다.<sup>50)</sup> 옥산서원과 독락당은 약 800m 떨어져 있다. 화재 이언적 선생은 사간원의 사간으로 있으며 권신(權臣) 김안로의 중임을 반대하며 직간하다가 파직당하고 물러나서 혼자 6년간 독서하면서 내공을 쌓은 열락의 공간이 바로 독락당(獨樂堂)이다.

경북교육청연구원은 옥산서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선비학교, 인성체험교실, 전통문화 체험 및 무료 다도, 붓글씨 등 서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옥산서원 무변루가 2022년 보물(보물 413호)로 지정되었다. 무변루는 1572년 옥산서원이 창건됐을 때 함께 세워졌으며, 주변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규모는 정면 7칸, 옆면 2칸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좌우 측면에는 가적지붕을 설치했다. 가적지붕은 맞배지붕 측면에 덧붙여진 한쪽으로 경사진 지붕으로, 양 측면에 가적지붕을 달아낸 누마루를 설치해 주변의 자연경관 조망을 무변루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건물의 아래층은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온돌방과 누마루(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로 구성돼 있는데, 위층은 가운데에 대청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둔 뒤 다시 좌우에 누마루를 구성하는 매우 독특한 평면

50) “선비들이 노니던 곳서 고즈넉한 휴식을”, 경북매일, 2022.07.26.

을 이루고 있다.<sup>51)</sup>

2020년 10월 19일 문화재청,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옥산서원’에서 등재 1주년 기념 한·중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화재청 세계유산축전 사업의 일환으로써, 조선시대 성리학 전파와 교육을 담당했던 전국 9곳 서원의 매력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홍보하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학술대회 진행에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표지석 제막식도 열렸다. 이와 함께 주자와 회재의 연구 등 꾸준히 유교문화 교류를 해 온 경주시와 중국 남평시 양 도시 간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한·중 교류의 관점에서 본 옥산서원’과 ‘옥산서원의 위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한국적 성리학의 가치를 재조명 하는 자리가 됐다.<sup>52)</sup>

## 2) 세심권역

세심마을은 옥산서원 인근 마을로 때 묻지 않은 하늘과 땅,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는 바람과 물, 그리고 500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마을이다. 세심(洗心)이란 “물(物)에 대한 사사로운 마음이 없고 그 물(物)이 내 마음을 흐리지 못할 때 비로소 마음을 씻었다고 할 수 있다. 세심마을은 ‘옥산서원’으로 유명한 경주시 안강읍 옥산1리 마을 일대를 말한다.

세심권역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효 사상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심마을은 효를 중심으로 전통예절, 도자기, 민화, 전통먹거리, 사계절 농사, 천연염색, 교육형 문화체험형 유식, 유교테마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심마을에는 70여 가구의 주민들이 농사와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민박과 맛집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고, 최근에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옥산 세심마을은 회재 이언적 선생께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 하던 곳으로, 훌륭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리고 넉넉한 인심을 자랑한다. 문화유산으로는 옥산서원, 전통한옥 독락당, 정혜사지 13층 석탑 등이 있으며, 국가지정 보물만 2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세심마을은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8년부터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농협으로부터 팜스테이 등급평가 최우수마을로 인증을 받았으며, 경상북도로부터 농촌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문화·복지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옥산 세심마을을 찾은 어린이들이 두부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으며, 세심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을 잊고 사는 도시인에게 훈훈한 인정과 웃음을 찾아 주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2~300명이 찾을 정도로 농촌체험 명소다.

51)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 보물 지정”, 조경신문, 2022.08.03.

52) “경주시 ‘2020 옥산서원 한·중학술대회’ 개최”, 대구경북뉴스, 2020.10.20.

이곳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평 규모의 체험관과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옥 2동, 그리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3300㎡(1000여 평) 규모의 넓은 마당과 같은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향토음식 체험장과 조청 참기름 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향토음식체험장은 60명이 수용가능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은 약과 만들기, 꽃절편, 무지개떡케이크, 흑임자, 단호박양갱 만들기, 깨강정 만들기, 올란, 조란, 강란 만들기 등이 있다.

세심마을에는 옥산서원이 있고, 독락당과 정혜사 13층 석탑이 있다. 또한 쌍봉 선생 테마로 성산서당, 수재청, 하곡리 보호수가 있다. 화랑도 테마도 있는데, 금곡사, 화산곡지, 안동권씨 진성통 등이 남아 있다. 그중 세심마을은 농어촌 인성학교에 집중하고 있다. 농어촌 인성학교는 청소년이 농어촌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 권역을 말한다. 도심과 학교를 벗어나 농촌에서 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배울 수 있다.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생활 자세와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

〈그림 3-6〉 옥산서원과 세심마을



〈그림 3-7〉 옥산서원과 세심마을 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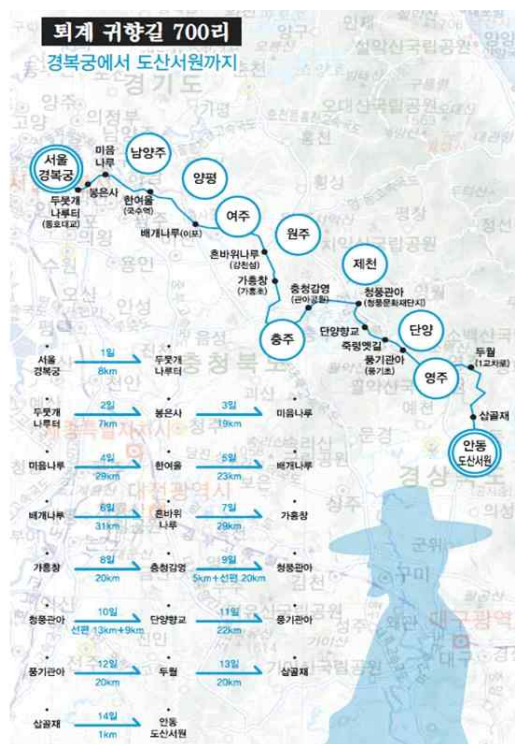


#### 4. 안동 도산서원

##### 1)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퇴계 귀향길

2023년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퇴계 선생의 700리 귀향길 재현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2019년 4월 도산서원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경복궁에서 시작해 도산서원까지 약 270km를 걷는 행사다.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는 45명으로 구성된 재현단이 퇴계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14박 15일 동안 서울 경복궁을 출발해 안동 도산서원까지 5개 시도, 17개 시군구를 걸으며 퇴계 선생의 참 뜻을 되새긴다. 권기창 안동시장장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귀향길에서 만난 선생의 넉넉하고도 인간적인 선비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많은 사람이 퇴계 귀향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찰과 구도의 길, 대한민국 대표 인문정신 로드(Road)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sup>53)</sup> 도산서원 부설기관인 선비문화수련원은 2001년 퇴계 선생의 16대 이근필 종손(90)의 제안으로 설립됐다. 첫해인 2002년 224명의 교원 수련을 시작으로 해마다 대상과 인원이 늘어나 2021년 2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림 3-8〉 퇴계 귀향길 700리



53) “경복궁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이어진 퇴계의 ‘참뜻’...270km 귀향길 재현 마무리”, 안동인터넷신문, 2023.10.09. <http://www.ad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32>

특히 도산서원에서는 선조 특별 과거시험제인 ‘도산별과’의 현장인 도산서원 시사단(試社壇)을 직접 걸어서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시사단은 1792년 정조 당시 퇴계 선생의 학덕과 유업을 기념키 위해 이조판서 이만수에게 도산별과를 새로 만들어 지방의 인재를 선발했다. 당시의 과거시험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에 영의정 채제공의 글로 비문을 새기고 시사단을 세웠다. 그 뒤 1824년에 고쳐 세우고, 1974년 안동댐 건설로 물속에 잠기게 되어 현 위치에서 지상 10m의 축대를 쌓아 그 위로 비각과 비를 옮겨지었다.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공승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장은 “모처럼 세월교가 물 밖으로 나와서 통행이 가능하니 시사단에 올라 시사단 비석과 비각을 감상하고 건너 편에 있는 도산서원의 고즈넉한 풍광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sup>54)</sup>

안동시 안동문화원은 ‘안동대도호부 별과대전’도 진행한다. 퇴계 선생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고 인재선발을 위해 실시된 도산별과는 퇴계 선생을 참 선비로 추앙했던 정조 임금의 뜻에 따라 1792년 시행한 역사가 있다. ‘안동대도호부 별과대전’은 1994년부터 도산서원에서는 도산별과대전(陶山別科大典)을 재현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안동문화원은 도산서원과 도산별과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9월~10월부터 ‘통통통 도산별과’를 진행하고 있다. 도산별과 5행시는 물론 퍼즐과 포토상 분야에 일반인과 어린이 참여도 가능하다.

## 2)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도산서원은 안동시에서 약 30분 정도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고, 최근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 조성되었다. 유교선비문화공원은 도산서원에서 남쪽 직선으로 3km 남짓한 안동호반에 자리잡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다. 경북 북부권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박람회)의 중심이 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유교문화의 글로벌 허브가 될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16세기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한국문화테마파크도 잘 조성되어 있다.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유교문화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합친 개념) 개념의 박물관이다. 유교의 미래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대안적 어젠다 발굴 등 세계 유교문화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43만3,012㎡ 부지에 연면적 1만3,617㎡로, 16세기 조선시대 산성마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성곽길 저잣거리 종루광장 군영 향촌 산성숲길 연무마당 연무대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21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도산의 화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프로그램이다.<sup>55)</sup>

문화재를 개방해 시민이 오가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존과 훼손 여부를 걱정하지 않

54) “조선 특별과거시험장 '도산서원 시사단' 직접 관람한다”, 유스픽, 2023.02.02.

55) 문화재 ‘단순관람’ 아닌 ‘체험’하며 활용… 올해 서원 문화재활용사업 현장 가보니, 중도일보, 2021.04.21.

을 수 없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개방해 건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한다. 용문역도 걸어 10분 거리고, 남선공원도 주위에 있으며, 탄방동이라는 대전의 중심이다. 문화재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조차 시민에게 알리지 못한다는 건 오히려 슬픈 일이기에 개방해 서원이라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려 하고 있다.<sup>56)</sup>

### 3) 기타 콘텐츠

또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산서원에서 인성인문학 탐방 인증 프로그램 ‘인품 챌린지’, 퇴계 종택을 방문하여 퇴계 종손의 삶 알아보기, 좌우명 만들기 등 다양한 인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의 자문 역할을 하여 학생에게 보다 의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sup>57)</sup>

도산서원은 2020년부터 야간 개장을 시행하고 있다. 도산서원 일대의 경관을 밝혀줄 조명 및 조형물 설치,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포토존 등을 통해 도산서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평상시에는 공개하지 않는 ‘경전 성독(聲讀)’이 도산서원 전교당에서 시연된다. 2022년에는 약 15,000명이 방문했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도산서원 건너편 30만㎡의 청보리밭에서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2023 안동 청보리밭 축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마을공동체가 주관해 축제공간을 조성·운영 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특화된 마을 브랜드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촌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당과 체험, 판매점들은 물론 안동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상가와 먹거리들도 함께 운영된다.

도산서원 관리사무소는 야산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고, 2023년 7월부터 주차장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했다. 도산서원 주차장은 200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유료로 운영되었는데, 민원이 많아 불편이 지속된 사항이었다. 대신 입장료는 소폭 상승했고, 추석과 같은 명절 때는 무료 개방하고 있다.

2023년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는 춘계향사를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3월 10일(음력 2월 19일) 오전 11시에 봉행했다. 이번 도산서원 춘계향사는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도산12곡’으로 2022년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을 수상한 박준상(86세) 음악가가 도집례를 맡았다(단헌악례로 진행). 도산서원의 향사는 매년 봄·가을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에 서원 내 상덕사(尙德祠·보물제 211호)에서 치러진다. 상덕사는 퇴계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주향위는 퇴계 이황이고 종향위는 제자인 월천 조목이다. 도산서원의 향사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축시(새벽 1~3시)였던 향사 시각을 2009년부터 오전

56) 도산서원 인근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개장, 한국일보, 2022.08.29.

57) “경북교육청연구원, ‘옥산서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협약 체결”, 한국강사신문, 2023.03.20.



11시로 변경하고 2박 3일의 향사 기간은 1박 2일로 단축했다. 또한, 2020년에는 한국 서원 역사 600여 년 최초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여성 초헌관에 임명되었다.<sup>58)</sup>

〈그림 3-9〉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

58) “도산서원 계묘년 춘계향사 봉행”, 경상매일신문, 2023.03.07.

## 5. 장성 필암서원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된 장성군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집성관 리모델링을 비롯해 선비문화 디지털 전시공간 조성, 전통정원 정비, 선비문화 플랫폼 구축 등을 시행 중이다. 장성군에서 진행되는 ‘유네스코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축령산 편백숲, 향릉시장의 건강 먹거리와 연계, 새로운 관광 상품화와 주민 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 선비 독서법, 선비 밥상 요리교실과 축령산 편백림 명상프로그램 등을 융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sup>59)</sup>

특히, ‘서원스테이’ 사업이 주목된다. 군은 방문객들이 서원에 머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근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의 유물전시관을 ‘종합기록관’으로 탈바꿈시켜 전남 지역 서원의 기록을 보존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필암서원 세계화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장성군은 2030년까지 1,06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563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60)</sup>

〈그림 3-10〉 필암서원 포스터



59) “전라남도, 2021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4곳 선정”, 머니투데이, 2020.08.21.

60) “장성군,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선정”, 장성군민신문, 2020.08.23.

2022년 11월에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명품 국악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은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슈링클즈와 스크래치 아트를 체험하는 부스도 운영했다. 2023년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호남의 선비 하서 김인후 선생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문화행사는 관객과 만났다. 9월에서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원 앞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9월 16일에는 팬텀싱어 3 준우승 ‘라비던스’ 멤버인 소리꾼 고영열, 10월 21일에는 전통음악 합주단 ‘선풍’이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 회차인 11월 18일에는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공감’ 공연이 대미를 장식했다. 체험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수묵화 그리기, 스터디 플래너 만들기 등의 체험이 공연을 하루 앞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진행했다.<sup>61)</sup>

또한,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춘향제가 열렸다. 춘향제는 유교 제례의식에 따라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奉進禮),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奠幣禮), 술잔을 바치는 초헌례(初獻禮)와 아헌례, 종헌례의 순서로 진행했다. 초헌관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아헌관은 선상규 전 보성향교 전교, 종헌관에는 박대하 전라남도향교전교협회의회장이 임명되어 제례를 봉행했고, 울산김씨 문중과 유림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김명신 장성군 부군수,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50여 명이 필암서원에 참석했다.<sup>62)</sup>

전남 장성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선비문화 역사 테마 관광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 우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은 디지털 전시 공간으로 바뀐다. 가상공간인 선비문화 플랫폼 등을 구축해 외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람객이 온·오프라인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전환했다.

2019년 필암서원 우동사에서 고유제<sup>63)</sup>를 봉행했다. 고유제는 국가나 왕실, 사회, 가정에서 일상으로 행하던 의례다. 고유제가 필암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하서 김인후 선생에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고하는 의미로 열렸다. 고유제가 열리는 필암서원 우동사는 김인후 선생과 그의 제자이자 사위인 고암 양자징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우동사의 우(祐)는 하늘의 도움이라는 뜻으로 ‘우동’이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하늘의 도움으로 동방에서 태어난 이, 즉 하서 김인후 선생을 뜻한다. 고유제 봉행을 시작으로 추향제와 경서강독대회, 휘호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학술 출판행사와 기념비 제작도 추진한다.<sup>64)</sup>

61) “장성군,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명품 국악공연’”, 신아일보, 2023.08.31.

62)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춘향제 봉행”,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63) 국가와 사회 및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관련 신령에게 그 사유를 고하는 제사.

64) “장성군, 필암서원 우동사에서 고유제 봉행”, 투데이광주전남, 2019.08.20.

〈그림 3-11〉 필암서원 인근 카페, 슈퍼마켓 등



필암서원 인근 카페, 슈퍼마켓, 프리마켓, 필암바위(붓바위)



## 6. 달성 도동서원

### 1) 도동서원 스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일대가 2023년 7월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이곳은 현재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사업’이다. 총사업비 94억 원(국비 49억 원·시비 21억 원·군비 24억 원)이 투입돼 2만2천여㎡의 부지에 조선 5현 역사관을 비롯해 서원스테이, 서원문화원 등 전통 목구조 건축물 10동(건축 연면적 525㎡)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도동서원 서원스테이는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조성된다. 첫째, 세계문화유산인 도동서원과 한훤당 김굉필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5현(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을 만날 수 있는 역사관, 둘째,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합체험문화관, 셋째,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숙박이 가능한 서원스테이 등이다.

달성군은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티투어버스가 인기인데, 달성군참꽃투어버스라 이름 붙인 시티투어버스는 일요일에 도동 코스를 돈다. 시티투어버스는 일요일 오전 9시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에서 시작으로, 대구역(오전 9시 15분)과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오전 10시)을 거쳐 기착지로 이동한다. 2023년까지 8월까지 약 4,500여 명이 이용했고, 이 중 어린이가 866명이 이용했다. 또한, 달성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코레일과 맺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철도연계 상품 운영 및 열차 할인 지원, 상품 운영 관련 재정 및 행정 지원, 관광객 및 기차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제반 노력,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등이다. 그리고 도동서원은 2022년 다람재 터널이 개통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문화유적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 2) 낙동가람수변역사 누림길

대구시는 달성군에 있는 화원동산과 도동서원 일대를 개발하는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사업’을 2021년 완공했다. 이 사업은 화원 권역인 ‘화원역사재현지구’ 및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도동유교역사지구’로 나뉘어 추진한다. 국·공유지 11만㎡에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고분역사체험관, 테마공원, 조선5현역사체험관, 서원스테이 등을 조성해 다양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동유교역사지구’는 지난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일원의 다양한 유교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 5현을 통해 유교문화를 체험하는 역사체험관, 한옥체험과 함께 전통혼례나 풍류 공연 등 전통예절 및 문화체험을 위한 서원스테이, 서원문화체



이것이 끝나면 제시된 한글을 읽는 읽기 시험까지 치른 뒤 합산한 고득점자를 장원으로 선발했다. 무과 시험은 은행나무 옆, 술밭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진사를 거쳐 선발된 자들을 동군과 서군으로 나눈다. 각 군의 대표는 임금(김희덕 도동서원 유사) 앞으로 나가 무과의 명(命)을 받겠다고 예를 올리면 임금은 어사주를 내려 열심히 하라는 훈시를 주고 시범을 보인다. 시범 후 제자들이 대금 소리에 맞춰 활쏘기 시연의 퍼포먼스를 한 후 무과가 진행된다. 코로나로 연습하지 못한 응시생들은 현장에서 한두 번 체험하고 15m의 거리에 있는 활판을 향해 각각 5발의 활을 쏘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순위를 정한다.<sup>66)</sup>

참여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구성으로 ‘도동서원의 하루’, ‘도동 선비생활’, ‘도동 문화교실’ 3개의 강좌로 운영하고 있다. ‘도동 문화교실’, ‘도동서원의 하루’에서는 소학 수업, 컬러링북 체험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동서원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도동 선비생활’에서는 시조 수업, 사자소학 목판인쇄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학자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느껴볼 수 있다. 문화재인 도동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서원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지역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교육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66) “도동서원 과거시험 온 외국인들 ‘장원급제요~’”, 시니어매일, 2023.07.13.

## 7. 안동 병산서원

### 1) 서원스тей

병산서원은 서원스тей가 유명하다. 서원 본래의 기능인 강학과 제례기능 체험을 통한 선비 정신과 유교문화의 우수성을 대중 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자연을 벗하며 학문을 하던 선비들의 가치관과 자연관을 이해하는 것이다. 안동 지역 내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동의 유교 문화와 선비정신을 이어갈 기반을 만든다. 유교문화 관련 명사 초청, 강학을 통한 서원 기능의 대중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sup>67)</sup>

‘병산서원 스테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인 병산서원을 배경으로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하고, 특별한 식사와 정갈한 스테이 공간으로 품격을 높인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1박 2일씩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고건축물에서 자연을 만나고 선비의 정신을 음미하며 특별한 미식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통찰을 얻어 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병산서원 스테이의 콘셉트는 ‘비움으로 채움’이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 주최,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세계유산축전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회당 14명씩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비용은 3만 원이다.<sup>68)</sup>

#### 〈그림 3-13〉 병산서원 스테이 포스터



67) 병산서원 홈페이지(<http://www.byeongsan.net/>)

68) “안동시, 유네스코 가치 체험하는 ‘병산서원 스테이’ 운영”, 쿠키뉴스, 2023.08.31.



## 2) 기타 체험 프로그램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고택과 종갓집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안동시가 다양한 국비공모사업 선정으로 세계문화유산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는 탈광대’(탈쓰고 탈막세), ‘임하리 천년고탑에 등불을 밝혀라’, ‘슬로패션 금소마을’ 등 생생 문화유산 사업 3건이 선정돼 지역주민들과 문화재를 함께 향유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병산서원 계묘년(癸卯年) 춘계향사에도 4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초헌관이 술잔을 올렸다. 병산서원운영관리위원회(위원장 류창해)는 2023년 4월, 안동 병산서원 존덕사에서 문중과 유림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해 춘계향사를 봉행했다. 2020년 안동 도산서원 추계향사에서 한국 서원 역사 600여 년 최초로 여성 초헌관을 맡은 이배용 위원장은 2023년 3월 장성 필암서원 춘계향사에 이어 세 번째 초헌관을 진행했다.

〈표 3-4〉 병산서원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	대상서원	시행일시	참가인원
세계유산 인문캠프	병산서원	12회	희망신청체험객 : 20명 / 회당
강화	병산서원	1회	수강신청자 : 50명 (일반 체험객 포함)

이러한 병산서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병산서원에서 이루어졌던 유학 관련 학문을 배움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옛 선조의 학문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둘째, 서원스태이 종료 후 서원에서 하회마을까지 유교문화 선비길을 체험하고 별신굿 관람과 하회마을 탐방을 통해 하회마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인성 함양과 전통예절을 습득하는 계기 마련한다. 마지막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낼 수 있는 정신력과 면역력을 습득할 수 있다.

## 8. 정읍 무성서원

### 1) 무성서원과 다양한 콘텐츠

무성서원은 최치원(崔致遠)을 제향하기 위한 태산사(泰山祠)였으나, 1696년(숙종 22) 사액(賜額)을 받은 사액서원이다. 무성서원은 앞으로 동진강이 흐르고 뒤에는 성황산을 등진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에 위치한다. 무성서원은 구곡문화는 없으나 마을공동체와 함께 있는 대표적인 서원 중의 하나다. 김은숙 문화관광해설사는 “마을 속 서원은 신분 차별 없이 학문의 기회를 제공한 무성서원의 성격을 오롯이 드러낸다. 이곳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학문 공간이자,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었다”라고 설명한다.<sup>69)</sup>

2023년 ‘최치원 사상과 현가루의 풍류를 찾아서’란 주제로 강좌와 답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학생과 유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절과 다례, 사자소학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1박 2일 서원스테이 프로그램도 1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2023년 11월까지 최치원과 정극인 등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로 알아보는 풍류와 도에 대한 강좌와 ‘최치원과 정극인 관련 유적 답사’를 진행했다. 성서원 본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강학당을 운영하고 서원과 주요 역사 관련 장소를 답사하면서 예절과 다례·사자소학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서원스테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무성서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사계절 화보집 발간이나 전담 해설사 양성, 학술대회 개최했다.<sup>70)</sup> 2023년 11월 10일 정읍시청에서 ‘불우헌정극인선양회’ 무성서원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도 열렸다. 주제는 <무성서원의 역사적 위상과 활용 방안>이었으며,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가 주관해 공동으로 진행했다.

#### <표 3-5> 학술대회 주요 내용

발표	발표자 및 주제
기조강연	한문종(전북대학교) 전라북도의 서원·사우의 현황과 무성서원의 위상
주제발표 1	박정민(전북대학교) 태산선비문화권의 설정과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 2	남해경(전북대학교) 무성서원 일대 문화재 추진 전략
주제발표 3	윤인현(인하대학교) 불우헌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에 대한 소고(小考)
주제발표 4	유미나(원광대학교) 채용신의 작품세계와 무성서원

69) 최치원 품은 마을 속 서원, 세계로 나아가다... 정읍 무성서원, 2019.12.03.

70) “정읍시, 세계유산 무성서원 관리·활용 방안 추진”,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2019.07.09.,

2022년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1회 내장산단풍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했다. 2023년 11월 제2회 장산단풍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정읍시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했다.

이외에도 ‘칠보물테마유원지’ 조성 사업도 진행한다. 테마파크는 관광객 유입에 가장 효과적이다. 태산선비문화권의 전통문화와 연계한 농촌개발사업으로 연꽃연못 조성 등에 90여억 원, 놀이형 관광시설 확충의 일환인 ‘칠보물테마유원지’ 조성사업에 89여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 ○ 포토존 설치 및 SNS 활용 콘텐츠 개발

MZ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사진, 영상 그리고 SNS에 열광한다. 무성서원은 물론 주변 역사 자원, 둘레길 등 동선을 고려해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한다. MZ 세대는 물론 일반 관람객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블로그와 같은 SNS는 물론 유튜브, 틱톡 등 업로드를 활발하게 참여한다. SNS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경관 혹은 역사적 경관은 물론 무성서원 주변의 이쁜 카페 등 뛰어난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홍보를 극대화해야 한다. 사진공유 SNS인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할 수 있는’이라는 영단어 ‘able’을 합쳐 만든 조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의 신조어인 ‘인스타그램머블’이 주목할만한 키워드를 개발해야 한다.

포토존은 주요 관광지와 경관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무성서원의 주요 지점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흥미와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읍 지역의 대표적 문화 활동가인 이용찬 씨는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해 깊고 폭넓은 관심으로 여러 매체에 문화재와 관련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정읍 및 전북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 문화인프라의 연계는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중요한 네트워크다.<sup>71)</sup>

## 2) 무성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설립

무성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할 예정 계획이다. 2023년 10월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고운 최치원과 불우헌 정극인의 유교사상과 선비문화를 교육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읍시는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무성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한다. 선비문화수련과 체험,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이고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무성서원 인근 시산리 690-1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 4,500㎡, 연면적 1,120㎡, 규모는 지상 3층, 공사비용은 약 51억 원이다.<sup>72)</sup>

71)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그림 3-14〉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모형도<sup>73)</sup>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은 체험과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소년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통 한옥으로 건립,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 시설과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과 공연·강좌·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sup>74)</sup> 류태영 정읍시 문화행정국 국장은 “영남권에는 안동과 영주 문화수련원 등 선비문화 전승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호남지역은 미진한 상황이며, 호남 지역의 유일한 문화수련원을 건립해 정읍의 인문·자연 등과 연계한 인성 수련의 메카로 자리 잡고자 한다”라고 강조한다.<sup>75)</sup>

### 3) 태산선비문화권<sup>76)</sup>

태산선비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정립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2000년 11월 10일에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태산선비문화 조명 학술대회”를 실시했는데, 오병무 교수는 ‘한국유학의 발생과 태산’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태산선비문화권에 대한 개념을 처음 주장했다. 이후 2002년에 <“태산선비문화권” 개발계획 연구>라는 연구 용역을 통해 개념이 확립되었다.

동학농민전쟁 문화권과 태산선비 문화권은 상충되는 문화권으로 조화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어 인문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이다. 공간적 범위를 정읍시 칠보면 일대로 하고, 대상 지역에 칠보·태인·북면·옹동·산내·산외면 등으로 선정. 즉, 조선시대의 태연현 일대로 범위

72)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중축) 건축설계공모, 2022.12.15.

73)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중축) 건축설계공모, 2022.12.15.

74)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75) “류태영 정읍시 문화행정국장 ‘정읍의 역사와 문화·관광 등을 활용한 성장 동력 확보할 터’”, 아투스 티뉴스, 2023.02.09.

76) <https://www.jjan.kr/314780>

설정했다.

태산선비문화의 명칭 설정은 한국 유학의 시발지이자 호남 사림의 중심지로 선비문화를 꽃피웠던 곳을 상징한다. 해동 유학의 창시자 고운 최치원이 신라 말에 태산(太山, 현재, 칠보면 일대)에 태수로 도입하여 유교주의적 교화를 이곳 주민들에게 베풀고, 유상곡수를 이용하여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한시문학과 시가문학, 유학 발전에 기초를 다져 놓은 데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태산은 옛 지명에서 따온 것이다. 따라서 절조와 온후를 겸비한 선비 기질의 유풍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계승되어 유학적 선비 인맥이 형성. 올곧은 선비·절의 정신의 중심지로 이후 실천궁행의 구국이념으로 임진왜란 시 창익와 한말의 의병 등 선비정신의 실천적 중심 도장으로 지역성을 부각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이 특징이다.

현재 정읍시청은 관광코스 중 하나로 내장산 일원,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태산선비문화권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나절, 하루, 이틀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태산선비문화권을 “정읍 동북권역을 관광하는 코스로 보물 제289호인 피향정을 비롯하여 신라말의 유현인 고운 최치원과 조선시대 태인현감이던 신잠을 기리는 무성서원, 옥정호 일원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정읍시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 패널 등은 “호남 지방에서 선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정읍의 칠보, 산내, 산외, 웅동, 태인, 북면을 일대로 선비문화의 중심지”라고 소개한다. 정읍시에서 정의하는 태산선비문화권은 자동차로만 움직일 수 있는 등 동선이 먼 단점이 있고, 하나의 테마로 묶기에 난감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광의의 태산선비문화권과 협의의 태산선비문화권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 있다.

무성서원을 고현내 일대의 거점으로 하고 주변의 자원을 해 태산선비문화권을 확대 보완하고 있다.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은 대부분 고현내를 기반으로 활동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곳을 관리했던 문중들도 이와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야 한다. 고현내 가운데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자원의 밀접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칠광도’에 포함된 지역을 태산선비문화권으로 재설정했다. 따라서 칠보면 무성리, 시산리, 와우리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었다. 태인, 산외, 산내, 북면, 웅동 등 조선시대 태인현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이곳과 관련 있는 정읍, 순창, 고창 등으로 문화권 확장하고 있다.

## ○ 태산선비문화권 둘레길 코스

### ○ 태산선비문화권

피향정 ⇨ 무성서원 ⇨ 섬진강수력발전소 ⇨ 김명관고택 ⇨ 옥정호 ⇨ 임병찬 창익 유적지

### ○ 동학과 선비문화

황토현전적지 ⇨ 동학농민혁명유적지기념관 ⇨ 전봉준장군 고택지 ⇨ 말목장터 ⇨ 만석보터

⇒ 피향정 ⇒ 김명관고택 ⇒ 무성서원 ⇒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 내장산

〈그림 3-15〉 태산선비문화권 한나절 코스



출처: 정읍시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

2019년 기준, 정읍시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17명이며 주로 내장산국립공원(3명) 및 김명관고택(3명), 무성서원(3명), 백정기의사기념관(2명), 동학농민혁명기념관(3명) 등에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다.

#### 4) 태산선비문화 <칠광도> 문화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활성화

〈칠광도(七狂圖)〉<sup>77)</sup>의 그림 속 윗마을은 지금의 무성리 원촌이고, 아래쪽은 시산리 마을 이 그림이 〈칠광도(七狂圖)〉로 불리는 이유는 그림 속에 7광(七狂)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그렸다. 무성서원과 함께 송정(松亭)이 그려져 있고 송정 앞쪽에 7명의 인물, 즉 7광(七狂)은 김대립(金大立), 김응찬(金應贊), 김감(金勘), 안치중(安致中), 송민고(宋民古), 이상향(李想嚮), 이탁(李卓) 등이다.

##### ① 무성서원

- 채용신은 1906년 전후 무성서원이 있는 칠보면의 무성리 일대를 그렸다. 지금 〈칠광도(七狂圖)〉라고 전해지는 그림

77) 박정민·권이선,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ISSUE BRIEFING Vol.226, 2020, 6~7쪽.

② 송정과 영광도

- 송정은 1764년에 건립한 뒤, 1868년에 중건.
- 영광도 1899년에 건립

③ 후송정(後松亭)

- 1899년에 완공하였고, 뒤쪽 바위에 후송정 42畝碑(1917년), 정자 옆 암벽에는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後松’이라고 쓴 암각서 등이 있음.
- 칠광도의 후송정 앞에 물길은 현재와 다르지만, 1915년의 지적도 등을 봤을 때 당대의 상황을 반영

④ 태산사(泰山祠)

- 면암 최익현을 모시는 사우로 1907년 5월에 태인 유림들이 발의하여 현재 칠보초등학교 자리에 세움. 하지만 일제에 의해 헐리고 1970년에 시산사를 세울 때 김직술과 김기술을 추가 배향

⑤ 유상대(流觴臺)

-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가 절강성(浙江省) 소흥현(小興縣)의 난정(蘭亭)에 있던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연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치원이 이곳에서 태수로 재직할 때 만들었다고 함
- 유상대는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면 술잔이 떠다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상대는 경주의 포석정. 현재 유상대의 모습이 남지 않고, 1919년에 세운 감운정이 있음

⑥ 남천사(藍川祠)

- 1676년(숙종 2)에 창건하여 김후진과 안의, 손홍록, 김만정 등을 배향한 곳. 안의와 손홍록은 임진왜란 당시 경기전과 전주사고에 보관된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암굴로 옮겨 병화로부터 지킨 중요 인물
-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남천사도 훼철되었고, 이후 유림들이 ‘단(壇)’을 세운 모습이 잘 드러남

⑦ 동각(洞閣)과 연시각(延諡閣)

- 동각: 고현동 향약을 논의하고 기록하는 장소. 1475년(성종 6)에 정극인이 “고현향약”을 결성. 이는 관권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자치향약으로 이황과 이이의 향약보다 90여 년 앞선 한국 최초의 향약. 이러한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3년에 보물 제1181호로 지정



- 연시각: 정읍시 칠보면 일대의 입향조인 김회련이 1871년(고종 8)에 ‘충민’의 시호를 추증 받은 것을 기념하여 만든 제각. 김회련은 1395년(태조 4)에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으로 개국원종 공신에 책봉되었고, 이때의 녹권과 왕지가 각각 보물 제437호와 보물 제438호로 지정

⑧ 무성리 석불입상

- 고려시대 불상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에 지정. 석불입상의 실제 위치는 칠광도의 위치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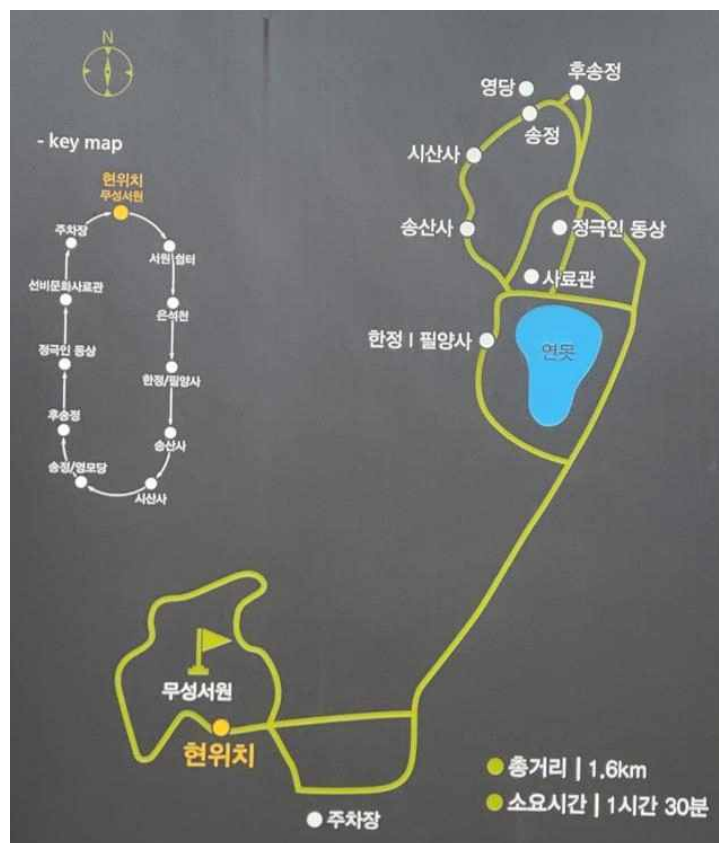
〈그림 3-16〉 〈칠광도〉 문화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무성서원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둘레길을 정비하고, 단순히 풍경만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덧입힐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할 필요성 있다. 즉, 역사 문화에 대한 내용과 그 실체로서 문화유산 등을 보여준다면 이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 될 수 있다. 현재 무성서원은 전북의 숨은 관광지 43개소 가운데 역사 유적지 5곳 중 한 곳으로 편입되어 있다. 하지만 주변 자원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무성서원만 다녀갈 우려가 있으므로 둘레길 정비를 통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3-17〉 무성서원 둘레길



정읍시는 2020년에 무성서원 뒤편 성향산을 송정과 연계하는 둘레길을 정비하고 현재 둘레길 조성 사업은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대상이 1.1km 밖에 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 유인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주변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 등으로 활용하여 둘레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살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둘레길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성서원을 넘어 “태산선비문화권 역사·문화 둘레길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있다.

〈표 3-6〉 무성서원 1차 둘레길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 (1개년)
총사업비	257,143천 원(국비 181,000천 원, 도비 38,572천 원, 시 38,571천 원)
장소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서원 뒤편 성황산 일대
내용	둘레길 정비(L=1,100m / 무성서원, 필양사, 한정, 송정 연계) 야자매트 설치(750m), 수목정비, 벤치, 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

### ○ 둘레길 활성화 방안

학계, 전문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역사와 문화 관련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관련 내용으로 스탬프/포토존 등을 설치하면 좋다. 녹지축과 길 정비, 전망대 등을 통한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둘레길 걷기대회 등을 추진해 둘레길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레길을 주위 문화관광으로 확장하고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야 한다.

〈표 3-7〉 무성서원 둘레길 주요 문화재

장소	내용
필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0년에 일본의 은사금을 거절하고 군산형무소에서 순절한 김영상을 배향한 곳.</li> <li>- 해방 이후 지역 유림들이 발의하여 1945년에 창건.</li> <li>- 생태연못과 연계하여 항일독립역사지구로 만들어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li> </ul>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중종 때 김약회가 자신의 호를 따서 1520년에 만든 정자</li> <li>- 김약회는 성균관에 있다가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으로 내려와 한정을 짓고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김</li> <li>- 최치원으로부터 정극인, 칠광십현으로 이어지는 풍류의 거점이므로 재조명할 필요 있음</li> <li>- 현재의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타서 사라졌다가 1920년에 후손인 김환정이 다시 세움</li> </ul>
송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88년(정조 12)에 창건하여 김대립, 김응빈, 김정, 김감, 김급, 송치중 등의 인물을 배향</li> <li>- 배향인물은 칠광 십현에 속하는 인물들로 광해군의 폐정에 세속을 버리고</li> </ul>

	<p>유유자적인 인물들로 관련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제작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치중은 송정수계 지도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후일 채용신이 그린 송정십현도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무궁한 이야기거리가 있음</li> </ul>
시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6년(광무 10)에 병오창의를 일으킨 최익현을 기리기 위하여 1907년에 현재의 칠보초등학교에 태산사 건립</li> <li>- 일제가 휩쓸한 뒤 1970년에 다시 시산사로 이름을 바꾸고 최익현과 이 지역에서 활약한 인물인 김기술, 김직술을 추가 배향</li> <li>-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최익현을 배향한 곳으로 상징성 가질 수 있음</li> <li>- 칠광도에 나타나는 태산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가능</li> <li>- 지역의 인물인 김기술과 김직술 관련 내용 추가 가능</li> </ul>
후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송정은 도강 김씨를 중심으로 한 유림들이 계를 만들어 공부하던 중 1898년에 짓기 시작하여 1899년에 완공</li> <li>- 정면 2칸, 측면 1칸, 팔작지붕 형태</li> <li>- 건물 뒤 암벽에 간재 전우가 ‘후송(後松)’이라고 쓴 암각화가 있음. 이를 통해 간재 전우와 이 지역 유림들의 관계 등을 알 수 있고, 간재와 관련 유적으로 피력할 수 있음</li> <li>- 칠광도에 후송정이 그려져 있으나 현재의 모습과 다른 양상. 즉, 그 앞에 물길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매립되어 있음</li> <li>- 원형의 모습은 칠광도를 통해 구현하고, 이곳에서 머물렀던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가능</li> </ul>
정극인 동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극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우고, 상춘곡을 새긴 비석</li> <li>- 가사문학의 효시로 평가받는 상춘곡을 테마로 한 관련 스토리텔링 마련으로 정극인 선생에 대한 설명 필요</li> <li>- 향후 정극인을 테마로 한 공원 계획 수립 필요</li> </ul>
태산선비문화사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산선비문화사료관은 1988년 개관하여 정읍의 동부권에 위치한 태산선비문화권역의 예술·민속문화, 누정, 향교, 서원, 사우, 불교유적 등 주요한 문화자원을 소개·전시</li> </ul>

## ○ 칠광도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지도 및 문화상품 개발<sup>78)</sup>

칠광도 속 그림과 관련 문화유산의 모습을 대조하여 해당 지역 및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둘레길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원촌마을과 동편·남전마을 등의 정비사업에서 활용가능하고, 칠광도의 뛰어난 회화성과 상징성 등을 통해 달력이나 족자 등으로 활용할

78) 박정민·권이선,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ISSUE BRIEFING Vol. 226, 2020, 9~10쪽.

뿐만 아니라 손수건이나 스카프, 정읍 혹은 무성서원을 상징하는 책자 등의 표지안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고지도 디지털 지도서비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지리정보서비스’, 국토지리원의 ‘인문지리정보 서비스’ 등과 협업하여 칠광도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

칠광도와 관련된 칠광과 십현,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구축해야 한다. 콘텐츠 개발은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중요하다. 둘레길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들인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의 공통점은 관직에 나가 입신양명을 택하지 않고,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지냈던 인물들이다. 광해군대의 칠광(七狂)과 십현(十賢) 역시 북인 정권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며 지조를 지킨 인물들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은인자중하며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장소적 상징성과 스토리를 만들어 콘텐츠를 확장해야 한다.

칠광도 관련 둘레길의 홍보 효과도 제고해야 한다. 정읍시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기획전시하고, 칠광도에 대한 콘텐츠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겸하여 도민에게 칠광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향후 전북학 도민강좌, 정읍학 시민강좌 등과 연계한 대중 강좌로 무성서원과 칠광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해야 한다.

## 5) 전북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2020년 7월 8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구축’이라는 주제로 ‘무성서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해준(공주대)의 기조 발제, 박성진[(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센터]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 방향과 활용방안’, 최주희(덕성여대)의 ‘대구경북지역 서원의 현황과 현대적 활용사례’, 박정민(전북대)의 ‘무성서원의 역사문화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가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언된 정책은 첫째, 유관 기관과 협약을 통해 구축된 웹서비스 제공, 둘째, 서원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 대중 및 연구자 대상 사업 마련, 셋째,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무성서원의 활용방안 모색, 넷째, 관련 각종 문헌자료와 유물·유적의 체계적 조사 및 번역 사업 시급 등이다.<sup>79)</sup> 이에 전북연구원은 2020년 12월 말까지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연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걸맞는 무성서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담았다. 또한, 역사문화 자원 발굴과 이를 통한 각종 활성화 방안 및 콘텐츠를 제시하였다.<sup>80)</sup>

79) 전북연구원(<http://www.jd.re.kr/jthink/2018/inner.php?sMenu=G1100>)

80) “전북학 대중화… 무성서원 위상 정립 매진”, 2021.12.13.

## 9. 논산 돈암서원

연산면에는 논산시에서 선정한 논산 11경 중 개태사와 돈암서원이 있는 문화유산의 고장이다. 이외에도 연산향교, 연산문화창고, 연산역, 연산백중놀이, 연산대추축제, 사계고택 등이 있다. 연산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회장과 부회장 각 1명, 감사 2명과 26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 <표 3-8>과 같다.

<표 3-8> 주민자치 프로그램교실 운영(2023)

프로그램	장소	요일
요가교실	주민자치센터 댄스요가실	일, 수
노래교실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월, 목
풍물교실	백중놀이 전수관	화, 목
에어로빅	백중놀이 전수관, 주민자치센터 댄스요가실	월, 금
댄스스포츠	주민자치센터 댄스요가실	목, 금
색소폰교실	주민자치센터 색소폰교실	화, 금
난타교실	노인회분회	월, 금

출처: 논산시

연산면에 소재한 산업 단지로는 연산농공단지가 있다. 연산농공단지는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흡수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소득원을 고도화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기하며 공업낙후 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촌지역공업개발 촉진 지구를 조성하였다.

### 1) 돈암서원 한옥마을

논산시는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과 인접한 지점에 사업비 91억6천 8백만 원(국비 25억 7천 6백만 원, 도비 35억 5천 6백만 원, 시비 30억 3천6백만 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해온 돈암서원 한옥마을 및 예학관 조성사업이 순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준공하고, 한옥마을 1, 2관을 2013년, 한옥마을 3관을 2016년, 예학관을 2017년도에 건립하였다. 논산시는 한옥마을과 예학관 등과 연계해 기업과 학교 등의 단기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교육공간으로써 돈암서원 고유의 기능을 제고하고, ‘한국의 서원’ 공동 연구와 공동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서원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이 미흡해 흉물로 남아 있어 진흥이 필요한 지점이다.<sup>81)</sup>

충남 부여 세도초등학교(교장 송운석)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통 예절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및 전통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자 전통예절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세도초등학교 전교생은 돈암서원에 입학해 「바른인성지킴이」 만인소 운동의 취지와 목적,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 정신을 배우고 우리의 전통 예절인 유생 체험, 공수 예절, 큰절하는 법, 만인소 서명, 인장 찍기, 밥상머리 교육, 식사 예절 교육, 돈암서원 에코백 꾸미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 예절 및 문화의 우수성을 향유하는 계기가 되었다.<sup>82)</sup>

돈암서원에서 2023년 9월, 5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인 ‘사계 인문학 대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과거시험 재현행사인 논산향시를 시작으로 2부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체험부스, 줄타기, 발탈공연, 품위있는 큰절 콘테스트와 3부 행사인 인문학 강좌, 판소리 공연,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다. 또한, 함재봉 교수의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람 만들기’ 강좌 및 클래식 앙상블 오데움과 영화음악, 판소리 명창 등 다채로운 음악회가 열렸다. 돈암서원 김선의 원장은 “지역주민과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현의 학풍과 인간존중 정신을 되새기고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며, 돈암서원의 근본정신 가운데 하나인 예(禮)를 행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고 자기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sup>83)</sup>

### 〈그림 3-18〉 돈암서원 전경



경화당 및 주변 활용시설

81) “논산시, 한옥마을 흥물로 방치 ... 91억6천 8백 만 원 낮잠”, 코리아플러스, 2021.04.21.

82) “충남 부여 세도초,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 실시”, 충청매일, 2023.09.24.

83)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사계 인문학 대축제 성료”, 대전일보, 2023.09.11.

2022년 9월 논산시는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가 주최하고, 돈암서원과 논산시가 주관하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1부는 돈암서원이 주관하는 추향(11시)과 학술강연회(14시)를 진행했으며, 2부(18시)와 3부(19시 20분)는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의 주관으로 등재 3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1부 추향은 정기적으로 봄에 치러지는 춘향과 더불어 서원의 제례 중 제일 큰 행사로, 본래 8월 중정일에 진행되지만, 2022년은 세계유산인 돈암서원 표지석 제막식과 등재 기념식을 병행해 9개 서원 관계자와 논산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sup>84)</sup>

---

84) “논산시,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3주년 기념 축제 개최”, 브레이크뉴스, 2022.09.01.



## 10. 해외 지역공동체 성공 사례

### 1) 영국 리버풀의 엘도니안마을만들기<sup>85)</sup>

영국 리버풀 도심가에는 거대한 주거 단지인 엘도니안마을이 있다. 2004년 UN 세계거주상을 수상한 이 마을은 1970년대 리버풀재개발 방침에 따라 모두 철거되고 고층빌딩 숲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주에 반대하며 30년간 투쟁한 끝에 마을을 지켜낼 수 있었다.

엘도니안마을은 인구가 2,000명, 주택 400호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다. 운하를 중심으로 양쪽 지역을 축으로 낮고 조밀한 주택지역을 형성한 노후한 마을이었다. 엘도니안마을의 건물들은 담장은 없거나 낮으며, 아이들은 자유롭게 이웃의 집 마당을 공용놀이터로 사용할 정도로 오픈된 곳이었다.

엘도니안은 18세기 산업혁명 후 영국을 번영으로 이끈 공업도시 리버풀에서 잘나가던 마을이었다. 하지만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전후 복구로 한때 융성했으나 1970년 이후 전후 산업구조를 전환하지 못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는 리버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영국의 셰필드, 독일의 루르공업단지 일대 모두가 같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도심 주변의 물적 황폐와 인구감소, 높은 실업률, 청소년 범죄, 이민 문제 등 황폐한 상황은 극에 달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물에 초점을 둔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 ‘SBD(Secured By Design)’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범죄예방 전문 경찰관이 시공단계인 건축 초기부터 관여하며 완공, BSD 된 건물에는 로고를 부착해 범죄예방에 앞장섰다.

엘도니안마을은 자체적으로 엘도니안 마을만들기 신탁회사(Eldonian Community Trust)를 만들고, 마을 주민 회원이 600여 명이 가입하고, 거주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신탁회사는 보육소 스포츠센터 등을 독자 재원으로 운영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탄탄하다.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이 중요한 요인이다. 엘도니안 마을만들기 사업체는 사업화 단계에서 주택과 거주 관련 시설을 공적자금에 의존했지만, 집세와 시설 수입 등으로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즉, 엘도니안의 경우 주민주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사업화가 추진되었고, 이후에는 엘도니안 마을만들기 사업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의 파트너십 정책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연계해 기업화를 추진하고 발전했다.

이를 위해 마을 중심에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여 마을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공공편의 시설로서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리버풀 엘도니안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사회 기반 도시재생 모델이지만, 엘도니안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하여 도시재생을 시작한 후 30여 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낸 결과다. 참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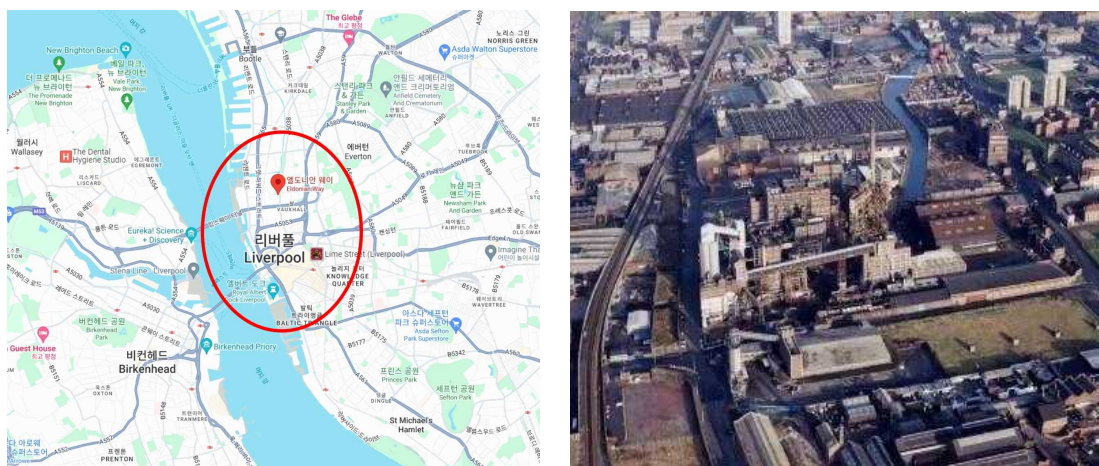
85) <https://www.eldonians.org.uk/>



식을 개척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켜 지역의 주인의식을 발현시켰으며, 현재까지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리버풀 엘도니안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자치 역량을 키웠기 때문이다. 마을 단위로 구성된 공동체 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소통했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손쉽게 끌어내기 쉬웠다. 또한, 영국 정부는 마을만들기 예산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위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림 3-19〉 리버풀의 엘도니안 지도와 도시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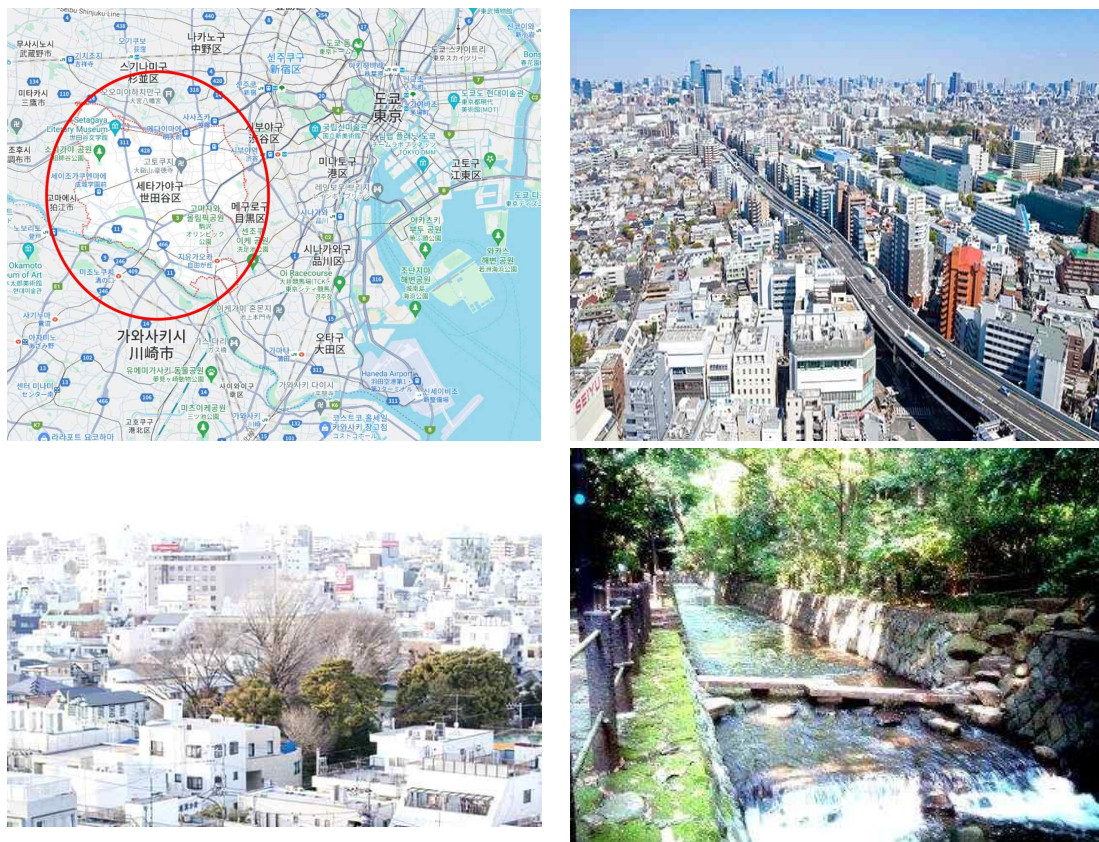


## 2)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세타가야구는 일본 도쿄의 23개 구 중의 하나다. 세타가야구는 총인구 81만 명으로 도쿄 중심으로부터 서남쪽에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세타가야구는 1975년 민선으로 선출된 오오바(大場啓二) 구청장이 주민 참여를 통해 구 행정을 이끌어갔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여 거의 모든 행정에 주민참여를 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 도시계획인 지구계획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규정의 조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2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했다. 1982년 구청 내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고, 1983년 구청 내 ‘마을만들기 추진과’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쏟았다. 또한, 1992년에 세타가야구는 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마을만들기 센터’를 설치하고 공익신탁 마을만들기 펀드를 도입하여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3-20〉 도쿄 세타가야구 지도와 도시풍경



1975년 세타가야구는 오래된 지역의 목조주택을 정비하려 했으나 재정적 손실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에 봉착했다. 세타가야구는 주민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고, 주민은 스스로 마을정비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문성과 실천력에 한계가 있었으나 자신의 마을과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주민 중심의 지역정비계획안을 수립했고, 세타가야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업을 진행했다.

2006년부터는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재단을 새롭게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타가야구에는 수많은 자체 단체가 있다. 약 160개의 지역공동체가 활약 중인데, 이는 주민 인구 5,000명당 한 개꼴로 지역공동체가 있는 셈이다. 이들 지역공동체가 지난 26년 동안 세타가야구에 제안한 주민 제안을 수천 건에 달한다.

세타가야구 공동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파편화, 원자화된 개인들이 협동과 생애의 지역공동체를 체험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치 의식을 고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둘째, 주민과 주민 행정 사이에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지역에 공론장을 형성하고,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 제2절 서원의 교육 활동과 콘텐츠 확산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및 콘텐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인성교육, 선비체험, 성년식, 향음주례, 다례체험, 공연 등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문화재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면서 서원에 첨단 문화기술을 더해 현대적 의미에 맞도록 확장·복원할 계획으로 지역 사회의 인문·예술·문화 거점 기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를 새롭게 부흥하는 향교·서원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아래 <표 3-9>는 대표적인 서원 관련 교육 및 콘텐츠 지원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3-9> 서원 활용 교육 및 콘텐츠

분류		프로그램	내용
교육	전통 문화	예절교육	- 선비들의 삶에서 지혜를 배움 - 덕망의 리더십을 통한 현대 선비정신 함양
		한문교육	-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 - 선현과 대화
		선비에게 길을 묻다	- 선비들의 삶에서 지혜를 배움 - 덕망의 리더십을 통한 현대 선비정신 함양
		우리 철학 만남	-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 - 선현과의 대화
		태교와 전통교육 성공하는 옛선비들의 7가지 법칙	- 전통 교육의 장점 활용해 태교에 활용 - 좋은 어머니 상
	리더십	명사와의대화	- 지성과 인성의 리더십 - 옛교육 내용과 현대적 교육 방법을 접목
			- 명사를 초청 정기적 프로그램
	치유	서원나들이	- 산책과 명상을 통한 선현의 삶 회고 - 선비의 삶을 회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정좌법 등 심신 수양 - 서원 주변 경관 산책 및 명상
		철학자의길	- 선현들의 길을 따라 생각하기 - 일일 철학자 되기 프로그램
문화 관광	관광	서원체험투어	- 권역별 서원 순례 관광 - 서원과 지역문화 연계관광
		선비탐험	- 권역별 서원순례 체험하기 - 봉심과 유교의례 체험
		강따라 문화체험	- 4대강 유역의 유교문화체험 관광

			- 전통문화 유적지와 연계
	문화	선비 일상 따라하기	- 선비의 일과표 따라하기 - 학문과 휴식, 강학과 토론
		일일 꼬마선비	- 유복 입고 선비놀이 - 꼬마선비 대본 및 연극공연
		선비향연음악회	- 계절별 퓨전음악회 개최 - 지역축제와 서원에서 진행
		선비아놀이	- 초등학생 대상의 다양한 체험 - 체험시설이 구비된 서원 1일 체험

출처: 「유교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1. 세계유산축전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세계유산축전’을 진행하고 있고 2023년 4회를 맞이한다. 2020년에는 세계유산축전 산하에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서원(7월 3일~7월 31일), 경상북도 7월 31일~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9월 4일~ 9월 20일까지 진행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최근 확대 적용되고 있는 미디어·디지털 ·IT 기술을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에 접목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활용 콘텐츠로 개발하는 데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전시·체험형 콘텐츠보다는 개방된 야외 관람형 콘텐츠의 개발 필요하다. 또한, 첨단 융합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세계유산·문화유산에 적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세계유산 향유 방안을 도입 및 창출해야 한다.

〈표 3-10〉 2021년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운영 및 공모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개년) ※ 최소 운영 일수 30일 이상
총사업비	건별 국비 6억~1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향유를 위해 미디어 디지털 IT 기술을 세계유산에 접목하여 새로운 활용 콘텐츠 개발 첨단 융합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적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향유 방안 도입·창출</li> <li>-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야외 관람형 콘텐츠 개발 필요</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형 공공예술’</li> <li>- 콘텐츠인 미디어 아트쇼의 제작 및 운영</li> <li>-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운영</li> <li>- 2021년의 경우 8월에 공고, 9월에 발표</li> </ul>



〈표 3-11〉 문화유산축전 개요

연도	지역	주요 프로그램
2020	한국의 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주제 아래,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된 9개 서원(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을 중심으로 서원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li> <li>-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lt;등재 1주년 기념식 및 경축 음악회&gt;</li> <li>- 퇴계 이황 선생의 학덕이 남아있는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일화를 담은 상황 무대극과 합창곡으로 변신한 도산 12곡을 공연함.</li> <li>- 경축 음악회에서는 국악과 서양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공연을 진행함.</li> </ul>
	경상북도 경주, 안동, 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꽃피다’라는 주제로 경주·안동·영주 등 3개 도시에서 열리고, 개막식은 안동에서 진행.</li> <li>- 석굴암 본존불을 재현한 미디어 맵핑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천년유산전’, 최치원의 절구시 향약잡영 5수에서 전하는 ‘신신라오기 퍼포먼스’, 한국의 전통복장 한복의 아름다운 패션쇼 ‘회소’, 포석정에서 유상곡수를 즐겼던 신라의 놀이문화 ‘유상곡수연 재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li> <li>- 동부사적지대 일원에서는 세계유산 야경을 체험하는 달빛기행 ‘걷기체험’,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 신라의 우주를 보다 ‘천체관측 체험’, 세계유산을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강연 ‘세젤귀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li> </ul>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자연유산 특별탐험대: 만년의 비밀 속으로”라는 주제로 ‘2020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개최함.</li> <li>- 사전신청을 통해 550명을 선발, ‘세계자연유산 특별탐험대’(시간별 6명씩 탐험 제한)가 꾸려졌고, 2박 3일 동안 용암동굴계를 따라 순례하게 되는 ‘숨길 순례단’(1회당 30명),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의 흔적을 따라 20km구간을 탐사하는 ‘불의 숨길’(1회당 20명)같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li> </ul>
2021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세계유산센터, 충남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공동주관으로 공주-부여-익산을 3원 중계방송으로 진행되는 개막식을 진행함.</li> <li>- 3개 지역주민이 동시에 개막을 선언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주제공연, 드론으로 펼치는 불꽃축제가 축전의 시작을 장식함.</li> <li>- 백제 유산이 펼쳐진 야외 곳곳에서 온라인과 현장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관람객과 찬란했던 백제를 연결함.</li> </ul>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회마을에서 진행되는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 음악회 도산</li> </ul>

	<b>안동</b>		<p>12곡, 병산서원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병산서원에서 의 3일, 무용극 Lotus Love(로투스 러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회탈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발레단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발레단과 국내 발레단 김남식 댄스투룹-다와 협연으로 펼쳐는 현대무용극이 세계유산 하회마을 부용대를 실경으로 펼쳐짐.</li> </ul>
	<b>수원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공연인 방화수류정의 기록 ‘묵적여실(墨跡如實)’: 필묵으로 찍은 천개의 달은 조선왕조 의궤의 기록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담았음.</li> <li>-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표현한 정조대왕의 꿈을 그린 작품. 정조를 황금갑옷으로 상징하고 필묵의 자취에는 세월의 무게를 건디는 역사로 거듭난 목적의 위대함이 담김.</li> <li>-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세계기록유산 의궤를 활용한 공연, 전시, 콘퍼런스, 탐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li> </ul>
	<b>제주특별자치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의 숨길은 1만 년 전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렀던 흔적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약 26.5km, 4개 구간별로 각기 다른 자연유산을 보여줌.</li> <li>- 탐험버스를 신설하여 불의 숨길 전체 구간 중 중요 구간은 사파리 체험하듯 즐길 수 있음. 또한, 제주의 아름다움과 제주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야간에도 안전하게 체험.</li> </ul>
2022	<b>수원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옆의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더 가까워지다’를 주제로 수원화성에 깃든 효의 가치와 축성 과정에 담긴 실용적 가치, 정조대왕 애민사상의 가치, 수원화성의 미적 가치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22일간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교육, 투어가 진행함.</li> <li>- 226년의 기억, 우리의 꿈이 되다 ‘거장(巨匠)-거룩한 장인들’, 축성, 화합의 난장 마당놀이 ‘장인열전’, 어여차, 장인과 모군, 고요하게 빛나는 시간, 고요하게 빛나는 시간, 수원화성 방역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li> </ul>
	<b>충청북도 옥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시는 기존 옥천문화재 야행에서 문화유산 축전으로 변형해 축제를 진행하고, 밤에만 즐기던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주간 체험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운영함.</li> <li>- 야간 특별 개방행사 대상 문화시설은 옥천향교, 옥주</li> <li>- 충북 무형문화재의 시연과 더불어 전통공연과 사마소, 육영수생가, 정지용생가 등에서 미디어파사드, 실감형 콘텐츠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함.</li> </ul>
	<b>경상북도 (안동)</b>	<b>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제는 “이동하는 유산”</li> <li>- 하회마을에서는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세계유산축전 주제관’에서 국내 유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유산 테마 상설전시가 마련.</li> <li>- 병산서원에서는 서원에서 머무르며 그 가치를 알아가는 병산서원에서의 3일,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잇는 구곡길을 생방송 라디오와 함께 걷는 도보여행 프로그램 등</li> </ul>



	경상 북도 (영주)	소수서원, 부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석사에선 세계적인 안무가 안은미가 '부석사 명무전: 기특 기특'을 통해 불교적인 해석을 선보이는 로밍형 공연 및 이태수 작가의 부석(浮石) 조형물을 관람</li> </ul>
	제주 특별 자치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인 'Connect: 연결'의 의미를 담아 '빛나는 제주, 하나로 잇다(Shining Jeju, Connect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li> <li>- 2022 세계유산축전'은 1일부터 16일까지 성산일출봉,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거문오름,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 마을 일대에서 진행함.</li> <li>- 세계자연유산 워킹투어 불의 숲길, 만장굴 아트 프로젝트, 자연유산마을을 찾아서, 세계자연유산 특별탐험대, 세계자연유산 순례단,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전 구간 탐험대 등을 진행함.</li> </ul>
2023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백제의 '가치'를 새기다</li> <li>-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 일원 8개소에서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백제사 재조명 및 가치향유(공연, 퍼포먼스) 및 가치확산(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li> </ul>
	선암사, 순천갯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일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瀟)다.</li> <li>- 순천 자연유산(갯벌)과 문화유산(선암사)이 인류와 공존하며 갖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는 프로그램 운영</li> </ul>
	수원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수원화성, 이어지다</li> <li>-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거점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시·공연·체험 등 프로그램</li> </ul>

서원 9개는 능동적 방법을 통한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가치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활용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와 일반 국민의 관심 제고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관리 방안 모색해야 하는데, 서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의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확산해야한다. 세계유산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세계기록유산의 진정성 및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향유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있다. 세계유산의 가치 및 역사적 특성과 연계된 전통문화·의식·공연·체험 등의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3-12〉 서원 관련 문화유산축전<sup>86)</sup>

연도	지역/장소		내용
2020	9개 서원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주 소수서원에서는 '제향으로 올리는 사은(師恩)'이라는 주제로 7월 4일 소수서원 향사(鄉祠) 제향을 진행.</li> <li>- 우리나라 첫 번째 사액서원(賜額書院, 조선 시대 세워진 서원 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서원)의 향사로서 의미가 깊다. 경독과 도동곡을 부르는 유일한 서원향사이며, 예악(禮樂)이 조화를 이룸.</li> </ul>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양 남계서원에서는 '일두 정여창 선생을 그리며'라는 주제로 서예와 한시 백일장 대회가 열림.</li> <li>- 7월 10일에는 서예 실기대회가 열리며, 7월 17일에는 한시 백일장을 진행. 이에 입상한 작품은 축전 기간 중 남계서원 내에 전시.</li> </ul>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옥산서원에서는 '동방의 지혜,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학문 교류를 통한 한·중 학술대회가 열림.</li> <li>- 학술대회를 통해 주자와 회재 이언적과 관련한 유적과 유물을 접하고, 서원의 중요한 가치인 '심원록(옥산서원의 방명록)'을 번역·출간하여 경주지역의 유림과 유학의 모습을 조명함. 다른 행사들과 다르게 9월 22일 진행.</li> </ul>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인류의 스승 퇴계 선생'영상 상영과 국악 실내악, 전통 타악 등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li> <li>- 축전을 축하하는 음악회에서는 퇴계 이황이 지은 '도산 12곡' 합창을 시작으로 판소리, 가야금 등의 국악과 소프라노, 바리톤, 첼로, 플룻, 피아노 등의 서양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다.</li> <li>- '도산서원, 인류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도산서원 전시회도 진행된다.</li> </ul>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 필암서원에서는 7월 19일 '서예로 품는 선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필암서원 세계유산 1주년 기념 축전이 열림.</li> <li>- 필암서원의 독특한 '길곳'이 있는 제향행사와 하서 김인후를 소개하는 전시, 서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li> </ul>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 도동서원에서는 7월 11일 '지혜로 여는 대동세계'라는 주제로 과거제 재현행사를 진행.</li> <li>- 조선시대 문·무과 재현행사와 부대행사, 관람객을 위한 사진 촬영 공간 제공, 전통의상 체험, 전통 민속공연·전통무예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동 병산서원에서는 '서애 선생의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로 충효기행 프로그램을 진행.</li> <li>- 2박 3일을 서원에서 지내며 서애 류성룡이 보여준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li> <li>- 요즘 떠오르고 있는 '서원 체험(서원 스테이)'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li> </ul>

86) 문화재청 보도자료 재구성.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읍 무성서원에서는 ‘국악은 풍류를 타고’라는 주제로 7월 10일 ‘KBS 국악한마당’ 행사와 촬영.</li> <li>- 이날 행사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KBS1에서 방영되며 국악인 왕기석, 박애리, 유태평양, 이선수를 비롯하여 백제풍류회, 정읍수제천보전회 등 국악단의 공연이 어우러져 우리 음악의 정수를 만나 봄.</li> </ul>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 돈암서원에서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람됨을 위한 정성’이라는 주제로 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마당이 진행.</li> <li>- 바른 인성 지킴이 만인소 운동의 취지와 목적, 사계 김장생의 예학을 배운 뒤에는 돈암서원의 보물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제1569호)과 실크스크린·슈링클스 체험, 전통놀이 체험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li> </ul>
	경상북도 (안동)	도산서원 도산12곡<퇴계월하도산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계 이황의 도산12곡을 트로트, 정가, 합창단, 팝페라 등 장르로 재해석해 공연 구성.</li> <li>- 지역의 음악인들과 함께 도산서원의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li> </ul>
		도산서원 서원의 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학의 공간 세계유산 서원의 풍속 재현(연기)으로 다양한 서원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 테마 콘텐츠 프로그램</li> <li>- 서원에서 벌어지는 교육 및 생활풍속을 현장 속에서 실시간 체험</li> </ul>
		도산서원 서원야간개장 <월하연가, 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서원 창건 이후 처음으로 서원 야간 개장</li> <li>-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및 버스킹 공연</li> </ul>
		병산서원-하회마을 하회구곡 라디오티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속을 걷는 트레킹 프로그램으로 생방송 라디오와 결합하여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li> </ul>
	경상북도 (영주)	소수서원 소수서원 영정봉안례 재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특한 퍼포먼스가 가미된 봉안 행렬을 새롭게 기획하여 과거와 현대의 조화가 이루어진 하나의 대형 퍼포먼스</li> <li>- 화려한 의상과 소품 등이 보여주는 우리의 색과 멋스러움을 강조하는 프로그램</li> </ul>
	2021	경상북도 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회마을에서 진행되는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 음악회 도산 12곡, 병산서원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병산서원에서 3일, 무용극 Lotus Love(로투스 러브) 등이 펼쳐짐.</li> </ul>
	2022	경상북도 (안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제는 “이동하는 유산”</li> <li>- 개막공연 ‘나는 유교다: 더 레알 유교’, 병산서원에서의 3일</li> <li>- 풍류병산: 향의 노래, 나의 세계유산 답사기, 구곡길 라디오티어링 등</li> <li>- 도산서원은 야간 개장을 함.</li> </ul>
		경상북도 (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한체험 선비-소수서원 유생 체험’ 등 여러 행사가 열리고, 9월 한 달 동안 영주에서 진행함.</li> </ul>

‘2020 세계유산 축전’은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연과 재현행사를 비롯해 세계유산 관련 세미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7월 한국의 서원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에는 경상북도(경주, 안동)에서, 9월 제주도에서 각각 한 달간 진행했다. 도산서원에서 열리는 기념식 식전공연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상황 무대극인 ‘인류의 스승 퇴계선생’을 공연하고, 경축음악회에서는 도산 12곡 합창과 판소리, 가야금 등의 국악과 소프라노, 바리톤, 첼로, 바이올린 등 서양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음악의 판타지가 펼쳐졌다.

2020년 7월 2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도산서원, 인류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도산서원 전시회도 열었다. 유교 오백년 한국의 서원은 학문연구 및 인격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됐기에 이번행사는 과거의 교육기관을 미래 교육의 산실로 이어 가기 위한 정신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한국의 서원 등재1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우리 유교문화의 우수성과 살아있는 문화유산(living heritage)의 향기를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한류문화의 세계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북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림 3-21〉 문화유산축전 포스터 및 전경



## 2. 서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도동서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강연과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도동서원 고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립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 3-13〉 주요 서원 주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구분	이름	일정	장소	대상	내용
도동서원	모여라 소학동자	4월 1일~10월 31일 (총 10회)	도동서원 일원	어린이	소학동자로 불렸던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삶과 선비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체험교실
	도동 소학당	4월 1일~10월 31일 (총 10회)	도동서원 일원	청소년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시선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라이프 스타트업! 리더십 아카데미	4월 1일~10월 31일 (총 2회)	도동서원 일원	청소년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애제자였던 조광조의 개혁정신을 본받아 도전정신과 올바른 리더십을 배워보는 시간
	소학에서 길을 찾다	6월	도동서원 일원	임산부	소학의 시작점은 태교이며, 조선시대 상류층과 왕실에서사용했던 ‘태교신기’를 토대로 한 임산부 전용 복합문화체험
	도동 토크 콘서트	10월	도동서원 일원	전연령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토크콘서트 개최
돈암서원	돈암 만인운동	3월~12월 (총 65회)	돈암서원	유아, 초·중·고등학생	예학정신 계승을 위한 바른인성 교육 대국민 서명운동
	돈암, 동고동학	3월~11월 (총 16회)	돈암서원	지역민, 일반인	돈암서원의 기록을 살피고, 서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사계의길	3월~11월 (총 16회)	돈암서원	지역민, 일반인	돈암서원 현판 글씨를 활용한 나만의 글씨체 발굴
	서원 동자	3월~11월 (총 24회)	돈암서원	발달장애인, 사회적약자	서원에서 함께 키우는 아이들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 제공
	돈암문화살롱-예미락	3월~11월	돈암서원	외국인, 관광객, 일반 단체	예(禮)와 아름다운 한글(美)과 즐거운 전통가락(樂)이 있는 서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
무성서원	풍류방에서 피어나는 풍류와 도	5월~12월 (총 5회)	무성서원	일반인 (회당 70명)	최치원과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로 알아보는 풍류와 도
	최치원, 정극인 관련 국내 답사	5월~12월 (총 3회)	국내 관련 유적지 일원	지역 유림 일반인(회당 30명)	최치원과 정극인 관련 국내 답사
	무성서원 예에서 놀다	5월~12월 (총 17회)	무성서원 일원	다문화가족, 학생,	① 1박2일 서원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선비정신과 전통문화 체험(총 8회)

				일반인(회당 20명)	② 상춘백일장(총 1회) ③ 상춘곡 해설·감상(총 8회)
	선비정신, 학에 기대다	5월~12월 (총 40회)	무성서원, 태산선비관	지역 유림, 학생 및 일반인	강학당을 운영하여 고전의 지혜를 느끼고 서원 본연의 목적에 기여
필암서원	김인후 선생의 문학과 어우러진 토크콘서트	5월~10월 중(총 2회)	필암서원 앞 공원	관광객, 장성군민	하서 김인후의 인문학 세계와 어우러진 전통 국악공연
	필암서원 명품 국악공연	6월~11월 중(총 4회)	필암서원 앞 공원	관광객, 장성군민, 소외계층 (특별 초대)	장성군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보유자 : 김인후 선생 후손)과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연을 통한 명품 국악공연
옥산서원	선비로운 옥산생활	4월~10월 매주 토, 일요일 (총 50회)	옥산서원	청소년, 관광객, 일반시민, 단체	선비의 멋(선비복 체험), 선비의 차(차) 禮(례)(다도 & 예절 체험), 삼색(三色)명필(붓글씨 체험), 선비로운 옥산탐구(옥산서원 해설), 회재를 만나다(이언적 후손(유사)과의 만남)
	옥산 글로벌 선비아카데미	4월~10월 (총 4회)	옥산서원 일대	다문화가정, 유학생, 외국인	선비의 멋(선비복 체험), 선비의 차(차) 禮(례)(다도 & 예절 체험), 삼색(三色)명필(캘리그래피 체험), 옥산서원 스토리북(서원교재 강의), 옥산 마실가자(옥산서원 인근 탐방 - 독락당, 정혜사지13층석탑)
	세심(洗心)콘서트	4월~10월 매주 토요일 (총 20회)	옥산서원, 세심대	청소년, 관광객, 일반시민, 단체	MC 옥산리 이장(옥산리 이장 분장을 한 연극배우가 옥산서원과 회재 이언적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공연을 진행), 한시(漢詩)데이트(시조창 + 판소리 + 대금)이 어우러진 전통 국악공연, 회재극장(회재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 인 물극)
	옥산 인문학 포럼	4월~10월 (총 6회)	옥산서원	일반인, 학생, 시민, 단체, 유림관계자	옥산서원과 배향인물(이언적)에 대한 탐구 및 인력양성
	활용인 네트워크	4월~10월 (총 2회)	서악마을 문화공간 (경주시 서악3길 14)	일반인, 학생, 시민, 단체, 유림관계자	활용사업 전문가를 초청해 활용사업에 대한 강의와 활용사업인력 및 관계자들에 질의 & 토론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역량 강화

출처: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찾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21선」,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2022.

### 3. 서원스테이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한옥체험에 대한 관광이 점차 늘어나고, 일반인들의 한옥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우리의 전통 주거 형태인 한옥에서 살기를 원하는 정주형으로서의 ‘한옥 열풍’도 불고 있다.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와 법령에서의 한옥의 정의는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 할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것이며 한옥 여부 판단의 기준은 한식 지붕(기와)과 목구조이고, 전통미와 자연 재료로 지은 집이다. 기와와 목구조, 전통미, 자연 재료를 지닌 한옥체험촌 혹은 한옥스테이는 일회성에 그치는 체험 관광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옥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옥의 현대화, 표준화를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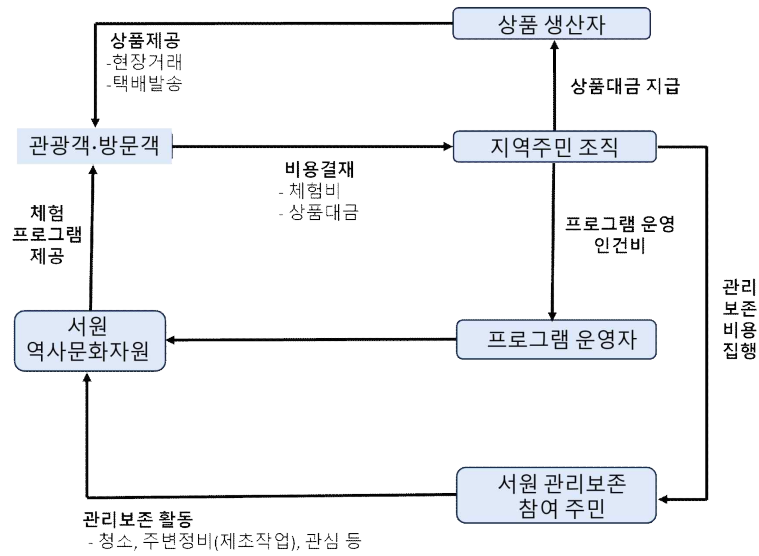
전통을 지닌 역사문화 자원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서 체험하는 것을 넘어 한옥 체험촌이 현대적 감각으로 융합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문화콘텐츠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장소와 일체화를 통한 관광객의 만족도 상승을 위해 한복을 대여하는 장소로 활용하여 특별한 체험을 유도한다. 자연과의 일체 된 한옥의 정서와 미학을 중요시하는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아 복합문화상품으로서 큰 가치가 있는 전통혼례 및 스몰웨딩을 한옥 체험촌에서 행한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담아 느리게 진행되는 웨딩 콘텐츠를 포함한다. 패스트 푸드와 상반된 콘텐츠로 슬로우 푸드를 콘텐츠화하여 ‘양반반상’, ‘예안정식’으로 명명해서 조식 패키지로 정하여 지역의 접빈객 문화를 알리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

도산서원이 있는 예끼마을과 군자마을은 서원스테이의 대표적인 곳이다. 유교문화 탐방로를 통해 인근 한국국학진흥원과 예안향교, 산림과학 박물관, 도산서원 등지를 관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휴양과 견학이 가능한 숙박체험 시설이 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한옥 체험촌은 61억 원을 들여 한옥 체험관과 세미나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전통성을 확보하면서도 일반 한옥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둥, 보, 서까래 등 대부분의 목재를 엄선된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했다. 내부는 현대식으로 건축하여 한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생각하고 전통적인 한옥의 풍류와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소수서원은 한국 최초(시작)의 서원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풍부한 하드웨어, 부석사와의 연계를 통한 한국의 유·불 콘텐츠, 병산서원에서 1박 2일간 머무는 ‘병산서원 스테이’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국내 주요 세계유산을 주제로 선보이는 ‘2023년 세계유산축전’ 프로그램의 하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제향문화 계승 및 체험하고, 유생복 체험과 생활 예절 실습, 우리 가락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 체험, 선비촌 고택 숙박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일정은 3월 12월에 진행하고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 진행한다. 기간은 1박 2일이고 연 320명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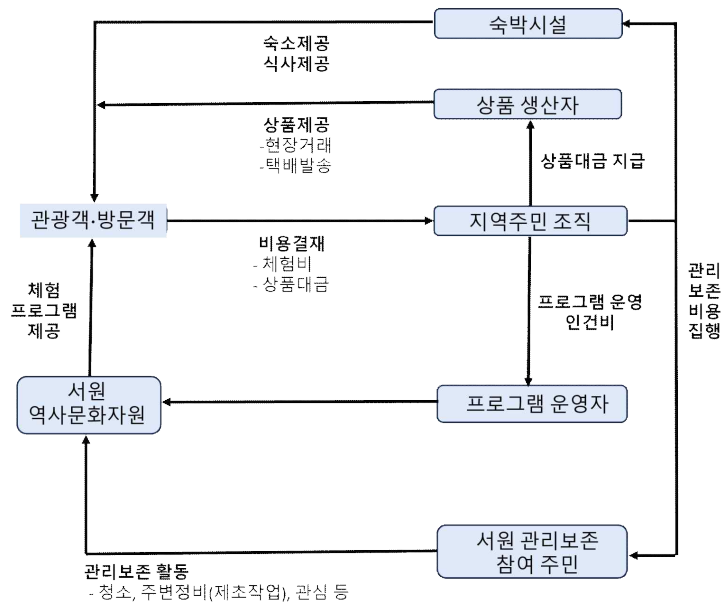
〈그림 3-22〉 경유형 서원스테이와 한옥스테이의 지속관리 체계



출처: 배기택,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재구성.

한옥스테이에 나타나는 수익과 한옥관리 비용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3-22〉과 같다. 당일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유형의 경우 체험과 상품 판매에서만 수익이 발생하고, 그 비용의 일부는 건물관리에 재투자 된다. 반면 숙박과 식사를 필요로 하는 체류형의 경우 체험, 상품판매, 숙박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의 일부는 다시 건물관리에 재투자 된다.

〈그림 3-23〉 체류형 서원스테이와 한옥스테이의 지속관리 체계



출처: 배기택,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재구성.



결과적으로 서원스테이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거주자를 대신한 방문객으로 목조건물에 사람의 온기를 공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방문객 맞이를 위한 청소와 정리 정돈과 같은 활동에서 관리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운영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재투자함으로써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4. 문화역사마을가꾸기

농촌 마을만들기의 용어는 최초 일본의 마치즈くり(まちづくり)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말 ‘마을만들기’와 ‘마을 가꾸기’가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용어의 혼재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우리말로 직역한 ‘마을만들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배경과 목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산어촌마을은 유·무형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유지 및 전승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고령화, 지역공동체의 약화, 지역소멸과 인구절벽 등으로 마을에 소재한 역사문화자원의 세대 간 전승이 단절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잠재력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의 역사문화관광 소재를 발굴 육성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등 정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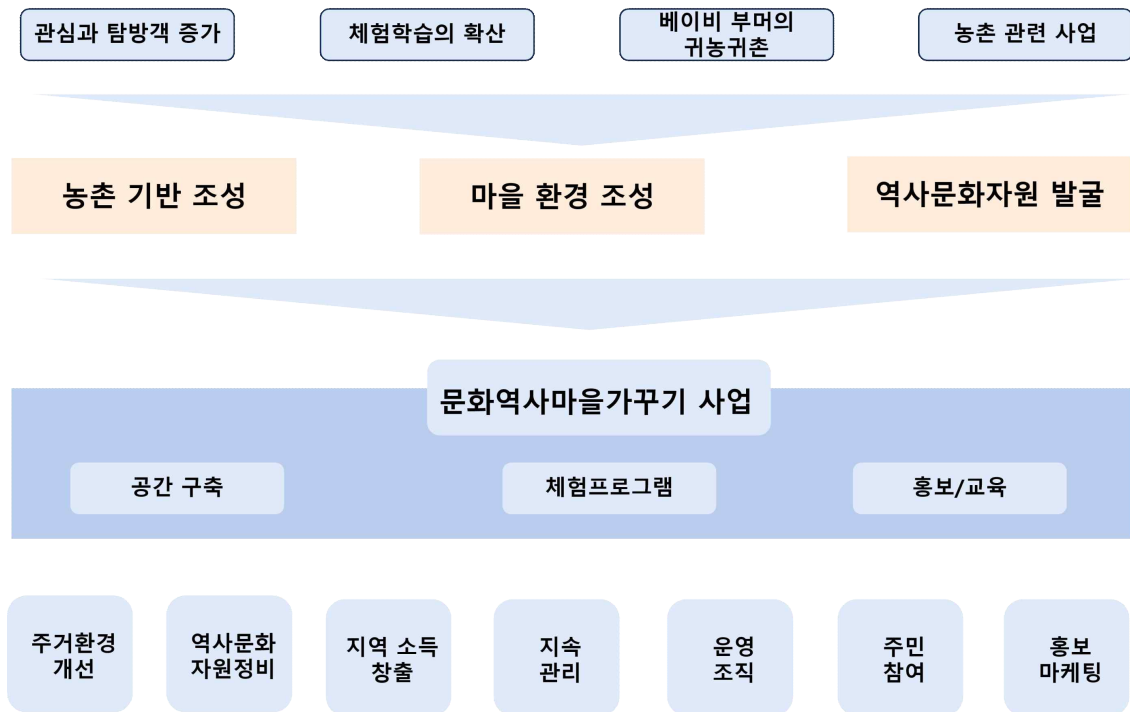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2004년~2009년 조성되었고, 총예산은 240억 원(관광기금 155억 원, 지방비 85억 원)이다. 전국 시도 13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이 중 도산서원이 있는 안동 군자마을과 무성서원이 위치한 정읍 원촌마을이 선정되었다.

〈표 3-14〉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지정

연도	지정개소	대상마을
2004	3개소	안동 군자마을,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2005	7개소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의령 입산마을, 고창 사등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정읍 원촌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2006	2개소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2007	1개소	안성 덕봉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많은 농촌 마을에 산재한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은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마을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로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정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대상은 2004년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며, 2007년까지 총 13개 마을을 선정하고 2009년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림 3-24〉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 전략



## 5. 국내 성공 사례 : 월봉서원

월봉서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해 있으며,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을 배향하고 있다. 월봉서원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사우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38년에 현재의 위치인 광산구 광산동 광곡마을에 빙월당(氷月堂)으로 중건되었다. 빙월당에는 월봉서원, 빙월당, 충신당 세 개의 편액이 걸려있으며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9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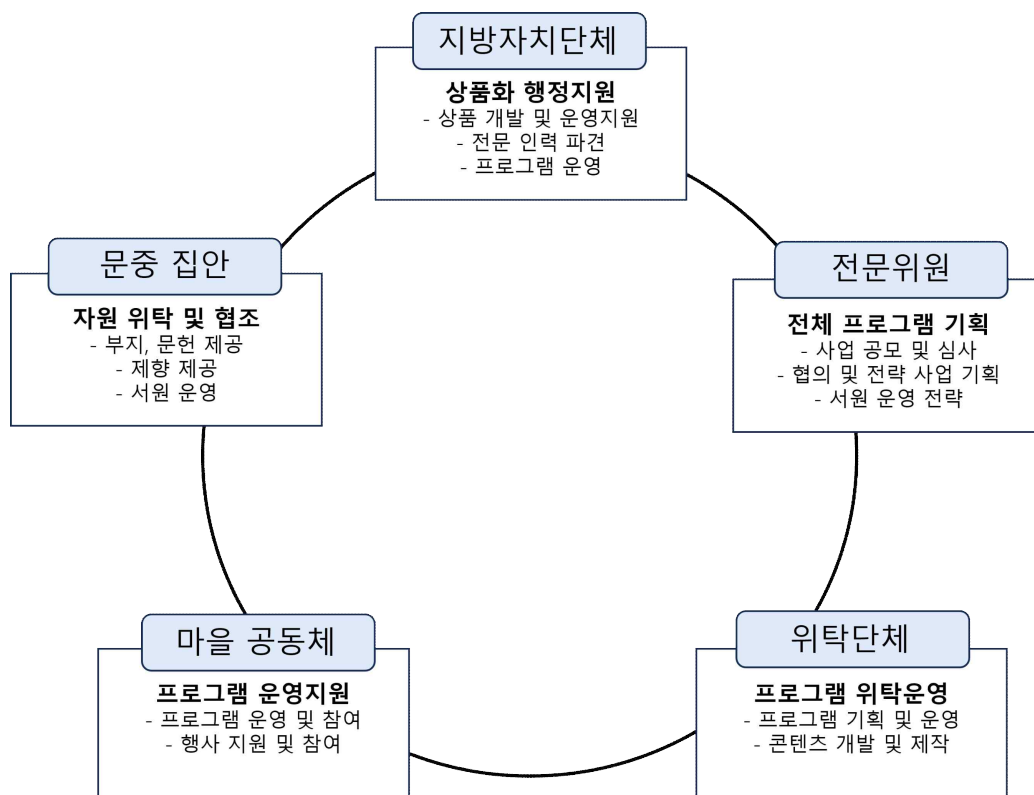
월봉서원은 체험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서원 중 하나다. 200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우수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4년 문화재청 ‘살아숨쉬는향교·서원활용사업’이 시작된 이래,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우수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부터 3년연속 ‘유교아카데미’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사업의 표창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전국 5개 시도에서만 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선정되었고,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3-15>와 같다.

<표 3-15> 월봉서원 운영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08~2012	생생문화재 우수 사업
2013	2014 유교아카데미 공모(월봉서원이 건네는 ‘선비의 하루’, 7천만 원)
2014	2015 유교아카데미 공모, 2014 향교·서원 활용사업 우수 사업
2015	2016 유교아카데미 공모, 2015 향교·서원 활용 사업 우수사업, 2014 유교아카데미, 유교체험프로그램 운영 최우수 표창
2016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원사업, 2015유교아카데미, 유교체험프로그램 운영 표창,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상 수상, 정책사례 발표
2017	고봉다움, 고봉다움(9천만 원)
2018	광산달망하다(1억8천만 원)
2019	모두의 월봉(9천만 원)
2020	어제의 고봉, 내일의 월봉(1억 2백만원)
2021	월봉, 線을 넘다(1억3,200만 원)
2022	2022, 다시 고봉을 만나다(1억 3,750만 원)

월봉서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문중집안이 협조를 하고 위탁단체, 마을공동체, 전문위원 3곳이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서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인 ‘살아숨쉬는향교·서원활용사업’,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 ‘생생문화재활용사업’에도 참여하여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림 3-25>에서 볼 수 있듯이, 콘텐츠기획사인 위탁단체가 주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콘텐츠 개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기획과 심사, 서원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 마을공동체는 사업의 참여와 공동 운영, 행사 지원 등을 진행한다. 문중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문헌을 제공하며, 제향을 실행하고, 서원을 운영하는 등 자원을 위탁하고 협조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봉서원을 상품화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협업적인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25> 월봉서원 서원 운영 체계 시스템



출처: 광산구청 월봉서원

월봉서원은 서원이라는 장소성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감성·사회성 등의 대안교육의 장이자 발현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자체, 문중, 마을주민, 수행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월봉서원만의 독자적 특징이다. 또한, 월보서원은 독보적인 성공 사례는 특허에 있다. 단순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상표·서비스를 등록해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예를 들면, ‘선비의 하루’(상표권등록 제41-0265806호, 제45-0047842호), 살롱드월봉(제41-0361896호), 꼬마철학자학교(제41-0361895호), 월봉로맨스(제40-1499762호), 광산구 문화유산통합 B.I(제40-1660307호) 등이 있다.

## 제1절 지역 + 마을 + 공동체의 개념

### 1. 공동체의 정의

공동체의 역사는 인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고, 초기의 공동체는 지역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노동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빠른 근대화, 도시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현대사회는 공동체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두레’, ‘계’라는 이름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두레와 계는 노동력이 주요 자원이었던 농경 사회에서 촌락 단위에서 상부상조의 덕목을 강조하며 노동을 공유하는 형태였다. 산업화 이전 농경 사회에서 공동체는 혈연 중심의 촌락 단위로 형성되었다면 산업화 시대 이후의 공동체는 ‘의도적인 공동체’로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의 가치 혹은 덕목 아래에서 만들어진 집단으로 정의된다.

공동체(community)란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협의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체”라 정의한다.

사전적으로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community’는 코문(commune)에서 어원적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선물(munis)을 나눔(com) 또는 그 나눔을 통해 함께 함(com)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community’는 공동을 의미하는 ‘common’과 공동자치제를 의미하는 ‘communal’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소유 및 의사소통의 뜻을 지닌 ‘communication’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지역사회학의 관점에서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한다. 지역주민과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로 정의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의 집단으로 정의하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자발적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존재가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담아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이자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긴밀한 유대감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공간은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활용하는 공동체 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관계망이 확장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차원의 사회자본 창출은 주민들의 사회적 접촉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접촉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결부된 사회 자본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 공간이고, 지역공동체가 된다.

또한, 대안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진 조직이 그러한 가치에 따라 운영되는 안정된 공간에서 주민들의 만남, 소통, 실천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공간은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남과 소통의 경험 속에 사회 자본을 창출해 낸다고 볼 수 있다.



## 2.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의 특성인 지리적 근접성,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 정서적인 동류의식(소속감) 중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강조되는 공동체다. 지역공동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더불어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중요하다.<sup>87)</sup>

지역공동체는 국민 행복·국가발전 동력 창출로 지역가치 향상을 핵심 개념으로 발전했다.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행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자치 실현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역 사회를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소단위 공동체를 생활공동체라고 하며, 소수의 인원이 보다 적은 범위의 지역에서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며, 생활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예수원, 풀무원 농원, 두레마을 등, 해외는 인도의 아쉬람, 프랑스의 오웬, 푸리에 등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공동체, 스위스의 라브리공동체, 일본의 토요사토 등이 있다. 아래 <표 4-1>은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 지역공동체의 정의

학자(연구자)	내용(정의)
힐러리(Hillery)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
니리(Neely)	특정 설명을 충족하는 단순한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체
고승희 외(2019)	상호작용, 유대감, 지역성, 공익성 등을 구성 요인으로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조직의 형태
김찬동(2012)	지역공동체의 목적, 조직, 자원, 리더십, 민주주의 요소, 외부네트워크 등
김현호(2013)	주체의 형성, 프로그램 및 사업, 네트워크 및 상호작용, 제도 및 인프라
남원석(2012)	상호합의를 통한 결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 향상, 주민조직화 및 주민리더 육성 전문가, 시민단체의 지원, 행정의 역할 정립,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박인권(2012)	지속가능성, 지역자산, 거버넌스, 기업가정신
박병춘(2012)	비전, 전략,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및 관리, 사람, 자원, 지원(정부재원), 자원능력, 공동체 핵심가치, 법제도적 환경이 포함된 인프라, 지역자원 활용
송인하(2013)	공동체 구성원 충원, 구성원 역량과 인식전환, 공동체 결속, 외부의 연계성, 주민단체와 행정조직의 참여 거버넌스 구축

87) 박병춘,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12, 1~2쪽.

지역공동체의 효과성과 주민만족도의 상관관계 중 주민만족도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체성은 자신 내부의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상당기간 동안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 정체감은 주관적 경험으로서,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집단적인 자아의식으로서 일정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존재의 원동력으로 내적 결속력과 외적 차별화의 기준이다. 사회구성원들과 조화해서 생성되는 집단적 유대의식이 그 지역을 유기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정체성의 원칙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이다. 지역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애착, 정체성, 소속감, 유대감, 상호교류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즉, 공동체에 대한 충성, 헌신 및 사람들 사이의 일차적인 상호작용 등에 기초하는 개념이다. 공동체 의식은 장소성, 근린애착, 장소애착, 소속감의 정의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공정성과 민주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 인식하여 해결방안에 함께 참여하는 연대적 유대감을 포함하는 구성원 모두의 정신적 결합체이다.

셋째, 지역공동체 의식에 관한 측정 중요한데, 지역민의 욕구 충족, 구성원 의식, 상호 영향, 정서적 연계를 공동체 의식 구성요소로 하여 공동체 의식지표를 개발하였다.

넷째, 지역공동체는 계획도시, 도시구역, 직장, 이민사회, 학생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공동체 의식을 측정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만족도는 삶의 질과 밀접한 개념이다.

다섯째,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 의식을 다루는 것이다.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가치는 그들이 처한 생활환경, 역사문화권,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개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영위되는 지역이 고려될 때 삶의 질 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통적으로 혈연 및 농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의 주민생활 특성은 개인적, 이익 관계로 이루어지는 도시생활과는 달리 지역공동체 생활과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요소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요소는 지역공동체의 목적, 조직, 자원, 리더십, 민주주의 요소,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요소로 지속가능성, 지역자산, 거버넌스,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Sustainability, Assets, Governance, Entrepreneurship-based strategies, SAGE) 등이 요구된다.

### 3. 마을공동체

마을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거나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다. 마을을 떠올릴 때는 도시 지역보다는 시골, 즉 농·산·어촌을 떠올리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개선하려는 활동들이 늘어나자 이를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 등으로 혼용하기 시작했고, 대개 ‘지역’보다는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의 물리적 범위에 ‘마을’을 적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동네’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장소적 성격이 강한 개념인 것에 반해, ‘마을’은 규범적이고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가치 지향적인 개념이어서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삶이 강화되었을 때 ‘동네’를 ‘마을’로 부를 수 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구성 요소인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표방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정책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정책의 언어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했고, 정책으로 복원하려는 ‘마을’을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면서 협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이라고 정의내렸다. 이상을 정리하면, 마을은 단순히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는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이 녹아 들어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은 공동체적인 삶이 녹아 들어있는 사회적 관계망이며,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긴밀한 유대감을 가진 마을공동체다. 마을 공간은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활용하는 공동체 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관계망이 확장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차원의 사회자본 창출은 주민들의 사회적 접촉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접촉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결부된 사회자본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또한, 대안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진 조직이 그러한 가치에 따라 운영되는 안정된 공간에서 주민들의 만남, 소통, 실천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남과 소통의 경험 속에 사회자본을 창출해 낸다고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서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한 삶터 가꾸기이다. 마을공동체는 동네 환경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동네에서 생활하는데 노후되거나 불편·불쾌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주민의 편익 증대와 생활 여건의 향상과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둘째, 공동체 형성이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조직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조직화하는 일이다. 마

에서의 공동의 문제를 더불어 성찰하고 개선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절되었던 마을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 의사소통의 다양화 및 활동 조직을 구축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셋째, 마을 사람의 지도자(리더)를 만드는 과정이다. 마을공동체는 책임감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동네주민과 마을 사람(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공동의 과제를 숙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성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리더로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인적 연결망인 마을에서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하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마을전문가 및 활동가, 그리고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넷째,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야 한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체계의 구축 운영, 주민역량강화교육, 공동체사업 공모운영, 마을정보의 취합전달, 마을자원 발굴 활용,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연구홍보 및 마을사업 모델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그 성격에 따라 ‘행정기관 중심형 마을공동체’와 ‘비영리민간단체형 마을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 **행정기관 중심형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획, 진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주민 중심형, 마을만들기 전문가나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 등에 의한 컨설팅 및 주민역량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가 집단중심형,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을 목표로 행정기관의 의사가 크게 반영하는 것이다.

○ **비영리민간단체형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자치회형, 마을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기업형, 마을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을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형,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주민단체, 시민단체 등 기타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주도한다.

또한, 마을공동체는 사업 내용에 따라 역사문화보존형, 노후 주거환경 개선형, 커뮤니티보전형, 에너지절약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역사문화 보존형:** 마을에 전승되는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유형.

○ **노후 주거환경 개선형:** 산동네, 달동네 등 주거지역의 노후화를 극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

- 커뮤니티 보전형: 공동육아, 아이 교육, 공유부엌 등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유형.
- 에너지절약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형.
- 일자리 및 소득지원형: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경제침체의 대안 마련하기 위한 유형.

〈표 4-2〉 마을공동체의 성격과 사업에 따른 분류

구분	유형	내용
성격	행정기관 중심형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활동을 기획, 진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주민 중심형, 마을만들기 전문가나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 등에 의한 컨설팅 및 주민역량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가 집단중심형,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을 목표로 행정기관의 의사가 크게 반영하는 것
	비영리민간단체형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자치회형, 마을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기업형, 마을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사업을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형,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주민단체, 시민단체 등 기타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주도
사업 내용	역사문화 보존형	마을에 전승되는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유형
	노후 주거환경 개선형	산동네, 달동네 등 주거지역의 노후화를 극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형
	커뮤니티 보전형	공동육아, 아이 교육, 공유부엌 등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유형
	에너지절약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형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경제침체의 대안 마련하기 위한 유형

## 제2절 지역공동체의 유형과 활용

### 1.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유형

2013년 행정안전부 연구보고서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를 재복원하여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마을공동체’의 유형을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지역산업형이다. 지역 자산을 활용한 향토자원의 발굴과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 내 소득 선순환 시스템 창출을 추구한다. 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역 내 공동체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향토자원의 발굴을 통한 창업,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일자리 매칭 등의 역할을 한다.

둘째, 지역교육형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능력배양과 지역교육 연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주민의 생애+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학교 이외에서 실시되는 사회교육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을 추진. 학교 교육, 사회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자원봉사 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셋째, 지역복지형은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맞춤형 복지실현에 관심을 둔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관계망을 열어나가는 복지를 통해 지역사회와 개개인들의 긍정적 순환구조 형성을 도모한다.

넷째, 지역안전형은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방재, 교통 등 지역 안전을 지원한다. 지역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재난·재해, 교통안전사고 및 사고위험, 범죄와 관련된 지역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다. 재난방지와 안전확보 차원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감시·단속, 긴급복구 등은 일차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활동을 한다.

다섯째, 문화역사형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둔 유형.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자원으로 개성있는 지역 정체성과 공간 창출 및 지역민의 자긍심 고양을 도모한다.

여섯째, 다문화 지원형은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지역주민과 외국인 거주민 간의 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유형이 있다. 외국인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를 집적하여 형성한 다문화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한다.

일곱째, 생활정비형은 노후주택, 주차장 등 지역 환경 정비 및 지역재생으로 지역민의 생활향상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거주지역의 환경 정비와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마을테마 만들기, 담장 정비, 문화여가활동, 특화거리 조성, 벽화사업 등이 있다.

여덟째, 환경생태형은 지역의 환경생태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다. 지역 환경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

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도모한다. 마을 텃밭 가꾸고 나누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주도(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유형은 추진 주체, 사업내용, 공간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 추진 주체에 따른 유형은 주민주도형, 주민외부지원형, 행정주도주민참여형, 주민, 외부, 행정결합형이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개발형, 사회서비스형,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역공동체조성형 등으로 구분된다, 공간 특성은 일터 만들기, 삶터 만들기, 쉼터 만들기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3〉 마을공동체 유형과 내용

구분	유형	주요 내용
추진 주체	주민주인형	주민이 주인이 되어 시행하는 형태
	주민과 외부협조형	주민중심으로 시민단체, 도시재생 전문가 등이 협조하는 형태
	공공중심의 주민참여형	행정(공공)이 중심되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을
	주민+외부지원+행정결합형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등이 다함께 협력하고 행정(공공)이 지원하는 형태
사업 내용	지역사회개발형(직접형)	물리적, 공간적 변화로 주민생활여건(생태, 주거, 가로, 문화마을조성 등)을 개선하는 형태
	사회서비스형(간접형)	비물리적 여건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보육, 방과 후 교실, 의료서비스, 생협등)을 개선하는 형태
	일자리창출형	커뮤니티 경제 및 고용증진을 위한(고용, 경제활력, 지역산업) 개선
	지역공동체 조성형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형태를 결합하여 지역공동체 개선을 위한 형태
공간 특성	일자리만들기	마을단위 생활환경 여건개선이 목표인 활동유형(헤이리 마을, 서촌마을 등)
	삶터 만들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유형(부평 문화거리, 흥성마을)
	쉼터 만들기	마을환경변화 및 문화역사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형(사당동 양지공원, 부산시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20명 이내로 구성되지만, 경기도는 25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천은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지만, 서울, 경기도는 자치단체장과 참여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고, 서울과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서울의 경우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경기도의 경우 남녀 구성이 6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성비를 고려하고 있다. 성비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위원회에 다양한 사람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2.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 1)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지역사회 통합 구현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물론 사회적기업을 지역공동체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가에는 이견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지역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지역 일자리 공시제”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정책은 2007년 후반기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법에 의해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을 제한하였고, 사업이 정부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2009년 들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도 조례 등을 제정, 지자체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표 4-4〉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정책 기본법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업무지침
부처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행정안전부(지역공동체과)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로 영업활동 기업	- 마을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 서비스 제공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현황	- 169개 (사회적 108, 예비 61)	- 마을기업 59개 (지정 47, 예비 12)	- 404개 (일반 316, 사회적 88)

## 2) 지역 풀뿌리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추진한 기존의 희망근로사업을 2010년 후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2010년 6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다시 마을기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인적자원 등)을 활용,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정책 목표로 하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풀뿌리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단위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마을기업 사업은 정책 목표 등에서 사회적기업과 차이가 있으나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에는 500개 마을기업을 집중·육성했다.<sup>88)</sup>

## 3)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농어촌 주민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마을단위 영농법인, 경영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사업’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9년 12월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한 268개 사회적기업 중 농어촌관련 인증기업은 8.2%인 22개에 불과하고,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이 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자가 주를 이루어 농어촌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마을기업과 유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4)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란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양한 문화예

88)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11757>

술공동체”를 말한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은 지역의 인문, 지리, 사회, 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생활권(읍·면·동) 내 주민들이 생활문화 및 생활예술의 생산자가 되어 지역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문화소외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격차 해소하고, 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체적 문화향유의 일상화 및 지속기반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함께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2009년부터 지원하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지역살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추진방향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구축하고, 공동체 형성, 성과 발전, 자생적 공동체 운영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등이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를 통해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들 수요에 맞는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나름의 효과라고 본다.

## 5) 정부 주도 지역공동체 사업의 문제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정부 주도 지역공동체 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별반 차별성이 없는 유사 정책 사업들이 개별 부처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사중복 및 비효율성의 문제점, 정책의 수용 능력 및 공급의 부조화 문제에서 야기되는 정책의 성공 가능성 저하, 사회적경제라는 토대를 무시한 채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오는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이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임시방편적 기업 출현에 대한 우려 및 지속가능성의 문제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기여, 일자리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일자리 창출 중심 정책에서 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정립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대상으로서의 지역공동체를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일,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형을 개발하는 일,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일 등이 중요하다.<sup>89)</sup>

89) 박병춘,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12.

## 제3절 서원과 지역공동체 사례

### 1. 옥산서원 세심마을

세계문화유산에 있어서 공동체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들로 단체마다 고유의 대표성을 띠고 문화유산 활동들을 한다. 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비영리문화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예술가를 중심으로 결성한 단체(art companies)
- 둘째, 시설 및 사업단체로서 활동하는 단체(institution)
- 셋째, 문화예술발전을 지원하는 주체들이나 단체(service organization)
- 넷째, 문화예술대학(College of Culture and Arts)

역할 기대가 사회적 측면으로는 특정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사회적 창의성과 혁신을 키우는 것으로 본다. 문화정책 측면에서는 문화단체들이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정부에 대해 문화정책을 제언하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이나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도 강조되며 문화활동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역할도 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역사회로 권력이동이 이뤄지는 추세에서 문화단체는 공동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가교형 사회적 자본을 구축한다. 서원과 같은 문화유산에서 문화단체의 활동은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뤄진다. 기존의 관주도적인 단계를 넘어 민간단체와 지역공동체가 유산관리에 참여하면서 문화유산관리는 다양한 활용 형태로 나타난다.

공동체의 또 다른 주체로 문화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의 시민들은 소득과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단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향유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환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문화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지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민간단체가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을 띠고 중앙과 지자체에서 민간에 위탁, 위양하고 있는 추세다.

세심마을은 2002년 경상북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가장 먼저 선정된 곳이다. 위치는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해 있다. 신라 때부터 옥천(玉川)이라 부르던 곳을 여주 혹은 여강 이씨 회계 이언적 선생이 입거하면서 옥산(玉山)이라 개명하여 오늘날까지 부르고 있다.

세심마을은 옥산서원, 독락당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전통테마 마을로서 차별화되어 있고, 마을 이름대로 ‘마음을 깨끗이’할 수 있는 포근한 마을이다. 세심마을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다른 마을에 비해 접근성 등 지역 여건은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을의 지원들

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어느 지역보다 성공적인 체험마을이 되고 있다. 경주 옥산 세심(洗心)마을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 경주 옥산 세심마을 현황

농가수(호)			인구수(명)			경지면적(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논	밭
65	30	35	134	61	73	14.4	8.9	5.5

마을 공동시설로 마을회관(40평), 경로당(16평)이 있으며, 마을 내에서 옥산서원과 독락당의 문화유적지가 있어 마을동제(음력 1.15), 화재 선생의 추모제인 향사, 그 향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추대제 등의 마을문화 행사가 있다. 주변 문화재 및 관광명소는 양동민속마을, 보경사, 죽도어시장, 삼사공원 등이 있고, 묵김치, 시금장, 표고버섯 등의 지역특산물이 있다.

세심마을은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전통혼례, 도자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이 외에 고기잡이 체험, 전통체험(떡치기, 장작패기, 활쏘기, 제기차기, 전통예절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체험장마다 체험장 명칭이 있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큰 도로변에 마을 안내판을 두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세심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 공사를 통해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넓은 주차장은 큰 장점이다.

세심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옥산서원과 독락당이 자리 잡은 경주 옥산마을 일대를 말한다. 국가지정 보물만 200여 점이 넘는 역사문화 마을이다. 이렇듯 유서 깊고 아름다운 옥산마을이지만, 청년은 사라지고 고령화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옥산마을의 부흥을 위해 옥산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조청과 참기름 가공장까지 갖추면서 1차 산업(농업)과 2차 산업(제조업)의 기반을 닦았다. 여기에 마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3차 산업(체험관광)을 더했다. 이렇게 옥산마을은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해 6차 산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옥산마을은 스쳐 지나가는 농촌관광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농촌관광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마을 소득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세심마을은 농어촌 인성학교를 통해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4년에 문을 연 ‘농어촌 인성학교 교육관’은 차별화된 마을체험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마을 대표 문화유산인 옥산서원과 독락당이 모두 유학 교육의 장이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예절과 인성교육 시설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열리는 ‘옥산마을 농어촌 인성학교’는 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생활습관과 타인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키우는 옥산마을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인성학교에서 전통 예절과 다도를 배우고 맛있는 약과와 삼색 손칼국수 만들기, 짬뽕

공예 체험도 한다. 야생화와 천연염색 재료를 가지고 나만의 손수건을 만드는 체험은 어른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 농어촌 인성학교 교육관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옥민박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마을 소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세심마을에서 지원받은 정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4-6〉 경주 옥산 세심마을 현황

연도	제목	지원	금액
2009~2014	세심권역 종합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67억 원
2016	조청 및 참기름 가공장 조성	경주시	3억 원
2017	안강 세심권역 활성화 교육 및 홍보 컨설팅	경주시	1,700만 원
2019	안강 세심권역 활성화 개발 컨설팅	경주시	2,000만 원

## 2. 도산서원과 군자마을과 예끼마을

군자마을은 안동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광산 김씨 문중 가옥이 이전되어 형성된 마을로 다수의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은 유지보수에 일정 지원을 받지만, 그 외 건물은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군자마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옥에서의 생활이 생소한 이들에게 일정비용을 받고 한옥을 대여함으로써 전통한옥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한옥체험을 운영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전통한옥에서의 생활은 매력적이지만 각종 편의시설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재래식 화장실의 비위생적인 부분과 욕실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들은 부담이며 재방문 저해 요인이다.

〈표 4-7〉 안동 군자마을 정비사업

정비자원	기존 현황	정비내용
마을 자체	불리한 마을 공간 구성	공간구성 재정비
꽃긋축제	불규칙적으로 운영	꽃긋축제 운영
내림음식	문중 내에서만 전수	상품화하여 예약 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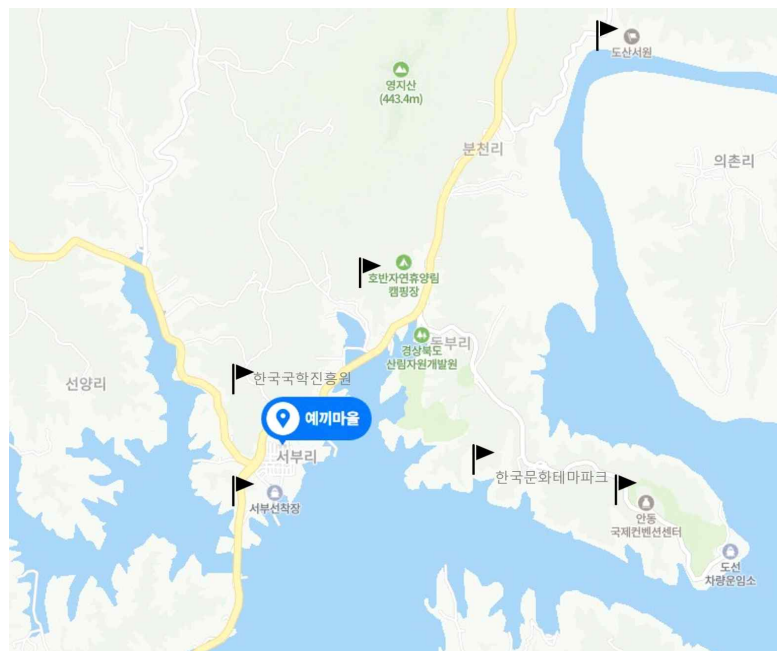
군자마을은 체험객들의 편의제공과 마을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재래식 화장실과 부속건물의 내부만을 리모델링함으로써 한옥 보존을 유용하게 보존해야 한다. 한옥체험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하자보수비용, 관리 인력의 인건비, 전기료 및 침구류 등 기타 유지비로 재투자된다. 목조건물의 특성으로 인해 공가 상태에서의 단순한 관리보다 사람의 온기가 닿을 수 있을 때보다 온전한 보존이 가능하다. 당일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유형의 경우 체험과 상품판매에 서만 수익이 발생하고, 그 비용의 일부는 건물관리에 재투자한다. 숙박과 식사를 필요로 하는 체류형의 경우 체험, 상품판매, 숙박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의 일부는 다시 건물관리에 재투자해야 한다.

군자마을의 효율적인 한옥 관리는 거주자를 대신한 방문객으로 목조건물에 사람의 온기를 공급하는 것, 방문객 맛이를 위한 청소와 정리 정돈과 같은 활동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운영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재투자함으로써 건물의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

예끼마을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매곡현이었으나 추후 선고현으로 개명되었고, 조선시대 예안현 관아는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및 서부리 일원에 있었으나,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낙동강에 수몰되었다. 이제 200여 가구의 수몰민들만이 물 아래 고향마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에 40여 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면 살아온 그들의 기억을 더듬는 새 예술 작품들이 하나씩 들어와 앉아, ‘예끼마을’(예술과 끼가 있는 마을)로 탈바꿈했다. 현재 예끼마을의 주소지는 안동시 도산면 신성길 14이다.

예끼마을에는 다양하게 둘러볼 콘텐츠가 풍부하다. 테마가 있는 골목, 선성수상길, 신성현문 화단지, 신성산성공원, 근민당갤러리, 갤러리 예, 끼 갤러리, 물빛갤러리, 신성공원, 예안향교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문화도 있는데, 전통민속놀이, 형벌체험, 전통혼례, 전통의상체험, 전통주 시음 등이 있다. 특히, 전통의복체험은 전통복식을 고증을 거치고 MZ세대의 취향을 접목한 다양한 캐릭터의 의상을 제작·구비하여 초·중·고 학생에게는 전통 체험학습 현장으로 가족·동호화·친구·연인에게는 특별한 추억여행을 만들어 준다. 의복도 다양해 전통 궁중 혼례 복식, 왕과 중전, 정승, 암행어사, 관아 포도대장과 6방, 선비, 포졸, 장군과 호위무사, 성군과 유생, 궁중 의녀(장금이), 이도령과 춘향이, 황진이, 마당쇠, 그 외 현대식 한복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복식체험은 소소함에서 큰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예끼마을의 킬러콘텐츠 중의 하나이다.<sup>90)</sup>

〈그림 4-1〉 예끼마을 인근 문화관광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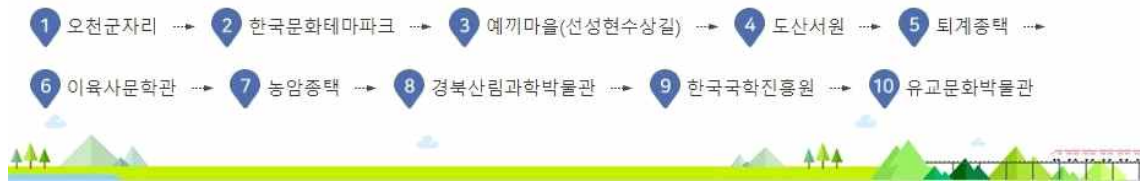


예끼마을은 갤러리 3곳과 작가 레지던스 한 곳에 미술 작품들이 있다. 갤러리는 마을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됐다. 옛 관아의 집무실 건물(선성현 관아)이었다가 한옥 갤러리로 바뀐 ‘근민당’(近民堂)은 한옥의 멋을 품고 있다. ‘예끼마을추진위원회’는 이 마을에 있는 선성현 한옥체험관을 운영하는 문화창조기업 (주)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미술·문학·음악이 있는 마을로 만들었다. 마을 집집의 담벼락을 벽화로 꾸미고, 빈집을 활용해 식당, 한옥 카페, 관광안내센터로 만들어 안동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한 작가들이 꼭 한번 전시하고 싶은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91)</sup>

90) 예끼마을(<http://www.yeggisto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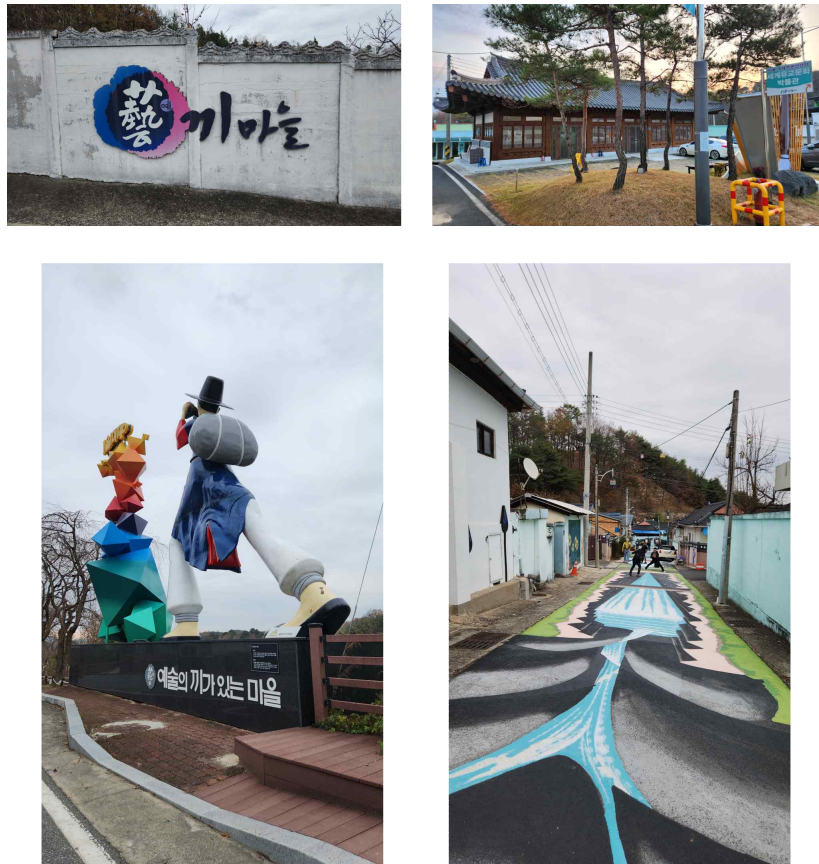
## 〈그림 4-2〉 도산서원 코스



출처: 안동관광: <https://www.tourandong.com/>

예끼마을은 둘레길 혹은 트래킹 코스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예끼마을 둘레길은 약 6km의 걷기 코스를 2시간 동안 산책한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출발해서 한국문화테마크, 호반자연휴양림, 선성수상길을 지나 예끼마을로 연결해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후 예끼마을과 선성현문화단지를 탐방하는 코스다. 또한, 예끼마을과 도산서원을 잇고 유교문화의 맥을 연결하는 도산서원 코스도 유명하다. 이 코스는 안동호의 절경과 다양한 유교문화 유적을 느낄 수 있다.

## 〈그림 4-3〉 예끼마을 전경



91) 예끼마을(<http://www.yeggistory.com/>)

따라서 안동시는 도서서원과 예끼마을을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첫째, 도산서원과 예끼마을 둘레길 코스이고, 둘째가 도산서원과 예끼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작업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동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예끼마을은 한국국학진흥원 앞에 위치한 마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인근에 안동 선비순례길,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이육사문학관, 도산서원, 오천군자마을 등이 밀집해 있다.<sup>92)</sup>

---

92) 안동시티투어([http://www.gbtour.kr/coding/sub2/sub2\\_2.asp](http://www.gbtour.kr/coding/sub2/sub2_2.asp))

### 3. 도동서원과 대구 달성군

경상북도 안동시에는 4개의 마을기업이 있고, 도산면에는 휴게음식업을 하는 도산참사랑농업회사가 있고, 풍천면에는 마을기업이 없다. 영주시에는 2개의 마을기업이 있고, 순흥면에는 마을기업이 없다. 경주시에는 10개의 마을기업이 있고, 안강읍에는 전기제조업을 하는 초록빛공장만 있다.

도동서원이 있는 대구광역시에는 대구시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커뮤니티와 경제’가 있으며, 시에는 40개의 마을기업이 있고, 도동서원이 소재한 달성군에는 4곳의 마을기업이 있다. 그 중 구지면에는 1곳의 마을기업이 있고, 사단법인 대구마을기업협회가 있다. 구지면에 소재한 행원정농업조합법인은 전통적인 재래식 된장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유일한 구지면의 마을기업이다. 달성군에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주)행복한동행, 가람과사람(주), (주)블루아트컴퍼니, 까나베나(주), 주식회사이야기가있는집, JJ힐빙협동조합, (주)가온하이텍, 참꽃에프앤비(주)까지 9개 사가 있다. 그리고 달성군에는 마을공동체가 49개가 있다.

그리고 도동서원에서는 인근 협동조합이 연합으로 프리마켓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3년 11월 4~5일 도동프리마켓을 개최했다. 참여한 협동조합은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도동스토리협동조합, 두손공예협동조합, 대구약령시협동조합, 대구화훼협동조합, 토브커피에이전시협동조합, 착한제품협동조합, 하이크리닝협동조합,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 핸즈아로마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커뮤니티와 경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가 후원해 주었다.

〈표 4-8〉 도동서원 협동조합 프리마켓 사례

협동조합명	프로그램 및 내용
공예배우미협동조합	나만의 키팅 만들기 - 반려인형키팅, 보자기키팅, 쉬링크키팅 - 다양한 소품을 골라 개서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키팅을 만들
도동스토리협동조합	먹거리: 어묵과 떡볶이 판매
두손공예협동조합	종이방향제와 도자기 풍경 만들기
대구약령시협동조합	약전골목, 수제 쌍화차 10포 무료시음
대구화훼협동조합	생화, 소품분화 및 모스인형 판매
토브커피에이전시협동조합	가공법에 따른 커피맛 비교 - 가공을 비교 시음 후 클레벨를 이용하여 커피 추출 - 설명을 드고 추출법에 따른 커피 시음
착한제품협동조합	자연에서 얻은 약초 팔찌

	- 자작나무 팔찌 만들기
하이크리닝협동조합	친환경 고체주방세제 판매 도동서원유생체험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	커피박 도동 이젤, 도동 굿즈 키링 - 커피박 천연 점토를 이용해 도동서원을 표현한 업사이클링 제품 - 친환경 제품 유니 캔들 - 버려진 캔을 이용하여 만든 업사이클링 캔들
헨즈아로마협동조합	마음향수 만들기 - 패브릭향수, 실내방향제로도 사용 가능

도동서원과 인접한 구지면 현풍읍에는 도동스토리협동조합이 대표적인 공동체 기업이다. 도동스토리협동조합은 도동서원 앞 충효관과 도동매점, 그리고 카페 350을 운영하고 있다. 충효관은 도동서원 옆에 위에 위치한 한옥식 건물이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문화예술공연이나 프리마켓이 대표적이다. 또한, 행사기획 촬영, 앨범 편집, 제작 스토리앨범 제작을 진행하고 여행 앨범에서부터 삶의 일대기 앨범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문화 체험과 전통놀이, 예절교육 등 도동서원의 정신에 걸맞는 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충효관 체험관 대여, 옷놀이, 떡매치기, 한지공예, 팔찌, 목걸이 만들기, 민화 체험, 도자기 체험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4-4〉 도동프리마켓



출처: 커뮤니티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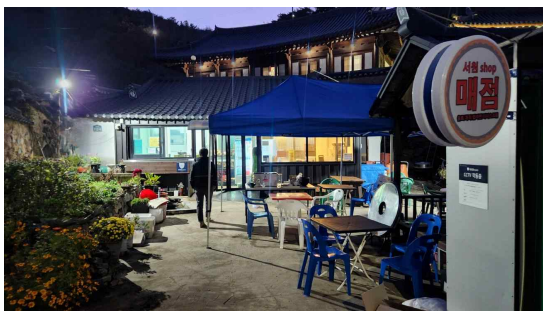
〈그림 4-5〉 도동서원 인근 지역공동체 운영 상점들



충효관



카페 350



서원매점



황금은행빵

도동매점은 자그마한 동네 매점으로 단단한 음료와 과자류 등을 판매하고 있고, 겨울에는 어묵 등 계절에 맞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카페 350은 커피, 디저트 등을 판매하고 있고, 인근 지역의 특산물도 함께 판매한다. 카페 350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원카페 보물 350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다. 인테리어도 전통가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퓨전 형태로 조합해 아늑하고 편안함을 제공해 도동서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지역특산물인 쌍화차, 황금은행빵, 전통문양 수제비누, 양봉꿀, 각종 수제청, 농산물과 커피드립백과 원두 등도 판매한다.



#### 4. 무성서원과 원촌마을

원촌마을에는 인문경관이 풍부한데,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성서원(사적 제166호, 세계 문화유산), 무성리 석불입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무성리 삼층석탑(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송정(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3호), 태산사, 송산사, 필양사, 시산사, 영모당, 후송정, 한정, 호호정 유지비, 영성정, 상춘곡비, 향토문화 사료관이 있다.<sup>93)</sup>

그리고 칠보면 무성리에는 물테마유원지가 있다. 칠보 물테마유원지는 물테마전시관을 비롯해 물놀이장, 인공폭포,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어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주와 광주 등 지역에서 매년 3만 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는 여름철 관광명소다.<sup>94)</sup>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 주변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정읍시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칠보면 원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동편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성서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변화시켜 사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문화·관광을 자원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거경관과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다움을 찾고 거주지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무성서원과 원촌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종합개발사업을 구축한다. 이는 ‘태산선비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화재정비복원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2007~2008년 사이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표 4-9〉 무성서원과 원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명	세부계획	대상지	착공시기
태산선비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꽃연못	사료관 인근(농지매입 시행)	2007
	다도체험관	다목적 다도체험관 부지 제공, 성토공사, 조경공사 진행	2007
	권역안내판 설치	마을입구	2007
	도수로 복개 및 주변정비	무성서원 서측 도수로 일대	2007

93) 소구리 문화지도(<http://www.soguri.com/jeollabuk-do/jeong-eup-si/chilbo-myeon/>)

94)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2023.07.20.

	전통가로경관 조성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입구	2007
문화재정비복원사업	무성서원 보수정비	무성서원	2008
	고직사 재건축	기존 고직사 부지	2008
	홍살문 이전 설치	무성서원 정면 입구	2010
	전통담장 조성	서원 경계부	2010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다목적 다도체험관	마을회관 동측	2008
	마을회관 재건축	기존 마을회관 부지	2008
	경로당 보수	기존 경로당	2008

2009년 6월 16일, 정읍시 칠보면 원촌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준공식 개최했다. 강광 시장,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 정창환 정읍문화원 원장(정읍원촌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문화원장과 내외귀빈, 마을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촌마을은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근원지이자 호남 유교문화의 산실인 무성서원(세계문화유산 겸 사적 제166호)이 자리하고 있는 태산선비문화권의 중심지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7억 원, 시비 3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이 투입되었다. ‘원촌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인근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정비, 보존하고 가꿈으로써 유서깊은 문화와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 환경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해 지역민 소득민 제고를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비문화 및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95㎡ 규모의 다목적 체험관(한옥)과 113㎡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한다. 원촌마을 인근에 대한 생태공간 및 마을 숲 조성과 함께 마을 안내판도 설치했다. 원촌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문화축제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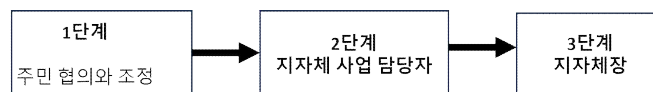
2020년 원촌마을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전라북도 주관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선정(2020년 3월 26일)된 것으로 사업비는 10억(도비 5억, 시비 5억),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휴식 등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촌마을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림 4-6>은 원촌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추진도이다.

〈그림 4-6〉 원촌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도



정읍시는 원촌마을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간의 조정의 과정을 가졌다. 우선 비용의 중복, 사업 시기와 위치의 상이함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정읍시는 관련 부서 실무자들의 상호조정과 가능성에 대한 각 사업 용역사의 검토가 뒷받침되어 원만하게 진행했다. 사업계획 조종은 크게 3가지로 계획내용, 사업비, 사업 시기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는 1~3단계로 주민의 협의와 조정,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자, 지자체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난개발을 막고 원주민의 피해나 역사문화재의 보존 그리고 마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련의 커뮤니티 과정이다.

〈그림 4-7〉 원촌마을 주민과 협의 및 문제 발생 처리 프로세스



정읍시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무성서원 주변마을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도색, 담장·축대 정비, 안전시설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구축한다. 또한 안길 포장과 공동창고 조성, 마을회관 수선, 스토리텔링 벽화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마을 자원관리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주민역량 강화와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반영해 주민이 희망하는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지원한다.<sup>95)</sup>

95) “정읍시, 무성서원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 본격” 전민일보, 2021.07.28.



〈표 4-10〉 칠보면 원촌마을 정비사업

정비자원	기존 현황	정비내용
무성서원 주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질서하게 위치한 비석들</li> <li>◦ 홍살문 소실</li> <li>◦ 방문차량 증가로 주차문제 有</li> <li>◦ 배향기능만 존재</li> <li>◦ 서원 마당주변 담장정비 필요</li> <li>◦ 개인창고로 주 진입로 개방감 상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석들의 위치 조정</li> <li>◦ 홍살문의 복원과 위치이전</li> <li>◦ 주차장 확보</li> <li>◦ 서원 마당 정비(전통담장 조성, 관광안내소 철거, 전신주 이동설치)</li> <li>◦ 진입부 매입 및 정비로 개방감 확보</li> </ul>
무성리 3층 석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체 정비</li> </ul>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적 정비로 인한 훼손(블록담장, 대문, 시멘트 포장된 마당, 처마 일부 양철판 보수 등)</li> <li>◦ 대나무 침입, 담장 균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 복원(담, 대문, 건물)</li> <li>◦ 한정 진입부 연꽃연못과 연계된 공원 조성</li> </ul>
필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적 정비로 인한 훼손(시멘트 포장된 마당, 지붕누수 등)</li> <li>◦ 건물 노후, 담장 균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 복원(담, 대문, 건물)</li> <li>◦ 안내판 정비</li> </ul>
고직사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노후, 서원경관 저해 등</li> <li>◦ 민가의 임시적 사용으로 고직사의 필요공간에 부적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으로 재건축</li> <li>◦ 해설사 공간 및 프로그램 진행공간 조성</li> </ul>

정읍시에는 17개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중 칠보면에는 4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칠보면에는 썩썩한 콩나물,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유), 태산풍류 영농조합법인 등의 마을기업이 있고, 콩나물이나, 마시는 우리곡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무성서원이 있는 원촌마을에는 원촌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원촌마을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는 한편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만들고 판매하면서 차츰 두부 요리를 특화하려 마을주민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칠보면에는 썩썩한 콩나물,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유), 태산풍류 영농조합법인 등의 마을기업이 있고, 콩나물이나, 마시는 우리 곡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sup>96)</sup>

무성서원이 있는 원촌마을 복원사업의 성공 요인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단 체장인 정읍시장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 둘째, 원촌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비 이후 발생하는 관리에 대한 부담을 해당 부서에서 덜 수 있었다. 셋째, 원촌마을 주민 혹은 마을 상황을 고려 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자와 사업 시공사는 협의와 조정이 중요하게 진행된다. 넷째, 주민이 참여해 만든 하나의 발전계획안을 공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했다.

96) 전라북도 마을기업(<http://xn--ok0bw3tdujzob.kr/html/view.html?num=13&local=13>)

문화재청, 정읍 무성서원은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웹드라마 ‘삼백살 20학번’ 공개했다.<sup>97)</sup>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홍보하고자 서원을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삼백살 20학번」을 제작하고 문화재청 유튜브와 한국의 서원 누리집(<http://koreaseowon.com>), 네이버 TV(티비)와 카카오 TV(티비)를 통해 12월 21일부터 공개한다. 「삼백살 20학번」은 편당 약 10분, 총 6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시대 인재를 키우던 '서원' 안의 도령 3인방이 2020년 대한민국 서원으로 떨어지며 시작되는 웹드라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sup>98)</sup> 문화재청은 웹드라마 「삼백살 20학번」을 국내외 한국 문화 홍보 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의 자막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림 4-8〉 원촌마을과 두부협동조합



97) <http://m.jlmaeil.com/view.php?idx=196361>

98) [https://overseas.mofa.go.kr/za-ko/brd/m\\_9937/view.do?seq=1345334](https://overseas.mofa.go.kr/za-ko/brd/m_9937/view.do?seq=1345334)

## 5. 기타 서원 지역 지역공동체 사례

논산시에는 14개의 마을기업이 있고, 연산면에는 4곳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농산물 가공물을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이장님닷컴, 공유농장을 운영하는 논산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조정시설물과 원두막 사업을 하는 주)베스트컴포니, 마지막으로 농촌유학센터운영과 농촌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등을 하는 양지그린락협동조합이 있다. 연산면에는 마을기업은 없다.

전라남도 장성군의 마을공동체는 씨앗단계 28개, 새싹단계는 9개, 공동체활성화는 6개, 행복드림 돌봄은 1곳이 있다. 마을기업은 7곳이 있는데, 그중 황룡면에는 3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절임배추와 농수산품을 판매하는 아치실마을협동조합, 반건시와 과채즙을 판매하는 사계영농조합, 그리고 필암서원 마을체험과 식품 먹거리를 판매하는 필암마을협동조합이 있다.

함양군에는 9개의 마을기업이 있으나 수동면에는 마을기업이 없다. 개농이네농장, 참생명영농조합법인, 큰가내영농조합법인, 지리산창원마을, 송전산촌생태마을, 함양물레방아떡마을, 숲살이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외마촌마을기업이 있다. 함양군은 2023년 1월 함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마을과 행정기관이 현재의 농촌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기 위하여 세워진 중간지원조직이다. 행정과 사업을 구축하는 행정과 마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 즉, 민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민간과 행정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며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간조직이 가장 필요하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 시책 마련, 둘째, 민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셋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 농촌공간전략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주)숲속언니들과 서하다음 청년레지던스가 대표적이다.

〈표 4-11〉 서원 인근 마을 기업 분포

이름	소재지	마을기업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2740	영주시 10개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안동시 8개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안동시 8개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216-27	경주시 9개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달성군 11개
남계서원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8-11	함양군 7개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 황룡면필암리378-379	장성군 7개
무성서원	전북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정읍시 16개
돈암서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논산시 14개

〈그림 4-9〉 서원 인근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 제1절 면접방식 설계 및 방법

### 1. 연구 방식 선정

인터뷰 방식으로 정형화(구조화) 방식과 비정형화(비구조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인터뷰 방식은 모두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하여 참여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비대면 인터뷰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원격인 인터뷰(Remote Interview) 또는 서면조사(Survey)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자가 면접자에게 직접 정형화된 인터뷰 문항을 보내주고 이에 따라 면접자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술하여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심층인터뷰나 초점집단인터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연구목적과 연구자의 선호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술하는 FGI란 이와 같이 심층인터뷰나 초점집단인터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면조사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서면 형식의 비대면 인터뷰인 대상별 심층질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2차 FGI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FGI 설문 문항 작성을 위하여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와 미팅을 통하여 설문 문항의 검토 및 보완 등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차 FGI 설문 문항을 미리 1차 FGI에 포함시킨 최종적인 FGI 문항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 2. 연구 장소 및 대상자 선정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과업을 진행하기 위한 장소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을 연구 장소로 지정하였다. <표 5-1>은 서원 이름과 소재지가 나타나 있다.

<표 5-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이름	창건	인물	소재지
영주 소수서원	1543년	안 향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함양 남계서원	1552년	정여창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경주 옥산서원	1572년	이언적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안동 도산서원	1574년	이 황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장성 필암서원	1590년	김인후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달성 도동서원	1605년	김강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안동 병산서원	1613년	류성룡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정읍 무성서원	1696년	최치원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논산 돈암서원	1634년	김장생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표 5-2>는 9개 서원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나타내고 있다. 심층 인터뷰는 서원 인근 지역민, 서원관계자, 해당 지자체 공무원, 서원 해설사 및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각 2명씩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응답은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9개 서원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 도출 및 그에 따른 설문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5-2〉 9개 서원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

NO	대상	FGI(명)	비중
1	서원 인근 지역민	2	20(%)
2	서원관계자	2	20(%)
3	해당 지자체 공무원	2	20(%)
4	서원해설사	2	20(%)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2	20(%)
총계		10	100(%)



### 3. 인터뷰 질문지 설계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설문 문항 1차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 도출된 1차 설계를 바탕으로 연구원들의 의견을 모아 심층 인터뷰 설문 문항 2차 설계가 이루어졌다. 심층 인터뷰 설문 문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미리 서원 세계유산센터에 송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차 심층 인터뷰 설문 문항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 (1) 심층 인터뷰 설문 문항 1차 설계

서원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서원의 보존,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 서원보존 측면

질문-1: 서원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질문-2: 서원이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3: 현재 서원을 운영하는 단체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서원운영 측면

질문-4: 서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질문-5: 서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6: 서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7: 서원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서원관리 측면

질문-8: 서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고려하고 있나요?

질문-9: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10: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원의 보존과 문화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나요?



## (2) 심층 인터뷰 설문 문항 2차 설계

1차 설계에서 미진하였던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을 적용하였으며, 큰 분류로는 서원 보존(Preservation) 방안, 서원 관리 및 운영(Management & Operation) 방안, 서원지역공동체 활성화(Vitalization) 방안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2차 설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세부적인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FGI 응답에 대한 분석은 [부록-1]에 있다.

- [질문-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9개 서원) 중 한국의 서원은 다른 서원과 어떠한 다른 강점 혹은 차별점이 있는가요? 긍정적인 측면을 자랑해 주세요?
- [질문-2] 귀하의 서원은 지역에 큰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지방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 [질문-3] 귀하의 서원이 마을(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지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에 실제로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지요?
- [질문-4] 귀하의 서원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외부인, 외국인 등 다양한 관광객에게 바라는 점은 있는지요?
- [질문-5] 귀하의 서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해 무엇을 배우며,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요인은 무엇입니까?
- [질문-6] 귀하의 서원이 지역의 문화(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질문-7] 현재 귀하의 서원을 운영하는 단체(지역공동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는?
- [질문-8] 귀하의 서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질문-9] 귀하의 서원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률, 정책, 재정 지원 등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각 주체 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10] 귀하의 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또,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질문-11] 귀하의 서원 발전은 지역민과의 공존과 상생,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과 서원 간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소풍이나 백일장, 기타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는지요?

[질문-12]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귀하의 서원 보존과 문화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나요?

[질문-13] 본 조사는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협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귀하의 서원이라는 좋은 유형의 콘텐츠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제2절 서원의 보존 측면에서의 분석

### 1.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서원 인근 지역민들은 한국 서원이 고요한 아름다움과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방문객들은 문화재의 보존에 힘써주며 지역민들의 생업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하였다. 또한 역사적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서원의 가치와 문화를 교육하고 전달하며 자료로 남겨 변천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서원 인근 지역민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 “1. 도산서원으로 가는 입구 (구비구비 우거진 돌담숲길을, 가을에는 멋진 단풍을 보면서 들어간다.)
2. 매표소에서 300m 들어가면 마당에 몇백 년 된 왕버드나무와 낙동강 건너 시사단이 보이며, 풍광이 단연 일등이다.
3. 계단을 오르며 오래된 도산서당과 건물들이 있고, 관광객들의 말을 빌리면 조용하며 풍광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한다.”(도산서원)

“한국의 서원은 옛 모습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강점 또는 차별성이 있다.” “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께서는 문화재 훼손 방지에 힘써주었으면 한다.”(병산서원)

“관광객들은 각종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생업을 하는데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교통, 소음, 환경 등 피해가 큼니다.”(도동서원)

“현재 리모델링하는 집성관에서 서원의 역사와 군신 간의 절의, 시문학 도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묵죽도의 참뜻을 해설하여 줌으로써 절의 정신을 함양하고, 전통 제례를 지키는 서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필암서원)

“우리 역사의 흔적이나 유적지를 후세들은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은 후손들의 역할입니다. 의의와 가치를 항상 연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무성서원)

“지금의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후세들에게 서원의 가치와 문화가 우수하고 계승하는 정신이 있음을 교육하고 서원이 지닌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를 자료로 남기고 변천사를 후세에게 충분하게 남겨줄 수 있는 문화라고 여겨집니다.”(무성서원)

## 2. 서원 관계자의 의견

서원 관계자들은 서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관광객은 서원을 예의 바르게 방문하고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서원이 지닌 역사적 전통의 자랑스러운 강점을 보존과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서원 관계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지역민으로서 이곳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다시 찾아오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친절함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서원별 서원지(書院誌)를 발간하여 1. 유교 전통문화 계승 및 세계유산으로서의 서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2. 서원의 역사 문화에 대한 기초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초학술자료 제공 및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소수서원)

“본 도산서원은 한국의 서원(9개) 중에서도 가장 잘 전통을 보존하고 있으며 운영 면에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며 대중과 호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초헌관을 임명하거나 여성의 사당 참배를 허용 (2022년) 등 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도산서원)

“관광객들은 서원의 내력과 서원의 문화와 예절, 서원의 역할 등을 밀 공부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유림과 지자체의 관심을 통하여 서원이 지역의 문화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병산서원)

### 옥산서원의 특성

1. 건축에 있어서 내부지향적 사상을 반영하였고, 고급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음. 모든 건물의 기둥이 둥글고 단청이 되어 있음
2. 회재 이언적 선생을 홀로 모심. 독향(獨享)
3. 장서의 수량이 제일 많고, 질이 우수함
4. 주변 경관이 빼어나
5.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많다.”(옥산서원)

“서원 주변의 경관이 좋으며 현재 강학은 초중등생이 연 1,000명 이상 서당 체험과 현장 체험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 “관광객의 서원 출입 시 합

당한 복장을 착용하고 관람하며 선생님께 대한 예를 갖추었으면 한다.”(도동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 중 우리 무성서원의 강점이나 다른 8개 서원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관을 모시는 서원
2. 마을 안에 건립되어 있어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서원
3. 위기 지학을 실천하는 서원
4.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자 창의를 한 서원으로 자랑스롭다.”(무성서원)”

### 3.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서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풍경과 자연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로 서원의 역사와 교육적 역할을 되살려 미래 세대에게 전승할 의무가 더 커졌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 증가로 지역 자부심이 높아지고, 서원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도산서원을 찾는 관광객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도산의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매우 좋고 학교 학생 단체도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들에게 바라는 점은 도산서원이 품고 있는 풍경과 자연을 아끼고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서원이 박제된 과거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서원의 교육적, 정신적 기능을 되살려 미래 세대에 보전, 전승시킬 의무가 생겼다.”(도산서원)

“무성서원은 서원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일반서원과 달리 자연경관보다는 접근성 및 서원 참여자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에 서원이 건립되어 성리학이 사림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전반으로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지역의 자부심이 되었으며 세계유산에 걸맞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무성서원)

#### 4. 서원 해설사의 의견

해당 서원 해설사들은 세계유산 등재로 관광객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장소로써 주변 풍경과 자연을 보전하고 예의를 갖추어 달라고 하였다. 또한, 단순한 방문이 아닌 서원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두고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 달라고 하였다. 특히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신경을 써 달라고 하였다.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서원 해설사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퇴계 선생 생전에 지은 도산서당과 농운정사가 450년 동안 학맥을 이어 왔다는 점과 경(敬)사상으로 선비수련원으로 많은 분이 체험과 428년 만에 여성의 성역화가 무너져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향사와 사당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1. 관광객의 시선이 달라졌으며 2. 꼭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또한, 3. 안동이란 지역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도산서원)

“방문객은 질서 의식을 갖고 공중도덕을 지켰으면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 이후에 서원스테이 등, 여러 활동으로 인해 서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건물이 자연과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배치 및 자연 속에 녹아든 건축에 만대루가 자랑스럽다.”(병산서원)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회재 선생이 거처하던 독락당이 인근에 있어 서원과 연계해 인성교육 장소로 활용도가 높다. 인근 대구 도동서원에 비하면 접근성도 좋으며 중요한 삼국사기가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높다.”, “방문객은 소중한 서원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서원 앞 계곡물에 휴식 후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공공질서를 잘 지켜주면 좋겠다.”(옥산서원)

“도동서원은 성리학적 측면에서 가장 잘 지어진 서원으로 다른 서원과 다르다면 석조물이 많고 이들이 의미하는 점이다. 기둥에 흰띠 또한 다른 서원에는 없다.”, “방문객은 은행나무 및 시설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은행나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뜰의 돌이 수시로 빠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도동서원)

“방문객은 서원 방문 시 옥에 티를 찾겠다며 지적을 심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필암서원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다른 8개 서원과 비교하여 입지적 환경이 다릅니다. 평지 서원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사당인 우동사를 중심으로 다른 부수 건물들이 북향하여 하서 선생에 대한 '경관의 예'를 구현한 서원입니다.”(필암서원)

“세계유산으로의 등재로 자부심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890년 신라말의 최치원을 기리는 생사당에서 출발하여 일천일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서 오늘에 세계유산이 되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유산이 우리 앞에 있다. 현실과 정신에서 금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방문객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같다. 여기에 깃든 역사성. 확장과 증진이 수없이 반복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최치원과 신잠의 예약과 교화. 정극인의 최초 가사 문학. 상춘곡 정극인의 가술을 확장한 송제림의 열정 생각하고 치소가 있었던 동편 마을의 옛 선현의 유적도 같이 둘러보고 생각했으면 한다.”(무성서원)



##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서원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들은 서원을 단지 관광지로만 여기지 말고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고려해 달라는 요청하였다. 또한 서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하며,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독특한 가치와 지역의 중요성을 방문객이 이해하였으면 하였다.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해외로의 자연스러운 홍보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합니다.”, “서원을 단순한 관광지로 보지 말고 그 탄생 배경과 지역사회의 미쳤던 영향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서원의 원래 기능을 생각해서 다소 경건한 분위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소수서원)

“천 원짜리 지폐 속에 주인공인 퇴계 선생이 생전에 기거하시던 곳을 직접 볼 수 있고 주차장에서 서원까지 300m 정도의 걷는 길에 낙동강뷰와 맞은편 우뚝 솟아 있는 시사단, 400년이 넘은 왕버들 등등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위치해 볼거리가 많다.”(도산서원)

“다른 서원들은 향사 공간이나 교육 공간이 높은 계단 위에 있지만, 필암서원은 평면형으로 인간의 평등사상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남지역에 유일하게 18선정의 한 분인 문정공 하서 선생님께 배향된 서원으로 방문객에게는 경의 사상이 홍보되었으면 합니다.”(필암서원)

“다른 서원들과 달리 마을과 가깝게 위치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원활하고 누구나 배움에 있어 차별 없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무성서원이 가지고 있는 무성서원만의 가치, 역사 등을 알고, 이를 가지고 있는 정읍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으면 합니다.”(무성서원)

### 제3절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의견 분석

#### 1.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서원 인근 지역민들은 야간 개장에 있어서 밝은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기를 원하였다.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주변 환경개선의 시급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안내판 설치를 늘리고 서원의 유지보수, 주변 환경 정비 및 숙박형 프로그램의 운영을 희망하였다. 또한, 산양회 및 학술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다.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서원 인근 지역민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몇 년째 9월에 20일 정도 야간 개장을 한다. 토요일 및 일요일 외에도 행사가 있으면 좋겠고, 재정적 지원이 된다면 바깥 입구에서 서원주차장까지 암흑의 길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깜깜하지 않게 밝혀주었으면 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산서원이 현재는 무서운 공포의 숲길을 통과해야 볼 수 있다.”(도산서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당(한자) 체험, 선비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인문 캠프이며, 사진전, 만대루 개방 등을 추진하고 싶다.”, “서원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서원스테이, 서원 소확행 등을 선호하고 있다.”(병산서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차원에서 지역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시설 확대하여 체험(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원된다면 의복을 갖추고 놀이와 먹거리 함께 유생들의 먹거리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늘리고 주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도동서원)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해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는 산양회가 있으며 매년 2회에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원의 시설유지 보수는 물론 제향 행사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 정비도 하고 문화재 보수에 분기별 청정 보수를 통하여 서원의 운영하고 있다.”, “숙박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겠어요.”, “지역 학교나 청소년 기관과 연계하여 서원을 더욱 알리고 문화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필암서원)

“서원을 보기에는 10분이면 충분하기에 길게 머무를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해

설사 활용과 상주인의 설명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성서원의 방문객에게 해설사의 설명과 상주인의 소개가 돋보이는 서원의 모습입니다. 여행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서원 체험학습 역시 돋보이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무성서원)

“우선 광고 홍보에서 주체자를 중심으로 법제화한 뒤 체험활동과 서원이 지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근대화 거리로 바꾸어 단순 체험활동으로 끝나지 않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무성서원 내 설면 안내판이 여실하게 부족하여 해설사에게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안내판 설치를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무성서원)

## 2. 서원 관계자의 의견

해당 서원 관계자들은 현대적 개념의 강학 프로그램, 다양한 역사적 행사, 체험프로그램 및 인성 교육장으로의 활용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 변경, 누리길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의 흥미를 위하여 차방개설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를 원하였다.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서원 관계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현대적 개념의 서원 강학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현재 자본주의의 병폐로 허물어진 인성과 윤리·도덕을 바로 세워야 함.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의무적으로 연수를 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함. 이를 통하여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서원의 현대적 역할수행과 활성화를 이룩하여야 합니다.”(소수서원)

“사적지, 유네스코의 감독 등의 보존에 치우친 정책적 관리로 인하여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애로점이 있다.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유적지 내의 형상 변경이나 관람객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렵다. 서원의 의례와 존현양사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수자 양성, 학예사 배정 운영 등 제도의 도입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도산서원)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서원에서 활용하는 스테이 등 해설사들의 해설은 주요 프로그램으로 서원을 찾아온 관람객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서원의 프로그램으로는 서원스테이, 문화프로그램 등이 있다.”, “서원을 운영하는 단체로는 사단법인 하리마을보존회, 스테이, 소학회 등이 있다.”(병산서원)

“프로그램으로 1. 정조 임금이 보낸 어서(御書)인 『어제선정회재속대학혹문(御製先正晦齋續大學或問)』을 가마에 실어 올 때, 그 행렬과 절차 재현 2. 정조 임금이 회재 선생을 위해 지은 제문을 지어 치제(致祭)할 때, 그 행렬과 맞이하는 절차 재현 3. 구인당 중건 후, 세심대 위에서 만여 명의 유림이 모여 개최한 백일장 재현 등이 있다.”

1. 2023년 3월부터 초등학생의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유림 단체 방문시 알묘와 해설
3. 원거리에서 초·중등학생 방문시 해설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옥산서원)

“현재는 유치원생들의 견학과 초·중등생들의 체험을 인성 예절에 대한 것을 하고 있으나 수련원을 설립하여 고등학생 이상 직장인과 성인들까지 수련을 할수 있어 인성 교육장으로 만들고 싶음”, “서원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로, 한국인성예절원을 유치하며

대구 시내의 초·중등학생에게 체험(서당, 선비, 지경다지기, 떡메치기, 제기만들기, 윷놀이 등)을 하고 있음”, “누리길 조성사업 완공 후 운영권을 도동서원에 위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간조성과 현재 잘못된 도로명(구지서로→도동서원로)을 고쳐주길 바람”(도동서원)

“선현을 추모하고 받드는 제향의례를 통한 예를 선양하고 있으며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서원 강수재를 활용하여 차방을 개설하고 탐방객들과 간단히 차를 마시며 서원의 역사와 지역사회 문화를 알리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 “참가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향사(연 2회) 삭망 분향례(월 2회)시 방문한 방문객의 경우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향과 서원과 관련된 내력(역사) 등을 설명함으로써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려 합니다.”(무성서원)

### 3.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서원이 속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례를 통한 관람료징수를 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를 두고 시설 전반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원의 원래 기능인 교육적 역할을 통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반영하고 싶어 하였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보존과 활성의 균형점에서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원하였다.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안동 시에서는 도산서원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어 시설 전반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 조례 등을 제정하여 관람객들의 도산서원 입장을 돕고 있다. 또한 도산서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 야간공연 등 프로그램을 활동·지원하고 있다.”(도산서원)

“서원은 예로부터 교육기관이었으므로 전통문화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고 반영시켜 지역에 전파하였으면 함.”, “보존과 활성화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하고자 함”(도산서원)

“서원에서 계획하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은 없음”,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의 풍류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과 공연, 선비체험, 정가, 서예강습, 국내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무성서원)

#### 4. 서원 해설사의 의견

해당 서원 해설사들은 특히 서원스테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여 지나가는 서원이 아닌 머무는 서원으로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희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고등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올바른 인성과 인문학 소양을 전달하는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서원 해설사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서원의 프로그램으로는 참교육, 선비수련원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서원의 프로그램으로는 1. 해설을 통해 바로알기 2. 선비수련체험으로 퇴계의 삶과 학문을 마음으로 새기기 등이 있다.”(도산서원)

“추진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서애 류성룡선생에 대해 뮤지컬을 극화했으면 한다.”, “서원의 활용 방법으로는 국외적으로는 유네스코, 국내적으로는 실물-만대루에 대한 지원과 관심, 관리 등이 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원스테이 활성화, 세미나 지원 등이 있다.”, “시민에게 많이 공개하고 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 “서원 체험프로그램 개발하여 학교 기능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병산서원)

“과학과 기술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심어주는 교육 장소로 활용되면 좋겠다.”, “관계기관에서 경주지역단체가 서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꼭 있으면 좋겠다.”(옥산서원)

“지역의 문화재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배향된 인물의 사상을 본받을 수 있다. 서원에서의 프로그램은 다 만족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예절원체험과 단체 방문객, 또는 체험을 신청하여 학생들의 탐방이 한꺼번에 몰리면 좁은 공간이라 불편이 따른다.”(도동서원)

“선비들의 복장인 두루마기와 버선 모자를 쓰고 직접 공부해보는 선비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서원과 지역이 서로 간의 물리적 자연적 학술적인 가치를 연구하여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머무는 서원, 머물고 싶은 서원. 늘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필암서원)

“서원은 원래 교육기관이었던 만큼 교육청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1.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현장학습으로 참가시켜 왕래시간 1시간, 답사 시간 2시간, 총 3시간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면 한다. 2. 학교의 버스나 교육지원청의 버스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간식비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으면 한다.”, “지원받아 행사를

많이 해야 한다.”(무성서원)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예(붓글씨쓰기)가 월 2회 진행되고 있다. 추진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면 한다.”(무성서원)



##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서원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들은 관광객이 서원스테인이나 선비 생활 체험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일부 서원의 행사에는 소수만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중적인 행사가 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였다. 한편, 관람객은 주로 건물 관람을 선호하지만, 경독 낭송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서원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전통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과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전통사상인 성리학과 현재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일반적으로 건물 위주의 관람을 지향하나 요즘 강학당에서 시연하는 경독 낭송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 또한 서원에서 진행하는 서원스테인이나 선비 생활 체험도 관심이 있습니다.”(소수서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밤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크게 참여하지는 않고 서원과 관계는 없지만 청보리밭축제에 참가인원이 많은 편이다.”, “퇴계 선생 예던길 걷기. 서울에서 여기 서원까지 걸어오는 행사인데 이 행사도 극히 소수들만의 행사로 보인다.”(도산서원)

“향토문화를 발굴 및 보존과 생성하는 공동체로서 행사 기능과 교육 기능을 최대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다.”, “개인적인 계획수립은 쉽지 않은 일이며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접근성의 지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방안(숲길 조성)을 찾는 변화성 도모하고 싶습니다.”(필암서원)

“문화원에서 발간한 태산선비문화권 청소년, 초등생 교육교재를 활용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일대를 둘러보는 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관광만이 목적이 아닌 선조들의 학문이나 정신을 알리고 교육하는 데 알리면 정읍을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원 활성화 방안으로 9개 서원을 통합, 홍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무성서원)

## 제4절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 분석

### 1.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서원 인근 지역민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상생해야 하며, 이러한 바탕에는 서원을 학문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로 정부의 지원과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민의 경제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서원이라 하여 꼭 배움의 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닌 주위 관광지와 연계된 행사의 장으로도 활용하였으면 한다. 음악회도 열고, 과거 시험장만이 아닌 어린이들의 퀴즈, 글쓰기 왕중왕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상생을 할 수 있게 된다.”(도산서원)

“서원이 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는 정부의 지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서원이 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는 정부의 지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많은 관광객이 서원을 방문하고 있다.”,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병산서원)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은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협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동서원 주변에 카페만 여러 개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또 카페를 운영하겠다는데 차라리 필요한 식당을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님. 지역주민들에게 근린시설 운영권을 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도동서원)

“서원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해서 자부심이 있고, 이러한 활성화는 경제적으로 도움 됩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향교 및 지역 청년 유교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어요.”,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원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원 미담과 학연루 정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하고 싶네요.”(필암서원)

“서원을 알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같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  
래야 많은 분이 관람할 수 있어 문화재를 알릴 수가 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서원이 더욱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전북문화의 중심이 되는 문화의 고장이 된 점을 높게 평  
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관광시설과 더불어 연계 관광의 중심이 무성서원임을 알고  
자부와 자긍심을 고양하는 영향을 주었습니다.”(무성서원)

## 2. 서원 관계자의 의견

해당 서원 관계자들은 현대사회의 인성 및 도덕적 가치 상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교 가치관을 기반한 서원을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를 통해서 질서유지 및 협력, 그리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원하였다. 한편 서원 프로그램에 주민참여가 낮고 관심도가 낮다는 언급과 관광객의 방문은 지역주민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당 서원 관계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자본주의로 인한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인성과 도덕적 가치가 상실된 세계에서 살고 있음.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모욕하고, 지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법으로 일일이 해결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며,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계층 간 세대 간 불신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입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방안은 유교 가치관에 입각한 인성 함양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서원을 전 세계 유네스코가 인정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서원의 인성 함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공동체 간의 질서유지와 협력의 근간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소수서원)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서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고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관광객의 유입이 곧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효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유형 관광에서 서원 인근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와 먹거리, 볼거리의 인프라 구축으로 서원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서원의 기존 콘텐츠로는 경제적 효익이 지역의 설정 발전에 한계가 있다.”(도산서원)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원 고유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자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서 등을 강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 함께 정독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면 지역인 유대와 함께 오히려 관광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원문화를 살리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병산서원)

세계유산으로 등재 이후,

1. 양동마을과 함께 연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가 증가함

2.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식당과 찻집 활성화
3. 서원 향사에 유림의 관심 증대되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 이후,

1.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식당과 찻집 활성화가 되었으나,
2. 여름철 피서객 폭증. 음식을 저마다 준비해서 오므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는 없고 교통체증과 환경파괴만 유발하게 되었다.”(옥산서원)

“서원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으며 주민들의 혜택이 없어 관심도가 낮음”, “유일하게 대구에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이라 관광객이 많으나, 지역주민과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은 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는 별 도움이 없어 아쉽고 누리길 조성에 기부채납까지 하였으나, 예를 들면 관리직원 채용을 외지에서 하는 등 행정에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도동서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원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지만 아직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아직은 없다.”, “타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다. 제일 큰 과제는 서원의 모든 행사 및 보조사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지역공동체 협력에 관하여, 마을과 서원이 함께하듯 서원 발전이 마을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하여야겠다. 마을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무성서원)

### 3.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서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공동체와 협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지만 오래 머무르거나 관광시설이 부족하여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크지 않다고도 하였다.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당 서원 지자체 공무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도산서원을 연계해 우리 지역의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협력으로 퇴계 선생의 학문 자료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학술대회와 연구 용역을 기르고 있음”, “지역과 공존 및 상생을 위하여 안동시 초중고, 대학생 단체의 현장학습 시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거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현장학습 방문 실적이 저조한 편임”(도산서원)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없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종종 현장학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학생이 서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 지정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긴 했지만 오래 머무르거나 인근에 관광시설이 없어서 칠보면에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없고 정읍시 전체적으로도 큰 경제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무성서원)

#### 4. 서원 해설사의 의견

해당 서원 해설사들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세기를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서원스테이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로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이면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당 서원 해설사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1세기에 맞는 인재분들을 양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학교의 학생들부터 경사상, 퇴계의 심성, 상덕사 수시 개방하여 체험하게 하여야 함.” (도산서원)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목숨을 던져서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서애 류성룡 선생 구국의 정신을 콘텐츠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SNS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한다.”, “서원스테이 활용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병산서원)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중에도 서원 방문자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옥산서원)

“서원 주변이 정비되면 유교문화관 및 오현전시관, 서원스테이, 카페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다. 운영 주체에 따라서 마을보다는 운영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주변의 마을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도동서원)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중요하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나 관광객의 두드러진 유입 등은 아직까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원 주변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먹구구식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역민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함”(필암서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탐방객이 늘면서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원을 알리고 그 서원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답사나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한다. 고등학생들의 현장학습이나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유치했으면 한다.”, “서원의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그마한 것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설문, 말, 탁상공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성서원)



##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서원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들은 지역공동체와 서원은 상호 의존적이며 관광객 증가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관광객은 서원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로 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민의 참여가 늘어나며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당 서원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주요 설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지역과 서원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또한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원은 지역의 정신적인 문화를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지역은 이것을 기반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민을 서원의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끈으로 묶을 수 있음.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소득 발생합니다.”(소수 서원)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의 높은 학술적 가치와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경치만 보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대부분 관광객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서원하나만 보러오기에는 안동지역 다른 관광지와 많이 떨어진 이유로 외면되기 쉬운 것 같다. 근처 예끼마을, 국학진흥원, 산림박물관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제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도산서원)

“세계유산 등재로 전국 지역별 직능별로 필암서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으로, 접근성이 용의하게 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할뿐 아니라 전문가들을 고정 배치하여 관광객 등 방문목적 달성에 충족해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여야 합니다.”(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관광객 유입으로 마을 정비가 되고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이 많아지면서 서원에 대해 알고 있는 지역민 활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조들의 정신과 생활 지혜 등이 현재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립에 유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무성서원)



## 제1절 연구 설계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평가할 핵심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서 평가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서원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주는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FGI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진단을 위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IPA 분석

IPA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고려하여 조직이나 제품, 서비스 등의 특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이다. 중요도는 추출된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만족도는 해당 특성의 현재 성능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IPA 분석은 이러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중요도와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기본 원리와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중요도-만족도 그래프 작성: 중요도와 만족도 데이터를 가지고 중요도-만족도 그래프를 작성한다. 이 그래프는 4개의 평면적인 '사분면 영역'으로 분할된다.
- ② 주요 관점 해석: 그래프를 통해 주요 관점을 식별하고 중요한 특성 중에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찾는다.
- ③ 개선 우선순위 결정: 만족도가 낮은 특성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간주되며, 조직은 이러한 영역에 우선적으로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④ 활용 및 장점: IPA 분석은 조직이 자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조직은 중요한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

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IPA 분석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리더십과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기타 전략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용 도구로 사용하지 않지만, 그 외의 전략적 분석 도구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STP(Segment, Target, Position) 전략, 4P(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전략 및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 등이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각각 환경에 맞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도구가 더 나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STP 전략은 고객의 세분화와 타겟팅을 위한 분석에 적합한 도구이며, 4P전략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에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SWOT 분석은 전반적인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를 위한 분석에 가장 적합한 도구이다. 이와는 달리, IPA 분석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반으로 한 개선을 집중할 영역을 선정하기 위한 분석에 적합한 도구이다.

## 2. 자료와 분석

### 1) 자료의 수집

실증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일반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과 구글의 e-설문지 형식을 이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일반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은 연구진이 직접 관련 서원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을 받았다. 한편, 구글의 e-설문지는 서원보존단에게 의뢰하여 서원 인근 지역의 관련자들에게 배포하고 응답을 받았다.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로 일반 설문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 및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구글의 e-설문은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 24:00시까지 한정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 응답은 317개의 표본이나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307개의 유효표본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및 항목의 설정 내용은 [부록]에서 참조할 수 있다.

### 2)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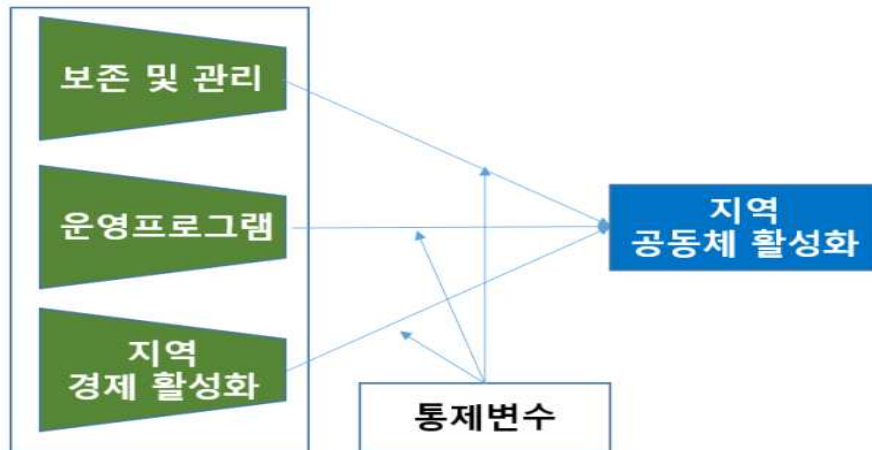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을 중심으로 서원과 연관된 응답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표본을 정제한 후에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 ① 9개 서원 전체의 응답특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을 진행한다.
- ② 전체 서원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또한 전체 서원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서원별 IPA 분석을 실시한다.
- ③ 개별 서원별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또한 개별 서원별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서원별 IPA 분석을 실시한다.

###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그림과 같이 도출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지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설문지 문항은 [부록-2]에 있다.

〈그림 6-1〉 연구모형



#### 4. 해석 방법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는 중요도와 만족도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차원별 분석 항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그래프는 4개의 사분면으로 구별되며, 각각의 사분면에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분면 분석을 통해 중요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림 5-2]는 4-사분면 상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 1) I 사분면 (Concentrate Here - 집중 영역)

I 사분면은 중요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은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특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하며 현재 만족도 수준도 높게 평가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관리를 유지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개선이나 투자가 필요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다.

##### 2) II 사분면 (Keep up the Good Work - 현재 유지 영역)

II 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특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하지만 현재 만족도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3) III 사분면 (Low Priority - 낮은 우선순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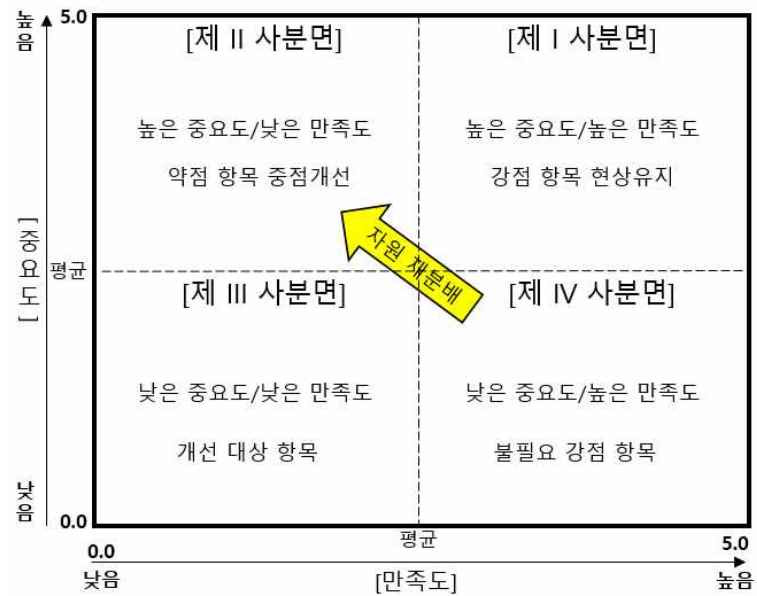
III 사분면은 중요도가 낮고 만족도도 낮은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특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현재 만족도 수준 역시 낮게 평가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되며, 자원을 다른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4) IV 사분면 (Possible Overkill - 과도한 개선 영역)

IV 사분면은 중요도가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특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현재 만족도 수준은 높게 평가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과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며, 자원을 다른 중요한 영역에 할당하는 것이 효율적 자원분배가 될 수 있다.

〈그림 6-2〉 4-사분면 상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자원 재분배





## 제2절 기초 통계량

### 1. 응답자별 기초 특성

[표 6-1]은 응답자의 기초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은 남성이 60.9%(187명)로 여성의 39.1%(12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대가 29.6%(91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8.7%(88명), 30대가 16.3%(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7.2%(145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23.1%(71명), 대학원 이상이 18.2%(56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은 20년 이상이 47.6%(146명)로 가장 많았으며, 5년미만이 19.5%(60명), 이 외에 5~10년, 10~15년, 15~20년 거주자는 거의 유사한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응답자 중 다수인 70.4%(216명)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9.6%(91명)은 아직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서원 지역경제활성화 응답자는 42%(1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원 운영프로그램 개발은 34.9%(107명), 서원의 보존 및 관리라는 응답은 23.1%(71명)로 나타났다.

[표 6-1] 기초 특성

구분	내용	빈도	%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성	187	60.9	학력	고졸	71	23.1
	여성	120	39.1		전문대졸	35	11.4
연령	20대	9	2.9		대학교졸업	145	47.2
	30대	50	16.3		대학원이상	56	18.2
	40대	43	14.0	거주 기간	5년미만	60	19.5
	50대	88	28.7		5년-10년미만	31	10.1
	60대	91	29.6		10년-15년미만	34	11.1
	70대이상	26	8.5		15년-20년미만	36	11.7
					20년이상	146	47.6
시급 과제	보존 및 관리	71	23.1	공동 체	활성화 이룸	216	70.4
	운영프로그램개발	107	34.9		활성화 안됨	91	29.6
	지역경제활성화	129	42.0				
합계		307	100	합계		307	100

## 2. 서원별 기초 특성

[표 6-2]는 서원별 응답자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서원 중에서 소수서원은 19.9%(61명)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무성서원이 17.6%(54명), 도산서원이 16%(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이 가장 낮은 서원은 남계서원으로 6.2%(19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한편, 응답자 특성으로 서원 인근 지역주민의 응답이 53.4%(16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및 서원 관계자가 각각 12.4%(38명) 및 11.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이 가장 낮은 분류는 해당 지자체문화원 관계자로 2.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응답자 특성

구분	내용	빈도	%	구분	내용	빈도	%
서원명	소수서원	61	19.9	응답자	서원 인근 지역주민	164	53.4
	도산서원	49	16.0		서원 관계자	34	11.1
	병산서원	21	6.8		해당 지자체 공무원	33	10.7
	옥산서원	25	8.1		서원 문화관광해설사	31	10.1
	도동서원	30	9.8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7	2.3
	남계서원	19	6.2		기타	38	12.4
	필암서원	22	7.2	합계		307	100
	무성서원	54	17.6				
	돈암서원	26	8.5				
합계		307	100				

### 제3절 서원 전체 특성 분석

#### 1. 응답자 특성

[표 6-3]은 서원별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수서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응답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서원 관계자 11%, 공무원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도산서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응답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응답자가 24%, 해설사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병산서원은 지역주민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과 기타 응답자가 각각 19% 순으로 나타났다. 옥산서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도동서원의 경우 지역주민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이 20%, 서원 관계자와 해설사가 각각 10% 순으로 나타났다. 남계서원의 경우 지역주민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서원 관계자가 26%, 해설사가 16% 순으로 나타났다. 필암서원의 경우 해설사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주민과 기타 응답자가 각각 27% 순으로 나타났다. 무성서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이 19%, 서원 관계자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돈암서원의 경우 지역주민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이 19%, 서원 관계자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가 전혀 없는 분류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응답이 없는 서원은 도산서원과 필암서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관계자들의 응답이 없는 서원은 병산서원, 남계서원 및 무성서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응답이 없는 서원은 옥산서원으로 나타났다.

[표 6-3] 응답자 특성

서원 명	지역 주민	서원 관계자	공무원	해설사	문화원 관계자	기타	총계
소수서원	45	7	6	1	1	1	61
	74%	11%	10%	2%	2%	2%	100%
도산서원	27	4	0	5	1	12	49
	55%	8%	0%	10%	2%	24%	100%
병산서원	9	2	4	2	0	4	21
	43%	10%	19%	10%	0%	19%	100%
옥산서원	16	2	4	2	1	0	25
	64%	8%	16%	8%	4%	0%	100%
도동서원	13	3	6	3	2	3	30
	43%	10%	20%	10%	7%	10%	100%

남계서원	8	5	2	3	0	1	19
	42%	26%	11%	16%	0%	5%	100%
필암서원	6	2	0	7	1	6	22
	27%	9%	0%	32%	5%	27%	100%
무성서원	27	7	10	4	0	6	54
	50%	13%	19%	7%	0%	11%	100%
돈암서원	13	2	1	4	1	5	26
	50%	8%	4%	15%	4%	19%	100%
합계	164	34	33	31	7	38	307
	53%	11%	11%	10%	2%	12%	100%

## 2. 성별 특성

[표 6-4]은 응답자의 성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 남성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소수서원으로 86.9%이며, 여성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옥산서원이 6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성별 특성

서원 명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소수서원	53	8	61	남계서원	11	8	19
	86.9%	13.1%	100.0%		57.9%	42.1%	100.0%
도산서원	32	17	49	필암서원	9	13	22
	65.3%	34.7%	100.0%		40.9%	59.1%	100.0%
병산서원	10	11	21	무성서원	35	19	54
	47.6%	52.4%	100.0%		64.8%	35.2%	100.0%
옥산서원	9	16	25	돈암서원	10	16	26
	36.0%	64.0%	100.0%		38.5%	61.5%	100.0%
도동서원	18	12	30	합계	187	120	307
	60.0%	40.0%	100.0%		61%	39%	100%

### 3. 연령별 특성

[표 6-5]는 서원별 응답자의 연령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수서원의 응답자 중에서 60대의 분포가 54.1%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19.7% 순으로 나타났다. 도산서원의 응답자는 30대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60대가 각각 20.4% 순으로 나타났다. 병산서원의 응답자는 50대가 38.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3.3% 순으로 나타났다. 옥산서원은 60대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가 24.0% 순으로 나타났다. 도동서원은 50대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40대 및 60대가 각각 13.3% 순으로 나타났다. 남계서원의 응답자는 60대가 3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암서원의 응답자는 60대가 2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성서원의 응답자는 50대가 2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암서원의 응답자는 50대가 3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연령별 특성

서원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총계
소수서원	0	5	5	12	33	6	61
	0.0%	8.2%	8.2%	19.7%	54.1%	9.8%	100.0%
도산서원	0	15	10	9	10	5	49
	0.0%	30.6%	20.4%	18.4%	20.4%	10.2%	100.0%
병산서원	0	7	2	8	3	1	21
	0.0%	33.3%	9.5%	38.1%	14.3%	4.8%	100.0%
옥산서원	0	5	4	6	8	2	25
	0.0%	20.0%	16.0%	24.0%	32.0%	8.0%	100.0%
도동서원	2	4	4	14	4	2	30
	6.7%	13.3%	13.3%	46.7%	13.3%	6.7%	100.0%
남계서원	2	2	2	3	7	3	19
	10.5%	10.5%	10.5%	15.8%	36.8%	15.8%	100.0%
필암서원	0	0	3	12	6	1	22
	0.0%	0.0%	13.6%	54.5%	27.3%	4.5%	100.0%
무성서원	4	8	8	16	13	5	54
	7.4%	14.8%	14.8%	29.6%	24.1%	9.3%	100.0%
돈암서원	1	4	5	8	7	1	26
	3.8%	15.4%	19.2%	30.8%	26.9%	3.8%	100.0%
합계	9	50	43	88	91	26	307
	3%	16%	14%	29%	30%	8%	100%

#### 4. 학력별 특성

[표 6-6]은 응답자의 학력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고졸 이하 응답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옥산서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40.0%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응답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소수서원이 16.4%,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남계서원이 73.7%, 대학원이상 응답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도산서원이 38.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학력별 특성

서원 명	고졸이하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총계
소수서원	19	10	21	11	61
	31.1%	16.4%	34.4%	18.0%	100.0%
도산서원	12	5	13	19	49
	24.5%	10.2%	26.5%	38.8%	100.0%
병산서원	4	1	11	5	21
	19.0%	4.8%	52.4%	23.8%	100.0%
옥산서원	10	2	12	1	25
	40.0%	8.0%	48.0%	4.0%	100.0%
도동서원	3	2	19	6	30
	10.0%	6.7%	63.3%	20.0%	100.0%
남계서원	2	1	14	2	19
	10.5%	5.3%	73.7%	10.5%	100.0%
필암서원	2	2	14	4	22
	9.1%	9.1%	63.6%	18.2%	100.0%
무성서원	16	9	26	3	54
	29.6%	16.7%	48.1%	5.6%	100.0%
돈암서원	3	3	15	5	26
	11.5%	11.5%	57.7%	19.2%	100.0%
합계	71	35	145	56	307
	23%	11%	47%	18%	100%

## 5. 거주기간별 특성

[표 6-7]은 응답자의 거주기간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5년 미만 거주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도산서원이 28.6%, 필암서원이 27.3% 순으로 나타났다. 5년~10년 미만 거주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도산서원이 18.4%, 병산서원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10년~15년 미만 거주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병산서원이 28.6%, 필암서원이 22.7% 순으로 나타났다. 15~20년 미만 거주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옥산서원이 20.0%, 돈암서원이 19.2%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자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소수서원과 도동서원이 각각 60.7%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필암서원의 응답자 중에는 5년~10년 미만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거주기간별 특성

서원 명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총계
소수서원	8	5	6	5	37	61
	13.1%	8.2%	9.8%	8.2%	60.7%	100.0%
도산서원	14	9	5	4	17	49
	28.6%	18.4%	10.2%	8.2%	34.7%	100.0%
병산서원	3	3	6	2	7	21
	14.3%	14.3%	28.6%	9.5%	33.3%	100.0%
옥산서원	4	1	1	5	14	25
	16.0%	4.0%	4.0%	20.0%	56.0%	100.0%
도동서원	4	2	2	4	18	30
	13.3%	6.7%	6.7%	13.3%	60.0%	100.0%
남계서원	3	2	3	2	9	19
	15.8%	10.5%	15.8%	10.5%	47.4%	100.0%
필암서원	6	0	5	4	7	22
	27.3%	0.0%	22.7%	18.2%	31.8%	100.0%
무성서원	11	6	4	5	28	54
	20.4%	11.1%	7.4%	9.3%	51.9%	100.0%
돈암서원	7	3	2	5	9	26
	26.9%	11.5%	7.7%	19.2%	34.6%	100.0%
합계	60	31	34	36	146	307
	20%	10%	11%	12%	48%	100%



## 6.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 특성

[표 6-8]은 공동체 활성화 인식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필암서원으로 81.8%이며, 무성서원과 도동서원이 각각 74.1%, 71.4% 순으로 나타났다.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계서원으로 42.1%이며, 옥산서원과 병산서원이 각각 40.0%, 3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공동체 활성화 인식 특성

서원 명	활성화가 이루어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총계
소수서원	41	20	61
	67.2%	32.8%	100.0%
도산서원	35	14	49
	71.4%	28.6%	100.0%
병산서원	13	8	21
	61.9%	38.1%	100.0%
옥산서원	15	10	25
	60.0%	40.0%	100.0%
도동서원	22	8	30
	73.3%	26.7%	100.0%
남계서원	11	8	19
	57.9%	42.1%	100.0%
필암서원	18	4	22
	81.8%	18.2%	100.0%
무성서원	40	14	54
	74.1%	25.9%	100.0%
합계	216	91	307
	70%	30%	100%

## 7. 서원별 활성화 시급 과제 인식 특성

[표 6-9]는 공동체 활성화 시급 과제에 대한 인식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시급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계서원으로 36.8%이며 도동서원이 30.0%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급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필암서원으로 50.0%이며 도동서원이 43.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급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병산서원으로 52.4%이며 옥산서원이 5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9] 공동체 활성화 시급 과제 인식 특성

서원 명	보존 및 관리	운영프로그램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총계
소수서원	18	16	27	61
	29.5%	26.2%	44.3%	100.0%
도산서원	6	21	22	49
	12.2%	42.9%	44.9%	100.0%
병산서원	4	6	11	21
	19.0%	28.6%	52.4%	100.0%
옥산서원	4	8	13	25
	16.0%	32.0%	52.0%	100.0%
도동서원	9	13	8	30
	30.0%	43.3%	26.7%	100.0%
남계서원	7	7	5	19
	36.8%	36.8%	26.3%	100.0%
필암서원	3	11	8	22
	13.6%	50.0%	36.4%	100.0%
무성서원	15	16	23	54
	27.8%	29.6%	42.6%	100.0%
돈암서원	5	9	12	26
	19.2%	34.6%	46.2%	100.0%
합계	71	107	129	307
	23%	35%	42%	100%

## 제4절 응답자 전체 특성 분석

### 1. 성별 특성

[표 6-10]은 응답자의 성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서원 관계자로 85.3%이며, 서원 인근 지역주민이 61.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기타 응답자로 50.0%이며,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4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0] 성별 특성

서원 명	남성	여성	총계
서원 인근 지역주민	100	64	164
	61.0%	39.0%	100.0%
서원 관계자	29	5	34
	85.3%	14.7%	100.0%
해당 지자체 공무원	17	16	33
	51.5%	48.5%	100.0%
서원 문화관광해설사	18	13	31
	58.1%	41.9%	100.0%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4	3	7
	57.1%	42.9%	100.0%
기타	19	19	38
	50.0%	50.0%	100.0%
합계	187	120	307
	61%	39%	100%

## 2. 연령별 특성

[표 6-11]은 응답자의 연령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2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공무원으로 21.2%이며, 문화원 관계자가 14.3%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공무원으로 27.3%이며, 기타 응답자가 21.1%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문화원 관계자가 42.9%이며, 기타 응답자가 28.9%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문화원 관계자로 42.9%이며, 기타 응답자가 42.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해설사로 48.4%이며, 지역주민이 37.8% 순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서원관계자로 11.8%이며, 지역주민이 1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1] 연령별 특성

응답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총계
지역주민	0	29	15	40	62	18	164
	0.0%	17.7%	9.1%	24.4%	37.8%	11.0%	100.0%
서원 관계자	0	4	7	7	12	4	34
	0.0%	11.8%	20.6%	20.6%	35.3%	11.8%	100.0%
공무원	7	9	6	10	0	1	33
	21.2%	27.3%	18.2%	30.3%	0.0%	3.0%	100.0%
해설사	0	0	1	12	15	3	31
	0.0%	0.0%	3.2%	38.7%	48.4%	9.7%	100.0%
문화원 관계자	1	0	3	3	0	0	7
	14.3%	0.0%	42.9%	42.9%	0.0%	0.0%	100.0%
기타	1	8	11	16	2	0	38
	2.6%	21.1%	28.9%	42.1%	5.3%	0.0%	100.0%
합계	9	50	43	88	91	26	307
	3%	16%	14%	29%	30%	8%	100%

### 3. 학력별 특성

[표 6-12]는 응답자의 학력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학력이 고졸 이하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지역주민으로 36.0%이며, 서원 관계자가 14.7%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지역주민으로 17.1%이며, 문화원 관계자가 14.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공무원으로 81.8%이며, 해설사가 71.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기타 응답자로 63.2%이며, 문화원 관계자가 4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2] 학력별 특성

응답자	고졸이하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총계
지역주민	59	28	60	17	164
	36.0%	17.1%	36.6%	10.4%	100.0%
서원 관계자	5	2	24	3	34
	14.7%	5.9%	70.6%	8.8%	100.0%
공무원	2	0	27	4	33
	6.1%	0.0%	81.8%	12.1%	100.0%
해설사	4	0	22	5	31
	12.9%	0.0%	71.0%	16.1%	100.0%
문화원 관계자	0	1	3	3	7
	0.0%	14.3%	42.9%	42.9%	100.0%
기타	1	4	9	24	38
	2.6%	10.5%	23.7%	63.2%	100.0%
합계	71	35	145	56	307
	23%	11%	47%	18%	100%

#### 4. 거주기간별 특성

[표 6-13]는 응답자의 거주기간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기타 응답자가 55.3%이며, 공무원이 21.2% 순으로 나타났다. 5~1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문화원 관계자로 14.3%이며, 기타 응답자가 13.2% 순으로 나타났다. 10~15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해설사로 19.4%이며, 문화원 관계자가 14.3% 순으로 나타났다. 15~2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문화원 관계자로 42.9%이며, 해설사가 16.1%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공무원으로 69.7%이며, 서원 관계자가 5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3] 거주기간별 특성

응답자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총계
지역주민	23	19	19	20	83	164
	14.0%	11.6%	11.6%	12.2%	50.6%	100.0%
서원 관계자	7	1	4	3	19	34
	20.6%	2.9%	11.8%	8.8%	55.9%	100.0%
공무원	7	2	1	0	23	33
	21.2%	6.1%	3.0%	0.0%	69.7%	100.0%
해설사	1	3	6	5	16	31
	3.2%	9.7%	19.4%	16.1%	51.6%	100.0%
문화원 관계자	1	1	1	3	1	7
	14.3%	14.3%	14.3%	42.9%	14.3%	100.0%
기타	21	5	3	5	4	38
	55.3%	13.2%	7.9%	13.2%	10.5%	100.0%
합계	60	31	34	36	146	307
	20%	10%	11%	12%	48%	100%

## 5.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인식 특성

[표 6-14]은 응답자의 공동체 활성화 인식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문화원 관계자로 85.7%이며, 지역주민이 7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공무원으로 45.5%이며, 서원 관계자가 4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4] 공동체 활성화 인식 특성

응답자	활성화가 이루어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총계
지역주민	124	40	164
	75.6%	24.4%	100.0%
서원 관계자	20	14	34
	58.8%	41.2%	100.0%
공무원	18	15	33
	54.5%	45.5%	100.0%
해설사	20	11	31
	64.5%	35.5%	100.0%
문화원 관계자	6	1	7
	85.7%	14.3%	100.0%
기타	28	10	38
	73.7%	26.3%	100.0%
총계	216	91	307
	70%	30%	100%

## 6. 서원별 활성화 시급 과제 인식 특성

[표 6-15]은 응답자의 공동체 활성화 시급 과제에 대한 인식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서원 관계자로 47.1%이며, 해설사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공무원으로 63.6%이며, 그다음은 문화원 관계자가 42.9%였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은 응답자는 문화원 관계자가 5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5] 공동체 활성화 시급 과제 인식 특성

응답자	보존 및 관리	운영프로그램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총계
지역주민	35	39	90	164
	21.3%	23.8%	54.9%	100.0%
서원 관계자	16	10	8	34
	47.1%	29.4%	23.5%	100.0%
공무원	3	21	9	33
	9.1%	63.6%	27.3%	100.0%
해설사	9	13	9	31
	29.0%	41.9%	29.0%	100.0%
문화원 관계자	0	3	4	7
	0.0%	42.9%	57.1%	100.0%
기타	8	21	9	38
	21.1%	55.3%	23.7%	100.0%
총계	71	107	129	307
	23%	35%	42%	100%



## 제5절 서원별 분석 결과

### 1. 차원별 항목의 정의

중요도/만족도 도표상에 차원별 항목 설명을 기입하는 것은 도표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목 설명이 매우 길어짐에 따라서 일관성이 저하되고 해석이 난해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도표에 도출될 항목명에 대한 설명을 미리 정의 하였다. [표 6-16]은 IPA 도표상 항목명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표 6-16] IPA 도표상 항목명 정의

차원	항목명	항목설명
보존 및 관리	q2s1	a.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	b.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3	c.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2s4	d.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q2s5	e.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운영 및 프로그램	q3s1	a.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3s2	b.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3	c.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q3s4	d.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3s5	e.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	q4s1	a.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q4s2	b.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q4s3	c.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q4s4	d.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q4s5	e.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지역 공동체 활성화	q5s1	a. 지역주의 타파
	q5s2	b.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3	c.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q5s4	d.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q5s5	e.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 2. 소수서원 분석 결과

### 1) 응답자별 인식 수준 특성

[표 6-17]은 소수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676)이며, 경제 활성화(4.37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707)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489)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886)이며, 경제 활성화(4.714)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20)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886)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667)이며, 경제 활성화(4.40)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운영 및 프로그램과 경제 활성화의 평균 점수가 3.20이며, 보존 및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가 3.0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공동체 활성화(3.0)이며, 보존 및 관리(2.4)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모든 차원에 대한 평균 점수가 5.0(매우 중요하게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차원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모든 차원에 대한 평균 점수가 3.0(보통으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응답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5.0)이며, 경제 활성화(4.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운영 및 프로그램(4.4)이며, 보존 및 관리(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7] 소수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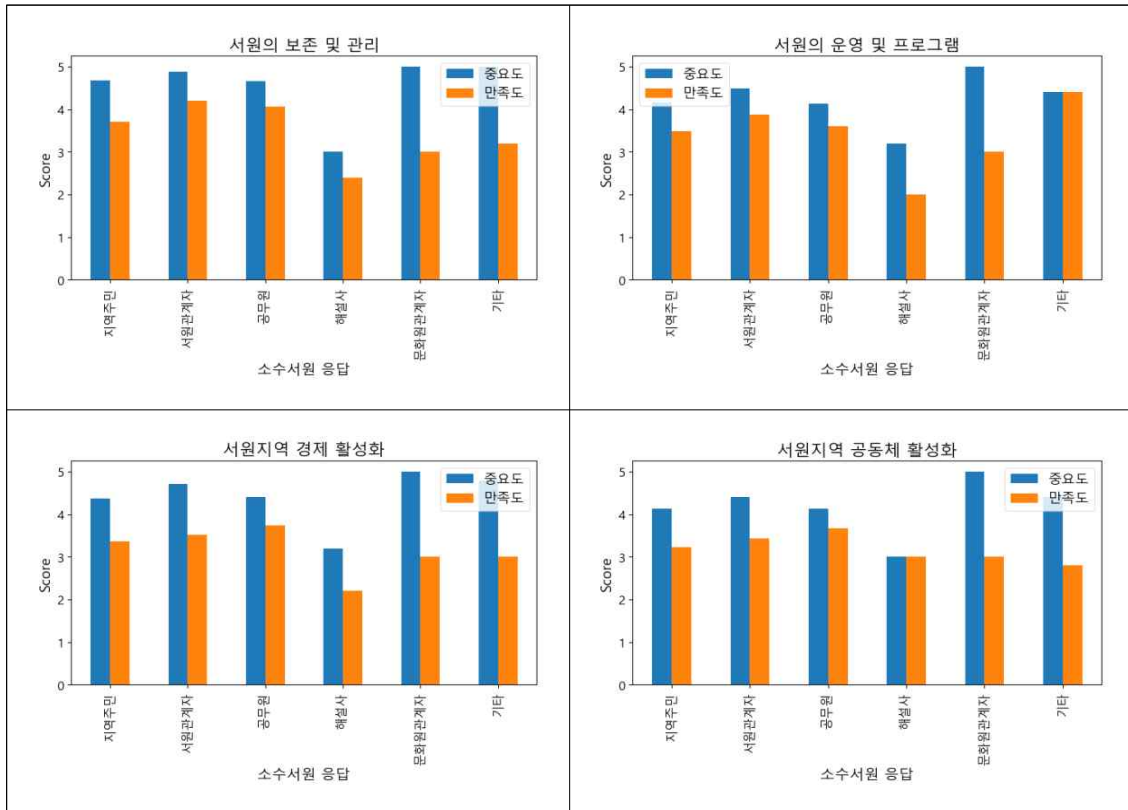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676	3.707	4.164	3.489	4.378	3.373	4.133	3.231
서원 관계자	4.886	4.200	4.486	3.886	4.714	3.514	4.400	3.429

공무원	4.667	4.067	4.133	3.600	4.400	3.733	4.133	3.667
해설사	3.000	2.400	3.200	2.000	3.200	2.200	3.000	3.000
문화원 관계자	5.000	3.000	5.000	3.000	5.000	3.000	5.000	3.000
기타	5.000	3.200	4.400	4.400	4.800	3.000	4.400	2.800
평균	4.538	3.429	4.231	3.396	4.415	3.137	4.178	3.188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그림 6-3〉은 소수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3〉 소수서원 응답자별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시각화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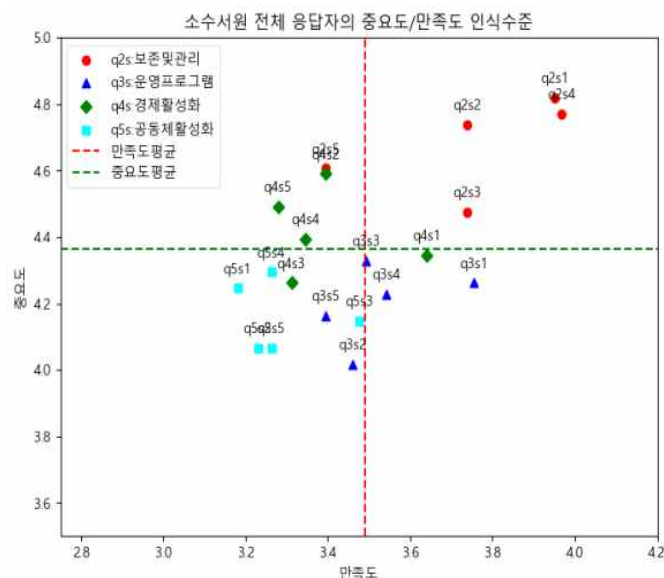
[그림 6-4]는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및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q4s4(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q4s3(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q5s1(지역주의 타파),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및 q4s1(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그림 6-4〉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3. 남계서원 분석 결과

#### 1) 차원별 응답자 특성

[표 6-18]은 남계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8)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4.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6)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75)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92)이며, 경제 활성화(4.72)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04)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52)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6)이며, 공동체 활성화(4.4)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운영 및 프로그램(4.4), 경제 활성화(4.4), 공동체 활성화(4.4)이며, 보존 및 관리(4.2)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8)이며, 경제 활성화(4.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667)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차원이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모두 5.0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8] 남계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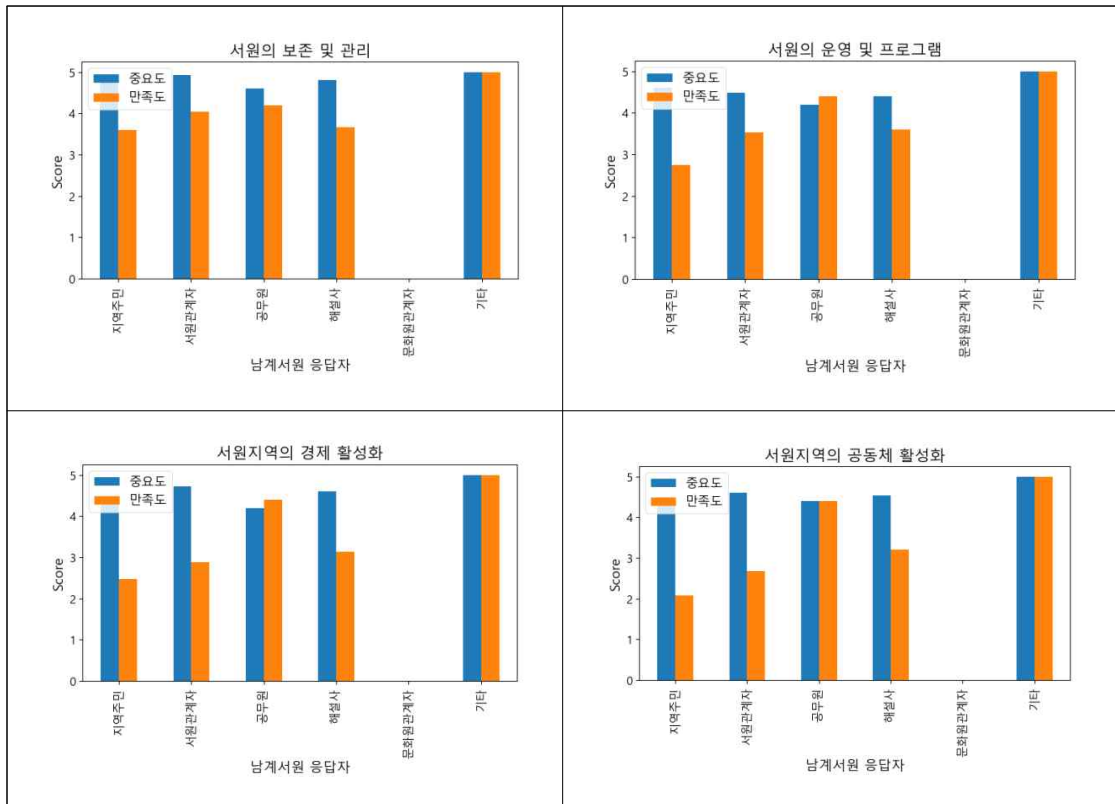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8	3.6	4.6	2.75	4.475	2.475	4.5	2.075
서원 관계자	4.92	4.04	4.48	3.52	4.72	2.88	4.6	2.68
공무원	4.6	4.2	4.2	4.4	4.2	4.4	4.4	4.4
해설사	4.8	3.667	4.4	3.6	4.6	3.133	4.533	3.2

문화원 관계자	-	-	-	-	-	-	-	-
기타	5	5	5	5	5	5	5	5
평균	4.824	4.101	4.536	3.854	4.599	3.578	4.607	3.471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그림 6-5〉은 남계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5〉 남계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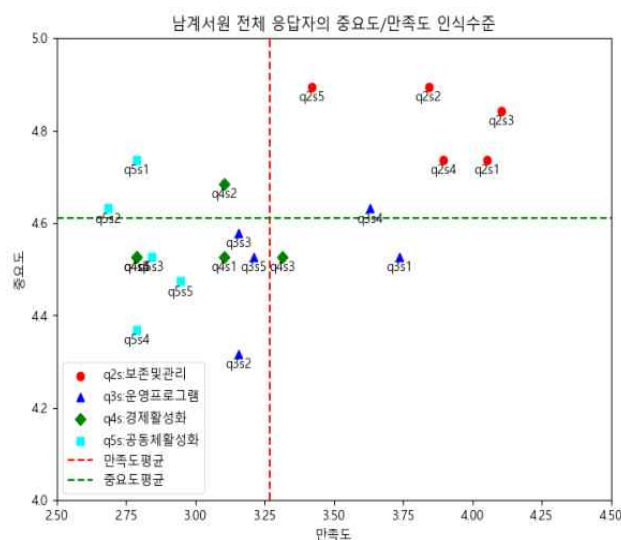
[그림 6-6]은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 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 사업), q5s1(지역주의 타파),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q4s1(음식점 숙박 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q4s4(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4s3(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있다.

〈그림 6-6〉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4. 옥산서원 분석 결과

##### 1) 차원별 응답자 특성

[표 6-19]은 옥산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425)이며, 공동체 활성화(4.38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038)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862)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5)이며, 경제 활성화(4.2)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3)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6)과 경제 활성화(2.6)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7)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4.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경제 활성화(3.6)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2)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5.0)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4.7)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1)이며, 경제 활성화(3.8)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5.0), 경제 활성화(5.0), 공동체 활성화(5.0), 운영 및 프로그램(4.2)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5.0)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9] 옥산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425	3.038	4.075	2.862	4.312	2.775	4.388	2.688
서원 관계자	4.5	3.3	3.6	2.6	4.2	2.6	3.9	2.3
공무원	4.7	3.1	4.3	3.2	3.9	3.6	4.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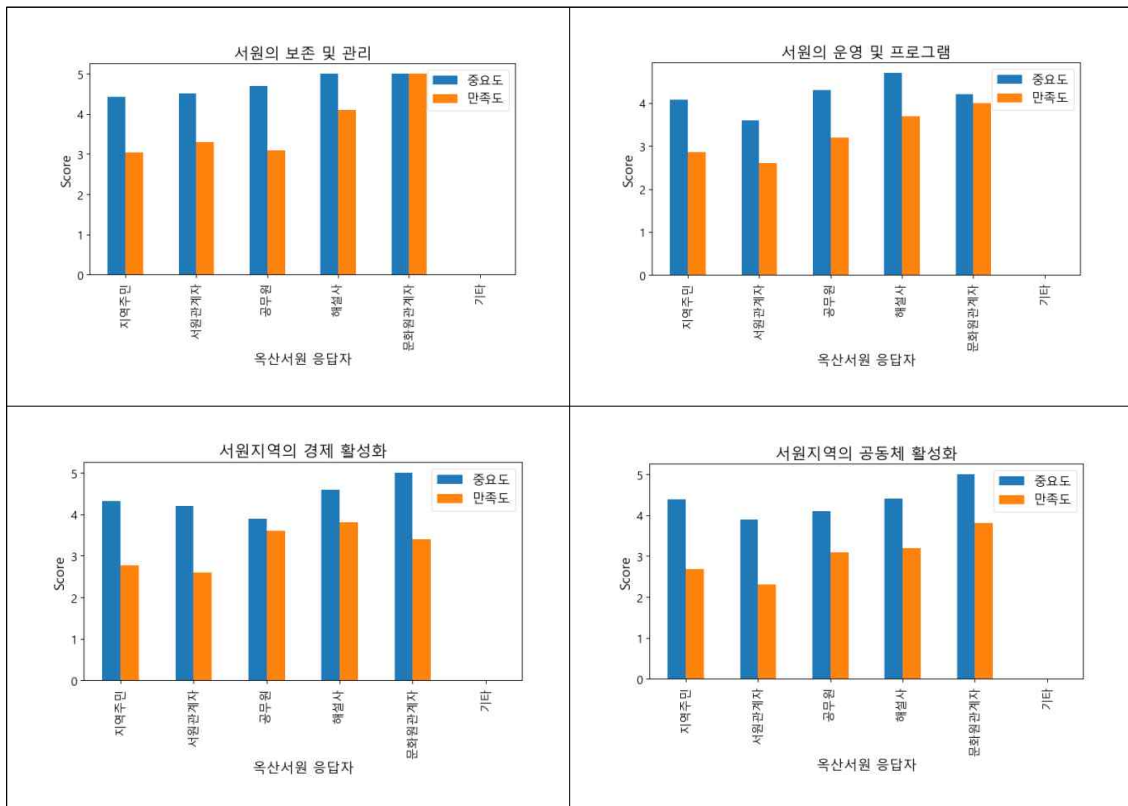


해설사	5	4.1	4.7	3.7	4.6	3.8	4.4	3.2
문화원 관계자	5	5	4.2	4	5	3.4	5	3.8
기타	-	-	-	-	-	-	-	-
평균	4.725	3.708	4.175	3.272	4.402	3.235	4.358	3.018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림 6-7〉은 옥산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7〉 옥산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그림 6-8]는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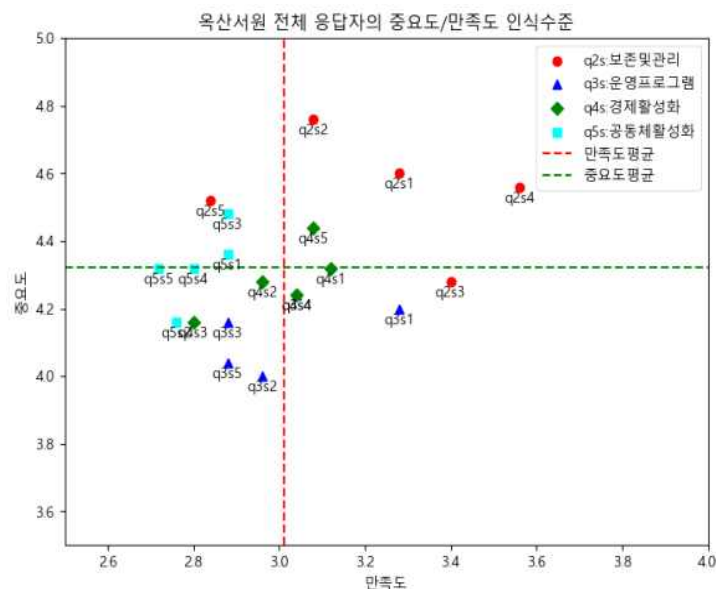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q5s1(지역주의 타파),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q4s3(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4s1(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q4s4(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등이 있다.

〈그림 6-8〉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5. 도산서원 분석 결과

### 1) 응답자별 인식 수준 특성

[표 6-20]는 도산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57)이며, 공동체 활성화(4.54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519)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22)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4)이며, 공동체 활성화(4.25)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15)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45)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92)이며, 공동체 활성화(4.4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64)이며, 경제 활성화(3.48)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모든 차원에 대한 평균 점수가 5.0(매우 중요하게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차원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5.0)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과 경제 활성화가 각각 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는 2.6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78)이며, 경제 활성화(4.4)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55)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0] 도산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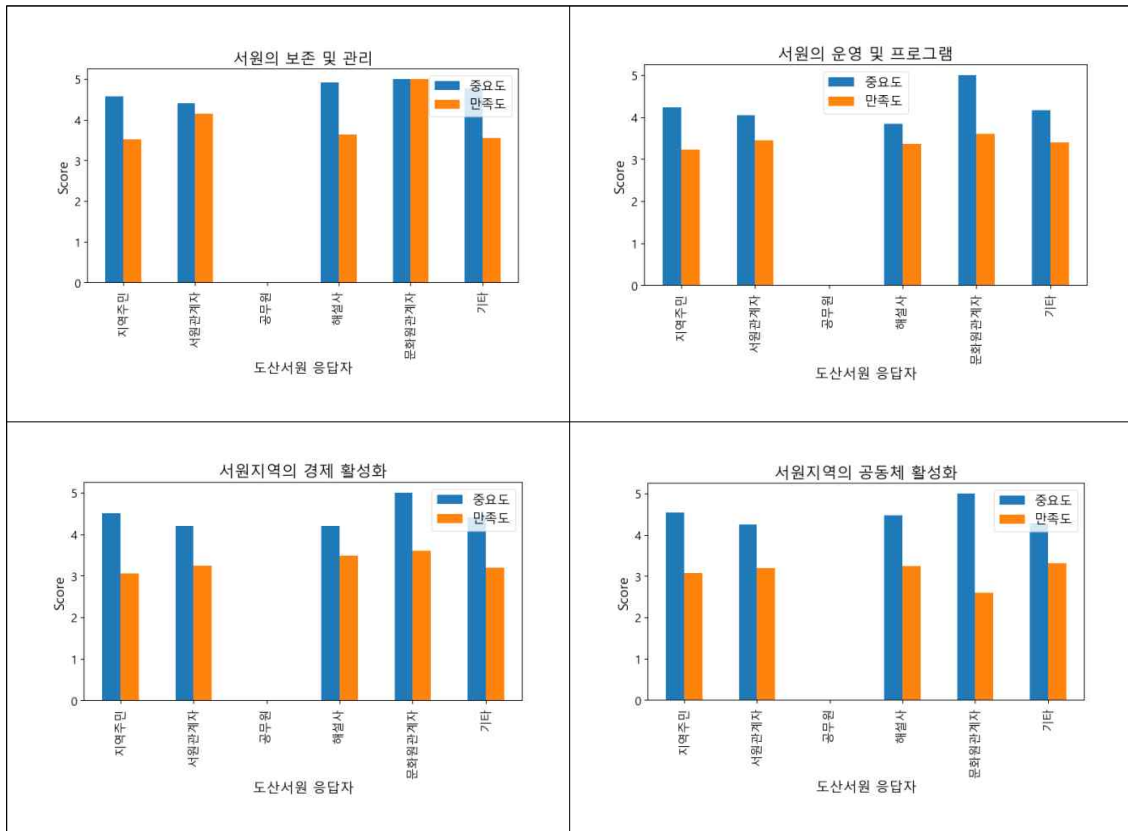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57	3.519	4.23	3.222	4.511	3.052	4.548	3.074
서원 관계자	4.4	4.15	4.05	3.45	4.2	3.25	4.25	3.2
공무원	-	-	-	-	-	-	-	-

해설사	4.92	3.64	3.84	3.36	4.2	3.48	4.48	3.24
문화원 관계자	5	5	5	3.6	5	3.6	5	2.6
기타	4.783	3.55	4.167	3.4	4.4	3.2	4.283	3.317
평균	4.735	3.972	4.257	3.406	4.462	3.316	4.512	3.086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그림 6-9〉는 도산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9〉 도산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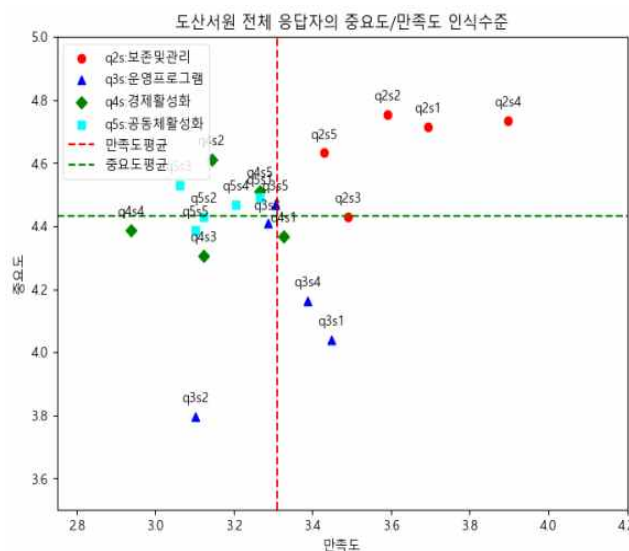
[그림 6-10]는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및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q4s1(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 교육 프로그램), q4s3(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a4s4(머무는 방문인 서원스тей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4s1(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그림 6-10〉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6. 필암서원 분석 결과

### 1) 차원별 응답자 특성

[표 6-21]는 필암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8)이며, 경제 활성화(4.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467)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133)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모든 차원에서 평균 점수가 5.0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2.6)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1.8)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743)이며, 공동체 활성화(4.657)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971)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829)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5.0), 경제 활성화(5.0), 공동체 활성화(5.0), 운영 및 프로그램(4.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2)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4), 경제 활성화(2.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533)이며, 경제 활성화(4.03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567)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233), 경제 활성화(3.2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1] 필암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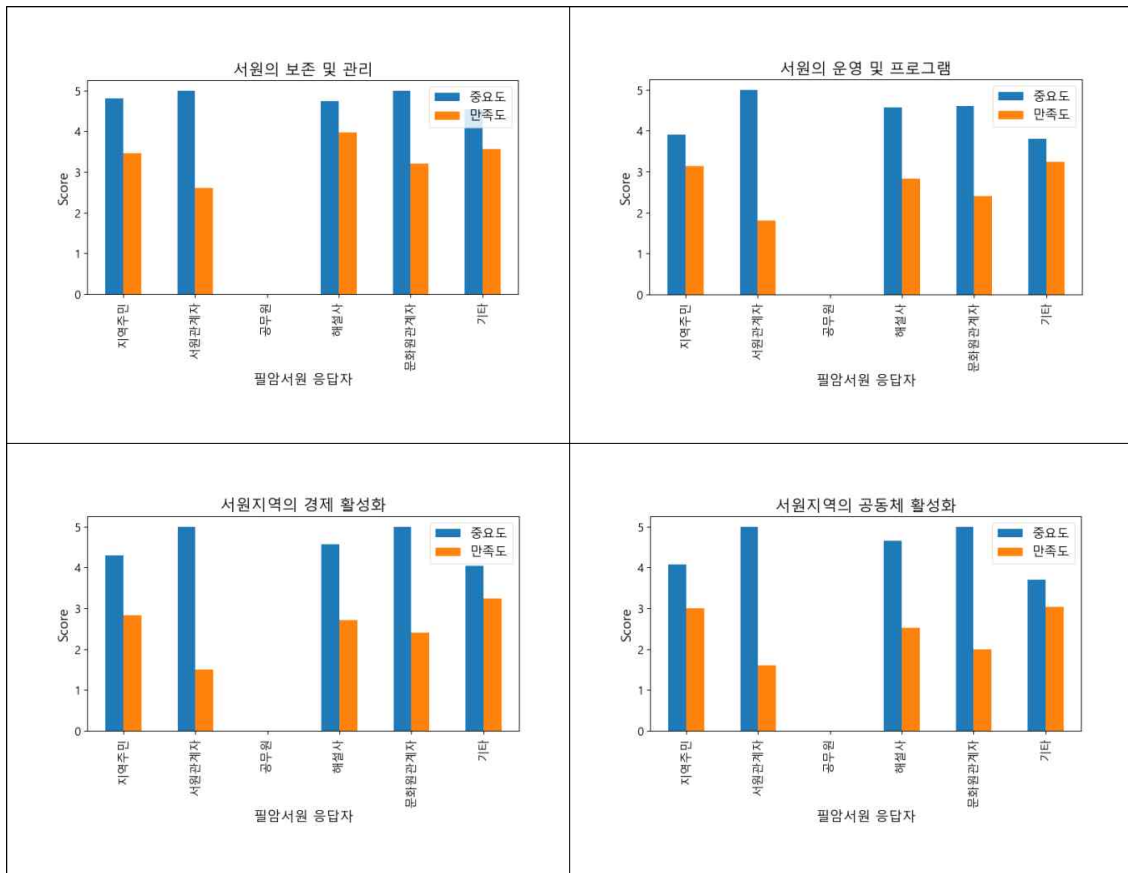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8	3.467	3.9	3.133	4.3	2.833	4.067	3
서원 관계자	5	2.6	5	1.8	5	1.5	5	1.6
공무원	-	-	-	-	-	-	-	-

해설사	4.743	3.971	4.571	2.829	4.571	2.714	4.657	2.514
문화원 관계자	5	3.2	4.6	2.4	5	2.4	5	2
기타	4.533	3.567	3.8	3.233	4.033	3.233	3.7	3.033
평균	4.815	3.361	4.374	2.679	4.581	2.536	4.485	2.429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그림 6-11〉은 필암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1〉 필암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그림 6-12]은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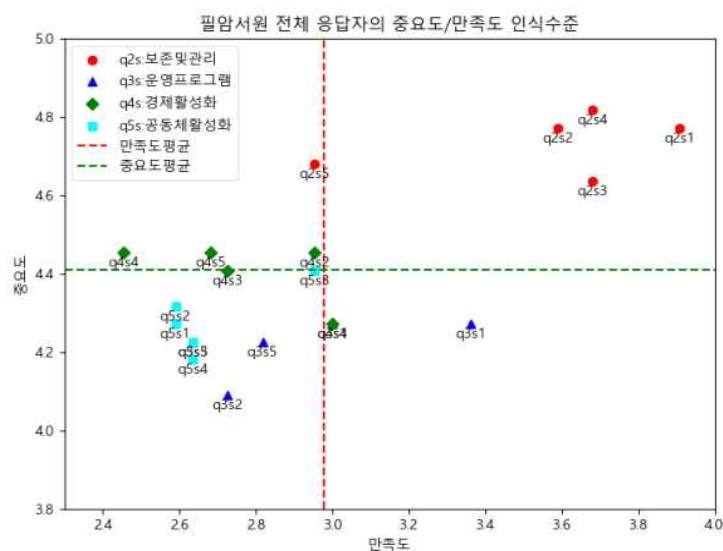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q4s4(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q5s1(지역주의 타파),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4s1(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그림 6-12〉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7. 도동서원 분석 결과

### 1) 차원별 응답자 특성

[표 6-22]은 도동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815)이며, 경제 활성화(4.769) 및 공동체 활성화(4.769)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569)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523)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333)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4.267)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267)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4)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333)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4.167)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233)이며, 공동체 활성화(3.533)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267)이며, 나머지 차원은 동일한 점수(3.93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467)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267), 공동체 활성화(3.267)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6)이며, 경제 활성화(3.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8)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2), 경제 활성화(3.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5.0)이며, 경제 활성화(4.867)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333), 운영 및 프로그램(4.333)이며, 경제 활성화(4.1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2] 도동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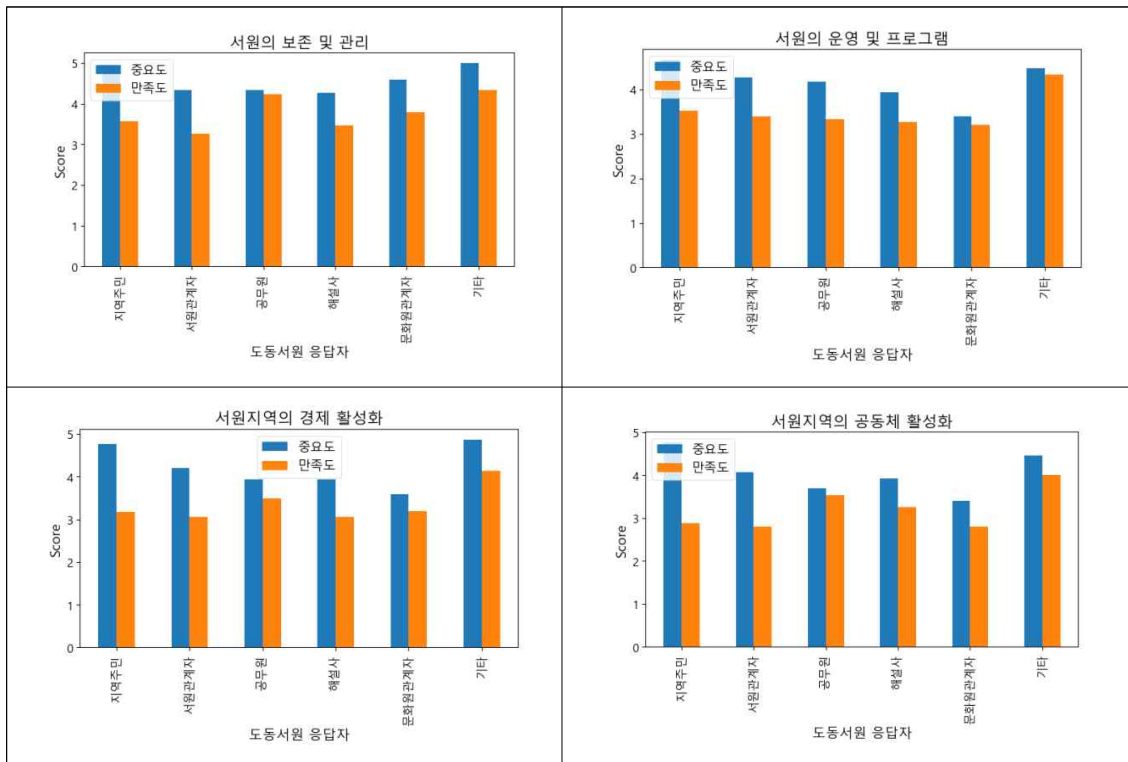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815	3.569	4.662	3.523	4.769	3.185	4.769	2.892
서원 관계자	4.333	3.267	4.267	3.4	4.2	3.067	4.067	2.8
공무원	4.333	4.233	4.167	3.333	3.933	3.5	3.7	3.533
해설사	4.267	3.467	3.933	3.267	3.933	3.067	3.933	3.267
문화원 관계자	4.6	3.8	3.4	3.2	3.6	3.2	3.4	2.8
기타	5	4.333	4.467	4.333	4.867	4.133	4.467	4
평균	4.558	3.778	4.149	3.509	4.217	3.359	4.056	3.215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그림 6-13〉은 도동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3〉 도동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그림 6-14]는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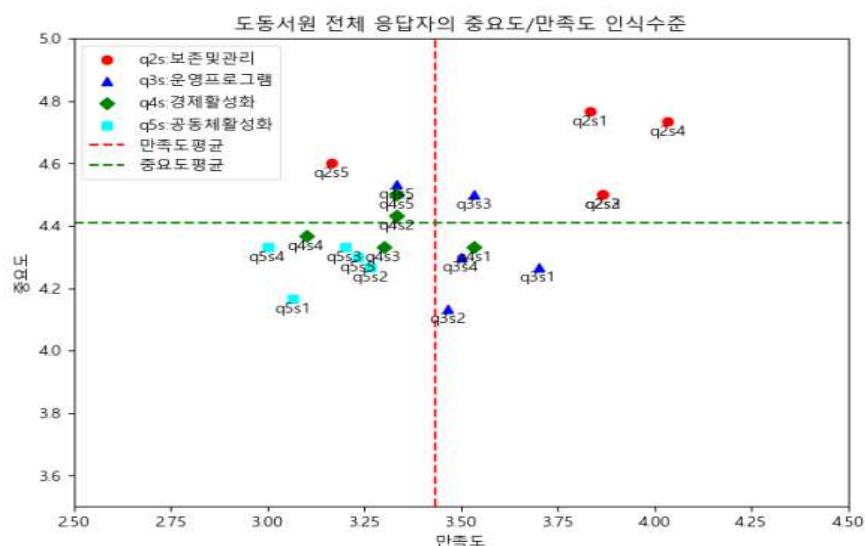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4s3(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q4s4(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q5s1(지역주의 타파),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4s1(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그림 6-14〉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8. 병산서원 분석 결과

### 1) 응답자별 인식 수준 특성

[표 6-23]는 병산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711)이며, 공동체 활성화(4.489)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경제 활성화(3.267)이며, 보존 및 관리(3.022)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로 평균 점수가 각각 4.9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4.4)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운영 및 프로그램(4.2)이며, 공동체 활성화(3.9)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6)이며, 경제 활성화(4.1)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로 평균 점수가 5.0(매우 중요하게 인식)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과 경제 활성화가 각각 3.6(보통으로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특히 만족도 부분에서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운영 및 프로그램과 경제활성화로 평균 점수가 4.9이며, 보존 및 관리(4.8)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4)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7)이며, 공동체 활성화(4.35)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4)이며, 공동체 활성화(3.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3] 병산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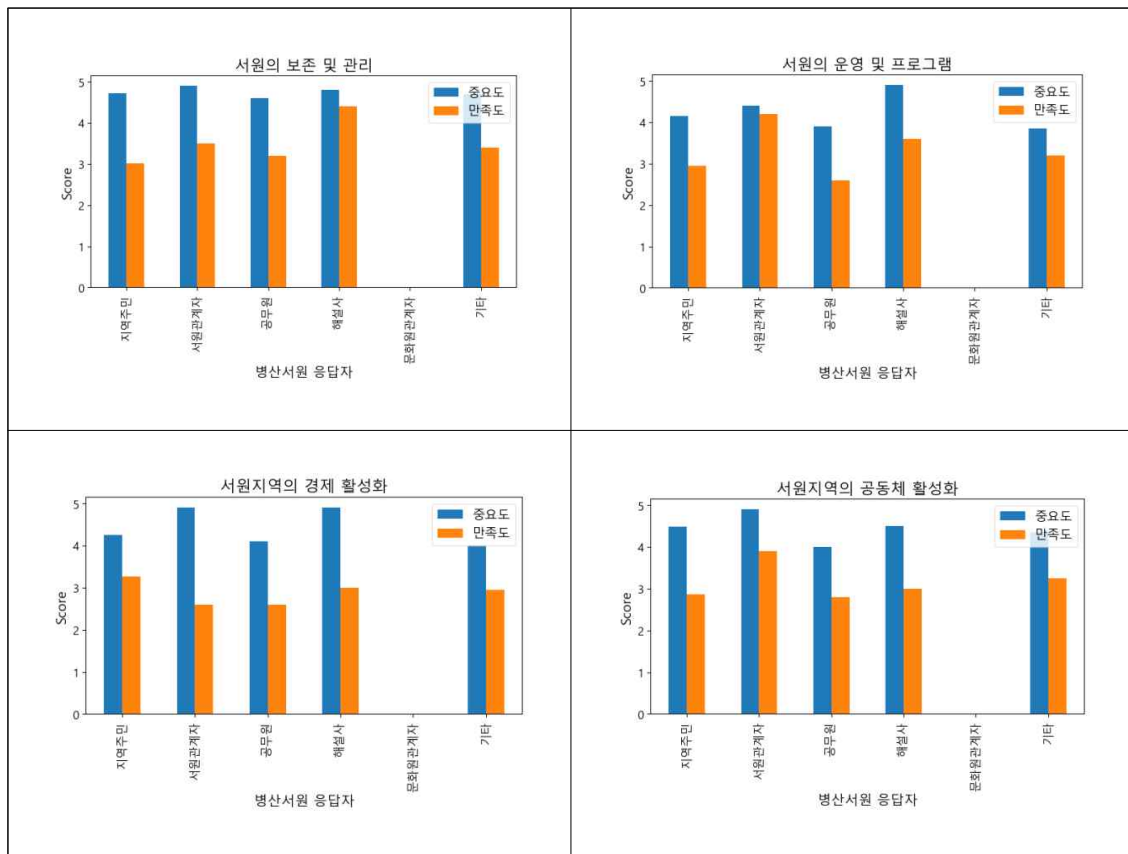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711	3.022	4.156	2.956	4.244	3.267	4.489	2.867
서원 관계자	4.9	3.5	4.4	4.2	4.9	2.6	4.9	3.9

공무원	4.6	3.2	3.9	2.6	4.1	2.6	4	2.8
해설사	4.8	4.4	4.9	3.6	4.9	3	4.5	3
문화원 관계자	-	-	-	-	-	-	-	-
기타	4.7	3.4	3.85	3.2	4	2.95	4.35	3.25
평균	4.742	3.504	4.241	3.311	4.429	2.883	4.448	3.163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표 6-15〉는 병산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5〉 병산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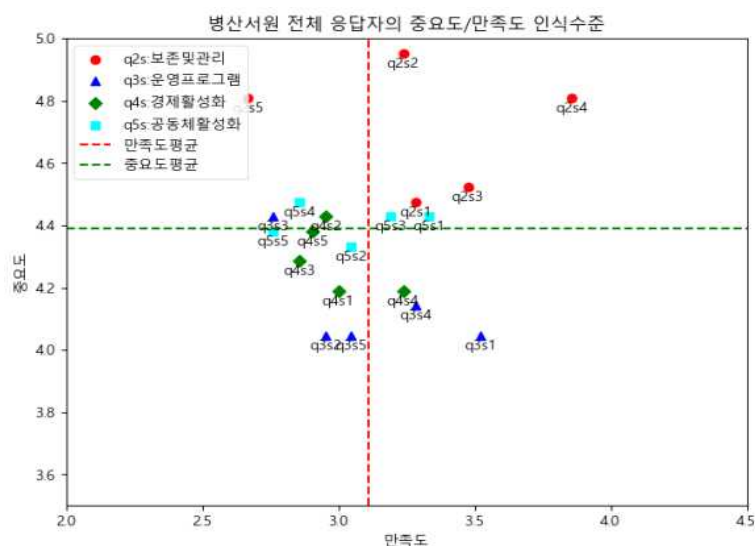
[그림 6-16]은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q5s1(지역주의 타파),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q4s1(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q4s3(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4s4(머무는 방문인 서원 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등이 있다.

〈그림 6-16〉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9. 무성서원 분석 결과

### 1) 차원별 응답자 특성

[표 6-24]은 무성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37)이며, 공동체 활성화(4.185)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17)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585)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공동체 활성화(4.686)이며, 경제 활성화(4.514)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371)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85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36)이며, 공동체 활성화(4.1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경제 활성화(3.88)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42)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85)이며, 경제 활성화(4.0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91)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767)이며, 경제 활성화(4.43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833)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6), 경제 활성화(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4] 무성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37	3.17	4.044	2.585	4.17	2.496	4.185	2.548
서원 관계자	4.429	3.371	4.286	2.857	4.514	2.2	4.686	2.571
공무원	4.36	3.88	3.88	3	4.06	3.42	4.16	3.28
해설사	4.85	3.9	3.95	2.9	4.05	2.7	3.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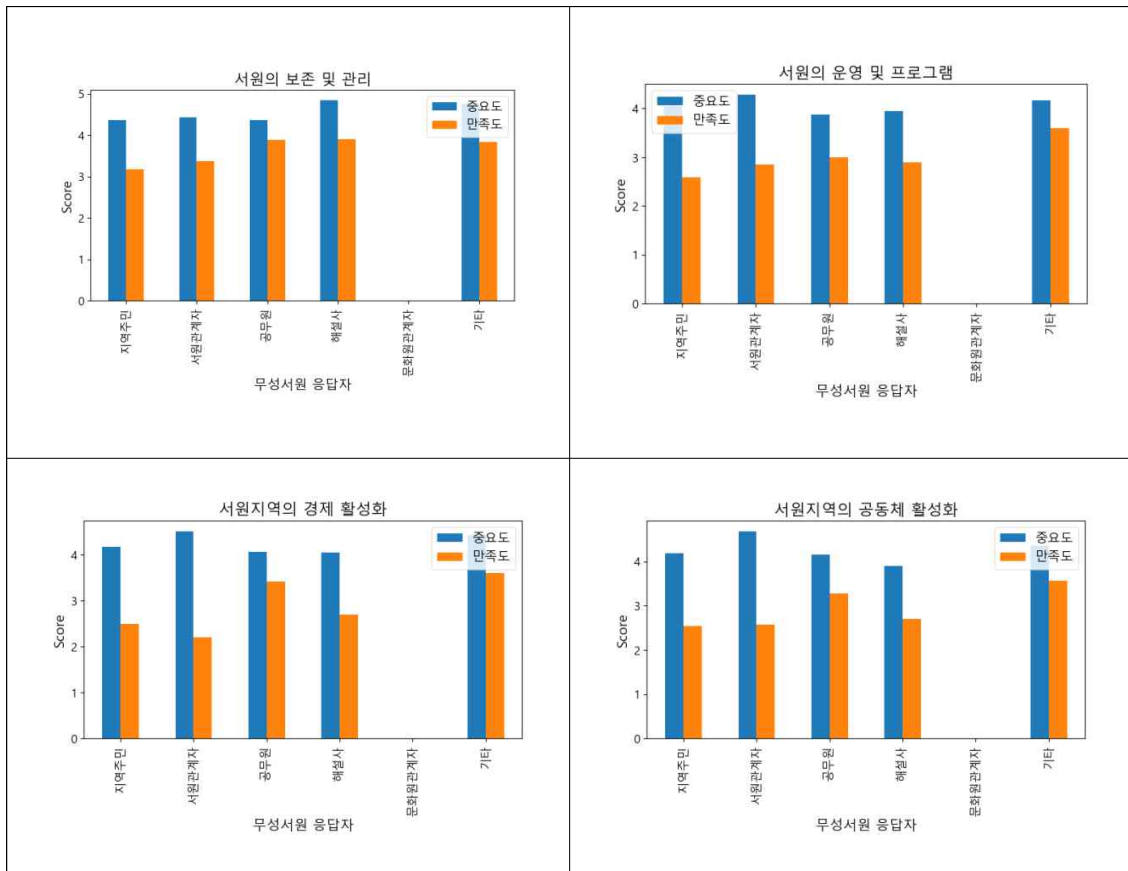


문화원 관계자	-	-	-	-	-	-	-	-
기타	4.767	3.833	4.167	3.6	4.433	3.6	4.367	3.567
평균	4.555	3.631	4.065	2.988	4.245	2.883	4.260	2.933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표 6-17〉은 무성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7〉 무성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그림 6-18]은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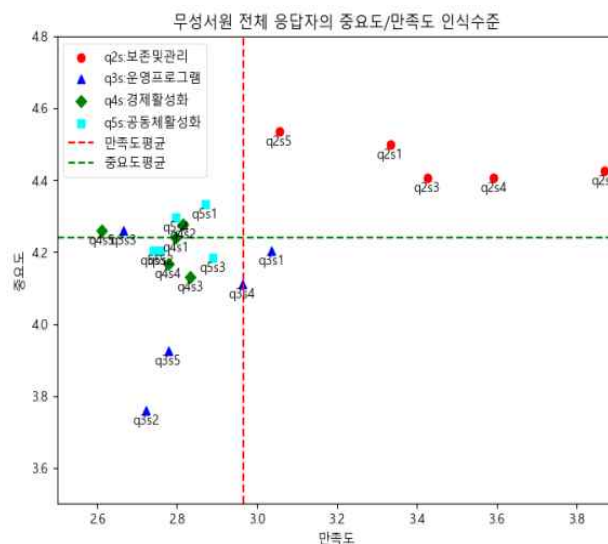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q5s1(지역주의 타파),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q4s1(음식점 숙박 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q4s3(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q4s4(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림 6-18〉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10. 돈암서원 분석 결과

### 1) 차원별 응답자 특성

[표 6-25]은 돈암서원 전체 응답자별 4가지 차원 질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 수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값의 범위는 1.00(가장 낮게 인식), 2.00(낮게 인식), 3.00(보통), 4.00(높게 인식), 5.00(가장 높게 인식) 이다. 지역민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8)이며, 경제 활성화(4.569)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운영 및 프로그램(3.415)이며, 보존 및 관리(3.385) 순으로 나타났다.

서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6)이며, 공동체 활성화(4.5)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5)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0)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공동체 활성화(3.0)이며, 경제 활성화(2.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2.8)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2.6), 공동체 활성화(2.6)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6)이며, 공동체 활성화(4.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8)이며, 경제 활성화(3.05)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관계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5.0)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4.2), 경제 활성화(4.2)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8)이며, 경제 활성화(3.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4.56)이며, 공동체 활성화(4.2)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차원은 보존 및 관리(3.76)이며, 운영 및 프로그램(3.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5] 돈암서원 응답자별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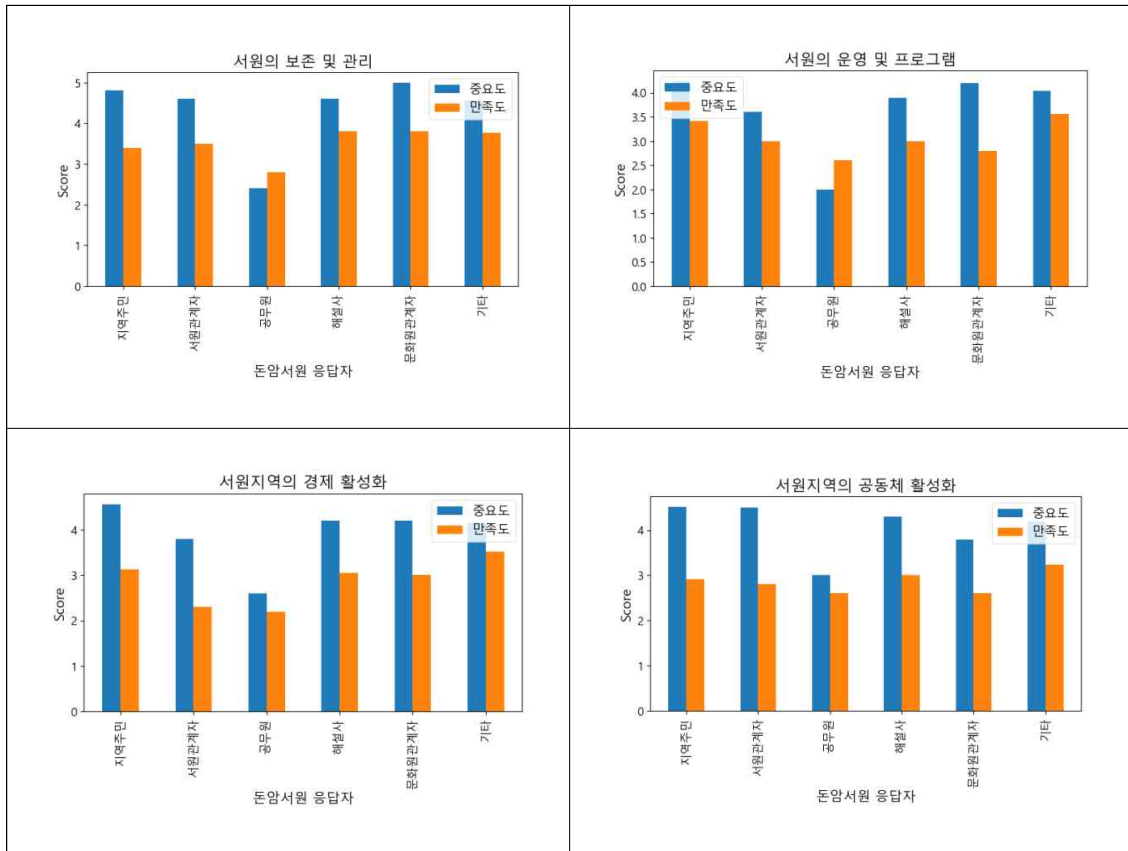
구분	보존·관리		운영·프로그램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지역민	4.8	3.385	4.246	3.415	4.569	3.123	4.523	2.908
서원 관계자	4.6	3.5	3.6	3	3.8	2.3	4.5	2.8

공무원	2.4	2.8	2	2.6	2.6	2.2	3	2.6
해설사	4.6	3.8	3.9	3	4.2	3.05	4.3	3
문화원 관계자	5	3.8	4.2	2.8	4.2	3	3.8	2.6
기타	4.56	3.76	4.04	3.56	4.16	3.52	4.2	3.24
평균	4.327	3.508	3.664	3.063	3.922	2.866	4.054	2.858

## 2) 응답자별 인식 수준의 시각화

〈표 6-19〉은 돈암서원의 각 응답자별 4가지 차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의 평균 점수의 시각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9〉 돈암서원 응답자별 분석의 시각화



### 3) 차원별 응답자의 IPA 인식 분포

[그림 6-20]는 차원별 응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IPA 분포도이다.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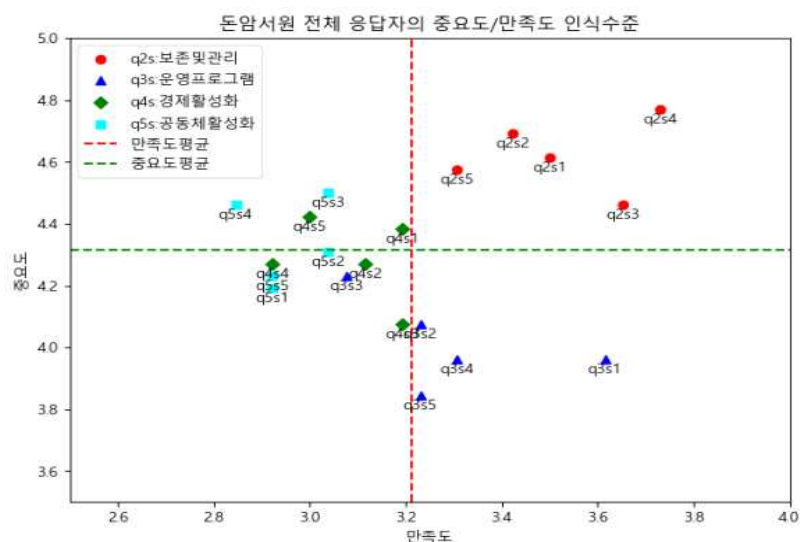
제 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점 항목들로 현상 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2s1(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q2s2(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q2s3(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q2s4(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q2s5(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있다.

제 II-사분면을 살펴보면,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점 항목들의 중점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4s1(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q5s3(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q5s4(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이 있다.

제 III-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선 대상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3(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q4s2(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q4s4(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q4s5(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q5s1(지역주의 타파), q5s2(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q5s5(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이 있다.

제 IV-사분면을 살펴보면,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잉영역으로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을 재 분배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q3s1(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q3s2(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q3s4(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q3s5(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림 6-20〉 차원별 응답자의 IPA 분포도



## 제5절 소결

### 1. 영주 소수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및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및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지역주의 타파",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집중이 요구된다.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및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2. 함양 남계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지역주의 타파”,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집중이 요구된다.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3. 경주 옥산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지역주의 타파”,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집중이 요구된다.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등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 4. 안동 도산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및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집중이 요구된다.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5. 장성 필암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역주의 타파”,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 집중이 요구된다.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6. 달성 도동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레길 조성사업”,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тей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지역주의 타파”,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집중이 요구된다.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7. 안동 병산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지역주의 타파”,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집중이 요구된다.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тей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등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8. 정읍 무성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지역주의 타파”,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은 높은 중요도에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тей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집중이 요구된다.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9. 논산 돈암서원

IP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 “방문객의 시설 보호와 쓰레기 투기 등 훼손 방지”,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은 매우 강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은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тей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 “지역주의 타파”,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 등은 낮은 중요도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하거나 다른 시급성 항목에 자원을 배분·집중이 요구된다.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은 높은 만족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불필요한 강점 항목들이므로 재분배하여 II-사분면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제1절 서원 지역공동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1. 서원 지역공동체의 문제점과 한계

서원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는 공통된 문제점과 한계가 상존한다.

첫째, 인력 부족과 고령화다. 지역소멸과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인데, 이러한 한계로 인해 서원 인근 마을이 존재해도 공동체 연계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공동체를 통해 수익 창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도 마을이 존속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있는 노동인구와 마을 운영에 적극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인구이탈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노령화된 현 마을주민들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년 유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통해 수익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신규 전입인구 유치와 연계해 주민 수의 증가와 마을의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서원 인근 단위 마을의 한계가 있다. 무성서원(원촌마을)과 옥산서원(세심마을) 등 일부 마을을 제외하면 마을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양과 질에 한계가 있다. 병산서원의 경우 10여 가구, 소수서원과 필암서원 등에도 인근 마을이 있지만, 서원과의 상호관계의 끈이 약하고, 수익 창출에도 임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주변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논산의 돈암서원처럼 서원 대부분이 연계할 만한 주변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서원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활성화를 추진한 마을 중 지역공동체나 주민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단위 마을이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난다.

홍보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마을의 인적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보유 자원의 양과 질의 한계와 홍보마케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간 네트워크(다원화된 공동체)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국 서원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들이 연계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자원문제는 인접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권역으로 해결하고, 홍보마케팅은 공동의 브랜드로 대응함으로써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지나친 성과 중심의 추진이 문제다. 지역공동체는 행정의 지원으로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가 성과 중심의 추진체계다. 세계문화유산 서원문화자원을 활용한

9개 서원 역시 성과 중심의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 완료 이후 주민조직의 활동이나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활동이 어려운 곳이 많다.

지역공동체가 행정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담당 또는 책임자 처지는 이해되나,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을 소홀히 한 탓에 지속성을 상실하고 지역주민 간 반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원 투입에 따른 결과물 도출은 필요한 요구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며, 지역주민 특히 고령화된 지역주민의 눈높이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와 서원 인근 마을 발전계획은 마을 여건과 주민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도 많다. 지역주민은 농업이나 매점, 영세한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농업인이거나 영세 소상공인으로써 지역공동체를 운영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원 인근의 수익 사업은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 일원이 맡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용역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높았다.

지역민이 운영할 수 없는 설비조성, 실행되지 못할 체험프로그램, 실현성 없는 장밋빛 청사진 제시 등 전문가의 실수는 결국 주민들에게 상실감이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실현할 수 있는 발전계획만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을만들기가 지속될 수 있게 한다.

서원과 지역공동체를 연동해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세계문화유산 9개 서원에서 나타나는 역사 문화관광 자원과 콘텐츠 활용은 답사, 숙박, 놀이 및 생활 체험, 인성교육, 유교 전통 체험, 관련 축제의 참여 등으로 나타나고, 1차 가공을 통한 상품화는 전통음식(선비음식), 전통차와 술, 특산품의 형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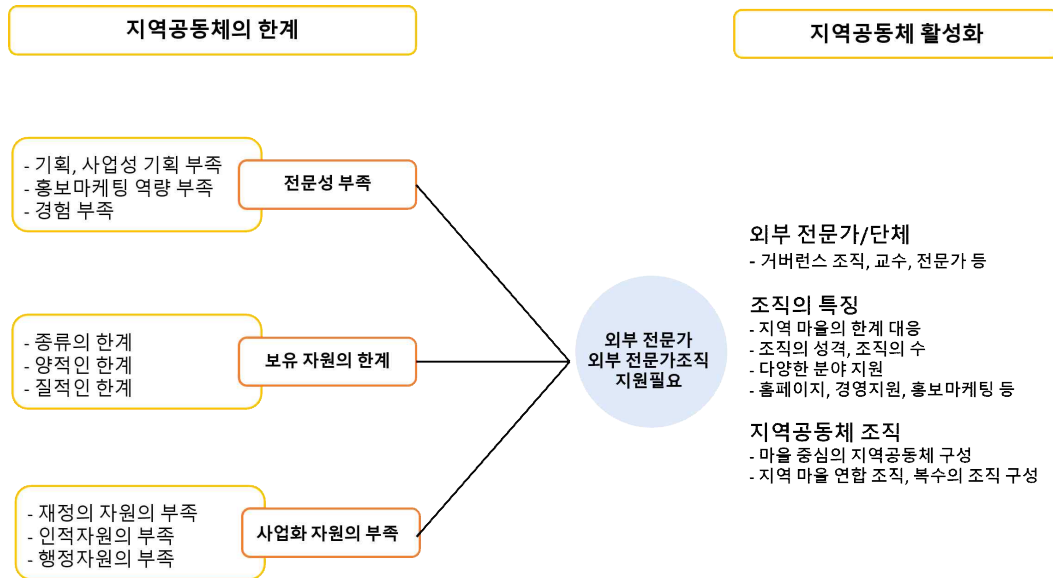
문화관광 개발상품 방법은 자원의 특성에 크게 좌우되어 자원이 유사한 경우 개발상품까지 유사해 서원 간, 지역마을 간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수서원의 영주시와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의 안동시가 모두 선비도시를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원 역사 문화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개발은 의미 부여를 통한 가치 재생산 방식과 지역 특성 및 생상품과 연계한 파생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자원이지만 마을 간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각 서원 간 연계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림 7-1〉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의 한계는 명료하다. 지역주민의 고령화는 기본적인 문제이고, 우선,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유 자원의 한계, 사업화 자원이 부족하다. 첫째, 전문성 부족은 전문 지식의 부족, 기획, 사업성 기획 부족, 홍보마케팅 역량 부족, 경험 부족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둘째, 보유 자원의 한계는 종류의 한계, 양적인 한계, 질적인 한계를 들 수 있다. 서원 단일 자원으로써 또는 콘텐츠로써 종류가 부족하다. 이는 양적·질적 한계가 명료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지역+지역공동체(주민)와 연계해야 당위성이 부여된다. 셋째, 사업



화 자원의 부족이다. 재정의 자원의 부족, 인적자원의 부족, 행정자원의 부족 등이다. 아래 <그림 7-1>이는 지역공동체의 한계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7-1> 지역공동체의 한계와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동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 요인이 된다.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외부 전문가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는 풍부한 경험과 성공 경험을 통해 한국의 서원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관리, 홍보마케팅, 다양한 분야의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SNS 등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재생과 도시재생 사업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받아 운영하는 주체는 지역 주민이고, 이를 교육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나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좀 더 구체화 된 지역 마을기업 연합 조직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2. 서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한국의 9개 서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에서 중요한 거점 명소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등과 같은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지원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위탁운영, 수익배분과 관리·감독, 책임과 역할 분배, 보존관리 등 논의 사항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의 9개 서원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관람객이 찾으면서 서원의 보존과 관리 문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람객을 관리감독하고, 지역주민과 연계성을 높이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명소를 찾은 관람객은 우리의 역사와 서원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체득하고, 지역주민은 관람객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숙박시설과 먹거리, 관광 연계 상품과 기타 지역의 파생상품 등을 연계해 가치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서원마다 온도차는 있으나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성과 체험프로그램, 지역과 연계한 축제, 한옥스테이, 둘레길 조성, 문화유산축전 지원, 전통(선비)음식 개발, 관광 연계 상품개발, 특산품(파생) 상품개발 등이 대표적이고, 각 서원의 특수성과 장단점을 이용해 활용 중이다. 아래 <표 7-1>은 9개 한국의 서원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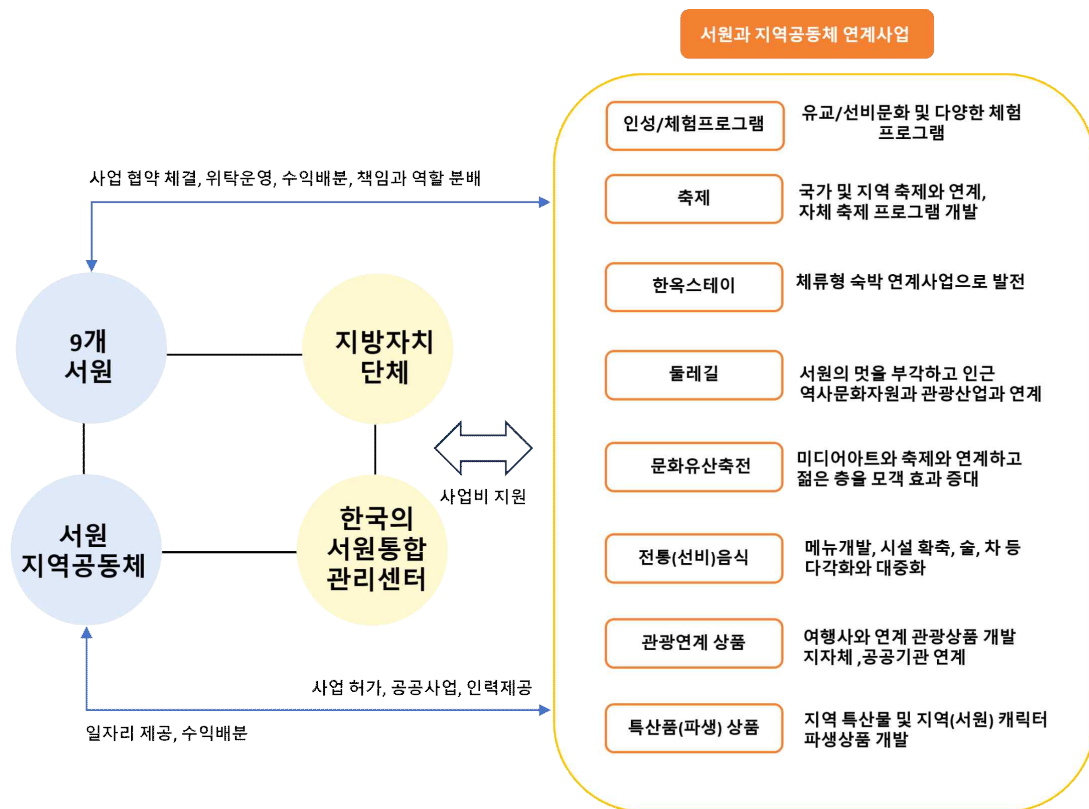
<표 7-1> 한국 서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업 서원	인성체험 프로그램	축제	한옥 스테이	둘레길	문화유산 축전	전통,선비 음식	관광연계 상품	특산품 파생상품
돈암서원	○	○	○		○			
무성서원	○		○	○	○			
필암서원	○	○			○		○	
도동서원	○		△		○			○
옥산서원	○		○	○	○			△
남계서원	○		○		○			
도산서원	○	○		○	○	○		△
병산서원	○		○		○			
소수서원	○	○	○		○	○	○	

※ 도동서원은 2024년 3월 오픈 예정

9개 서원은 서원의 특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원 인근지역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9개 서원과 서원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가 연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가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는 경쟁력을 갖춘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 사업화함으로써 이와 연관된 여러 분야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한 서원형 코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생산, 유통, 경영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마을공동체 조직의 문제점을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결합해 사업화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서원마을이나 지역공동체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7-2〉 9개 서원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효과



〈그림 7-2〉를 살펴보면, 서원과 지역공동체 연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9개 서원-서원 지역공동체 〈표 7-2〉는 〈그림 7-2〉를 정리한 것이다.

〈표 7-2〉 서원과 지역공동체 연계 사업

연계 사업	내용
인성/체험프로그램	유교/선비문화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축제	국가 및 지역축제와 연계, 자체 축제 프로그램 개발
한옥스테이	체류형 숙박 연계 사업으로 발전
둘레길	서원의 멋을 부각하고 인근, 역사 문화자원과 관광산업과 연계
문화유산축전	미디어아트와 축제와 연계하고 젊은 층을 모객효과 증대
전통(선비)음식	메뉴개발, 시설 확충, 술, 차 등 다각화와 대중화
관광 연계 상품	여행사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특산품(파생) 상품	지역특산물 및 지역(서원) 캐릭터 파생상품 개발

〈표 7-3〉의 프로그램은 서원마다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도 있고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원이 공통으로 준비하고 운영해야 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주차장, 화장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소 등이 대표적이다.

〈표 7-3〉 한국 서원의 기본 편의 시설

사업 서원	홈페이지	화장실	주차장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소	관광 안내소	매표소
돈암서원	×	○	○	○	×	×
무성서원	○	○	○	○	×	×
필암서원	×	○	○	×	×	×
도동서원	×	○	○	○	×	×
옥산서원	×	○	○	○	×	×
남계서원	×	○	○	○	○	×
도산서원	○	○	○	○	○	○
병산서원	○	○	○	○	×	×
소수서원	×	○	○	○	○	○

9개 서원 공통으로 화장실과 주차장은 모두 잘 갖춰져 있다. 서원의 상황에 따라 화장실과 주차장의 규모는 큰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불편함이 없이 잘 설치되어 있고, 청결 상황과 버스, 장애인 등 잘 갖춰져 있다. 최근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도동서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곳도 있고 무성서원은 설치는 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표 7-4〉 한국 서원의 주차장 현황

사업 서원	일반차	대형버스	장애인	기타 (전기차 등)
돈암서원	30	0	0	공터
무성서원	8	2	2	2
필암서원	28	0	3	0
도동서원	71	7	0	2
옥산서원	62	8	6	0
남계서원				구분 없음
도산서원	150	21	3	
병산서원	42	4	2	0
소수서원				구분 없음

※ 도산서원은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으로 나뉜다. 제1주차장은 일반차 43대, 대형버스 10대, 장애인 3대가 있고, 제2주차장은 8곳으로 나뉘는데, 일반차 총 97대, 대형버스 11대

※ 남계서원과 소수서원은 넓은 주차장이 있으나, 주차 구획이 나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서원은 의외로 개별 홈페이지가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관라·감독 주체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무성서원 (<https://donamseowon.co.kr/>)과 도산서원 (<https://www.andong.go.kr/dosanseowon/>), 병산서원 (<http://www.byeongsan.net/>)이 홈페이지가 있다. 대체로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https://k-seowon.or.kr/>),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위키피아 (<https://ko.wikipedia.org/>)와 나무위키 (<https://namu.wiki/>) 등에 서원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은 같은 안동시 관리하에 있는데, 도산서원은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이고, 병산서원은 자체 홈페이지로 나뉜다.

다음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이 없는 곳이 있었다. 대개는 독립 건물로 운영하지만, 장성 필암서원은 필암서원 서원 내 한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머물고 있다. 필암서원 외부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은 설치되어야 한다.

관광안내소는 도산서원과 소수서원에만 있다. 이 두 서원의 특징은 매표소가 있어 유료 입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 서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인원은 다른 서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게 특징이다. 2023년 현재, 총 749,443명이 방문했는데, 남계서원 15,851명, 무성서원 27,060명, 도동서원 33,106명, 돈암서원 36,215명, 필암서원 38,469명, 옥산서원 66,325명, 병산서원 76,810명, 도산서원 189,079명, 소수서원 267,528명 순이다.<sup>99)</sup>

우리나라의 지역소멸 해결방안은 손꼽는 첫 번째 방안이 청년 유입이다. 따라서 역할 부여를 통한 젊은 층의 참여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이 많지 않은 1차 문제가 있고, 적은 수의 젊은 층도 마을 구성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오히려 참여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한다. 따라서 어려운 과제지만,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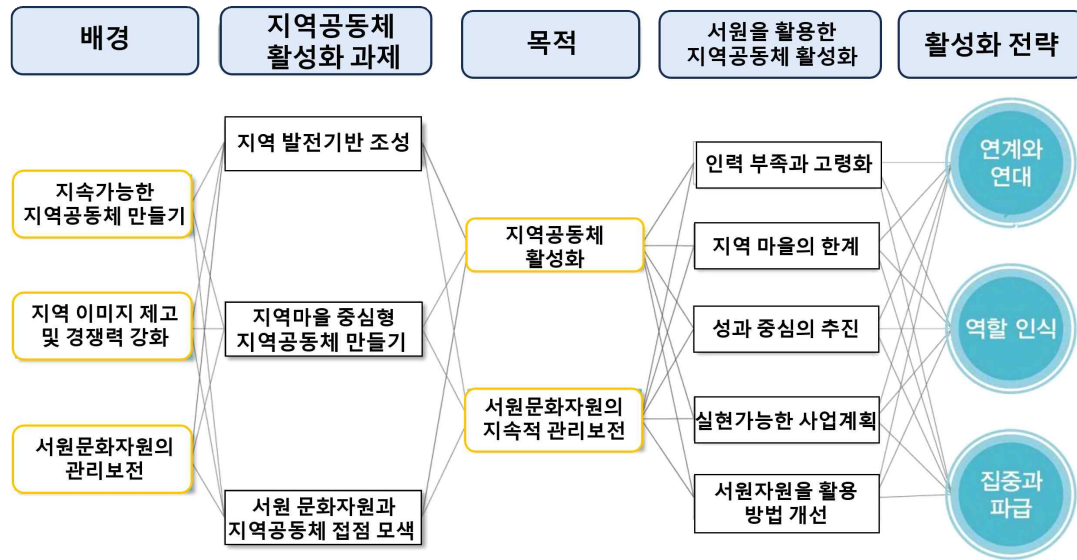
무성서원 인근 원촌마을은 초창기 젊은 마을 구성원(약 6명)과 무성서원 인근 3개 마을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서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다만 무성서원 인근 및 원촌마을가꾸기는 2008년부터 시작했고, 당시 50대였던 젊은 층과 부녀회원도 2023년 현재 15년이 지나면서 60대 후반에서 70대로 고령화되었다. 현재는 이를 이어줄 후속 세대가 없는 것이 악재 중의 악재다. 그다음은 출향 인사나 귀향 인사의 귀촌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리더십과 전반적인 사회 경험이 중요한데, 원주민은 생업과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공동체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병산서원이나 도동서원처럼 인근 마을처럼 마을공동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완성 단계에서 와해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많다.

안동 군자마을은 광산 김씨 종손의 동생이 귀촌을 목적으로 돌아와 지역공동체와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사례가 있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민들은 사무장의 역할을 제안하였고, 문중의 많은 고택과 유물들에 대한 관심과 마을만들기를 통한 가능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마을운영자가 되었다. 이후 사업에서 수립한 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음악회, 세미나 및 회의장 등으로 프로그램적 보완을 통해 기존의 계획을 보완하였고, 방송 및 영화 촬영지로 마을 홍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9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https://k-seowon.or.kr/>)

〈그림 7-3〉 서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당시 군자마을의 사무장은 귀향 인물이었고, 마을 자원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50대), 사무업무에 익숙한 경력, 그리고 본인이 성장한 마을에 대한 애정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출향 인사는 지역공동체와 농촌 마을 만들기에 주민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서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배경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 문화자원의 관리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가 있다.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마을 중심형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서원 문화자원과 지역공동체의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서원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보전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서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 7-3〉은 서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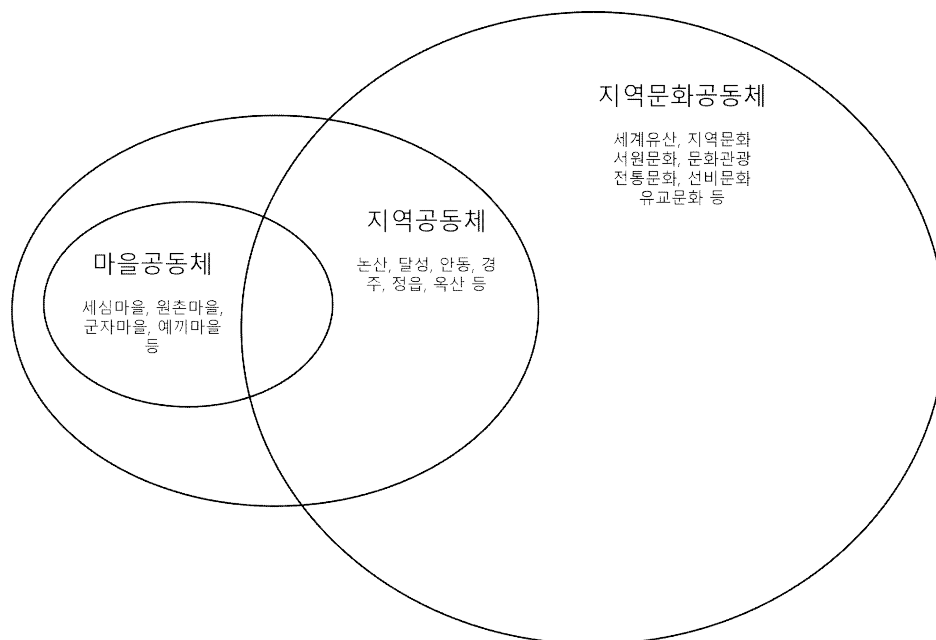
- 첫째, 인력 부족과 고령화
- 둘째, 지역마을의 한계
- 셋째, 성과 중심의 추진
- 넷째,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
- 다섯째, 서원 자원을 활용 방법 개선

### 3. 지역공동체에서 지역문화공동체로 전환

사실 서원과 지역공동체 간의 연결고리는 약하다. 무성서원의 원촌마을이나 옥산서원의 세심마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와 연계성이 매우 약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만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와 연계한 공동체 수립이 필요하다. 즉, 지역공동체에서 문화공동체 혹은 지역문화공동체로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과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문화공동체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공동체가 해체된 오늘날 지역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는 이유는 지역을 기본단위로 해체된 문화공동체를 문화콘텐츠와 문화예술로 복원하는 시도다.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이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생활문화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등의 다양한 문화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과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와 활동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생태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시도이다. 지역문화공동체는 지역문화와 공동체가 합쳐진 단어로 개념 정립을 위해 먼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7-4〉 지역문화공동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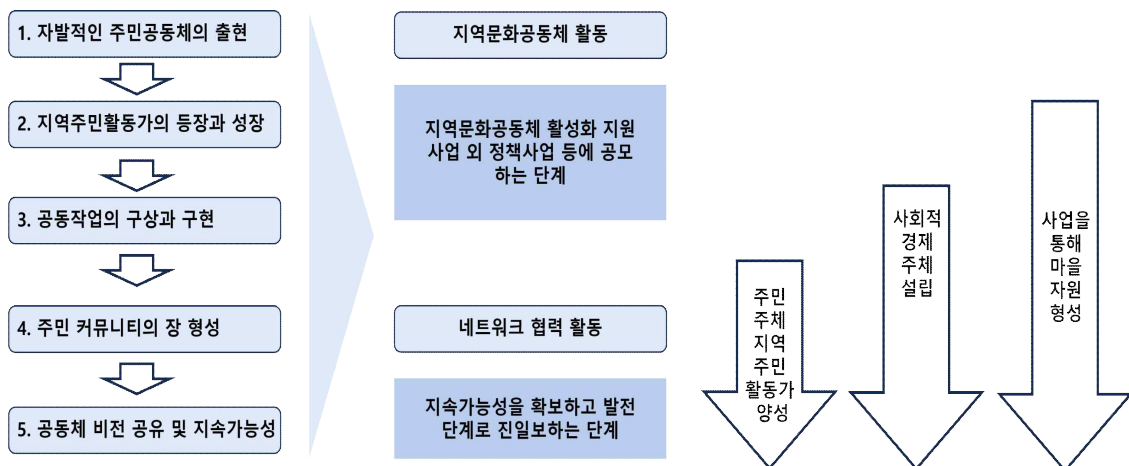
지역문화공동체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를 의미한다. 지역은 공동체의 기본단위이자, 사회구성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지역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문화는 지역과 문화가 합쳐진 단어로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생활 양식을 뜻한다. 또한, 지역문화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를 의미하며, ‘지역’의 개념에는 지리적 공간,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정서 공간, 경제 공간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공간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문화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요인으로 첫째, 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발적 주민공동체, 둘째, 지역 주체 주민 활동가의 양성, 셋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 설립, 넷째, 사업을 통해 마을 자원(로컬데이터, 지역 문화생태계 등)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 마련을 꼽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든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발적 주민공동체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주체 주민 활동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서원 인근지역은 고령화와 인구소멸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청년 유입이나 귀촌 귀향 인물들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 활동가를 육성해야 한다. 사업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지역에 대해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주체적 삶을 경험하며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 주체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림 7-5〉 지역문화공동체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을 통해 마을 자원(로컬데이터, 지역 문화생태계 등)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 마련은 관계 맺음과 다시 보기를 통한 지역문화의 재구축을 통해 기억의 공유, 삶의 시간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공급자 프로세스를 탈피하여 사회적 가치로서 지역생태계와 플랫폼 등의 사업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패턴을 함께 찾는 과정이다. 지역문화공동체의 발전 과정은 5가지 단계로 발전한다. 위의 <그림 7-5>는 지역문화공동체 발전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지역문화공동체의 발전 과정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부터 결성까지 1단계부터 5단계를 겪은 후, 5단계의 공동체 비전 공유 및 지속가능성을 거치며 앞 단계들로 재순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비전 공유를 위해서는 1단계의 자발적 지역문화공동체의 출현으로 돌아가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파생 공동체를 독립시킬 수 있으며, 2단계의 주민 활동가의 등장과 성장으로 돌아가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실무자의 경험을 살려서 동반관계를 맺은 기관에 취업한 실제 사례를 들 수 있다.

3단계의 공동작업의 구상과 구현으로 돌아가면 지역문화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확장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세우고 지역주민의 고용환경을 만들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 4단계의 주민 소통의 장 형성을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확장성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고자 기존 공동체 공간 외에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동작업(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최초로 형성되고 발전하며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단계별 발전 단계를 거치지만, 공유 가치·감정이 명확하게 생긴 후에는 다른 단계로 옮겨가며 공동체의 또 다른 새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이처럼 공동체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진화하지 않으며 해당 단계에 머물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지역공동체의 행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는 지역공동체 구축은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민 중심의 문화 활동 및 향유에 대한 지표를 통해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서원마다 지역주민들의 성비나, 연령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원의 보존관리와 활용 등 유산의 가치 증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로 결성된 문화공동체를 통해 지역에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된다. 셋째, 서원 지역주민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 전문가 코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주민들만으로 문화

공동체의 지속 성장이 어려울 때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 등록된 전문가 코칭 인력풀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지역의 산재한 현안들을 지역주민들 스스로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상시 코칭을 받아 문화공동체 스스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한다. 넷째,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제반 정책과 산업의 연계를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9개의 한국 서원의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보존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 제2절 지역공동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제언

###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 ○ 인력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서원과 연계해서 인력양성 및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서원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학교 교육(공교육)과의 연계(입학식, 졸업식, 성인식, 인성교육 이수 등)를 통해 서원의 기능적 역할이 현대사회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9개 서원마다 지역주민의 인구 분포와 직업분포가 다르므로 9개 연속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지역공동체 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9개 서원마다 각기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서원 관계자들이(문화해설사 포함) 일반방문객(문화관광객)에게 9개 연속유산으로서의 서원의 가치와 보존을 쉽고 재미있게 구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서원 관계자들의 서원에 대한 설명이 연령층이 낮을수록 생소하고 너무 어려워 서원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오히려 저하하고 있다. 서원 관계자들이 서원에 대한 설명을 쉽고 친근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교육 메뉴얼이 필요하다. 한자 중심의 서원에 대한 교육자료가 초급(10대 20대, 외국인 관광객), 중급(일반 관광객이나 지역주민), 고급(지역사회 지식인층, 서원 연구자) 등으로 나뉘 한글세대에 맞게 개발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생애주기별 교육을 할 수 있는 통합교재와 교구개발을 연구해야 한다.

넷째, 9개 연속유산의 가치와 보존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지역주민이 서원의 도난과 화재 등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9개 서원의 지역 청소년, 대학생, 주민들의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 연대가 필요하다. 9개 서원의 교차 교류회가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9개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와 보존이 공동체 사회의 중요한 맥락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표 7-5〉 인력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개발 비용, 단위 : 백만 원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비	1,500	1,500	1,000	1,000	1,000

##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서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방안이 있다. 첫째, 9개 서원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 각 서원으로 들어서는 도로 반경 5km, 2km, 1km 전방부터 서원에 대한 동일한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 9개 연속유산으로서 서원의 연계성 인식을 도출하기 위해 각 서원 별다른 서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방향과 거리에 대한 표식이 필요하다.

둘째, 서원 인근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에 대한 환경 정비 지원을 통해 서원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까지 관광자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병산서원 인근 지역민들의 주거지역의 열악함으로 병산서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화관광객들의 심미성을 대폭 저하하고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 야간 개장을 하는데 서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바깥 입구에서 서원 주차장까지 가로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9개 서원의 가로등과 조명 설치하는 서원의 도난과 소방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서원별 유치원생들과 초등생 등 유아, 청소년들의 선비체험을 위한 선비복 구매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서원별로 청소년에게 성인들의 선비복으로 체험활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 선비복 구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사업체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마을사회적기업 등 공동체 사업모델이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어 프로젝트 형식의 시범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서원 인근 주민들이 생업에 치우쳐 있으나 자녀 세대가 귀향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룬다면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도출할 수 있다. 실제 필암서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지역주민은 자녀 세대가 카페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서원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원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공유는 공공근로 등 단순한 노동력에 치우쳐 있어 지역주민공동체의 역할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서원축제 및 관광상품 등)이 필요하다.

서원 인근 근린시설 운영권 및 관리인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부여하여 서원과 연계성을 갖춘 상권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근린시설 운영권 및 관리인은 외지인들에게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을 갖추기 어렵다. 서원의 보조사업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마을과 서원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과 연계성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표 7-6〉 문화자원화 개발 예산, 단위 : 백만 원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서원 인근 숙박시설 등 편의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서원이 위치한 곳이 문화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편의 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한바, 지역주민의 유희 생활공간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들과 함께 9개 연속유산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상품의 판로 개척 및 수익창조의 구조적 설계 구축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표 7-7〉 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예산, 단위 : 백만 원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사업비	1,000	1,000	1,000	1,000	1,000

### 3. 서원의 활성화 전략

서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8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 외국인 지원 인력양성, 관광콘텐츠 개발, 한류 연계 관광, 서원 관광상품 개발, 파트너십 구축 등이 있다.

첫째, 관광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 실행 방법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해외 홍보를 다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9개 서원 중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는 무성서원, 병산서원, 도산서원이 있고, 이 중 다국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병산서원과 도산서원뿐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서원 중 홈페이지가 있는 14개 서원 중에서도 다국어 서비스는 유일한 경우다. 한국의 9개 서원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있는 곳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이며, 한국관광공사에도 다양한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9개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홍보도 연계해야 한다. 1단계로 해외 홍보, 2단계로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홍보를 이원화해서 진행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간하는 한국 관광안내책자에도 9개 지역의 서원에 대해 정보를 게시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원에서도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 나라의 한국대사관에 서원에 관한 내용이 실린 관광가이드북을 비치하고, 지자체나 한국관광공사 등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미 다녀간 관광객들의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 서원에 대해 알리는 SNS를 개설하여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자들과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숏폼콘텐츠가 젊은 세대는 물론 전 세계 각계각층에 유용하기 때문에 틱톡이나 유튜브 등의 활용도 중요하다. 관광객들이 여행 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SNS와 블로그 홍보가 절실하다. 그뿐만 아니라 서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SNS를 개설하여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다국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서원마다 관리주체가 모호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외국인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각 서원에 다국어 팸플릿을 비치하고, 다국어 음성 안내를 제공하여 혼자 서원을 즐기고 싶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 도산서원의 경우, 팸플릿과 안내문이 영어로 제공되고, 영어로 설명이 가능한 외국어 해설사가 존재하였으나 그 서비스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서원을 전문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외국어 서원문화해설사를 양성해야 하고, 서원에서는 이들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서원은 직접적인 관광 연계 프로그램이 적다. 돈암서원 한옥스테이는 국내 여행사와 연계해 전통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돈암서원과 한옥스테이, 둘레길 등을 연계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옥스테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 돈암서원과 무관하다. 즉, 서원만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한식만들기, 붓글씨로 이름씨보기, 선비웃입기, 공예품만들기, 마을탐방 등 창의적인 체험형과 탐방형 위주의 단일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서원 혹은 서원 주변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1박 2일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원과 서원 주변의 자연환경, 건물 등과 관련된 스토리를 탐방하면서 제공하고, 서원과 연계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상품과 한류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도 큰 효과가 있다. K콘텐츠와 한류가 확산하면서 뷰티, 음식 등 한국의 일상 생활 문화로 점차 발전되어 퍼지고 있다. 서원에서도 한류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한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한류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K-pop과 연계한 선비춤, 선비전통밥상, 드라마 <킹덤>에서 인기를 끌었던 갓을 활용한 선비의 다양한 복식 등이 그 예다. 이는 국내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 적중할 수 있는 콘텐츠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인기를 끌면서 조선시대 선비문화와 서원향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좋은 선례다.

여섯째, 서원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서원에는 문화상품이 없다. 지역의 특산품을 연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있으나 문화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관광객들은 자신이 방문한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구매하여 돌아가는 것으로 그 관광지를 추억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서원에는 관광문화상품도 없고, 문화상품가에도 없다. 관광객들이 여행하면서 실제로 착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든 선비 갓, 작은 복주머니, 선비 옷을 입은 미니어처, 선비 옷(유아용, 성인용), 닥종이로 만든 공책과 붓, 서원의 하루를 삽화로 그린 엽서나 서원의 사계절을 찍은 엽서, 자석 등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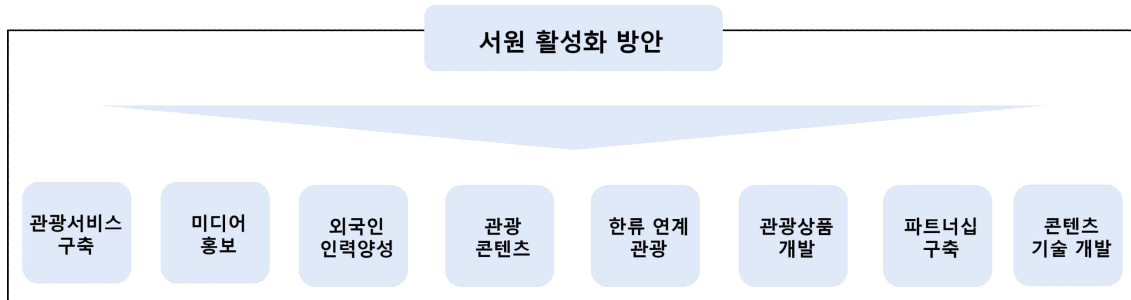
일곱 번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서원의 운영기관이 혼자 서원 홍보의 전반적인 것을 맡아 꾸려 나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서원과 관광업계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감콘텐츠와 같이 문화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메타버스나 생성형 AI 등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이러한 문화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유용하다. 서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영상을 보고, 그 시대의 문화 산물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다양한 콘텐츠 기술로 활용하는 것은 최근 문화관광의 트렌드 중의 하나다. 4차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미디어파사드 등 빛을 활용한 콘텐츠도 대세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온 문화유산인 서원과 잘 어울리는 매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눈앞에서 퇴계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선비들끼리 뛰어놀고, 서원을 관리하는 선비들이 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AR 고글을 쓰고 하는 서원 체험이나 서원의 사계절, 서원이 건립되었을 때부터 변화해 온 모습을 보여주는 서원의 변천사, 도산



서원의 시사단에서 과거를 보던 사람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아래 <그림 7-6>은 서원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7-6> 서원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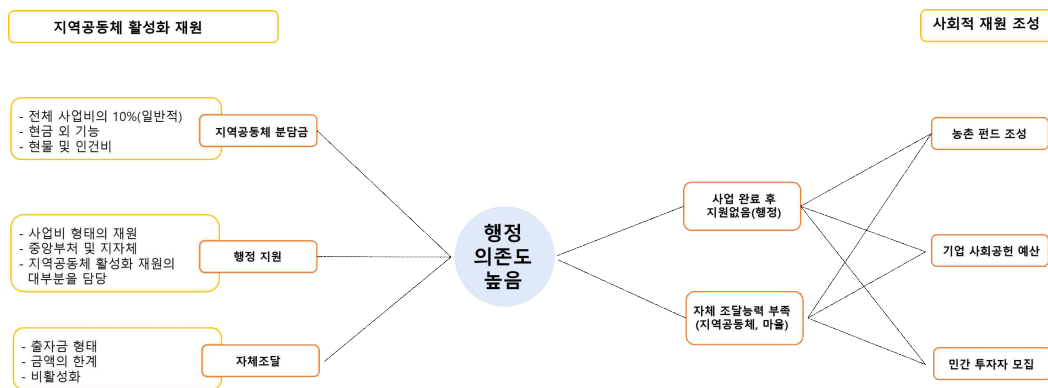


### 제3절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원 조성

#### 1. 지역공동체 자원 활성화 방안

현재 일부 사업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지역공동체 분담금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원이나 지역공동체 재원을 중앙부처나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출자금을 통한 재원 조성의 사례도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 이처럼 행정의 존도가 높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 사업 완료 후이다. 행정의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지속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가능한 마을은 극히 일부이다. 이에 따라 마을 대부분은 후속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사업 선정에 실패할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7-7>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원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우선, 재원 조상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원과 사회적 재원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공동체 재원은 선천적으로 행정의존도가 높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원은 지역공동체 분담금, 행정 지원, 자체 조달 방식으로 재원을 충족한다. 사회적 재원은 농촌 펀드 조성, 기업 사회공헌 예산, 민간 투자자 모집 등의 방법이 있다.

<그림 7-7> 지역공동체 자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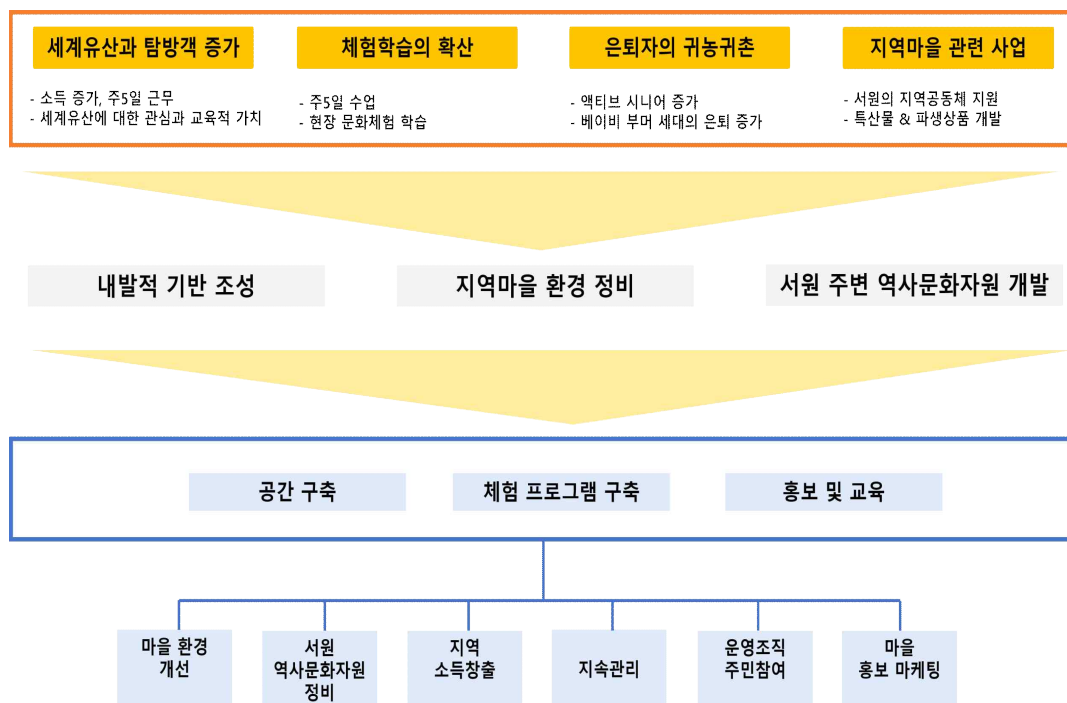
경제적 기반이 이미 취약한 농촌 마을 내에서 활성화 재원을 온전히 조달하는 것은 현재 한계가 있다. 또한,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는 행정이 무한책임을 마을 기업사업, 농가 맞춤형 사업 등 담당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행정 이외의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재원의 조성은 사업 단위로 재정 지원을 하는 행정의 한계와 자체적 재원 조달 능력을 상실한 마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하나의 대안이다. 사회적 재원의

조성 방법은 펀드를 통한 조달, 기업의 사회공헌팀과의 결합,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출자 등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재원의 조성 and 함께 자원 운영 방법과 마을과의 관계 구도의 설정이다. 역시 중요하다. 이때의 자원은 그 성격에 따라 전액 상환, 대체 상환 등과 같이 반대급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

## 2. 재원 조달<sup>100)</sup>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들이 주로 행정의 지원으로 추진되어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향토, 문화, 자연자원 같은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파괴된 지역공동체 복원과 활성화가 가능하며,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구실을 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자부담은 별도이다. 마을기업 선정 시 지역 특산물에 보다 집중한다는 점과 마을 내 1개의 마을기업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점이 존재하나 과정상에 서원 인근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사업 운영자의 몫이다.

〈그림 7-8〉 서원의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전략



포괄보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계획안을 작성하고 사업배정을 받는 과정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예산부담 역시 감당해야 한다. 마을기업 사업과 포괄보조금의 경우 사업추진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 외 다수의 농촌 마을 지원 사업들 역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역사 문화자원과

100) 배기택,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 만들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97~198쪽.

의 연계를 고려해 추진한다면 지역공동체의 활용 및 관리와 효과적인 마을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재원 조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의 종류가 아니라 역사 문화자원을 마을 자원으로써 인식하고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며, 마을만들기와의 접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결국 사업 운영의 묘수라 할 수 있다.

### 3. 기대효과

끝으로, 서원 지역공동체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복원 효과가 있다. 지역공동체의 표본으로 언급되던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의 공동체도 와해하고 소멸하고 있다. 지역이나 이웃과 관계에는 변함없으나 주민 이탈과 고령화로 현 거주민의 자연사와 함께 마을 자체가 사라질 상황이다. 농촌의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주민 수에 달려 있는데, 출향인사와 귀농·귀촌과 같은 신규 전입자들을 통해 주민 수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이탈의 원인인 열악한 수익 창출 기반과 거주환경, 교육환경은 신규 전입자들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또한, 지역민의 텃세도 상존하고 저해 요인 중 주요한 원인이다. 젊은 층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환경 문제인데, 교육 문제 개선은 아주 긴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과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연계 수익원을 개발하고 거주환경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우선하여 중년층의 신규 전입을 유도한다면 존폐위기의 농촌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수익 창출 효과다. 관광객이나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숙박, 음식, 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체험학습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답사, 교육,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탐방객이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재료비, 인건비, 공간사용료를 제외하고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탐방객이 마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료 외에도 추가적인 체험과 음식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도동서원처럼 주기적으로 인근 협동조합이나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프리마켓이나 벼룩시장을 개최해 특산품이나 서원 관련 캐릭터 등을 판매하는 것도 수익 창출의 일환 중의 하나다. 따라서 산지 가격으로 판매되는 특산물은 탐방객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역사 문화자원 자체로 수익 창출에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역사 문화자원으로 방문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마을과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여 보다 근본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농촌 마을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산물을 특화하고 좋은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탐방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 및 주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많은 시설조성 비용과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건물운영비가 마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존재의 유일성과 기록성 등 역사 문화자원이 갖는 특징들은 마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 문화자원 자체의 집객 효과는 마을로서는 매력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농촌은 관리 부재로 마을의 흉물로 남은 역사 문화자원과 도시로의 이탈로 남겨진 유휴공간 등으로 경관적 측면 외에도 고령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 부족과 지역주민 공동시설의 노후와 같은 거주환경 측면에서 열악하다. 지역공동체와 서원 인근 마을의 역사 문화자원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더불어

어 체험학습을 위한 학습장,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해 조성하는 휴식 공간, 체류형 탐방을 위한 숙박시설, 방문객들의 시선을 의식한 경관 저해 요소 개선 등은 경관 개선 효과와 거주환경의 개선 외에 마을의 전반적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안동 도산서원의 군자마을과 예끼마을은 가장 좋은 모범 사례 중의 하나다. 하지만 같은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의 병산리 마을은 도로도 여전히 비포장 길이고 10여 채 가구밖에 없는 소외된 고령화 소멸 마을로, 환경조성이 되지 않은 실패 사례 중의 하나다.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서원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을 늘린다면 소외되는 곳 없이 서원 주변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넷째, 서원의 역사성과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효과가 있다. 서원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서 역사 문화자원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역사 문화자원은 탐방객 즉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마을은 수익을 창출한다. 따라서 마을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발생시키는 역사 문화자원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재정 부족에 따른 서원 역사 문화자원의 관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마을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탐방객은 온전히 보존된 역사 문화자원을 답사 및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필암서원은 다른 세계문화유산 서원 달리 관리사무소나 관광해설사 사무실이 없고, 마을 이장이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문화재 지킴이 역할과 관리 보존 역할을 하는 등 1인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제초 작업 등 서원 주변 관리를 외주 용역에 맡겨 용역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에는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원 관리에 대한 인근 마을주민의 관심은 더욱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다. 서원 관리 등에서 소외된 지역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역할과 매칭 사업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원의 역사 문화자원과 보존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절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논문·보고서〉

- 김문기, 「도산구곡(陶山九曲) 원림(園林)과 도산구곡시(陶山九曲詩)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 43(1), 2008.
- 김지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사업의 현황: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제2권 1호, 무형유산학회, 2017.
-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남계서원 소장」, 대동한문학 제75호, 대동한문학회, 2023.
- 박병준,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지역사회학회, 2012.
-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제6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박정민·권이선,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ISSUE BRIEFING Vol.226, 2020.
- 방미영,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고찰: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Vol.40,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9.
- 방미영, 「향교·서원의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 배기택,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건웅, 「지역소멸과 지역재생의 해결 방안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43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 이재만·김진희, 「지역문화 주제공원으로서 유교랜드 특성」, 글로벌문화콘텐츠 20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景觀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태지호·권지혁, 「지역 역사 인물의 문화콘텐츠 기획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30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팽홍서, 「한·중 구곡(九曲) 원림(園林)의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19.
-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문화재청, 2020.
-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2020.
-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7.
-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 단계 도입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2022.
- 「세계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찾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21선」,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2022.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2022년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2.
- 「세계유산협약」 전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2018.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2.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 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 계획 연구」, 문화재청, 2021.  
 「울주 대곡천 일원 명승 지정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3  
 「유교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정읍 토탈랜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 정읍시, 2019.  
 「통계로 보는 농촌: 사람과 공동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2017.  
 「2023년 해설사 현장교육 자료집」,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3.  
 「2021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방문객 관리연구」,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2021.

#### 〈홈페이지〉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gyeongju.go.kr/>  
 경주시: <https://www.gyeongju.go.kr/>  
 도산서원 홈페이지: <https://www.andong.go.kr/>  
 디지털달성문화대전: <http://dalseong.grandculture.net/>  
 병산서원 홈페이지: <http://www.byeongsan.net/>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문화재청 2023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https://culturalheritage-mediaart.com/#map6>  
 소구리 문화지도 <http://www.soguri.com/>  
 소수서원 홈페이지 <https://www.yeongju.go.kr/>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https://k-seowon.or.kr/>  
 세심마을 [http://sesim.go2vil.org/sub1/sub1\\_02.php](http://sesim.go2vil.org/sub1/sub1_02.php)  
 안동관광 <https://www.tourandong.com/>  
 안동시티투어 [http://www.gbtour.kr/coding/sub2/sub2\\_2.asp](http://www.gbtour.kr/coding/sub2/sub2_2.asp)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https://www.icomos-korea.or.kr/>  
 예끼마을 <http://www.yeggistory.com/>  
 장성군 <https://www.jangseong.go.kr/>  
 전라북도 마을기업 <http://xn--ok0bw3tdujzob.kr/html/view.html?num=13&local=13>  
 전북연구원 <http://www.jd.re.kr/>  
 정읍관광: <https://www.jeongeup.go.kr/>  
 주소정보누리집 <https://www.juso.go.kr/>  
 통계청 <https://kosis.kr/>  
 함양군청(<https://www.hygn.go.kr/>)  
 함양문화관광: <https://www.hygn.go.kr/>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 〈인터넷신문〉

“경북공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이어진 퇴계의 ‘참뜻’...270km 귀향길 재현 마무리”, 안동인터넷신문, 2023.10.09.

“경주시 ‘2020 옥산서원 한·중학술대회’ 개최”, 대구경북뉴스, 2020.10.20.

“논산시,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3주년 기념 축제 개최”, 브레이크뉴스, 2022.09.01.

“논산시, 한옥마을 홍물로 방치 ... 91억6천 8백 만 원 낮잡”, 코리아플러스, 2021.04.21.

“도동서원 과거시험 온 외국인들 ‘장원급제요~’”, 시니어매일, 2023.07.13.

“도산서원 계묘년 춘계향사 봉행”, 경상매일신문, 2023.03.07.

“대구 달성 도동서원·화원동산,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 경북도민일보, 2021.05.09.

“봄의 문턱서 영주 소수서원 돌레길 걸으며 지친 일상 위로 받으세요”, 경북도민일보, 2022.03.01.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중축) 건축설계공모”, 2022.12.15.

“류태영 ‘정읍의 역사와 문화·관광 등을 활용한 성장 동력 확보할 터’”, 아투시티뉴스, 2023.02.09.

“선비들이 노니던 곳서 고즈넉한 휴식을”, 경북매일, 2022.07.26.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사계 인문학 대축제 성료”, 대전일보, 2023.09.11.

“세계문화유산 함양 남계서원, 전통제례행사 개최”, 서울경제TV, 2022.03.10.

“안동시, 유네스코 가치 체험하는 ‘병산서원 스테이’ 운영”, 쿠키뉴스, 2023.08.31.

“옥산서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협약 체결”, 한국강사신문, 2023.03.20.

“영주 선비문화축제 5일 개막”, 조선일보, 2023.05.04.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춘향제 봉행”,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 보물 지정”, 조경신문, 2022.08.03.

“자연서 여유 찾고 유적서 인성 함양...힐링 쉼터 ‘발돋움’”, 2018.08.08.

“장성군,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명품 국악공연’”, 신아일보, 2023.08.31.

“장성군, 필암서원 우동사에서 고유제 봉행”, 투데이광주전남, 2019.08.20.

“장성군,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선정”, 장성군민신문, 2020.08.23.

“전북학 대중화... 무성서원 위상 정립 매진”, 2021.12.13.

“전라남도, 2021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4곳 선정”, 머니투데이, 2020.08.21.

“정읍시, 무성서원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 본격” 전민일보, 2021.07.28.

“정읍시, 세계유산 무성서원 관리·활용 방안 추진”, 전북도민일보, 2019.07.09.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 전북도민일보, 2023.07.20.

“조선 특별과거시험장 '도산서원 시사단' 직접 관람한다”, 유스픽, 2023.02.02.

“충남 부여 세도초,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 실시”, 충청매일, 2023.09.24.

“함양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추진 난항”, 경남도민일보, 2023.03.26.

“함양군, 상림공원~개평한옥마을~남계서원 투어버스 운영”, 미디어팜, 2022.10.01.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선정...국비 등 20억 확보”, 쿠키뉴스, 2023.06.15.

“전북 정읍.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2019.12.06.

“최치원 품은 마을 속 서원, 세계로 나아가다... 정읍 무성서원”, 2019.12.03.

## 부록

부록 1: FGI 설문조사 요약

부록 2: FGI 설문조사

부록 3: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 <부록 1> FGI 설문조사 요약

각 서원별 설문 응답자 전체의 FGI 설문 응답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고 있다.

### 1. 서원의 보존 측면에서의 분석

#### 1)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서원 인근 지역민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은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을 유지하고 있고 너무 예쁘다. 지역민은 서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관광객에게 친절하여야 한다.</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객은 옛 모습을 유지하는 문화재를 훼손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li> <li>병산서원은 전망이 아름다운 만큼 관광객의 매너도 중요하다.</li> <li>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서원의 역사적 의의를 알고 갔으면 한다.</li> </ul>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물 350호가 있으며 김굉필 선생 모신다. 관광객은 쓰레기와 소음 배출을 삼가야 하며 보존을 위한 예산이 요구된다.</li> <li>도동서원은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객은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li> </ul>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과 주민 친숙한 문화재로, 세계유산 등재의 자긍심을 갖고 관광을 기대한다.</li> <li>서원은 아름다운 경치, 목죽도, 하서 김인후 선생이 자랑스럽고, 관광객은 배우고 체험하기 바란다.</li> <li>평지에 위치한 필암서원은 접근이 편리하고 해설자 배치로 서원에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관광객은 지역민에 관심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li> <li>필암서원은 무료이며 마을에 자리해 쉬운 접근성을 가지며 지역민은 세계유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i> <li>평지에 위치한 필암서원은 건물 배치가 편안하며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li> <li>세계유산 등재 후 지자체 및 문화매체의 활발한 홍보로 관광객 증가하였고, 서원을 포함한 다양한 볼거리를 즐겼으면 한다.</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만큼 원형이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li> <li>의병 발생지, 독립운동의 중심, 최치원과 정극인의 초상화, 선비들의 유적이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탐방이 가능하다.</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2)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서원 관계자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관계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유림 전체가 서원의 보존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민은 세계유산 등재에 자긍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li> <li>조선 최초 서원으로 역사적 문화적 의의가 크다. 서원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초 학술자료 제공, 다양한 콘텐츠 발급이 시급하다.</li> </ul>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의 강학처이자 퇴계 선생의 훈향을 간직한 공간이다. 방문객을 위한 서원의 홍보와 이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li> <li>도산서원은 한국 서원 중 가장 전통을 잘 보존하고, 변화와 현대화를 추구하며, 여성 참배 등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관광객에게는 퇴계 선생의 향기를 공부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주고 있다.</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산서원은 자연과 건축을 조화롭게 결합한 건축물로,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li> <li>병산서원은 원형을 보존하고 현대 교육기관을 보유한 서원으로 방문객은 예를 갖추어야 한다.</li> <li>병산서원은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뛰어나다.</li> </ul>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산서원은 고급 건축 자재와 사색적인 사상을 반영하였다. 방문객은 예절을 잘 지키지 않으며, 인솔자의 해설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지역 문화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유학봉사자와 관련 프로그램 필요.</li> </ul>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 주변 경관 아름답고, 학생들의 서당 체험 성과가 발전한다. 관광객은 서원 내에서의 예절을 중요시해야 한다.</li> </ul>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의견 없음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성서원은 독특한 특성으로는, 지방관 모시기, 마을 공동체와 함께 있는 서원, 위기 지학을 실천, 구국의 창의적 역할 등이 있다. 방문객들은 예의를 갖추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li> <li>무성서원은 마을 중심에서 주민과 동화하며 창의를 지닌 특별한 서원이며, 세계유산 등재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3)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동의 도산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퇴계 이황 선생의 서원이다. 이 등재로 서원은 교육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활용되며,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서원을 아끼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li> <li>•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의 서당과 농운정사를 갖춘 서원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에게 보전과 전승을 중요시하고 있다. 관람객은 음식물 반입 금지와 금연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하였으면 한다. 보존과 활성화 균형 찾으며 관광객 유치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li> </ul>
병산서원	의견 없음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의견 없음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의견 없음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성서원의 장점으로 마을 중심에 위치하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관심이 증대되었다.</li> <li>• 무성서원은 자연경관보다는 접근성과 지역공동체 참여에 중점을 두어 건립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 증가로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고 보존 및 활용에 노력하고 있다.</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4)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서원 해설사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해설사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서원은 이황 선생의 성리학과 조선시대 사상을 체험하고 공부하는 장소로, 세계유산 지정 이후에는 더 많은 관심과 퇴계 선생의 성리학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지역민은 친절하고 관광객은 질서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li> <li>•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450년 학맥 유지와 여성 성역화가 무너졌다. 세계유산 등재 후의 관광객 변화, 안동 이미지 개선, 한국국학진흥원의 영향을 주었다. 방문객의 퇴계 선생의 경사상을 배우가 가길 바란다. 문화가치 보존을 위한 해설사 배치, 지역 활성화, 상가 활성화가 필요함.</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로 안동의 홍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면 좋겠고, 방문객들은 질서 의식을 갖고 공중도덕을 준수하길 바란다.</li> <li>•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다. 방문객은 서원 내에서 예절을 중요시 해야 한다.</li> <li>• 사원의 위치가 학문과 정서 함양에 적합하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서원의 기능을 미리 알고, 서원스테이 등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li> <li>• 자연과 조화된 건축물이 자랑스럽다. 방문객에게 목조건축 기술과 교육제도 홍보가 필요하다.</li> </ul>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외 자연 환경 및 독락당과의 연계하여 인성교육 장소로 활용도가 높고 삼국사기가 보존되어 가치가 높은 서원이다. 방문객은 시설물 안전과 쓰레기 처리를 잘 해야 한다.</li> </ul>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구조가 독특하다. 방문객은 은행나무와 시설물의 보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li> </ul>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암서원의 특별한 유물은 목죽도와 계회도이다. 세계유산 등재로 홍보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방문객은 과도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li> <li>• 필암서원의 입지적 특성은 하서 선생에 대한 '경관의 예'를 구현하였다. 방문객은 장성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길 바란다.</li> <li>• 필암서원은 전남 대표 서원으로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해설사 역할 강화가 요구되며 방문객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가면 좋겠다.</li> <li>• 필암서원의 '경장각'은 군신도 목판을 보관 보존하는 곳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많은 제재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방문객을 위한 전문해설가 양성이 필요하다.</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중앙에서 주민과 교화하며, 구국을 위한 배움을 실행했던 서원으로 답사가 아닌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li> <li>• 무성서원은 관찰사와 지역현감이 관리하는 독특한 서원으로 학문을 배우고 실행하는 곳이다. 세계유산 등재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방문객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주로 관심이 있으나 역사와 유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하면 좋겠다.</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5) 서원 보존에 관한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성서원은 자유로운 배치와 성리학의 비조를 주향으로 모신다. 세계유산 소유로 자긍심 고취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증가하지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탄생 배경과 영향을 함께 이해하며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li> </ul>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성서원은 지폐에 그림이 있는 퇴계선생의 생가로, 낙동강 뷰와 유명한 시사단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광객들이 사전에 지식을 습득하고 방문하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다.</li> </ul>
병산서원	의견 없음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의견 없음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암서원의 평면형 구조는 인간의 평등사상을 반영하며 다른 서원과 차별화된다. 문정공 하서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며 방문객에게 경의 사상을 홍보하길 바란다.</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성서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차별없는 교육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방문객들에게는 무성서원의 가치와 지역 정읍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한다.</li> <li>무성서원은 마을과 함께 자연과 어우러져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세계유산 등재로 무성서원이 더 널리 알려졌고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이 높아졌다. 방문객들에게는 무성서원의 내부적인 정신과 역사를 알고 갔으면 한다.</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 2.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의견 분석

1)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서원 인근 지역민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가자들은 이항의 가르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글쓰기 체험을 선호하며, 운영적 지원이 있으나, 야간 개장 확대 및 주차장 가로등 설치 등 향상을 희망.</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을 통해 지역사회는 자연환경을 배우고 있음. 지자체의 관리와 예산확보가 필요.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에 지원 진행 중. 학생들을 위한 서당 체험 및 선비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며, 하회마을 소확행 프로그램과 관람도시 육성사업 등을 추진 중임.</li> <li>• 서원을 통해 유교문화와 충효정신을 배울 수 있음.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인문캠프이며, 사진전, 만대루 개방 등을 추진 원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li> <li>• 서원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서원스테이와 서원 소확행 등을 선호. 서원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단체로는 하회마을 보존회 등이 있음. 서원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음.</li> </ul>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사고와 배움에 도움을 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지원이 필요. 시설 확대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며, 유생들의 먹거리 체험을 원함.</li> <li>• 관광객 단체가 방문 시 장소가 협소함.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및 예산 확보 필요. 유네스코 등재 이후 운영 지원에 기대가 크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통해 유교문화를 알릴 계획. 도동스토리 협동조합에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li> </ul>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교문화에 대한 세부적이고 깊은 체험을 희망함. 초등학생 위주의 백일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면 함.</li> <li>• 서원의 시설 유지 보수, 제향 행사 지원, 주변 환경 정비, 문화재 보수, 청정 보수 등을 통해 서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학술 강연회 및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있다.</li> <li>• 하서 김인후 선생님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깊게 개발되어 알리고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해설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장성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서원 운영을 지원함. 숙박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li> <li>• 방문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직접 체험 활동을 선호함. 서원은 보조금으로 장성군 자체에서 직접 운영되며, 유물 전시관에서 해설자가 상주하여 방문객에게 안내를 제공함. 활기찬 서원을 희망함. 세계유산 등재후 방문객이 증가함.</li> <li>• 숙박형 장성 여행을 개발하고, 중심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심을 높이고 많은 방문객을 유치를 희망함. 현재 해설사 고정 배치, 격원제 책자 발간,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됨. 문화재청과 군 관광과에서도 운영을 지원함. 해설사들의 복지에 대한 고려 원함.</li> <li>• 청림 문화 및 예절 교육 등을 운영하고, 지역 학교나 청소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원을 알리고 문화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표적인 운영 단체로는 장성 청소년 센터에서 새로운 선비를 키우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음.</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홍보가 필요하며, 관광 홍보와의 연계</li> </ul>

	<p>가 필요함.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 부족이 언급되었음. 연계 프로그램의 미흡함과 학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부재가 지적되었음. 더 긴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설사와 상주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체험학습 등 함께 하고 장시간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무성서원의 주제성을 강조하고 해설사의 안내의 존을 탈피하여 안내판 적극적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함.</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 2)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서원 관계자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관계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으로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 증가 중. 소수서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원 활성화와 교육, 서책 발간에 노력. 영주시에서 서원 시설, 박물관 관리와 관광객 유치 진행. 제향의 보존에 젊은 세대 참여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 필요.</li> <li>• 지자체와 소수서원 유림, 문화단체가 협력하여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임. 서원부지 사용료와 지자체 보조금을 활용하여 운영비 충당함, 초·중고학생 대상 의무적 연수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성립이 필요.</li> </ul>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과 도덕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서원운영위원회가 서원 운영, 관리에 관여하고, 안동시에서 관리사무소 설치함. 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주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며 유적 보존 위해 현장 관리 진행.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어려움 존재, 제도 도입과 재정 지원 필요.</li> <li>• 각종 교육 및 의례와 전통 유지와 계승에 퇴계선생 정신을 배우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 중임. 지자체가 도산서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원하며, 입장료 일부를 서원 운영에 지원. 서원의 본래 기능인 교육과 존현 기능 복원을 위해 재정적 지원 필요함.</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스테이 확대 및 교육관 건립이 필요함. 해설사의 역할이 서원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으로 서원의 중요성 인식과 홍보가 서원의 발전에 중요함.</li> <li>• 서원스테이는 참가자들에게 선호되는 프로그램이며,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서원을 운영하는 단체로는 사단법인 하회마을보존회, 스테이, 소학회 등이 있다.</li> <li>•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룬 곳은 보존 자체로 중요하지만, 옛 글읽기와 의례행사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li> </ul>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으로는 정조 임금의 어서御書와 제문祭文 재현 등 있음. 2023년 3월부터 초등학생 체험학습과 유림 단체 방문 프로그램이 있음.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균관 유교아카데미 강좌가 높은 호응. 춘추 향사에 서원 운영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약간 있음.</li> </ul>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수련 가능한 수련원 설립을 희망함. 현재는 한국인 성예절원과 학생들 체험활동 진행 중. 군청에서 향사 2회시 각 200만원 지원 및 주변 환경 정비함. 누리길 조성사업 후 운영권을 도동서원에 위임하</li> </ul>

	여 주민 참여 공간 조성과 도로명 수정을 요청함.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의견 없음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수재를 활용하여 차방 개설 후 역사와 문화 알리는 장소로 만들기 원함. 예절과 협동정신으로 발전. 배향인물의 사상과 문화를 계승하고 제향 의례와 전통문화 공유. 무성서원회 주관으로 춘향제와 추향제 주최, 발전 모색, 삭, 망 봉심 진행.</li> <li>서원지 재발간과 해설사 임명시 서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인 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향사와 삭망 분향례에 참가자 질문과 관심 증가. 무성서원 임원과 유림회로 행사 실시하고 있음. 춘추향사와 삭망분향례 운영 경비지원 됨.</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 3)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산서원 선비체험과 교육연수 프로그램 다양한 참가자에게 제공 및 야간 운영으로 힐링공연과 야간 경치 체험프로그램 기획 중. 선비문화수련원 활용이 선호되고 추천됨. 도산서원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은 시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도산서원 활성화 추진.</li> <li>선비문화와 상덕사 알묘 체험프로그램 선호. 서원은 전통문화 재해석과 현대반영 필요함.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있음.</li> </ul>
병산서원	의견 없음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의견 없음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의견 없음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하는 추가프로그램이 없다.</li> <li>강연과 공연, 선비체험, 정가, 서예강습, 국내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 관리 단체로는 무성서원회, 춘추향제, 병오창의 기념제, 서원보존관리 등이 있음. 설립과 운영에 특별한 지원 없음.</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4)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서원 해설사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해설사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교육, 선비수련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상부상조 정신으로 지역 문화가치 보존 및 활용 강화. 도산서원 해설자로 활동 및 관광객에게 즐거움 제공.</li> <li>• 퇴계의 삶과 학문에 대한 해설과 선비수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북문화 관광 해설사, 도산서원 수련원, 참알기 해설자 등의 단체가 운영됨. 도산선비 수련원 협력에 해설사의 한계가 있음.</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에서는 학문 연구, 인재 양성, 나라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유네스코와 실물-만대루의 지원과 관심을 통한 서원의 활용이 기대됨, 엄격한 관리 주체를 통한 보존과 활성화가 중요함</li> <li>• 성공적인 운영에 서원스테이와 세미나 지원이 있음. 서원스테이 내실화와 활성화 필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및 공개 확대 중요.</li> <li>• 서원의 역할로 지역사회 교화 기능이 중요. 춘.추 향사 등 계속 지속하는 프로그램 있음. 서원스테이 프로그램도 운영 중.</li> <li>• 서원에서 충효사상을 배움. 학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서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필요.</li> </ul>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안강의 인품을 배운다. 어린학생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서원역사, 선비체험, 서예체험 등이 있다. 서원은 과학과 기술 중심의 교육장소가 아닌 인문학 소양 교육장소로 활용 필요. 서원 운영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지역 단체가 서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li> </ul>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문화재와 배향된 인물의 사상에 관심을 두는 프로그램에 만족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함. 인성예절원이 입주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함. 현장 체험 학습이 서원 강당과 전사청에서 이루어짐.</li> </ul>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 지원 및 해설사의 환경과 보수 개선이 중요. 향교와 연관지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원 보존과 문화 활용. 서원홍보 및 해설사 활용 및 환경 개선 필요.</li> <li>• 두루마기와 버선 모자 착용한 선비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높음. 서원과 지역 간의 다양한 가치를 연구하고 활용하길 원함.</li> <li>• 머무는 서원을 만들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li> <li>• 서원 정책과 재정적 지원으로 해설사의 집이 중요. 지역 학생들 유림과 예절 교육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소통이 중요. 서원 운영의 공개가 중요함.</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2회 서예(붓글씨쓰기) 교육 진행중임.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을 추진 원함. 서원을 통해 지역 역사와 문화 알리고 전통 정신 계승 발전.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 희망. 문화재청의 승인하에 다양한 문화행사 및 예산은 시에서 집행.</li> <li>• 옛 시대의 의상과 놀이 체험프로그램, 머무를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추진 희망. 중국은 서원을 학문을 계속하는 학교로 활용, 제례, 병오창의 기념식,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5) 서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해당 서원 문화원 관계자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객은 건물 관람에 관심, 경독 낭송, 서원 스테이 및 선비 생활 체험도 인기. 소수서원 유림이 서원 운영, 강의로 서원 이해도 높임, 지역 정부와 국가 지원으로 운영.</li> </ul>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벤트는 참여가 적음. 퇴계선생 예던길 걷기 행사는 그룹만 참가하는 것으로 보임.</li> </ul>
병산서원	의견 없음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의견 없음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들은 필암서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청림, 절약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함. 필암서원은 향토 문화 발굴과 보존, 교육 기능 활용을 최대한 추구. 향교서원 지원과 육성법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우나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접근성의 변화를 주고 싶음.</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음. 태산 선비마을과 무성서원을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존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일대 답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음.</li> <li>• 관광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알리고 교육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선비 문화 관련 자료 조사와 책 제작,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 9개 서원을 통합하고 홍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추진이 필요함.</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 3.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 분석

#### 1)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인근 지역민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을 배움의 장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행사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상생을 촉진하고자 함. 관광객수의 증가로 지역공동체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된다.</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도슨트(docent) 사업 지원 같은 정책 필요. 병산서원의 숙박, 식사, 교육 시설 등을 강화하고자 함. 세계유산으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공동체와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함.</li> <li>• 세계유산 등재로 식당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도움.</li> <li>• 세계유산으로 증가된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li> </ul>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의 공존과 상생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정부지원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함. 지역민의 경제활동은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협업에 도움이 됨.</li> <li>• 서원 보존과 활성화 방안으로는 서원 주변 둘레길 조성, 지중화 사업, 낙동강 정비, 강변공 등이 제안됨. 지역 단체와 협동조합, 마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추진 중임. 시와 군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 발전과 서원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li> </ul>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필요. 서원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로 자부심 발생 및 경제적 도움이 됨.</li> <li>• 향교와 지역 청년 유교회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중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구상이 요구됨.</li> <li>•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 됨. 춘향제와 추향제 등을 통한 지역민과 공존, 상생 및 참여가 가능해짐.</li> <li>•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도 활성화 되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듦. 서원 앞 마당을 활용한 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함.</li> <li>•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원함. 현장 학습을 통한 지역민과의 공존, 상생이 이루어짐.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음.</li> <li>• 서원 주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고 청소년 및 아동에게 접근성을 제공해야 함. 교육청과 청소년 기관과 협력하여 미디어 캠프를 개최하고 서원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이 진행 중임.</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통합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문화재를 홍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해야 함.</li> <li>• 단순한 축제에서 벗어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공동체의 자부감과 자긍심을 갖게 됨.</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2)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당 서원 관계자의 전체 의견 요약은

서원명	서원 관계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젊은 세대에게도 다양한 서원 관련 교육을 제공 및 강학을 원함.</li> <li>•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원을 활용하지만 관광수준이며 주민 참여와 상생이 부족한게 현실임. 관광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원함. 서원의 인성함양 콘텐츠 개발로 지역공동체간 질서유지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함.</li> </ul>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로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의 자긍심이 높아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수련원 설립과 운영은 공교육 보완하는 성공적인 모델이다.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을 위해 서원을 활용하고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방문객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음식, 숙박시설 등이 필요함.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닌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함.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있어야 함.</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로후 관광객 증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됨.</li> <li>•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원 고유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li> <li>• 지역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li> </ul>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와 협력으로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활용이 필요함. 관광객이 폭증하나 교통체증, 환경파괴만 유발하며 음식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기여 효과가 낮음.</li> </ul>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프로그램의 주민 참여도와 혜택 부족으로 관심이 낮음. 관광객은 많으나 지역주민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음. 지역공동체 협력을 위해 서원 관련 사업 주체가 서원이 되어야 함.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음식점 사업으로 변경도 요구 됨.</li> </ul>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의견 없음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후에 탐방객이 많아졌지만 지역 경제에 영향이 미미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음. 지역 활성화 사업 및 서원관계사업은 서원이 주체가 되어야 함.</li> <li>• 서원과 지역사회가 공동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와의 연대가 필요함.</li> <li>• 지역민과의 공존 및 상생을 위한 현장학습을 실시중임. 지역공동체와의 협</li> </ul>

	력으로 지역 생산물 판매와 서원 관련 출판사업, 제향관련된 교육사업 등이 있음.
돈암서원	의견 없음

3)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당 서원 지자체 공무원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과 지역 협력으로 다양한 학술대회와 연구용역을 진행함. 관광객의 유입을 위해 서원 주변지역의 다양한 전통가옥 등의 연계가 필요함.</li> <li>• 한국국학진흥원과 협력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 중임.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원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공동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 서원 관리인력을 지역민으로 확보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li> </ul>
병산서원	의견 없음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의견 없음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의견 없음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지역주의 타파가 필요함. 공동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li> <li>•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장학습을 보완하는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현재 지역사회에서 서원의 영향 크지 않고 친근한 서원이 되어야 함.</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4)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당 서원 해설사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해설사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의견 없음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양성과 활용이 중요함</li> <li>•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상덕사 수시 개방과 체험학습이 필요함.</li> </ul>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민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원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원스테이를 통한 애국정신과 서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도 개최 중임.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콘텐츠가 필요함.</li> <li>• 지역민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원 간 소통회의가 필요함.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이 필요함. 지역활성화를 위해 도로보수 및 관광객 쉽터가 필요함.</li> <li>• 선비 체험과 서원스테이를 통해 지역민과의 공생 및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 가능</li> <li>•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임.</li> </ul>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정부지원 및 관광객 유입증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됨.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활성화를위해 지역내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li> </ul>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주변 정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함. 세계유산 등재로 방문객이 증가함.</li> </ul>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백일장 등의 지역행사를 개최함.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실행이 중요함.</li> <li>•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뚜렷하고 실제적인 지원의 지속성이 중요함.</li> <li>•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하여 장기계획 수립과 지역민과의 공생이 중요함.</li> <li>•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람객이 증가하지만 지역주민은 경제적 또는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이 나오고 있음. 지역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등재 이후 탐방객이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원 주변 환경이 정화되고 있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소풍, 백일장 보다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수준의 답사나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함.</li> <li>• 서원에서는 漢詩 경연 대회와 한복 행사와 같은 지역과의 공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가 요망함. 지역공동체활성화와 경제활성화는 설문, 말, 탁상공론보다는 작은것부터 시행해야 함.</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5)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당 서원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의 전체 의견 요약

서원명	서원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 요약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과 지역공동체는 공동관계로 상호보완적 요소가 있어 서원을 중심으로 관광객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 짐. 일반시민의 평생교육원으로 활용도 좋을 수 있음. 선비생활 체험을 위한 서원스테이나 전통방식의 스테이도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음.</li> </ul>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산서원은 학술적 가치와 아름다운 경치를 가졌지만 관광객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 관광객 증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이 미미함. 서원을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심을 끌고 지역공동체와 경제에 기여해야 함.</li> </ul>
병산서원	의견 없음
옥산서원	의견 없음
도동서원	의견 없음
남계서원	의견 없음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으로 환경정비, 접근성 용이, 고정인력 배치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충족할 환경 조성이 필요함.</li> </ul>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재 이후 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원 및 주변 관광지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서원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li> <li>• 지역공동체 협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공존과 상생 및 지역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li> </ul>
돈암서원	의견 없음

## <부록 2> FGI 설문조사

###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FGI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조사는 <한국의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라는 주제로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26항 현행 전략목표(5Cs) 중 ‘공동체 역할 증대’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조사는 서원별 인근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 개발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 조사에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시고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해 주신다면 서원 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주관기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연구기관 : 비경

책임연구원 : 방미영 (서경대 교수)

공동연구원 : 이건웅(글로벌사이버대 교수)

태지호(안동대학교 교수)

이재민(대전세종연구원)

방진원(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연구소 연구원)

조장연(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단장)

안우리(스토리하우스 대표)

관련문의: mybang419@naver.com / 010-3348-8131

## 1차 FGI(대상별 심층질문) 설문 질문지

[질문-1] 귀하는 어느 서원과 연관이 있으신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소수서원(경북 영주) ② 도산서원(경북 안동) ③ 병산서원(경북 안동) ④ 옥산서원(경북 경주) ⑤ 도동서원(대구 달성) ⑥ 남계서원(경남 함양) ⑦ 필암서원(전남 장성) ⑧ 무성서원(전북 정읍) ⑨ 돈암서원(충남 논산)

[질문-2] 귀하는 누구이신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서원 인근 지역주민 ② 서원 관계자 ③ 해당 지자체 공무원 ④ 서원 해설사 ⑤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 ○ 서원별 FGI 및 설문 대상자 구성 및 비중

NO	대상	FGI(명)	설문(명)	비중(%)
1	서원 인근 지역민	2	20	33.3
2	서원관계자	2	20	33.3
3	해당 지자체 공무원	2	4	6.7
4	서원해설사	2	12	20.0
5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2	4	6.7
총계		10	60	100

### ○ 1차 FGI 문항: 귀하와 연관된 서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No	질문
질문-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9개 서원) 중 귀하의 서원은 다른 서원과 어떠한 다른 강점 혹은 차별점이 있는가요? 긍정적인 측면을 자랑해 주세요? 다른 서원은 어느국가? 아니면 한국의 다른 서원??
질문-2:	귀하의 서원은 지역에 큰 영광이고 자랑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지방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질문-3:	귀하의 서원이 마을(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지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에 실제로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지요?

질문-4:	귀하의 서원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외부인, 외국인 등 다양한 관광객에게 바라는 점은 있는지요?
질문-5:	귀하의 서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해 무엇을 배우며, 참가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나 요인은 무엇입니까?
질문-6:	귀하의 서원이 지역의 문화(가치)를 또는 지역이 서원의 문화(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7:	현재 귀하의 서원을 운영하는 단체(지역공동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는?
질문-8:	귀하의 서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9:	귀하의 서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률, 정책, 재정 지원 등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각 주체 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10:	귀하의 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또,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11:	귀하의 서원의 발전은 지역민과의 공존과 상생,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과 서원 간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좋은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소풍이나 백일장, 기타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요?
질문-12: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귀하의 서원 보존과 문화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나요?
질문-13:	끝으로, 본 조사는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협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귀하의 서원이라는 좋은 유형의 콘텐츠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록 3>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조사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26항 현행 전략목표(5Cs) 중 ‘공동체 역할 증대’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조사는 서원별 인근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 개발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 조사에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시고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문을 끝까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9월

주관기관: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연구기관 : 비경

책임연구원 : 방미영 (서경대 교수)

공동연구원 : 이진웅(글로벌사이버대 교수)

태지호(안동대학교 교수)

이재민(대전세종연구원)

방진원(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연구소 연구원)

조장연(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단장)

안우리(스토리하우스 대표)

관련문의: mybang419@naver.com / 010-3348-8131

**[질문-1] 서원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어느 서원과 연관이 있으신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소수서원(경북 영주)      ② 도산서원(경북 안동)      ③ 병산서원(경북 안동)  
 ④ 옥산서원(경북 경주)      ⑤ 도동서원(대구 달성)      ⑥ 남계서원(경남 함양)  
 ⑦ 필암서원(전남 장성)      ⑧ 무성서원(전북 정읍)      ⑨ 돈암서원(충남 논산)

2) 귀하는 누구이신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서원 인근 지역주민      ② 서원 관계자      ③ 해당 지자체 공무원  
 ④ 서원 해설사      ⑤ 해당 지자체 문화원 관계자      ⑥ 기타

지금부터는 서원의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선택하는 질문 문항입니다.

**[질문-2-1] ‘서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중요도 선택입니다.**

(각 질문 문항당 한 개의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 는 기회 제공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방문객의 시설 훼손과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 성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서원의 전반적인 보존 및 관리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2-2] '서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선택입니다.

(각 질문 문항당 한 개의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관광객에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 제공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방문객의 시설 훼손과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방문객을 위한 문화해설사와 현지 가이드의 양성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서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광의 유지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광객 유치와 보존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서원의 전반적인 보존 및 관리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3-1] '서원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중요도 선택입니다.

(각 질문 문항당 한 개의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서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3-2] '서원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 선택입니다.

(각 질문 문항당 한 개의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서원에서 유교사상과 충효정신 습득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부와 연계된 학점제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절교육과 도덕적교육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백일장 및 글짓기 대회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서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4-1] '서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중요도 선택입니다.

(각 질문 문항당 한 개의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 지않 다 ①	그렇 지않 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 다 ④	매우 그렇 다 ⑤
1)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서원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4-2] '서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만족도 선택입니다.

(각 질문 문항당 한 개의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 지않 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 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음식점 숙박시설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서원 둘렛길 조성사업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서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머무는 방문인 서원스테이 또는 전통가옥 스테이 활용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서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서원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5-1] '서원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중요도 선택입니다.

(각 질문 문항당 한 개의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 지않 다 ①	그렇 지않 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 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지역주의 타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서원지역의 전반적인 공동체 활성화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5-2] '서원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만족도 선택입니다.

(각 질문 문항당 한 개의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①	그렇 지않 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 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지역주의 타파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서원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자긍심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서원 활용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와 혜택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행사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 늘림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서원지역의 전반적인 공동체 활성화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질문-6] 응답자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 귀하의 지역 정착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① 5년미만      ② 5년~10년미만   ③ 10년~15년미만  
④ 15년~20년미만   ⑤ 20년 이상
- 귀하의 서원지역은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 한국의 서원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수행기관 : (주)비경

연 구 진 : 총괄디렉터: 강준영(비경)

책임연구원: 방미영(서경대학교)

참여연구원:

연구원 : 이진웅(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연구원 : 태지호(안동대학교 교수)

연구원 : 이재민(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 방진원(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연구소 연구원)

연구원 : 조장연(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단장)

연구원 : 안우리(스토리하우스 대표)

발행처: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발행일: 2023년 12월